

국립어원 2007-1-23

발간 등록 번호
11-1370252-000071-14

# 2007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 이기갑

연구 보조원 : 오청진 · 유효려 · 오근호

조사 지역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7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연구책임자 : 이 기 갑

2007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28
3. 전사 자료	31
제 1 편    구술발화	33
제 2 편    어휘	195
제 3 편    음운	255
제 4 편    문법	280

4. 제출 자료(별첨)

1. 전사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2.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3.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보존용 48,000hz 웨이브 파일)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작업용 16,000hz 웨이브 파일, trs 전사 파일
5. 지역어 조사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6. 구술발화 발간용 파일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2005년은 전남 동북부의 곡성군, 2006년은 전남 서남부의 진도군을 조사했기 때문에 2007년 조사는 전남 서북부의 영광군을 조사지로 선정하였다. 전라남도의 네 귀퉁이 지역을 차례대로 조사하는 것이 조사 지점간의 방언차를 극대화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영광군 안에서도 백수읍은 가장 서쪽에 자리잡은 곳이다. 서쪽 끝은 서해에 접하고 서해를 따라 구불구불한 해안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는 ‘백수 해안도로’라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이 찾는 곳이다. 바닷가 가까운 곳에는 염전이 발달해 있어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내륙쪽으로는 대부분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데, 특히 백수읍은 과거 부농이 많았던 곳이었다 한다. 현재 영광읍에서 백수읍 소재지까지는 승용차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조사지점인 백수읍 죽사리 명산은 영광읍에서 백수읍 경계를 지나 약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여기서 5분을 더 가면 백수읍 소재지가 나온다. 영광에서 백수읍으로 통하는 도로와 접해 있는 이 마을은 특별한 특징이 없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데, 지금은 20, 30여 호 정도의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 보기 어렵고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명산 마을은 강씨의 집성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대부분 타지에 나가 사는 관계로 집성촌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과거의 번창을 말해 주는 고풍스러운 주택들이 두어 채 남아 있어, 이 마을이 옛날에는 많은 소작인들을 거느린 부자들의 살던 곳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가운데 한 채는 광주에 사는 사람에게 팔렸다고 하며, 다른 한 채는 광주에 사는 강씨 집안의 소유주가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 뒤에는 ‘대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절사’라는 절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1.2 조사 기간

2007년 3월 24일-11월 30일

## 1.3 제보자

(1) 주제보자

이름 : 김 (여)

나이 : 72세(1935년생)

출생지 : 전남 영광군 군남면

거주지 : 전남 영광군 백수읍

선대거주지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직업 : 농업

경력 : 현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음. 군남면에서 시집온 이후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다가 남편을 따라 영광읍에서 수 년간 벼 장사를 한 뒤, 남편 사별 후 다시 현 거주지로 이주함. 이후 계속 이곳에서 거주함.

학력 : 무학

제보자의 특기 사항 : 다리가 걷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여 주로 집에서 생활함. 특별히 외출할 때에는 택시를 이용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말이 매우 빠르고 음성이 큰 편이다. 발음은 비교적 정확지만 빠른 말씨 때문에 축약이나 생략된 말이 많다. 청력은 매우 좋으며, 이해력이 좋아 조사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편이다. 다른 제보자들과 함께 조사할 때에도 제보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조사를 마치 퀴즈처럼 생각하여 잘못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다. 남자들이 사용하는 쟁기나 소에 부착하는 여러 기구 명칭 그리고 옷놀이 등의 이름 등은 잘 모르는 편이다. 과거에 농사를 직접 하였기 때문에 농사나 집안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는 편이었으며 제보자 자신도 이러한 과거의 경력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 (2) 보조제보자

이름 : 유

나이 : 76세(남)

직업 : 농업

거주지 : 전남 영광읍 백수읍

출생지 : 전북 고창군

선대 거주지 : 영광 불갑면

학력 : 무학

경력 : 할아버지때 영광 불갑에서 살다가 이후 전북 고창으로 옮겨 가 살았음. 제보자 나이 13세 때 현 거주지인 영광 백수읍으로 이사와 현재까지 살고 있음. 상머슴으로 농사만을 짓고 살아 왔음.

보조제보자의 음성 특징

치아가 좋지 않아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말끝이 흐리는 특징이 있다. 비교적 천천히 말하는 습관이 있어 음성을 전사하는 데 용이하였다. 질문을 쉽게 이해하고 농사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으며, 그밖에 민속이나 민간 요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식견이 있었다. 다만 간간히 전북 방언의 음성적 특징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술 발화의 제보자로만 이용하였다.

## 1.4 조사자

- (1) 이름 : 이기갑(목포대학교 교수)
- (2) 조사 일시 : 2007년 3월 24일-11월 30일
- (3) 조사 장소 : 주제보자와 보조제보자의 집. 다만 추가조사 때는 마을회관을 이용함.
- (4) 조사내용

- ① 구술발화 파일 (SJN\_YG\_25~ SJN\_YG\_33)
- ② 어휘 파일 (SJN\_YG\_01~ SJN\_YG\_14, SJN\_YG\_34~ SJN\_YG\_36)
- ③ 음운 파일 (SJN\_YG\_15~ SJN\_YG\_21)
- ④ 문법 파일( SJN\_YG\_21~ SJN\_YG\_24)

번호	파 일	녹음시간	조사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SJN_YG_01	1:53	어휘 (20101-20616)	김 / 조 / 강	이기갑	2007.3. 24
2	SJN_YG_02	1:38	어휘 (20616-20941)	김 / 조 / 강	이기갑	3/24
3	SJN_YG_03	0:45	어휘 (21001-21227)	김 / 조 / 강	이기갑	3/24
4	SJN_YG_04	1:02	어휘 21228-21340	김	이기갑	3/29
5	SJN_YG_05	1:00	어휘 21401-21528	김	이기갑	3/29
6	SJN_YG_06	1:07	어휘 21601-21742	김 / 조	이 기 갑 / 오청진	3/31
7	SJN_YG_07	1:12	어휘21801-22026	김 / 조	이 기 갑 / 오근호	3/31
8	SJN_YG_08	0:31	어휘 22101-22209	김	이기갑	4/3
9	SJN_YG_09	0:26	어휘 22210-22258	김	이기갑	4/3
10	SJN_YG_10	1:07	어휘 22301-22379	김	이기갑	4/3
11	SJN_YG_11	1:03	어휘 22401-22637	김	이기갑	4/5
12	SJN_YG_12	0:48	어휘 22701-22934	김	이기갑	4/5
13	SJN_YG_13	1:02	어휘 23001-23327	김	이기갑	4/10
14	SJN_YG_14	0:27	어휘 23328-23441(끝)	김	이기갑	4/10
15	SJN_YG_15	0:21	음운 31001-31034	김	이기갑	4/10
16	SJN_YG_16	0:50	음운 31035-32008	김	이기갑	4/17
17	SJN_YG_17	0:58	음운 32009-32054	김	이기갑	4/17
18	SJN_YG_18	1:00	음운 32055-32138	김	이기갑	4/20
19	SJN_YG_19	1:02	음운 32139-32234	김	이기갑	4/20
20	SJN_YG_20	0:58	음운 32235-32326	김	이기갑	5/01
21	SJN_YG_21	1:05	음운/문법 32327-40119	김	이기갑	5/01
22	SJN_YG_22	1:01	문법 40120-40357	김	이기갑	5/9

23	SJN_YG_23	0:46	문법 40401-41024	김	이기갑	5/9
24	SJN_YG_24	0:14	문법 41025-41116	김	이기갑	5/9
25	SJN_YG_25	0:16	구술발화(6.25)	유	이기갑	4/7
26	SJN_YG_26	1:08	구술발화(농사)	유	이기갑	4/7
27	SJN_YG_27	0:07	구술발화(6.25)	유	이기갑	4/7
28	SJN_YG_28	0:10	구술발화 1.3.2 발농사	유	이기갑	4/10
29	SJN_YG_29	1:05	구술발화 1.6.1-1.6.2(거주생활)	유	이기갑	4/10
30	SJN_YG_30	0:52	구술발화 1.6.3-1.7.1(금기-질병)	유	이기갑	4/10
31	SJN_YG_31	0:58	구술발화 1.2(일 생의례), 1.4(의생활)	김	이기갑	5/29
32	SJN_YG_32	0:55	구술발화 1.5(식생활), 1.8세 시풍속과 놀이	김	이기갑	5/29
33	SJN_YG_33	0:20	구술발화(대화)	이 박	, 김 , 이기갑	11.30
34	SJN_YG_34	0:37	추가 어휘	이 박	, 김 , 이기갑	11.30
35	SJN_YG_35	0:51	추가 어휘	이 박	, 김 , 이기갑	11.30
36	SJN_YG_36	1:00	추가 어휘	이 박	, 김 , 이기갑	11.30
합계		30:35				

## 1.5 조사 일지

### (1) 제보자 찾기(3.23/금)

금년 조사를 전남 영광군 백수읍으로 정하였다. 영광은 전남의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군이다. 2005년에 동북부의 곡성, 2006년에 서남부의 진도를 조사했으므로 전남의 네 귀퉁이 가운데 서북부 또는 동남부를 조사하는 것이 옳은 차례였다. 그래서 우선 서북부 지역으로서 영광이 선택되었다. 영광군의 백수읍은 영광의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가능한 한 서쪽 지역을 조사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되는 곳이었다.

일차 조사지와 제보자를 탐색할 겸, 새 디지털녹음기도 시험할 겸 조사를 떠나기로 하였



다. 이번 조사 여행에는 아내와 함께하기로 하였다. 목포에 거주하는 대학원생들을 일부러 불러 올 필요도 없고 봄철의 아름다운 풍광도 구경할 겸 드라이브 삼아 조사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것이다. 광주에서 22번 국도를 타고 영광읍을 지나 신평 나들목에서 빠져 나와 좌회전을 하면 백수읍으로 가는 길이다. 군서면을 지나고 백수읍으로 들어서니 오른쪽에 매화가 예쁘게 핀 고옥이 눈에 띈다. 상당한 부자가 살았을 법한 고옥들이 몇 채 있는 마을은 백수읍 죽사리 명산부락이었다. 마을이 예뻐서 동네 구경도 할 겸 마을 안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집들은 하나같이 잠겨 있어 도대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다. 집은 부잣집 커다란 한옥인데 잠겨 있었고, 그 밖의 다른 집들도 모두 잠겨 있었다. 동네 윗쪽으로 올라가니 한 집에서 사람 소리가 난다. 반가운 마음에 찾아들어가니 노인 두 분이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찾아온 내력을 설명하면서 회관이 있는 곳을 묻자 길 건너편에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오늘이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어서 회관에 가면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마을을 나서서 길을 건너 마을회관을 찾으니 아주머니들과 할머니 몇 분이 누워 휴식을 취하고 계셨다. 점심 시간이 막 지난 2시 경인지라 아마도 식후의 휴식을 취하는 중인 모양이었다. 회관을 들어가 다시 찾아온 이유를 묻자 선뜻 도와 주려는 자세가 아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노시는 곳을 묻자 백수읍에 있는 경로당에 모두들 모여 계시다고 한다. 다시 회관을 나서서 차로 2분 정도 걸리는 백수읍 경로당을 찾아가니 점심 후에 하나 둘 경로당에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중이었다. 여기서 한 분을 모시고 찾아온 이유를 묻고 요즘이 바쁜 철인지를 물어 보았다. 그러자 앞으로 열흘 후면 바빠질 것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들은 모두들 농사를 짓고 있는 탓에 4월부터는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다시 맨 처음 들어갔던 명산 부락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뵈었던 할머니택을 다시 찾았다. 그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돌아다닐 정도였다. 오히려 이런 불편한 다리가 조사하는 데는 이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할머니께 도움을 청하였다. 그리고 시험용으로 농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다. 방언 조사가 별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옛 생활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설명해 드렸다. 예상 밖으로 할머니는 달변인데다 아는 것도 많았으므로 체보자로서는 적격이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을 지키는 것이 일이라고 하였다. 친정은 백수읍에 이웃한 영광군 군남면이므로 특별한 흠은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연락을 취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을이 예뻐서 찾아 들어온 것임에도 뜻밖의 좋은 체보자를 만나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 (2) 1차 조사 (3.24/토)

토요일 아침 비가 내렸다. 비가 오면 분위기도 차분해져서 조사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고 한다. 아침 9시 아내와 함께 차를 몰아 백수에 도착하니 10시. 이미 방 안에는 체보자인 김 할머니와 함께 두 분의 친구 분이 계셨다. 한분은 조 (친정은 군남면), 다른 한분은 왜 이름을 묻느냐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점심 먹기까지 거의 두 시간을 내리 조사하였다. 김 할머니가 대부분 조사에 응하였고, 간혹 옆에 있는 두 할머니가 거들어 주었다. 때로 동시에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전사하는 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었으므로, 주제보자인 김 할머니가 모르실 경우에 한해 보조제보자들은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김 할머니는 예상대로 아주 빠른 말씨로 비교적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었는데, 때때로 올바른 답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을 오해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시기도 하셨다. 방언 조사를 일종의 퀴즈처럼 생각하시는 탓에 답이 틀릴 경우 자존심이 상하시는 모양이었다. 경우에 따라 주제보자보다 보조제보자가 정확한 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주제보자는 오히려 보조제보자에게 핀잔을 주는 등 제보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하였다.

12시 30분경 2시간 동안의 조사가 끝나고 백수읍 중국식당에 자장면 네 그릇을 주문하여 점심을 해결하였다. 극구 사양하시는 할머니들을 설득하여 겨우 점심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 동안에 김 할머니의 아들이 두엄을 텃밭에 뿌리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트럭 소리가 요란하였다. 아들은 한 차례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어머니가 참여하는 방언 조사 작업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명산 마을이 대대로 아주 부자 마을임을 자랑하였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특히 농업진흥공사에서 높이 일하다가 정년 후 전남대학교 토목과에서 시간강의를 하시는 동네 어른 이야기를 하였다. 듣고 보니 사촌여동생의 시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아내가 옆에서 덧붙이기를 그 매제의 성이 강서방이라는 것이었다. 이 마을이 강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라는 말을 들은 터라 그 어른이 나로서는 사돈이 되는 분임이 분명하였다. 맨 처음 우리 부부가 예쁘게 생긴 고옥과 매화에 취해 들어온 빌미가 되었던 그 집이 바로 사돈택이었던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도 좁은 것임을 새삼 실감하였다.

2시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하여 1시간 여를 조사하였다. 두 번 째 조사가 끝난 후 다리도 췌 겸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그 사이에 동네 여자분들이 두 분 더 놀러 오셨다. 그래서 모두 다섯 분의 할머니들이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30여분 이상 녹취할 수 있었다.

4시에 다시 50분 정도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5시경에 오늘의 조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 조사를 마친 후 제보자 인적 사항을 쓰면서 맨 처음 이름 알리기를 꺼려하였던 할머니께 다시 이름을 묻자 그때서야 강 (71세)이라는 이름을 알려 주었다. 강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 보청기를 끼고 있었지만, 곧잘 옳은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이 모두 홀로 사시는 것과는 달리 이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사셨는데, 택호가 양반이라고 하였다. 나중에 남자들이 알 만한 집짓기 등의 항목 조사에는 제보자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마을은 유독 남자가 귀하여 노인이라고 할 만한 남자는 겨우 두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루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각은 5시가 약간 넘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7시간을 꼬박 앉아 있으면서 조사를 하는 통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힘들었지만 덕분에 상당한 양의 조사를 끝낼 수 있었다.

#### <특이한 방언 어휘>

한:새깡이(곡깡이), 전소매(거름용으로 받아 둔 오줌), 매징개(벼를 타작할 때 나오는 이삭이 붙어 있는 검불), 비네(도리깨꼭지), 선일(소를 부려 밭이나 논을 가는 일), 선일꾼(선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 매고~이(자루가 달린 절굿공이), 준지쌀(메밀 껍질을 벗긴 것), 피묵(메밀껍질채 만든 묵. 색깔은 검다.), 준지묵(준지쌀로 만든 묵), 짱다리 뿔으면 밤이 길어진다. (시집간 딸이 고된 일에 힘들어 하는 것을 위로하면서 장다리무우를 뿔을 때면 낮이 짧아져서 일을 덜하게 된다는 뜻), 철매썰다(천장의 그을음을 청소하는 일), 웅구대기(자그마한 웅

기 그릇), 입때리(나팔 모양으로 주둥이가 벌어진 밥그릇), 소망(똥이나 오줌 등을 담아 두는 항아리. 변소), 보리깨:깨(보리 이삭 몽그라진 것을 가리키며 벽을 흙으로 바를 때 흙 속에 넣어 흙을 단단하게 함), 말캉(마루), 실:터말캉(옷방머리에 놓은 좁은 마루), 곰배~이(굽어진 곳. 풀곰배~이), 운:수(덤)

### (3) 2차 조사 (3.29/금)

몇 차례의 전화를 드렸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복분자 일을 하게 되면 밥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외출을 해야 한다거나 하시던 김 할머니가 어제는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 조사에 응하기로 약속을 하셨다. 박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 다시 백수를 찾아간 시간은 오전 10시. 김 할머니와 조 할머니가 집 밖 울타리 옆에서 풀을 뽑고 계셨다. 풀을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으시려는 계획이란다. 조사자를 본 김 할머니의 안색이 썩 반가워하지 않는 듯 하였다.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마루에 앉자마자 김 할머니는 지난 번 조사 이후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그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던지 저녁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아파 혼이 나셨다고 한다. 알고 보니 김 할머니는 본시 심장병이 있는지라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지난 번 조사 때 7시간 동안의 조사에 응하느라 과로하셨던 모양이었다. 더구나 식사를 제때에 하셔야 하는데 그날 점심이 조금 늦어진 것도 한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이 방언 조사를 남에게 미루려고 이궁리 저 궁리 해보았으나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다시 조사에 협조하기로 약속을 하고 말았다고 한다. 사정 이야기를 듣고 보니 너무 죄송스러웠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에 2시간씩만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조사도 중요하지만 조사 때문에 건강을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사자가 몇 차례 더 오는 일이 있더라도 제보자가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의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의 경험을 살려 조사 첫날부터 과도한 조사량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아직 적응되지 않은 분에게 처음부터 지나치게 긴 시간을 조사하게 되면 목도 아프고, 제보자도 조사의 의욕을 잃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10시 20분부터 1시간을 조사하고 잠시 동안의 휴식을 취하였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제보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조사는 무리가 따르므로 1시간씩 두 차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1시 30분부터 다시 1시간 동안의 조사를 실시하여 오늘의 조사를 마쳤다. 김 할머니는 대체로 12시 20분께 점심을 드신다고 하셨으므로 점심 시간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였다. 읍에 나가서 점심을 하시자는 권유에도 외식을 즐겨 하지 않으신다고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점심 대접은 포기하였다. 앞으로 하루에 2시간 조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오전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졌다. 상황에 따라 오후에도 와서 2시간 정도의 조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사하면서 ‘두루마기’에 대해 ‘두루매기’를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다른 항목의 조사 때 자연스럽게 ‘후루매기’가 나왔다. ‘두루매기’와 ‘후루매기’는 casual speech인가 아니면 non-causal인가에 따라 구별되는 듯하다.

#### <특이한 방언 어휘>

모요(무늬), 딱단초(버튼식 단추), 오매~이(호주머니), 둥구지(도롱이), 가짐썸(삼이나 왕골로 짠 신), 미영때~이(무명실 덩어리), 말다(마르다), 작쌀(간짓대를 받치는 막대), 간:대(간짓

대), 무어지다(다듬이질을 잘못하면 베에 구멍이 뚫리는 등 베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베가 무어진다’고 한다.), 독:을 좇다(다듬이 방망이로 베를 두드리지 못하고 다듬돌을 때릴 때), 호론허다(촉촉하게 물기가 있다) 응등허다(웃이 말라 숨이 죽지 않고 뻗뻗하게 서 있다.), 장작웃, 깍쟁이웃, 땡:공(자치기)

#### (4) 3차 조사 (3.31/토)

어제 일기예보에 강풍에 비가 온다고 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 보니 바닥이 약간 젖을 정도였고 많은 비가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오히려 조사하기에 좋은 날씨이다. 그래서 아침 8시 경에 김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지난 번 조사 이후에 건강에 이상은 없으셨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다행히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어제 아들이 와서 복분자 발일을 거의 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으신다고 하신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시행하기로 약속을 해 두었다. 오늘은 방언 조사 연습을 시키기 위해 대학원생들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박사과정생인 오청진과 석사 과정생인 오근호의 상황을 묻은 결과 모두 괜찮다는 대답이어서, 1시 40분에 백수읍 우체국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오후 1시 35분께 백수읍 우체국에 도착하였더니 곧 이어 오청진/오근호의 차가 도착하였다. 함께 김할머니댁을 찾아가서 학생들 소개를 시켜 드렸다. 김할머니는 벌써 부엌에 있던 상을 방 안으로 옮겨 놓고서 준비를 다 해 놓으신 상태였다. 처음 30분 동안은 내가 시범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오청진이 30분 정도 조사를 한 뒤에 10여 분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휴식 후에 오근호로 하여금 30분 정도 조사를 하게 한 다음 나머지 30분은 다시 내가 조사를 하였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사나 동사의 기본형을 얻기 위하여 모음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를 붙이는 질문 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었다. 현장에서 질문지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 항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은 조사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역시 방언 조사란 많은 경험이 필요한 작업임을 실감하였고, 특히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사 항목에 대한 물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절감하였다.

김할머니와 조사를 하는 도중에 조 할머니가 주차장에 우리들 차가 있는 것을 보고 놀러 오셔서 조사에 함께 참여하였다. 오늘은 대학원생들이 찾아온 탓인지 김할머니도 조금 흥분하셔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올라가는 듯했다. 이번 조사가 세 번째여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데다, 지난 번 조사 때 2시간의 조사 후에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할머니는 조금 더 해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무리가 될 것 같아 오늘도 2시간 10여분 정도의 녹음 시간을 채우고 마무리를 지었다. 한꺼번에 조사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매번 조금씩(10여분 정도) 늘리는 방법을 쓰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늘 조사에서 소에 붙이는 각종 장치나 대장간에 관한 명칭 등은 제대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남자들에 비해 여자 제보자가 갖는 약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충조사는 반드시 남자를 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4시 20분께 오늘의 조사를 마쳤다. 김할머니가 타 주신 커피를 얻어 먹고 학생들과 동네 한 바퀴를 돈 뒤에 헤어져서 집으로 향한 시간은 4시 40분이었다.

\*\*특이한 어휘

우캐(대로 걸어서 지고 다니면서 꼴을 베어 넣어 두는 도구), 사꾸덕(‘삿구덕’으로 보임. 새끼로 낀 망태), 망태기(떡동구미), 떡버텅(떡을 넣어 두고 맴로 치는 그릇.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나무로 만들었음. 그림의 ‘함지’를 보고 대답한 것임.), 귀알쉬염(구렛나루), 땀장코(콧물), 할딱바우(대머리), 가그매(가르마), 뒤편모가지(뒷덜미), 주평(지팡이. ‘주:렁’과 지팡이의 혼효형), 해목(정강이), 청기(나다)(멍), 가리쟁이(가랑이), 사태~이(사타구니)

#### (5) 4차 조사 (4.03/화)

그제는 금년 들어 최악의 황사가 불어 가능한 한 바깥 출입을 하지 말라는 황사정보까지 내려졌다. 어제는 하늘이 많이 깨끗해졌으나 오후 들어 바람이 불고 쌀쌀해지더니 오늘 아침이 되니까 꽃샘추위가 들이닥쳐 지방에 따라서는 영하의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어제 저녁에 김할머니와 약속을 해 놓고 오늘 아침 8시 15분에 집을 나섰다. 할머니가 점심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오전 조사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침 일찍 집을 나섰던 것이다. 아내는 마침 등산 모임이 있어 동행하지 못하였고, 학생들도 수업 등의 일이 있어 혼자 갈 수밖에 없었다. 동네에 도착한 시간은 9시 15분께. 9시 30분에 찾아뵙기로 약속을 해 놓았으므로 차 안에서 10여분을 보낸 뒤에 집을 찾았다.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내장 마이크만으로도 비교적 좋은 음질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아무래도 외장 마이크가 좀더 깨끗한 소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녹음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fowling이 났으므로 내장 마이크를 쓸 때보다 볼륨을 훨씬 줄여야 하였다. 이렇게 줄인 볼륨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녹음할 때의 소리크기가 20db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크기로도 제대로 녹음이 되는지 염려가 되었으나 나중에 들어보니 들을만한 정도의 소리는 되었다. 그러나 내장마이크를 쓸 때보다는 소리의 크기가 대폭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소리를 크게 하면 fowling이 나고, 작게 하면 듣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다.

김할머니는 조사자가 혼자인 까닭에 비교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조사에 임하셨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느낌이 있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함께 동참했다라면 할머니도 흥이 나서 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뜻밖의 어휘들도 채집하는 행운이 따를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약 30여 분을 조사한 뒤, 건전지를 바꾸기 위해 녹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25분 정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20여분 동안의 휴식을 취하였는데, 쉬는 동안에 김할머니가 커피를 타 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김할머니는 첫날 아내와 함께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아내가 내 커피에 물을 많이 부어 탄 것을 기억하고는 언제나 내 커피는 당신 것보다 물을 많이 부어 놓으셨다. 할머니 당신이 늘 하시던 말씀대로 충기가 있고 영리하시다는 점을 이런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휴식을 끝내고 다시 1시간 여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는 주로 친족어 명칭이 다루어졌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민촌과 반촌에서 서로 달리 친족어를 사용한다고 김할머니가 주장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매’나 ‘할매’, ‘하나씨’와 같은 말은 상것들의 말이고,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 ‘할머니’, ‘하나부지’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아재’, ‘아짐’ 등도 역시 상것들의 말이며 당신은 ‘당숙, 당숙모’와 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도중에는 김할머니 역시 ‘큰어매’와 같은 말을 문득문득 쓰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들 말이 과거에는 반상에 의해 구별되었다 하더라도 요즘에 와서는 그런 구별이 없

어졌으므로 함께 쓰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김할머니와의 조사에서 몇 차례 경험한 것이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형과 자연발화에서의 방언형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의 ‘큰어매’와 ‘큰어머니’에서도 그렇지만, 재채기에 대해 대답형은 ‘재치기’, 자연발화에서는 ‘재침’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스럼에 대해 ‘부시럼’으로 대답하였지만, 자연발화에서는 ‘부으럼’으로 발음하였다. 딸꾹질에 대해서는 일차 대답은 ‘따꾸찐’이었으나, 조사자가 자신의 방언형이 ‘포각찐’이라고 하자, 여기서도 그런다고 하면서 ‘포각찐’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따꾸찐’과 ‘포각찐’이 그 의미영역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도 표준어의 영향을 입은 결과일 텐데, 다만 조사자가 제보자의 대답형 이외의형을 제시하는 경우 제보자는 자존심을 상하는 느낌을 받으며 이에 대해 변명을 하는 수가 많았다. ‘포각찐’ 역시 이런 경우라 하겠다. ‘당달봉사’에 대해서는 질문지에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나’로 되어 있으나 제보자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로 이해하고 있었다. 질문지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2시간 여의 조사를 마치고 나니 그래도 12시 20분 정도 되었다. 휴식 시간에 어제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화장실 갔다 온 것 등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조사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조사 질문지 쪽수로 약 65쪽이지만 한쪽 면만을 사용하므로 실제 쪽수는 33쪽 정도이다. 2시간 동안에 적어도 50여 쪽은 나가야 될 텐데 오늘은 속도가 붙지 않았다. 친족어가 비교적 시간을 소요하는 항목이기도 하지만 조사자와 제보자가 일대일로 조사를 하는 까닭에 흥이 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사할 때에는 적어도 세 사람은 참여하는 것이 조사의 분위기를 띄우는 데도 좋을 것 같다.

## \*\* 특이한 어휘

판:또(난장이), 건네산보래기(사팔뜨기), 점풍나다(경기하다), 터팔다(아우보다), 그:닌말(거짓말), 판:대판:대(짜짜꿍), 딸막딸막(아장아장), 내래지다(마루에서 떨어져 넘어지다, 곤두박질치다), 봉:사살이(숨바꼭질), 빠꿈새기(소꿉장난), 통구마끼(땅뽕기), 양:지(딱지), 둥구(그네), 공:태(굴렁쇠), 뚜꺼름(미끄럼)/(비교)찌끄름, ---손(예를 들어 ‘양지손’/형이 결혼한 남동생을 부를 때 처가 지명과 함께), 조:대(를 받다)(예의바른 교육을 받다), 맹산아야!(친정부모가 시집간 딸을 부를 때 시댁이 ‘맹산’인 경우/김실아!), 중무쟁이(중매장이), 치온(혼숫감), 뜻받다(부모의 의견을 따르다)

## (6) 5차 조사 (4.05/목)

오늘은 꽃샘추위가 한결 누그러졌다. 어제보다 바람도 잦아들고 한낮 온도도 12도 정도나 되었다. 벚꽃은 곳곳에서 만개하니 아마도 이번 주가 벚꽃의 절정인 모양이다. 아침에 병원에 들를 일이 있어 오후 1시 30분쯤에 백수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김할머니가 감기가 들어 약을 들고 계셨다. 영광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와서 약을 주고 주사까지 맞춰 주어 몸이 한결 가뿐해지셨다고는 하지만, 엇그제 쌀쌀한 날씨에 발일을 하다가 감기가 드신 모양이었다. 목이 약간 쉼뚝하였다. 팬스레 미안하여 그럴 줄 알았으면 다음으로 연기할 걸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약속한 것이라 그냥 하자고 하신다. 그러면서도 어서 빨리 이번 조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라는 속마음을 드러내셨다. 2시간 조사라 해도 안 한 것보다는 몸이 못하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어휘 부분

도 거의 조사가 완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조사는 제보자를 바꾸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적당한 남자 제보자가 없는지를 여쭙어 보았다.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연락을 해 보겠노라고 하셨다, 운이 좋으면 남자 제보자로부터 음운, 문법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과 구술 발화 부분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1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10분 쉼 뒤 48분 동안의 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나빠진 듯하여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고 하였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할머니가 집에서 담근 복분자 술을 한 병 주셨다. 딱히 대접할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복분자술을 염치없이 받아들였다. 방언조사 때면 예외 없이 제보자로부터 선물을 받곤 하였다. 곡성 조사 때에는 집에서 기른 벌에서 딴 벌꿀을 한 병 받았고, 진도 조사 때는 참쌀을 한 되 정도 받기도 하였다. 집에 오는 손님에게 뭐라도 들려 보내야 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네 인정이 아니겠는가?

\*\* 특이한 어휘

뜰:래미(매미), 사니기(노래기), (콩) 개투 먹다(벌레가 콩의 한쪽을 먹어 치우다), 내:미내:미(송아지 부르는 소리), 고둔도시(고슴도치), 대룡구타다(거꾸로 매달려 있다.), 치(뒗/올가미), 모숨둘레(민들레), 낸드라미(맨드라미), 담웃(담쟁이), 가:랑나무(떡갈나무), 자장개비(삭정 이),

#### (7) 6차 조사 (4.07/토)

김 할머니가 연락해 준 남자 제보자를 만나러 아내와 함께 오전 10시경 영광 백수를 다시 찾았다. 김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집을 찾아가니 제보자인 유 할아버지가 길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미 김할머니로부터 조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은지라 유원상 할아버지는 우리를 바로 집안으로 안내하였다. 유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올해 나이 76세이고 영광군 불갑면 태생이었다. 백수 태생은 아니지만 1943년 나이 13살 되던 해야 징용을 피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한 아버지를 따라 백수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강씨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이 마을에서 유할아버지는 남의집살이를 하면서도 40살이 되던 때까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한푼이라도 아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 덕분인지 3남1녀의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성공하여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자식들이 보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아무런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계셨는데(이를 ‘후부치리’라 한다.), 지금도 자신들이 먹을 정도의 자그마한 농사는 짓고 계셨다.

유 할아버지로부터는 우선 구술발화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처음 조사이기 때문에 외장마이크 대신 내장마이크를 쓰기로 하였다. 처음부터 마이크를 쫓음으로써 긴장감을 줄 필요가 없었고, 내장마이크가 음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소리가 크게 녹음되기 때문이다. 유

할아버지는 김 할머니와 달리 말이 조금 불명확하여 끝부분이 모호한 흐름은 있었다.

유 할아버지로부터 마을의 대강의 사정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6.25 때 이곳이 심한 전투가 있었던 곳임을 알게 되었다. 영광읍과 군서면까지는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였지만 이곳 백수와 홍릉 등 서해안 지역은 장성, 고창 등으로 이어지는 산악 지대여서 빨치산들이

한동안 장악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빨치산과 경찰들 사이의 전투로 매년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6. 25 이야기를 이어서 가장 손쉬운 논농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유 할아버지 자신이 농사를 직접 지었고 이 지역에서 ‘수머심’(首머슴)으로 일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 덕분에 몇 개의 독특한 농사와 관련된 어휘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김 할머니로부터는 얻기 힘든 자료였다.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서로 살아온 과정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복수의 제보자가 아주 유익하다는 점을 이번의 조사에서 실감하였다. 결국 사람의 어휘력이란 개인마다 천양지차가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어휘조사에 관한 한 가능한 한 여러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약 1시간 30여분 정도의 조사를 마침으로써 오늘의 조사를 끝냈다. 첫날인지라 제보자 자신이 장시간 조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했고, 지금이 농사가 시작되는 철이라 제보자가 마음이 바빠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농사에 바쁜 시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5월이면 너무 늦을 것 같고 해서, 사정 말씀을 드리고 비교적 한가한 오후에 2시간 정도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유 할아버지와 오후에 조사한다면 오전에는 김 할머니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보자는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조사하면 되고, 조사자는 하루에 4시간을 조사하는 결과가 된다. 2시간 이상의 조사를 하려면 제보자가 상당한 인내심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 배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를 마치고 다시 김 할머니택을 찾았다. 아직 감기에서 회복하지 못한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조사하는 과정은 나중에 찍기로 하고 우선 마루에 걸터앉아 조사자/제보자와 함께 한 사진 그리고 제보자 혼자만의 사진을 찍었다. 요새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고 있는 아내는 이런 경우에 아주 훌륭한 보조자 역할을 하였다. 점심 대접을 못해 미안해하시는 할머니를 뒤로 하고 마을을 떠난 시각은 12시였다.

(특이한 어휘)

삽갱이(날이 팽이처럼 구부러졌으나 모양은 삽처럼 생긴 연장. 팽이나 삽처럼 자루가 달려 있다. ‘구아’라고 하기도 한다.), 오부(산을 어장낼 때(허물 때) 쓰는 연장.), 독집(이엉으로 둥글게 엮어 종자를 보관하는 곳), 부두까리(염전에서 사용하는 판자 씨래. 번지에 해당), 양판(못자리 만드는 판자. 양판으로 한 뒤 쇠손으로 매끈하게 한다. 양판질), 짓다(종자를 뿌리다. ‘진는다/지여/...’), 칸떠기(모를 심을 때 못줄을 한 줄씩 떼지 않고 네 줄 정도 넓게 떼다. 그 사이에서는 모를 심는 사람이 못줄에 의지하지 않고 어림으로 모를 심는 것. 능률적이며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라 함. 이렇게 떼 모를 ‘칸모’라 함.), 수랑(수렁), 드레(두 사람이 마주 잡고 옆으로 물을 품는 두레), 통드레(한 사람이 앞으로 물을 품는 두레), 자새(발로 밟으면서 물을 품는 장치), ‘천드레 품으면 한 매기’(통드레질을 천 번 한 뒤 한 번 켜다), 열:치다(땅에서 물이 솟아나올 경우, 모래를 치우고 물 품는 자리를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 수모심(首- 상머슴. 보통 머슴이 새경으로 나락 열 섬을 받을 때 수모심은 열 닷섬, 엿섬을 받았음), 농찬(모 심을 때 일꾼에게 주는 특별한 푸짐한 음식), 시름짱날(음력 7월 21일을 가리키며 머슴들이 백중인 7월 보름에 쉬는 집이 있고 시름짱날에 쉬는 집이 있음), 뽕다(씨를 뿌리다. ‘뽕코, 뽕여, 뽕리다’), 지장(기장), 짜클밧(보리를 심은 뒤 밭 사이에 목화를 간 밭.) 하:타리 매다(짜클밧에 목화밭을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 하:커다/호:커다(희다), 어장내다(허물어뜨리다. 부숴버리다), 갈이(논이나 밭을 가는 일), 추경(가을에 미리 논을 갈아두면 겨우내내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땅이 부드럽게 부숴지게 만



드는 것.), 판장홀태(땅에 네 다리를 세워놓고 탈곡하던 연장. ‘가락홀태’와 비교), 드레(두레. 마을에서 팀을 짜서 공동으로 농사하던 조직. ‘드레짜다’), 얼:루폴다(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다), 한:수깡이(곡괭이), 시끌덤병허다(시끌벅작하다), 목새땅(모래땅, 멍애갈치(큰 갈치), 전:수(전부), 밋들다(땅속에서 심었던 고구마나 감자 따위의 알이 굵어지기 시작하다), 두물콩(콩의 한 종류), 다망다망(드문드문/‘배게’의반대), 동줄/장:줄 (못줄의 종류. 동줄은 7치, 장:줄은 8치), 바대, 버습, 벳, 잡쫓, 숭에, 술, 고도리(쟁기의 부품), 통차로(통째로), 자올라지다(기울어지다), 염판(염전의 소금밭), 용님(불을 때서 구어 만든 소금), 씨앙치다, 낙중, 아구가 트다(씻나락에서 싹이 나다), 모님(먼저), 끝판(어떤 일의 끝), 잔등(언덕), 툇(도랑), 시하납씨/시하나씨(시할아버지)

#### (8) 7차 조사 (4.10/화)

벚꽃은 어느덧 지고 이제는 배꽃이 피기 시작한다.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 10시에 백수에 도착하였다. 오늘은 오전에 김 할머니,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유 할아버지와 조사가 있는 날이다. 정확히 오전 10시 김할머니 댁을 찾았다. 그 사이에 감기는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여 적이 안심이 되었다. 오전 조사에는 남은 어휘 부분을 모두 마치고 음운 부분까지 진행하였다. 어휘 가운데 바다에 관한 것들은 제보자가 거의 모르는 것들이라서 다음의 조사로 미루었다. 영광의 백수는 바다와 접한 곳이기는 하지만, 이곳은 바다와 떨어져 있는데다가 김할머니의 친정 역시 산중 마을인지라 바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시는 것이 없었다.

음운은 예상대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우선 제보자가 음운 조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휘 조사와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였다.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발음을 조사한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단모음은 예상대로 /ㄱ/와 /ㄴ/가 구별되지 않았고, /ㄱ/와 /ㄴ/는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겨우 단모음을 마치고 오전 조사를 마쳤다. 앞으로의 조사는 고전이 예상되지만 천천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제 김할머니도 많이 적응이 되었기 때문이다.

12시 30분 오전 조사를 마치고 영광에서 점심을 먹었다. 수향초밥이라는 조그마한 일식 집에서 참치초밥을 먹었는데 값도 한 사람에 8,000원이고 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참치 회가 한 접시 나오고 본음식으로 참치초밥과 우동 한 그릇이 나오는 등 푸짐하고 정갈한 곳이었다. 점심을 먹은 후 소화도 시킬 겸 영광읍내 재래시장을 둘러보았다. 굴비를 비롯한 생선과 채소가 주를 이루었는데, 모싣잎 송편을 전문으로 하는 떡집이 있어 5,000원을 주고 송편 한 봉지를 샀다. 영광이 모싣잎 송편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집에 와서 먹어 보니 아주 부드러운 것이 별미였다.

오후 2시 유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였다. 차를 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유할아버지가 집 앞 골목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아주 조심스럽게 차를 골목으로 운전하여 유할아버지 집 앞에 있는 빈 집의 마당에 주차하였다. 지은 지 13년밖에 안 된 양옥집이 텅 비어있었다. 노부부가 돌아가신 뒤로 이렇게 비어 있다고 한다. 10년 후면 이 마을이 어찌 될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광경이었다.

유할아버지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할아버지가 타지에 사신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지난 번 조사 자료를 검토할 때 전라북도 말씨(‘버리다’를 ‘번지다’, ‘웁다’처럼 ‘ㄴ:’를 ‘ㅡ’로 발음하는 경향이 심한 것 등)가 일부 보였기 때문이다. 첫날에는 영광 불갑면에서 백

수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였는데, 오늘 다시 물어 보니 선조의 고향이 영광 불갑이고 할아버지 때부터는 고창군 성승면에서 살았다는 대답을 얻었다. 나이 13세쯤 해서 고창에서 이곳 백수로 이사를 온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씨가 고창 말씨이고 유할아버지 역시 13세 이전에 고창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록 13세 이후 60년간을 전남 영광 백수에서 살았지만 전북 고창의 말씨가 기본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예상이 맞았던 것이다. 이 말을 듣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왜 처음에 불갑면에서 이사왔다고 했는지 원망스러웠다.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이곳이 타향인지라 전라북도보다는 더 가까운 영광 불갑을 이전 거주지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강씨 집성촌에서 타성바지로서는 minor로 살아온 유할아버지로서는 가능하면 영광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쨌든 이미 시작된 조사이므로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오늘의 조사는 지난 번의 논농사에 이어 밭농사부터 시작하였다. 그런데 10분쯤 조사를 했을까, 갑자기 코에서 코피가 주르르 흐르는 것이 아닌가? 난데없는 코피로 인해 나는 방바닥에 누워 한동안 피가 멈추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여러 가지 일로 과로한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인지 몸이 늘 피곤하였는데, 드디어 오늘 피를 보고야 만 것이다. 오늘 조사가 끝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다시 조사를 재개하였다. 밭농사는 중단하고 남자 제보자만이 할 수 있는 집짓기로 바로 들어갔다. 유할아버지는 비교적 집짓는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 상당한 양을 조사할 수 있었다. 금기 부분에서는 당골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당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시골 어느 곳에서나 당골의 효능을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당골이 병을 치료한다면서 하는 곳이나 무속 등은 다시 질병 부분에까지 이어졌다. 질병 부분에서는 특히 약이 없던 시절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에 대해 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만일 유할아버지의 구술발화 가운데 전사할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약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오늘 조사를 마쳤다. 4시 30분경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유할아버지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적어도 한 번은 더 조사하기로 하고, 유할아버지께 이곳 토박이인 남자 제보자를 소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다음 조사 때 이 문제를 상의하기로 하였다. 금주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내가 서울에 갈 일이 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목요일 오전에는 유할아버지와 조사를 하고 금요일은 김할머니 그리고 가능하면 일요일에는 김할머니와 새로운 남자 제보자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짰다.

#### <특이한 어휘>

너병너병(합박눈이 내리는 모양), 몽글몽글(싸락눈이 내리는 모양), (날이)떠들다(비온 뒤 날이 좋아질 때/날이 떠들어서 좋다)), 발태독(발자국), 새별(샛별),

#### <구술발화는 확인 못함/녹음을 들어서 확인할 것>

#### (9) 8차 조사(4. 17/화)

아침 10시가 조금 넘어 아내와 함께 백수에 도착하였다. 며칠 전 유 할아버지와 통화하여 이 지방 토박이분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적당한 남자 제보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었다. 이후 4월 13일 마침 서울에 갈 일이 있어 대학원생인 오청진과 오근호에게 이후의 음운 분야 조사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녹음된 자료를 보니, 한 항목에 대해 다섯 가지의 활용형을 조사해야 되는데 한 가지 활용형밖에 조사해 놓지 않아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질문지 첫 부분에 다섯 가지의 활용형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이 점을 분명히 해 놓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다시 음운 분야를 조사해야만 했다.

한편 어제 저녁 김 할머니께 동네에 사는 봉덕양반과 봉덕택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오후 조사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보시도록 부탁하였었다. 봉덕양반은 영광군 염산면 출신이지만 영광군 내이므로 제보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봉덕택은 처음 보조제보자로 역할을 한 적이 있으므로 김 할머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아침 김 할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봉덕양반은 의향이 없다고 하셨다고 한다. 김할머니 해석으로는 이 양반이 농사도 별로 짓지 않고 해서 아는 것이 없어 거절한 듯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조사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김 할머니와 오전 조사만 하기로 하였다.

김할머니는 요새 감기가 낫지 않아 고생하시고 계셨다. 목이 약간 쉰 듯하였고 몸 상태도 썩 좋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사를 연기했을 텐데, 후회가 들었으나 기왕 왔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할머니의 말을 줄이기 위해 묻는 말에만 짤막하게 대답하시도록 하였다. 너무 설명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말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할머니의 목 상태도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음운 조사이기 때문에 간단히 조사 항목에 대한 짧은 답변이면 충분하였다.

맨 처음 음운 조사는 어휘 조사와 달리 제보자의 발음만을 조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장모음과 성조는 비교적 간단히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이 악명 놓은 활용 조사였다. 한 항목에 대해 다섯 가지의 어미 활용을 조사하는 것인데, 제보자들이 흔히 질문자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바람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조사자와 제보자 모두 힘이 가장 많이 드는 분야이다. 처음에 동사 ‘먹다’, ‘가다’를 가지고 다섯 가지의 활용을 해 보이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할머니가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사자도 좌절의 지경에 이를 정도였다. 8개 정도의 항목을 조사한 뒤 중간 휴식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피곤하면 조사자와 제보자 모두 더 힘이 들기 때문이었다. 약 10여분을 쉰 뒤 다시 동사 ‘벗-’부터 조사를 속개하였는데, 그런데 후반부 조사부터는 할머니가 다섯 가지의 활용 패턴을 터득하게 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역시 김할머니가 총기가 있는 분이라 금방 조사자의 의도를 깨달았던 것이다. 제보자 역시 지난 번 학생들과의 조사 때에는 무엇을 묻는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소감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 분야는 음운 분야이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을 통해 조사 대상의 동사나 형용사를 이끌어 내는 대신 반대말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설명을 통해 일단 이 지역의 해당 용언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용언형을 가지고 다섯 가지의 활용형을 이끌어 내었다. 이 경우 제보자는 금방 조사 대상인 용언을 잊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각 활용 때마다 해당 동사를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제보자는 각 활용 사이의 관계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삶다’의 활용형을 조사할 때, 조사자가 ‘메느리보고 빨래를 어찌지 마라고 그래요?’라고 물어서 ‘쌈:찌

마라'라는 활용형을 얻은 뒤 '머느리가 빨래를 어찌고 있다고 그러니까?'라고 물으니까 '쌈:꼬 이따'라는 활용형이 금방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에서 머느리보고 빨래를 삶지 말라고 했으므로 바로 이어서 머느리가 빨래를 삶고 있다는 의미 내용이 제보자에게는 모순 되게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활용형 사이의 관계가 순전히 기계적이고 무의미적이라는 사실은 한참 뒤에 깨닫게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중간 휴식 시간 이후의 조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다만 아직 할머니의 몸 상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사 시간을 조금 줄여야만 했었다. 그래서 오늘 총 조사 시간은 1시간 48분 정도 되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조사가 진행되어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다. 다음 조사는 이미 익혀 놓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더 쉬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대학원생 훈련도 시킬 겸 다음 조사는 대학원생들을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 조사 때 유의할 사항.**

- '(1) 이중모음의 조사 때 '왜란'은 이끌어내기 어려운 항목이다. 오히려 '왜간장'이나 '왜뭇'과 같은 말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 (2) '옴-'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 (3) '맷다'는 '사돈을 맷다'와 같은 물음이 적당하다.
- (4) '쫓다'는 '개를 내쫓다'로 물어 전남 방언의 '쫓치다'나 '쫓다'를 얻을 수 있었다.
- (5) '많다'는 '만:치, 망:코, 만:트라, 마:능개, 만해따'로 활용했다.

**\* 특이한 어휘**

자상지(삼합으로 이루어진 가구. 종이를 곁에 바름. 옷을 담아 놓음), 부담(대로 만듦. 오을 넣어 두는 곳), 방:다리/방:다기(술개 종류)

(10) 9차 조사 (4.20/일)

중부 지방에 비가 뿌린다 하더니 남부 지방도 바람이 꽤 세차다. 아내와 함께 10시에 백수에 도착하였다. 원래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학생들이 일이 있어 아내와 함께 조사하게 되었다. 사실 학생들과 조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단점도 있다. 지난 번 학생들 조사가 헛수고로 그친 이후 조사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학생들 없이 나 홀로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

할머니 건강 상황은 전과 다름없었다.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았으나 조사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지난번과 같이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도 음운 조사이므로 가능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도록 하고 묻는 답변에만 정확한 답을 내리시도록 하였다. 목을 가늠한 한 적게 쓰기 위한 배려였다.

오늘 조사는 용언의 활용형이었다. {-지, -고, -드라}의 자음 어미와 {-어도, -어서, -었다}의 모음 어미 가운데 각 하나씩을 활용시키는 것이다. 자음 어미로는 '-드라'를 선택하였고, 모음 어미는 '-었다'를 선택하였다. '-드라'와 '-었다'의 의미 내용이 비슷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을 때 '내가 보니까...어찌드라'와 '올해는 ...한데 작년에는 어쨌다' 등을 사용하여 동일한 어미를 유도하였다. 다만 형용사의 경우 '-었다'가 잘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때에는 ‘-었다’ 대신 ‘-어도’를 물어 보았다, ‘-어서’는 ‘-응게’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각 용언의 항목에 대해 묻은 물음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다음과 같다.

- (1) '웁다' : 옷이 웁다, 감기가 웁다. -> '오리다'
- (2) 뚫다 : 구멍을 뚫다. -> 문을 '찢다'라고 한다고 하여 당황함.
- (3) 더듬다 : 캄캄할 때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여 ...
- (4) 굶다 : 금을 굶다.
- (5) 튀다 :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 무엇을 넣을 때 기름이 위로 폭폭 ...
- (6) 깨닫다: 몇 시간을 이야기한 끝에 겨우 무슨 일인지를 깨달았다.
- (7) 거두다 : 밭에서 곡식을 들여올 때

동사 ‘끓다’가 ‘끈트라’와 ‘끄네드라’의 두 어형이 나타났다.

떨다 ; 뜨:롭다

뚫다 : 뚫다

견디다 : 진대다

마르다 : 말다

포개다 : 펴개다

줄다 : 자울다

(생선 가시를)바르다 : 보르다

굽다 : 굽:뜨라/굴거따

췌다 : 싫다

놀라다 : 놀리다

맞추다 : 마치다

켜다 : 쏘:다

할퀴다: 할치다

괴다 : 곱:다

뺑다 : 뺏수드라/빠사따

거두다 : 걸:드라/거더따

사귀다 : 사기다

다리다 : 대루드라/대레따

가렵다 : 가라웁다

잘못 조사한 것 : ‘구기다’를 ‘구겨지다’로 조사함.

(귀) 후비다 : 다시 조사할 필요 있음. ‘(귀) 파다’로 조사함.

\*\* 특이한 어휘

포롭혀다(푸르스름하다), 거매나무(옷나무처럼 피부병이 생기는 나무/거매 오리다), 장:내(장 닳아는 냄새), 딸딸(말다), 홀미치다, 오맹이(호주머니), 따쉬다(따뜻하게 하다), 부쳐대다(뺨을 갈기다), 탁혀다(닭다), 모리다(야위다), 대시(다시/부사) 짱낫 징엿다.(서로 닭지않았다./

각낫(?)), 지지분허다(지저분하다), 돌려가다(훔쳐가다), 드물다(곡식이 배지 않게 나다. ‘배다’의 반댓말), 썰썰허다(밥을 먹지 않아 뱃속이 허전하다)

2시간 조사를 마친 시간은 12시 30분. 상추를 뜯어가라는 할머니 말씀 듣고 아내는 텃밭의 상추를 조금 뜯었다. 한편 할머니는 요즘이 주꾸미 철이라고 하시면서 주꾸미가 먹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 사 잡수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영광 시장에서 주꾸미 1킬로(12,000원)를 사다 드렸다. 자식에게도 하시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나로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었다. 노인들은 잡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차마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다.

#### (11) 10차 조사(5.01/화)

절에 다녀온 뒤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조사를 못하다가 오늘 재개하였다. 어제 저녁 연락을 취한 결과 금주 금요일에 제사가 있어 바쁠 예정이라서 오늘 조사를 하자는 김할머니의 권유를 따르기로 하였다. 조사는 아침 9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오늘 조사를 통해 음운 분야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되었고, 문법도 일부 조사를 하였다.

오늘 조사한 부분에서 특이한 사항

(1) ‘쪼다’는 닭이 부리로 모이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으나 대답은 ‘쪼다’였다. 이어 딱따구리가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도 역시 ‘쪼다’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쪼다’라는 어형을 제시한 후 그 용법을 물은 결과 ‘쪼다’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칼로 다지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대답을 얻었다. ‘쪼다’와 ‘쪼다’가 과연 같은 의미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2) ‘던지다’는 ‘던지다’로 대답하였고, 이어 ‘땡기다’는 안 쓰이는지를 물은 결과 쓰인다고 하여 다시 조사함.

(3) ‘쪼다’에 대해 ‘쪼:다’로 대답.

(4) ‘치우다’에 대해 ‘치:드라’와 ‘치내따’로 대답. 다시 확인하여 ‘치여따’를 얻음.

(5) ‘느리다’는 걸음이 빠르지 않은 경우를 물었으니 대답을 얻는 데 실패. ‘느리다’는 일손이 느린 경우를 주로 가리킨다고 대답함.

(6) ‘뺨다’에 대해 썩은 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뺨다’고 대답. 박힌 못 역시 ‘뺨다’고 함. ‘뺨다’는 ‘뺨긴 것을 뺨는다’고 함.

(7) ‘아깝다’는 ‘구두쇠는 자기 것이 어찌서 다른 사람에게 못 준다고 물어 답을 얻음.

(8) ‘알땃다’는 미운 짓을 많이 하는 아이는 어떠냐고 물어 ‘미웁다’를 얻음.

(9) ‘아쉽다’는 뭐가 없어 남에게 손을 빌 때로 물어 ‘아습다’를 얻음. ‘아쉽다’와 ‘아습다’의 의미 차이 재 확인 필요.

(10) ‘겨루다’는 추정 방언형 ‘저루다’를 제시하여 얻음.

(11) ‘지껄이다’ 역시 어형을 제시하여 얻음.

(12) ‘시다’의 과거형 ‘시여따’와 반말 ‘셔’를 얻음. 재확인 필요.

(13) ‘새롭다’, ‘견주다’는 조사 불가능.

(14) 곡용형 가운데 아래는 조사 불가능하거나 어려움.

국: -으로

봄 : -으로  
넋 : -에, -으로  
여덟 : -으로  
값 : -으로  
젓 : -으로

\* 특이한 어휘  
매근매근하다(매끈하다)

(12) 11차 조사(5.09/수)

오늘은 아내, 처제와 함께 동행하였다. 국어 교사를 오래한 처제가 방언 조사를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갔던 터였다. 10시 20분, 평소보다 약간 늦게 도착하여 바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오늘은 문법의 남은 부분을 마칠 예정이었다. 시간이 어중간하였지만 집중적으로 물어서 시간 내에 겨우 마칠 수 있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문법의 조사나 어미의 조사는 늘 힘들다. 제보자가 조사의 의도를 알아차리면 쉬우런만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할 수 없이 방언형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자연스럽게 답을 이끌어내기가 힘이 들고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 부사는 첫 음절을 비슷하게 소리내 줌으로써 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택하였다. 예를 들어 ‘항상’은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므로 조사자가 ‘항’을 미리 발음함으로써 ‘항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겨우’에 대해서는 이 방언형 ‘포도시’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이 지역에 이 어형이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 특이한 어휘

대:고(함부로), 좋아비다(부러워하다), 끼꼴이 좋다(허위대가 좋다), 싸룩싸룩(비가 조금씩 오는 모양, ‘싸게’의 반대), 담웃(담을 덮어서 자라나는 식물), 멍클멍클(비가 오기 전의 구름의 모양), 반거질리(말을 반말로 하다)

(13) 12차 조사(5.29/수)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조사를 떠났다. 20여일만의 조사이다. 그동안 미뤄 두었던 구술발화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오후 1시 50분경 영광 백수에 도착하였다. 김할머니는 점심 후 휴식을 취하고 계셨다. 바로 구술발화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번 유 할아버지와 조사 때 남겨 두었던 부분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1.2 일생의례, 1.4 의생활, 1.5 식생활, 1.8세시풍속 일부 등이었다. 김할머니의 성격이 급하고 말이 빠르다 보니 어떤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반적인 개괄을 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2시간 안에 이상의 항목들을 두루 조사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일단 조사는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보충조사를 1차례 더 하기로 하고 약 2달 동안의 조사를 막을 내렸다.

특이한 어휘

묵덕장, 집장, 조구신산(생조구를 끓여 만든 음식), 오가재비굴비(커다란 굴비), 고지(누룩을 만들기 위해 둥글게 모형을 뜨는 틀)

#### (14) 13차 조사 (11.30/금)

지난번 조사 때 빠뜨리거나 제보자가 응답하지 않은 어휘 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러 길을 떠났다.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질문지를 꺼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고, 녹음기 등 장비를 점검하였다. 지난번 조사 때와는 제보자가 달라야 하므로, 마을을 달리하기로 하였다. 백수읍을 막 들어서니 오른쪽에 ‘논산’이라는 마을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다. 마을에 들어서서 빈터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차 옆으로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신다. 유모차는 건기가 불편한 할머니의 보조기구였다. 할머니께 이장택의 위치를 물으니 바로 옆집을 가리키셨다. 할머니께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마을회관에 가는 길이란 다.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마을회관에 난방을 하는 날이라 연락이 와서 가는 길이라고 하셨다. 할머니를 모시고 회관을 방문하니 다른 할머니 두 분이 이미 와 계셨다. 소개를 하고, 방문 목적을 말하니, 아는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호기심을 보이셨다. 세 할머니의 이름과 출신지는 아래와 같다.

이 (84세). 영광 법성포 출신

김 (83세). 영광 대마면 출신

박 (78세). 장성 북일면 출신

내가 처음 만났던 할머니는 김 할머니인데, 치아가 좋지 않으신지 발음이 분명하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이 할머니를 당숙모라고 부르는 것으로 모아 조카며느리가 되는 모양이었다. 박 할머니는 비교적 젊고 방언 조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장성 북일면 출신이라 일부러 배제하였다. 그렇지만 시집와서 오랫동안 영광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광 말을 잘 안다고 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몇 어휘에서는 영광 토박이들과 차이를 보였다. 이 할머니는 법성포 출신이면서 총기도 있고 아는 것도 많아 몇 가지 귀한 어휘들을 찾아내 주었다.

1시간 가까운 오전 조사를 마치자 할머니들이 점심을 걱정하신다. 중국 음식을 시켜 드리겠다고 제안을 했으나, 극구 사양하시기에 나만 따로 영광읍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부터 다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4시 정도에 대강의 조사를 마쳤는데, 언제 다시 오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매우 섭섭해 하셨다. 할머니들도 심심하던 차에 옛날 이야기를 곁하는 이런 조사가 재미있으셨던 모양이었다. 나중을 기약하고 회관을 나섰다. 이 마을의 정확한 이름은 ‘영광군 백수읍 논산리 원산부락’였다.

## 1.6 전사

#### (1) 1차 전사(2007년 10월~11월)



구술발화 : 이기갑, 오청진, 오근호  
어휘 : 유효려  
음운 : 이기갑  
문법 : 이기갑

(2) 1차 점검(2007년 11월)

구술발화 : 이기갑  
어휘 : 이기갑  
음운 : 이기갑  
문법 : 이기갑

(3) 2차 점검(2007년 12월)

구술발화 : 이기갑  
어휘 : 이기갑  
음운 : 이기갑  
문법 : 이기갑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

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 ]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ɛ)’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므로 ‘꺀’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2007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 1.2 일생 의례<sup>1)</sup>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자 오느리 사:: 오:월 이:십 구이리지요이~? {자 오늘이 사 오월 이십 구일이지요?}

10201 # 예 {예.}

10201 @ 이:십 구일 {이십 구일}

10201 @ 예::: 예 그림자 시작 해보까요 또? (웃음) {예, 예. 그림 자 시작해 볼까요 또? (웃음)}

10201 # 먼: 말 허면 되야혈찌 모르건네 (웃음) {무슨 말하면 될지 모르겠네 (웃음)}

10201 @ 예, 아니요. 제가 여:쭈 여:쭈 볼게요. {예, 아니요. 제가 여쭈 여쭈 볼게요.}

10201 @ 가마 이썬라. 어:디서 나셔따꼬 그레썬요, 어느 동네서? {가만 있어라. 어디서 나섰다고 그랬어요, 어느 동네서?}

10201 # 친정이? {친정이?}

10201 @ 예, 친정. {예, 친정}

10201 # 쩌 굴:람. {저, 군남.}

10201 @ 굴:람? {군남?}

10201 # 굴:람. 예. {군남. 예.}

10201 @ 예, 굴람. {예, 군남.}

10201 # 예. {예.}

10201 # 굴:람 홍콩니. {군남 홍콩리}

10201 @ 홍콩니. {홍공리}

10201 # 우능이다게썬. 윈 동:네 이르미 우능이여. {우능이라고 했어. 윈 동네 이름이 우능이야.}

10201 @ 우능? {우능?}

10201 # 예, 우능. 동:네 이르미 홍콩니 우능. {예, 우능. 동네 이름이 홍콩리 우능.}

10201 @ 홍콩니 {홍공리}

10201 # 여그 오면 멩산 봉:국 허데끼{여기 오면 명산 봉국 하듯이}

10201 @ 예 {예.}

10201 # 그러케헤썬. {그렇게 했어.}

10201 @ 아::: {아.}

10201 @ 거: 인제 형제간드리 그러면 마:느셔썬요? {거 이제 형제('형제간'은 '형제'를 뜻

---

1) 제보자는 김귀님 할머니이다.

한다)들이 그러면 많으셨어요?)

10201 # 예, 칠람메여쎌요. {예, 칠남매였어요.}

10201 @ 음, 칠람메. {음, 칠남매.}

10201 @ 예. {예.}

10201 @ 그럼 다 우게 {그럼 다 위에}

10201 # 따리 님: 우리 어머니도 아들 신: 그러코 뒤:게쎌요. {딸이 넷 우리 어머니도 아들 셋 그렇게 두셨어요.('갓-'은 '-섯-'에 대응하는 방언형.)}

10201 @ 그러면 다:들 어:디서 사세요? {그러면 다들 어디서 사세요?}

10201 # 지금 두:째 동상도 서울쎌 산:디 느다답쎌 병:나가꼬 죽꼬. {지금 둘째 동생도 서울에서 사는데 느닷없이 병 나가지고 죽고.}

10201 # 오빠도 도라가시고 {오빠도 돌아가시고}

10201 @ 음. {음.}

10201 # 그리고는 인자 또 두:째 언니가 죽 도라가시고 {그리고는 이제 또 둘째 언니가 돌아가시고}

10201 # 그러고 인자 우리 시: 딸만 쎌:남꼬 아들 한나 남꼬 그레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딸만 셋 남고 아들 하나 남고 그랬어요.}

10201 @ 음, 형제간드리? 예. {음, 형제들이? 예.}

10201 @ 그 고양이 어찌덩가요? 이 저기가? 어:: 이 지남버네 말:쎌 하실때는 거기는 상꼬 리라고 {그 고양이 어떻게덩가요? 이 저기가? 어 이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거기는 산골이라고}

10201 # 예, 지너기 산중이여. {예, 굉장한('지너기'는 '굉장히'의 뜻) 산중이야.}

10201 @ 산중이요이~. {산중이요.}

10201 # 어: {어.}

10201 # 지그른 그마니나 현테 엔:나레 느드부 나 클떼만해도 검::나게 산중이여쎌. {지금은 그만큼이나('만'은 '만큼'의 뜻) 하는데 옛날에 \*\*\* 나 자랄 때만 해도 굉장히('검나게'는 '굉장히'의 뜻) 산중이었어. }

10201 # 차가 일찌리 거그릴 와보덜 모테쎌. {차가 일절('일절이'는 '일절'의 뜻) 거기를 와보지를 못했어. }

10201 @ 아하. {아하.}

10201 # 차가. 근디 지그른 빼:스가 드러텅에도 이런데말로 마:니 안 드러텅에. {차가. 그런데 지금은 버스가 드나들어도('드러텅이다'는 '드나들다'의 방언형) 이런 곳처럼('말로'는 '처럼'의 방언형) 많이 안 드나들어.}

10201 @ 아. {아.}

10201 # 하레 시:테먼 시:테 니:테먼 니:테 고로고 텅이제. {하루 세 대면 세 대 네 대면 네 대 그렇게 다니지.}

10201 @예. {예.}

10201 # 딱 정:헤노코 그러제 당게 와따가따 여런 떼가 안 텅에요 차가. {딱 정해 놓고 그러지. \*\* 왔다갔다 여러 대가 안 다녀요 차가.}

10201 @ 오호:: {오호.}

10201 # 검나게 산중이여. {굉장히 산중이야. }

10201 @ (웃음), 영광이 그렇게 사니 이릅니까? {(웃음), 영광이 그렇게 산이 있습니까? }

10201 # 사니 고:리 갈쭈랑 마:네요 사니. {산이 그리 갈수록 많아요, 산이.}

10201 @ 음. {음}

10201 # 그리 올라갈쭈락 송:님 강:암 그리::케 사니 마:네. {그리 올라갈수록 송림 강암 그렇게 산이 많아.}

10201 # 차가 가기는 각 지그믐 거까지 가. 송:님 강:암까지도 각 뻘:쓰가 가기는 가는데 그러케 사니 마:네요. {차가 가기는 지금은 거기까지 가. 송림 강암까지도 버스가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산이 많아요. }

10201 @ 그러면 그때는 어:디 나올라거머는 거리나와썰요? 차 탈라면? {그러면 그때는 어디 나오려고 하면은 걸어서 나왔어요? 차 타려면?}

10201 # 그리제. 포:천까지. {그리지. 포천까지.}

10201 @ 포:천까지 {포천까지}

10201 # 그 미테 {그 밑에}

10201 @ 얼마똥아니나 거리요?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됩니? {얼마 동안이나 걸어요?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0201 # 얼마 양거리. {얼마 안 걸어.}

10201 @ 얼마 안 {얼마 안}

10201 # 포:천 오면. 네 메뻔 양걸꺼요. 한 시: 십뻬는 더 걸꺼시고 야튼 {포천 오면. 네 몇 분 안 걸을 거요. 한 십 분은 더 걸을 것이고 하여튼 }

10201 # 걸 걸:꺼시요. 얼마 암머러. 포:천 거그뻬 거기 네로먼 금 금방 네로와. {걸을 것 이요. 얼마 안 멀어. 포천 거기 거기 내려오면 금방 내려와.}

10201 @ 음. {음}

10201 # 그러면 인자 거그서 차 타면 인자 영광 영광또 가고. 더웁 줍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차 타면 이제 영광 영광도 가고. 더웁 줍소?}

=1 10201 @ 아니요. {아니요.}

=1 10201 # 아이 불썰도 여러나부러. 문 거시기 아넝께. {아니 불 켜도 열어 나 버려. 문 거시기 안 하니까 }

=1 10201 @2) 아니. 시끄롤까바. {아니. 시끄러울까 봐서.}

=1 10201 @ 소리가 들리카바서 아 자동차 쏘리 가통거슨. {소리가 들릴까 봐서 아 자동차 소리 같은 것은. }

=1 10201 @ 예:: 거. {예, 거.}

##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겨론해:가지고 이리 오셔쑈이~? {결혼해가지고 이리 오셨쑈?}

10201 # 그러조. {그러지요.}

10202 @ 메싸레나 겨론하셔썰요? {몇 살에나 결혼하셨어요?}

10201 # 여레다베. {열여덱에.}

10202 @ 열야답싸레. {열여덱살에.}

10203 @ 아. {아.}

2) @2는 조사자와 동행한 조사자의 처를 가리킨다.

10201 @2 빨리 하셔따. {빨리 하셨다.}

10201 @ 우리 어머니와 비스다게.(웃음) {우리 어머니와 비슷하게. (웃음)}

10201 @2 굉장이 빨리 하셔따. {굉장히 빨리 하셨다.}

10201 @ 엔:나레는 다 그레찌 머. {옛날에는 다 그랬지 뭐.}

10203 @ 누:가 중매 서썬요?{누가 중매 썬어요? }

10203 # 아 중매 아너고 혈꺼시요? 그런디서는 여:네가 무시요? \*\*\*\*{아 중매 안 하고 할 것이요? 그런 데서는 연애가 뭐요? \*\*\* }

10201 @ 금께 누가 누가? {그러니까 누가 누가?}

10203 # 인자 인자 여그서 여그 지반 당:숙 때신 낭바니 중매를 해썬요. {이제 이제 여기서 여기 집안 당숙 되신 양반이 중매를 했어요.}

10203 # 어:썰서 그 낭바니 중매를 헨냐면 그 낭반이 거그서 살다가 요:리 이:사 와게꺼던. {어썰서 그 양반이 중매를 헨냐면 그 양반이 거기서 살다가 이리 이사 오셨거든.}

10203 # 그렇게 소:글 양:게 중매를 해게썬. {그러니까 속을 아니까 중매를 하셨어.}

10201 @ 아아, 그레꾸나. 음. 음. {아아, 그랬구나. 음음.}

10203 @ 그러면 인자 아 중매해:가지고 열 여덟싸레 거론하실 때 그러면 여그 하라버지는 몇 나이가 몇 몇살이여썬요 그때? {그러면 이제 아 중매해가지고 열 여덟살에 결혼하실 때 그러면 여기 할아버지는 몇 나이가 몇 몇살이었어, 그때?}

10203 # 우리 집 아저씨가? {우리 집 아저씨가? }

10201 @ 예. {예.}

10201 # 두살썰. {두살 차이.('세'는 '사이'의 축약형으로서 여기서는 나이차를 가리킨다.)}

10203 @ 두:살썰. {두 살 차이.}

10203 # 스무사레고 나는 야다베 허고 그레썬요. {스무 살에 하고 나는 여덟에 하고 그레썬어요.}

10202 @ 그때 그 하라버지는 여그서 농사 지썬요? {그때 그 할아버지는 여기서 농사 지었어요?}

10202 # 네. {네.}

10202 @ 음. {음.}

10201 # 농사나 지여따우? 그때는 부자썰 아들로 손자로 먼: 일:도 양꺼또 안체. 손도 썬썰또 아네썰. {농사나 지었대요? 그때는 부자집 아들로 손자로 무슨 일도 아무 것도 안 하지. 손도 썬썰도 안 했지.}

10202 # 너무 일꾼 일꾼만 두: 사람썰 데리고 {남의 일꾼 일꾼만 두 사람썰 데리고. }

10202 @ 아. 여그 와서 보니까 {아. 여기 와서 보니까}

10202 @ 그때가 그러면 맨 유기오 나기 저니조 {그때가 그러면 맨 육이오 나기 전이썬요?}

10202 # 전 유기오 나 낙 나고제. 인공 지네고제. {전 육이오 나고지. 인공('인공'은 '인민 공화국'이 약칭으로서 육이오 시절을 가리킨다.) 지내고지.}

10202 @ 아 인공 지네고예요, 거론하실때? {아, 인공 지내고예요, 결혼하실 때?}

10202 # 예. {예.}

10201 @ 아. {아.}

10201 # 금께 그저네 우리 하나부지가 하나부지 사라게실때는 시방 아드리 우리 하나부지가 메시냐? 니:시냐? 크나들 자근 집 응 니:시 니:신디 아들 다 이려고 요거시 시방 세:썰



아들찌비여.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시방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몇이냐? 넷이냐? 큰아들 작은 집 응 넷이 넷인데 아들 다 이렇게 이것이 시방 셋째 아들집이야.}

10201 @ 세:째 아들집. {셋째 아들집}

10201 # 이러고 지살 지버 지서서 저금네고 시방 저:짜게 큰::집 그 지아집 안 이썩떠여? 우게 산 미테? 거시기 먼:디 인는다. 그거시 막뚜~이 아들 지비고.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분가시키고('저금'은 '분가'의 방언형) 시방 저쪽에 큰 집 그 기와집 있잖습디까? 위에 산 밑에? 거시기 \*\* 있는 데. 그것이 막둥이 아들 집이고.}

10201 # 그러케 우리 하나부지가 부:자라 그러코 지블 지서. 천 선자마래서 천서글 바다써.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라 그렇게 집을 지어서. 천 소작만 해도('선자'는 '소작'의 방언형) 천 석을 받았어.}

10201 # 그렇게 천석꾼 부:자라고 소:문 나썩썩. {그러니까 천석꾼 부자라고 소문 났었어.}

10201 # 근디 인자 다:: 또 그럴 이유가 이썩가꼬 살리물 망해뻔고 {그런데 이제 다 또 그럴 이유가 있어가지고 살림을 망해버리고}

10201 # 우리 그 기양 고로 용:케 그러케 망해 빠리고는 또 나몬 거슨 인공때 인공때 자기가 농사지:라고 그때는 다 주어짜나요, 선자로. {우리 그 그냥 고로 용케 그렇게 망해 버리고는 또 남은 것은 인공 때 인공 때 자기가 농사 지으라고 그때는 다 주었잖아요, 소작으로.}

10201 # 선자노늘 다 지여제. 근디 인공 닥치게 다:: 자기는 멘드라부러짜나요. {소작논을 다 지었지. 그런데 인공 닥치니까 다 자기 논 만들어 버렸잖아요.}

10201 # 인공때는 그레썩요. 자기는 멘드라부썩요. {인공 때는 그랬어요. 자기 논 만들어 버렸어요.}

10201 @ 누가요? {누가요?}

10201 # 그 농사 진: 사라미. {그 농사 짓는 사람이.}

10201 @ 소:작뜨리. {소작들이.}

10201 # 예. 소:작뜨리. {예. 소작들이.}

10201 @ 음. {음.}

10201 # 다 자기 논 멘드라부러썩. 인공 지네고 낭게. {다 자기 논 만들어 버렸어. 인공 지내고 나니까.}

10201 # 그먼 그러케 머 무서운 세상이여썩, 그때는. {그러면 그렇게 뭐 무서운 세상이었어, 그때는.}

10201 @ 음. {음.}

10201 # 그레가꼬 다 고로코 그 살림도 업:썩빠리고. 그레도 나 와서만해도 (혀를 차며) 부:잡디다마는 또 무여니 그러케 우 시야바니가 다 업썩부러썩 살리물. {그레가지고 다 그렇게 그 살림도 없애 버리고. 그레도 나 와서만 해도 (혀를 차며) 부잡디다마는 또 우연히 그렇게 우리 시아버지가 다 없애 버렸어 살림을.}

10201 # 우 시야바니가 (웃음) 자근 우리 자근어머니를 어더가꼬 삼:서 {우리 시아버지가 (웃음) 작은 우리 작은어머니를 얻어가지고 살면서}

10201 @ 아. (웃음) 둘 두: 집살림. {아. (웃음) 둘 두 집 살림.}

10201 # 나 시집와서만해도 겐찬헛떠다마넌 나 와서만해도. {나 시집와서만 해도 괜찮습디다마는 나 와서만 해도.}

10201 @ 응. {응.}

10201 @ 음. 그러게꾸나. 음. {음. 그러셨구나. 음.}

10201 @ 그러면 인자 겨론하실때는 그때는 그럼 여기 좀 시대기 좀 부:자여셨겐네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실 때는 그때는 그럼 여기 좀 시대기 좀 부자셨겠네요?}

10201 # 그러지요. {그렇지요.}

10201 @ 예. {예.}

10201 @ 그러면 좀 떠들썩하게 겨론하셔겐네. {그러면 좀 떠들썩하게 결혼하셨겠네. }

10201 # 엔:나레는 구:겨론이지. {옛날에는 구식 결혼이지.}

10201 @ 그니까. {그러니까.}

10203 # 예. 그도 그:도 머 날짜가 그리고 난능가 어젠능가 하이튼 나는 이트링가 시여서 오고 그레씨라우 게론해:가꼬. 지비서 거그서. {예. 그래도 그래도 뭐 날짜가 그렇게 낫는가 어쨌는가 하여튼 나는 이틀인가 쉬어서 오고 그랬어요,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거기서 }

10203 # 시:동니비 거시간 어:디 간 {\*\*\*\* 거시기 하는 어디 갔}

10203 @ 아, 겨로늘. {아, 결혼을.}

10203 # 지그른 시닝 가도 아너고 머또 아너제 지금 그때 세상에. {지금은 신행 가지도 않고 아무 것도('무엇도'는 여기서 '아무 것도'의 뜻) 안 하지, 지금 그때 세상에.}

10203 # 게론허고 게로는 친정에 와서 스 크네기 지베 와서 인자 요러코 게시글 안 허요? 그때는 엔:나레는? {결혼하고 결혼은 친정에 와서 처녀('큰애기'는 처녀의 방언형)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때는 옛날에는?}

10203 @ 예. {예.}

10203 # 구:겨로늘 {구식 결혼을}

10203 @ 예. {예.}

10203 # 거 나는 이트를 거그서 쉬여서 와썬. {거 나는 이틀을 거기서 쉬어서 왔어.}

10203 @ 예. {예.}

10203 # 친정에서. {친정에서.}

10203 # 날짜가 고러고 나똥가 어젠능가 모르거씨요 야튼. {날짜가 그렇게 낫던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

10203 @ 아 고 머 그때 가:마 타 와요? {아 고 뭐 그 때 가마 타고 와요?}

10203 # 마:차 타고 와썬요. {마차 타고 왔어요.}

10203 @ 마:차 타고? {마차 타고?}

10203 # 예. {예.}

10203 # 찌:그 또 포:천서 장두기 이썬. 단독 인는 디 고리 하 소메~이 아페로 해서 그 이 잔둥 찌:끔 널좌. 그렇게 {저기 또 포천서 고개가 있어. 고개 있는 데 그리 하 소맹이(지명) 앞으로 해서 그 이 고개('잔둥'은 '고개'의 뜻) 조금 넓어. 그러니까 }

10203 # 구루마 가통거슨 텅이제. 궁게 구루마는 텅이든 마:차가 텅이그든. 고로케 해:서 와썬요. 찌:그 예사메 뒤으로 아:푸로 해서. {달구지 같은 것은 다니지. 그러니까 달구지는 다니면 마차가 다니거든. 그렇게 해서 왔어요. 저기 외삼(지명) 뒤로 앞으로 해서.}

10203 @ 그러면 {그러면}

10203 @ 거 아저씨도 저기 실랑도 마:차 타고 와요? {거 아저씨도 저기 신풐도 마차 타고 와요?}

10203 아니요. {아니오.}

10203 @ 그러면? {그러면?}

10203 # 실랑은 거러완능가 마를 타고 완능가 모르거쏘, 이저부러서. {신랑은 걸어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모르겠소, 잊어버려서.}

10203 @ (웃음)

10203 # 장:게 올때는 말 말타고 와썅게. {장가올 때는 말 타고 왔으니까.}

10203 @ 그래요이~. {그래요.}

10204 @ 그러며는 그때든 다 시테게 인자 머 식꾸 식꾸들 친척드란텐 섬:물 예:물 가통거 준:비하지요? {그러면은 그때는 다 시택에 이제 뭐 식구 식구들 친척들한텐 선물 예물 같은 것 준비하지요?}

10204 # 그러체. 다 허제. 인사오슬 다 허제. {그러지. 다 하지. 예단('인사옷'은 예단의 방 언형))을 다 하지.}

10204 @ 인사오슬이~? 이~ 주로 머:슬 합니까? {예단을? 주로 무엇을 합니까?}

10204 # 그때는 오시여 점부. 다 베 낭거시로. {그때는 옷이야 전부. 다 베 낭은 것으로.}

10204 @ 아. {아.}

10204 # 엔:나레라 다 멩기베 나면 멩기베. 고시기 미영베 나면 미영베. 당목 고롱 거시로 헤:서 다 오슬 메 함:보글 함볼 헤:써. {옛날이라 다 명주베 낭으면 명주베. 거시기 무명 낭으면 무명. 당목 그런 것으로 해서 다 옷을 매 한복을 한 벌 했어.}

10204 @ 아, 한:보글? {아, 한복을? }

10204 # 오슬 오슬 그러체. {옷을 옷을 그렇지.}

10204 # 보신하고. {버선하고.}

10204 @ 보신하고? {버선하고?}

10204 # 보신 웬마넌 사라믄 시그믄 양발 사고 막 저기요. 시방은 양발 사는 법또 업써. 양발 머 귀허가니 시방은? {버선 웬만한 사람은 지금은 양말 사고 막 저기요. 시방은 양말 사는 법도 없어. 양말 뭐 귀하나요, 시방은?}

10204 # 엔:나레 양발 사썰마넌. {옛날에 양말 샀지마는.}

10204 # 그때는 보신 항커리썅 다: 허고. {그때는 버선 한 켤레썅 다 하고.}

10204 @ 아. {아.}

10204 @ 오다고 보신하고이~. {옷하고 버선하고.}

10204 @ 요세는 요세는 머 {요새는 요새는 뭐}

10204 # 요세는 머이든지 도:니로 쥐 버리제 머 온 시썰등거 사주도 아네. {요새는 무엇이 든지 돈으로 쥐 버리지 뭐 옷 변변치 않은 것(?) 사 주지도 않아.}

10204 @ 그러지요이~ {그러지요.}

10204 # 지그믄. {지금은.}

10204 # 도:니로 다 쥐빠리제. {돈으로 다 쥐 버리지.}

10204 @ 응. {응.}

10204 @ 그러면 먼 이불 가통거슨 섬:물로는 안 하지요? {그러면 무슨 이불 같은 것은 선물로는 안 하지요?}

10204 # 그때는 이불 섬:물 업써. {그때는 이불 선물 없어.}

10204 # 지그밍게 이러코 이불 섬:물 이제. 뽀 이불 모다 싸:서. {지금이니까 이렇게 이불 선물 있지. 봄 이불 모두 싸서.}

10204 @ 예. {예.}

10204 @ 자기가 쓸 건만 해:오제. {자기가 쓸 것만 해 오지.}

10204 # 자기가 이불 한나고 두:리고 해:가꼬 오제. {자기가 이불 하나고 둘이고 해가지고 오지.}

10204 @ 그러며는 저 이부를 거 메체나 해 오셔쎄요? {그러면은 저 이불을 거 몇 채나 해 오셨어요?}

10204 # 나는 두:채 해가꼬 와쎄요. {나는 두 채 해가지고 왔어요.}

10204 @ 두:채? {두 채?}

10204 # 음. {음.}

10204 @ 음음음. {음음음.}

10204 @ 거 미드미. {거 \*\*\*.}

10204 # 한나도 모데가꼬 온 사람 이쎄 가난허면. {하나도 못 해가지고 온 사람 있어, 가난하면.}

10204 # 친정이 가난허면 항게도 모데가꼬 온 사람 이쎄. {친정이 가난하면 한 개도 못해가지고 온 사람 있어.}

10204 @ 그럼 이불도 없이 어쭈고 산답니까? {그럼 이불도 없이 어떻게 산답니까?}

10204 # 어? {어?}

10204 @ 이불도 업쎄 어떠 {이불도 없이 어떠}

10204 # 그렇게 어쭈고 해가꼬 어쭈고 계양 시엄쎄허고 한테 살:고 무꼬, 엔:나레는 그러고 허고 한나 모데가꼬 한 사람 \*\*\*에 깍차쎄라우 더러.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시어머니하고 한테 살고 먹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하나 못해 가지고 하는 사람 \*\*\*에 깍 찻어요 더러. }

10204 @ 오오. {오오.}

10204 # 우리 친정 동네서도 이불 아네가꼬 시지본 사람 인는디라우. 요 요:리 시집간는디 시방. {우리 친정 동네서도 이불 안 해가지고 시집온 사람 있는데요. 이 이리 시집갔는디 시방.}

10204 # 그레가꼬 삼:도 즈그도 이불 사 허고 다 그러고 사:는디 {그레가지고 살면서도 저 회도 이불 사 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10204 # 그러 가난 엔:나레는 그러고 가난해가꼬, 양:꼬또 모더고 지 다닐치기 또 계론시글 해까고 기양 다닐치기 가고 {그러 가난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지 당일치기 또 결혼식을 해가지고 그냥 당일치기 가고}

10204 @ 아 {아.}

10204 # 저네는 가난해까고 그레쎄요 {전에는 가난해가지고 그랬어요.}

10204 @ 예. {예.}

10204 # 하리쎄녁 자도 아너고. {하루 저녁 자지도 앓고 }

10204 @ 잘 떠도 업:꼬 그렇게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10204 # 잘떠가 업:쎄서 그런자나 가난해가꼬 그반마치 머:시 업:쎄. 머꼬 살꺼시 업:쎄. {잘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그런자나'는 '그러잖아'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의 뜻) 가난해가지고 그만큼('그반마치'는 '그만큼'의 뜻) 무엇이 없어, 먹고 살 것이 없어.}

10204 # 그렇게 혈쭈업쎄 인자 움:넌 사람까지 계론허면 그러케 해쎄요 모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없는 사람끼리('까지'는 '끼리'의 뜻) 결혼하면 그렇게 했어요 모두.}

10204 @ 음. {음.}

10205 @ 그럼 결혼해서 오 오니까 시데에가 식꾸드리 어떤 분드리 계시딩가요? {그럼 결혼해서 오니까 시덕에 식구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딘가요?}

10205 # 다:: 계시제라. {다 계시지요.}

10205 # 인자 쉬운 할머니 하라버지 도라가계쎄도 시어마이~ 계시고 시아바이 계시고 지반 어:른드른 다 계시고 {이제 시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시어머니 계시고 시아버지 계시고 집안 어른들은 다 계시고.}

10205 # 지그밍게 그러제 그때는 여그 맹사니 기양 짝:: 다 우리 지바니여꺼드뇨.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때는 여기 명산이 그냥 짝 다 우리 집안이었거든요.}

10205 # 짝 끼양 타지 타성이 별로 업쎄쎄. {짝 그냥 타지 타성이 별로 없었어.}

10205 # 타성은 저::리 벤두리 그저 가난한 사람들 하나씩 이꼬 그렌는디 지그몬 탁 그냥 엔:날 어:런 낭반드른 다 도라가시고 그 나머지는 다:: 갈차가꼬 도시로 나가빠리고 {타성은 저리 변두리 그저 가난한 사람들 하나씩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탁 그냥 옛날 어른 양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나머지는 다 가르쳐가지고 도시로 나가 버리고}

10205 # 점:부 도시가서 다 잘싸라 지금. 여그는 업:쎄 하나도 사라미. {전부 도시 가서 다 잘 살아 지금. 여기는 없어 하나도, 사람이.}

10206 @ 공계 인자 시야머니 시아버지 계시고 또 머 다른 형제간들또 이쎄꾸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고 또 뭐 다른 형제들도 있었고요?}

10206 # 인자 시누 두:윈디{이제 시누이 둘인데}

10204 @ 응. {응.}

10204 # 여워썸떠다 나 응계. {결혼시켰습디다, 나 오니까. }

10206 @ 아. 손 손위에구만. { 아. 손 손위에구만.}

10204 # 예, 손 우게고. 시야제 한나 이쎄가꼬 네:가 와서 시야제는 여우고. {예, 손위고. 시동생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와서 시동생은 결혼시키고.}.}

10204 @ 아. {아.}

10206 @ (5초) 아 봅씨다 그 다멘. (5초){(5초) 아 봅시다 그 다음엔. (5초)}

### 1.2.3 전통 혼례식

10208 @ 그때::는 구시그로 겨론하머는 그 구 음식 가통거 주로 머:슬 장만합니까? {그때는 구식으로 결혼하면은 그 구 음식 같은 것 주로 무엇을 장만합니까?}

10208 # 점::부 시고레서 허는 장마늘 다 장만허제라우 그때는. {전부 시골에서 하는 장만을 다 장만하지요, 그때는.}

10208 # 엘:로 시방보다 시방은 모다 안 장만허자나요? 그때는 산:자 박싼 먼 여시고 먼 강정이고 머시고 지비서 사:: 해쎄 그거슬. {오히려('엘:로'는 '오히려'의 방언형) 시방보다 시방은 모두 장만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산자, 박산 무슨 옛이고 무슨 강정이고 뭐고 집에서 다 했어, 그것을.}

10208 # 다: 해가꼬 이러코 데:사를 쳐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대사를 쳤어.}

10208 # 근디 지그몬 누가 일찌리 그렇거 해 보지 아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일절 그런 것 해 보지 않아.}

10208 @ 그러면 오래 점부터 준:비를 해야 되건네요. {그러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10208 # 아:면. 메:칠 줌보터 미리서미리서 산:자 가통거또 해:서 다::사와르 하능 이코 따  
 독따독 다 다머노코 {아무럼, 며칠 전부터 미리미리 산자 같은 것도 해서 다 \*\*\* 하는 이렇  
 게 듬뿍듬뿍('따독따독'은 '다독다독'의 방언형이나 여기서는 '듬뿍듬뿍'의 뜻) 다 담아 놓고}  
 10208 # 박쌈도 해:서 이러케 탁::탁 다머노코 바다논데가 싸을씩 다머노코 그러지요, 그렇  
 거뜨를. {박산도 해서 이렇게 탁탁 담아 놓고 받아 놓은 데다 사흘씩 담아 놓고 그러지요,  
 그런 것들을.}  
 10208 @ 그럼 무슨 생선이나 이렇 거또 미리 사다 {그럼 무슨 생선이나 이런 것도 미리  
 사다}  
 10208 # 인자 생선 가통거슨 미리서 안 사제, 생선가통거슨. {이제 생선 같은 것은 미리  
 안 사지, 생선 같은 것은.}  
 10208 @ 오래 모 똥게 {오래 못 두니까}  
 10208 # 인자 그때 사서 허고 바로. {이제 그때 사서 하고 바로 }  
 10208 @ 그럼 {그럼}  
 10208 # 그때는 되야지 잡꼬. {그때는 돼지 잡고.}  
 10208 @ 되야지 잡꼬. 음. {돼지 잡고. 음.}  
 10208 # 부:자가 되야지 잡제 되야지 자른 사람 업써 벨라. {부자가 돼지 잡지 돼지 잡은  
 사람 없어, 별로.}  
 10208 @ 그러지요이~. 되야지 함마리 잡끼가 보:통 {그러지요. 돼지 한 마리 잡기가 보  
 통}  
 10208 # 되:지 잡는 사람치고는 부자지 {돼지 잡는 사람치고는 부자지.}  
 10208 @ 음. {음.}  
 10208 @ 우리조게서 저쪽 북 서울 가튼디서는 국쭈를 마:니 머거요 겨론시게. {우리 쪽에  
 서 저쪽 북 서울 같은 데서는 국수를 많이 먹어요, 결혼식에.}  
 10208 # 그런닥 험띠다. {그런다고 함디다.}  
 10208 @ 예 {예.}  
 10208 # 근디 즉 무시 그 테레비서 그립떠여? 국쭈 언:제 줄라나고 험떠여? 근디 여그는  
 국씨 빠비 업써. {그런데 즉 뭐가 그 텔레비전에서 그러잖아요? 국수 언제 주려냐고 하잖습  
 디까? 그런데 여기는 국수 법이 없어.}  
 10208 @ 여그는 업찌요이~? {여그는 없지요.}  
 10208 # 예. {예.}  
 10208 # 다::반찬 장만해서 바블 허제. {다 반찬 장만해서 밥을 하지.}  
 10208 @ 바블 허제이~. {밥을 하지.}  
 10208 # 엔:나레 구:게론 해도 점:부 바벌 해. {옛날에 구식결혼 해도 전부 밥을 해.}  
 10208 @ 예. {예.}  
 10208 # 반찬 장만해서 그러제. {반찬 장만해서 그러지.}  
 10208 @ 게 인제 국씨 까라기 인자 길:쭈허니까 길:게 잘 사라라 머 고론 뜨시 다머저따  
 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수가락이 이제 길쭈하니까 길게 잘 살아라 뭐 그런 뜻이 담  
 겨졌다고 그러는데}  
 10208 # 으흠. {으흠.}  
 10208 @ 머 여기서 우리 남조게서는 그렇게 업:써요이~. {뭐 여기서 우리 남쪽에서는 그  
 런 것이 없어요.}

10208 # 예, 그렇거시 업:썌요. {예, 그런 것이 없어요.}

10209 @ 구:식 겨론 하머는 막 놀:고 그러기도 하지요 막 실랑? {구식 결혼하면은 막 놀고 그러기도 하지요, 막 신랑?}

10209 # 그러제라우. 실랑 다라머꼬 저녁기면 실랑을 얼:마나 두들제라우. {그러지요. 신랑 다뤄 먹고 저녁이면 신랑을 얼마나 두들기지요.}

10209 # 두들고 기양 다라머꼬 먼: 돈 얼:마를 내라고 막 허고, 먼 소 잡자 돼:지 잡자 허고 다라머꼬 기양 두들고 그러고. {두들기고 그냥 다뤄 먹고 무슨 돈 얼마를 내라고 막 하고, 뭐 소 잡자 돼지 잡자 하고 다뤄 먹고 그냥 두들기고 그러고.}

10209 # 인자 남 남자들 베까테서 또 기양 손님들 망 놀:기도 허고 장구치고 놀:기도 하고 고러고 그레 {이제 남자들 밖에서 또 그냥 손님들 막 놀기도 하고 장구 치고 놀기도 하고 그러고 그레.}

10209 @ 음음음. 그러지요이~. {음음음. 그러지요.}

10209 @ 예. (6초) {예. (6초)}

####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11 @ 그러면 인제 그 후로 인제 겨론해서 아이를 나:코 그런 아이가 메시 메슬 나셔썌요 그때? {그러면 이제 그 후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아이가 몇이 몇을 나썌어요, 그때?}

10211 # 나키는 여런 나:썌요. 거그서 예:기를 쳐데기 머시메 나서 실패해 버리고 또 딸:둘: 나코 머시메 나 실패해 버리고 {낳기는 여럿 낳았어요. 거기서 아기를 첫 아기 사내아이('머시메'는 '사내아이'의 방언형) 낳아서 실패해 버리고 또 딸 둘 낳고 사내아이 낳아 실패해 버리고.}

10211 @ 그러지요이~. {그러지요.}

10211 # 고로고는 인자 그 미테로는 인자 딸 나가꼬 \*\*\*\*. {그리고는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딸 낳아가지고 \*\*\*\* }

10216 @ 엔:나레는 아이 나:도 절반 살:기가 쉽썌 아네요 다. {옛날에는 아이 낳아도 절반 살기가 쉽지 않아요, 다.}

10216 # 근데 지금가트면 안 주기지 아나요? 그때는 병:원 갈찌도 몰르고 강:기 들면 강:구미 강:기가 세와가지고 인자 지금 생가경계 강:기가 세가꼬 폐:렴 되야똥갑떠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죽이지 않잖아요? 그때는 병원 갈 줄도 모르고 감기 들면 감기가 악화되어서('세우다'는 '악화되다'의 뜻)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감기가 악화돼 폐렴 되었던가 봄디다.}

10216 @ 폐:렴 {폐렴}

10216 # 폐:러민데야가꼬 고러코 그레부러썌라우. {폐렴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레 버렸어요.}

10216 # 궁게 지금 생가거면 아 지그른 안 주기제 진짜로. 다 병:원에만 가버렇게 쫓꼬만 아프면 병:원에 가 버렇게 궁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 지금은 안 죽이지 진짜로. 다 병원에만 가 버리니까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10216 # 그때는 그 시대가 고라고 미련하고 그레가꼬 새끼 예:기덜 마:니 주겨부러썌. {그때는 그 시대가 그렇게 미련하고 그레가지고 새끼 갓난아기('예기'는 '갓난아기'의 뜻)들 많이 죽여버렸어.}

10216 @ 그때는 또 약또 그만 조:치도 양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약도 그만큼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10214 @ 그러면 인제 아이 나:업 뒤에 인자 산:후 조리를 그때 머 어트케 요새는 잘 하지 마는 {그러면 이제 아이 나 업 뒤에 이제 산후 조리를 그때 뭐 어떻게 요새는 잘 하지마는}

10214 # 그렇게 산:후 조리 아네가꼬 네가 요로코 뽕해제라우. {그러니까 산후 조리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 났지요.}

10214 # 산:후 조리를 아네써. {산후 조리를 안 했어.}

10214 @ 바로 이:를 해야써. {바로 일을 해야 돼.}

10214 # 아:면. 예:기만 나:머는 시어머니 기계씨도 우리 시어머니는 달::때 먼 시집싸리고 먼 나보고 잘모다 쏘리 아네. 네가 머:설 싹 잘 해: 버렇게 그래명가 어제똥가는 모르긴는데 머 항가지꺼 시게 본 저기 업써. 그런디 {아무렴. 아기만 낳으면은 시어머니 계셨어도('기졌다'는 '계시다'의 방언형)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무슨 시집살이고 뭐 나보고 잘못했다 소리 안 해. 내가 무엇이든지 싹 잘 해 버리니까 그랬든지 어쨌든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가지('한 가짓것'은 '한 가지'의 뜻) 시켜 본 적이 없어. 그런데}

10214 # 산:후 조리 가통건 안 시게줘 우리 시어머니는. {산후 조리 같은 것은 안 시켜 줘, 우리 시어머니는.}

10214 # 밥 허능 거슬 기양 호레~이마끔 거시거고 이:러능 거슨 호레~이마치 무사:가꼬는 저 부어게 드러강 거슬 그러케 시러하시드마. {밥 하는 것을 그냥 호랑이만큼 거시기하고 일하는 것은 호랑이만큼 무서워가지고는 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더구먼.}

10214 # 그렇게 포도::시 예기나코 뉘:씨면 그때 조까 해:주고는 세밑날보터은 아침 세밑날 아침보터은 네:가 나와서 바벌 해:머거. {그러니까 겨우('포도시'는 '겨우'의 방언형) 아기 낳고 누워 있으면 그때 조금 해 주고는 삼 일부터는 아침 삼 일 아침부터는 내가 나와서 밥을 해 먹어.}

10214 @ 아::: {아.}

10214 # 그러면 인자 예:기 네가 이:를 싹 해벌지아나요? 바베무그면 이:러능거시라. {그러면 이제 아기 내가 일을 싹 해 버리지 않아요? 밥 해 먹으면 일하는 것이라.}

10214 # 그리고 사라씨요. 그래가꼬 그러도 그래도 고롱 거슨 형거슨 켜찬헌데 여그서사난: 노문 켜찬헌데 영광으로 이사가가꼬는 실랑인가 남방인가가 검방저가꼬 먼 노무 또 나락짱사헌다고 가서 그래가꼬 나만 이러케 골병들게 멘드라씨라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그런 것은 한 것은 켜찬헌데 여기서야 낳은 녀석은 켜찬헌데 영광으로 이사가가지고는 신랑인가 남방인가가 건방저가지고 무슨 놈의 또 벼장사 한다고 가서 그래가지고 나만 이렇게 골병들게 만들었어요.}

10214 # 나락짱사헌다고 가서 나락짱시헌디 꼭:: 오월파레 예:기를 두:를 나씨. 요 우리 막 먹뚜이 막뛰이 딸허고 우리 막 인자 아들허고 시방. {벼장사한다고 가서 벼장사하는데 꼭 오월에 아기를 둘을 낳았어. 이 우리 막 먹둥이 막둥이 딸하고 우리 막 이제 아들하고 시방.}

10214 # 그렇게 그때는 지금처럼 보리 메:상형게 누가 보리 사무근 사람 업써. 근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보리 매상하니까 누가 보리 사 먹는 사람 없어. 그런데}

10214 # 그때는 다:: 봄네:: 움:눈 사라미 도:늘 가지가, 보리또늘, 나락짱시헌테. {그때는 다 봄 내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 보릿돈을 벼장사에게서.}

10214 # 그러고는 인자 나락 처 보리 처서는 이러게 가주와. {그러고는 이제 벼 처 보리



쳐서는 이렇게 가져와.}

10214 # 꼭:: 세밀날보텀 보리가 드로드람 마리오. {꼭 삼일부터 보리가 들어오더란 말이 오.}

10214 # 그 노를 우리 실랑은 요마치도 모데 모데 아풍게 생전. 병고 병골말로 생에가꼬. {그것을 우리 신랑은 이만큼도 못해. 못해 생전. 병골처럼 생겨가지고.}

10214 # 군데 가따와서 아파가꼬. 군데 가 병드러가 와서 {군데 갔다와서 아파가지고. 군데 가 병들어서 와서 }

10214 # 거 노를 금방 끄르고 여그 신장노서 네가 퍼가꼬 요로코 저울해서 다라가꼬 켜 아:네다 가따 종구허고 종구허고 그레썬라. 세밀날보텀. {그것을 금방 끄르고 여그 신작로서 내가 퍼가지고 이렇게 저울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저 안에다 가져다 쟁이고 쟁이고 그랬어요. ('종구허다'는 '쟁이다'의 뜻). 삼일부터.}

10214 # 열::마나 네가 궁:강허게 생인지 아요? 글러기 시여가꼬 그러코 예:기나코 그러코 해도 이:를 해도 눈도 뽀속뽀속아네. {얼마나 내가 건강하게 생긴 줄 아요? 근력이 세어가지고 그렇게 아기 낳고 그렇게 해도 일을 해도 눈도 부석부석('뽀송뽀송'은 '부석부석'의 방언형) 안 해.}

10214 # 예:기나코 막 모욕허고 막 씨꼬해도 {아기 낳고 막 목욕하고 막 씻고 해도}

10214 # 그렇게 동:네싸람드리 예:기 난:지 안 난지를 몰라썬.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기 낳은 줄 안 낳은 줄을 몰랐어.}

10214 # 그런디 인자 그때 그레가꼬 뼈가 잘 모 썬야버리고 허리고 다리고 그레가꼬 시방 오늘날 네가 이러케 고생허제.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레가지고 뼈가 잘못 돼 버리고 허리건 다리건 그레가지고 시방 오늘날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10214 # 네가 무리게 생인 사라믄 아니어썬라. {내가 무르게 생긴 사람은 아니었어요.}

10214 # 너머 경:강허니 생에가꼬 네가 또 이르케 병:신 되야부러제. {너무 건강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병신 돼버렸지.}

10214 @ 무리 하셔꾸만. {무리하셨구먼.}

10214 # 예. 너머 무. 무:리 혈꺼시 아이라 맘도 말도 모데, 무:리 형거시. {예. 너무 무리할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해. 무리한 것이.}

10214 # 어:편 사라미 예:기나코 세밀날보텀 일:헌 사람 이따우? 이:런 이:런 다른 니른 해:도 켜찬허제라우. {어떤 사람이 아기 낳고 삼 일부터 일한 사람 있대요? 일은 일은 다른 일은 해도 켜찮지요.}

10214 @ 아. {아.}

10214 # 근디 보리카메~이는 나락까메~이보다 혈:썬 무과, 보리카멩이는. {그런데 보리가마니는 벼 가마니보다 훨씬 무거워, 보리 가마니는.}

10214 # 근디 그때는 귀헌 시상이라 가메~이 한니비라도 덜: 들라고 이러코 막 짹떼기 지여서 아부로 지여서 보리를 다마가꼬오면 백 이른까지 나와. 이른근까지. {그런데 그때는 귀한 세상이라 가마니 한 잎('잎'은 가마니를 세는 단위)이라도 덜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작대기 지고 앞으로 지고 보리를 담아가지고 오면 백 일흔까지 나와, 일흔 근까지.}

10214 # 말::도 모더게 무과. 보리카메이 그노미. {말도 못하게 무거워. 보리 가마니 그것 이.}

10214 # 그런디 고노를 고티고 달해썬. {그런데 그것을 버티고 잘 했어.}

10214 # 그런디 열:메가 뽀따구가 얼마나 거시게꺼썬? 그런디 인자 어:썬 네가 궁:강허게

생에농게 글도 그만치나 거시게제. {그런데 얼마나 빠가 얼마나 거시기했겠소? 그런데 이제 어찌 내가 건강하게 생겨 놓으니까 그래도 그만큼이나 거식했지.}

10214 # 궁게 네가 오늘날은 그래서 이러고 생에씨라. 네가 달리 궁거시 아니여.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달리 그런 것이 아니야.}

10214 @ (웃음)

10214 # 궁게 뽕따구가 이러코 성헌디가 업씨. {그러니까 빠가 이렇게 성한 데가 없어.}

10214 @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10214 @ 이:를 너무 마:니 하셔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10214 # 그런디다가 인자 딱:: 서문시살머거서 한자 데야버렇게 열::마나 이:를 허거쑈? 농사 지꼬 밥 빨고 헌디. {그런 데다가 이제 딱 설흔 세 살 먹어서 혼자 되어 버리니까 얼마나 일을 하겠소? 농사 짓고 밭 부치고('벌다'는 표준어의 '부치다'에 대응) 하는데.}

10214 # 열::마나 이:를 허고 사라제라우. 이:를 그러코 상게 아조 이:리라 형거슨 기양 네 누나네 쪽 드러가꼬 나 아무리 지금 아파도 거름만 거르면 농사 벨거또 지꺼씨. {얼마나 일을 하고 살았지요. 일을 그렇게 사니까 아주 일이라 하는 것은 그냥 내 눈 안에 쪽 들어가 지고 나 아무리 지금 아파도 걸음만 걸으면 농사 어떤 것도 짓겠어.}

10214 # 다:: \*\* 농사 방서글 다 아라버렇게 농사 진는 거슨 일:도 아니여. {다 \*\* 농사 방식을 다 알아 버리니까 농사 짓는 것은 일도 아니야.}

10214 # 먼: 한자 농사 지꼬 사라쑈도 남자들 인는 사람보다 네가 농사도 잘 지꼬이~ {무슨 혼자 농사 짓고 살았어도 남자들 있는 사람보다 내가 농사도 잘 짓고}

10214 # 일:도 더 빨리 끝네고 가실 일도. 그래쑈. {일도 더 빨리 끝내고 가을 일도. 그랬어.}

10214 # 그렇게 넘더리 어츠게 해서 이:를 그르코 열릉 허냐고 모다 그레제이~.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해서 일을 그렇게 열른 하느냐고 모두 그랬지.}

10214 @ 음. {음.}

10214 # 이:리락커슨 기양 열:마나 네가 아조 부락꼴 헤이를 헤쑈 아조, 말도 모더게. {일이라는 것은 그냥 얼마나 내가 아주 동네 회의를 했어, 아주 말도 못하게.}

10214 # 그렇게 넘더리 다 그양 세얌네고 그레제. 어:쨌꼬면 이:를 그러코 허냐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냥 샘을 내고 그랬지. 어떻게 하면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10214 # 근디 그거시 병:신 골병까미여 골병. {그런데 그것이 병신 골병감이야, 골병.}

1021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14 # 웅:가레 골병나드락 그레쑈쑈. (\*\*\*\* 골병나도록 그랬었어.)

10214 @ 그레도 고로케 일 하셔쓰니까 아이들 다 키우조 혼자. {그레도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아이들 다 키우지요, 혼자.}

10214 # 그레가꼬 그렇게 그러제. 나 그레가꼬 인자 남퍼니 그러코 영광쑈 장사허다가 주 거부르고 낭게 {그레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나 그레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렇게 영광에서 장사하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

10214 @ 예. {예.}

10214 # 인자 더 이러코 도로 드화제라우. 네가 여자가 여그보도 어쑤고 살쳐 사:꺼시요? {이제 이렇게 도로 들어왔지요. 내가 여자가 여기서 어떻게 헤치고 살겠어요?}

10214 # 그러고 그 오:간 잠놈드른 영광쑈 다 상:게 그런디서는 서방 죽꼬 낭게 기양 금:방 이세끼드리 찻적글라고 지라레라우. 으노무 세끼드리. {그리고 그 온갖 잡놈들은 영광에

서 다 사니까 그런 데서는 서방 죽고 나니까 그냥 이 새끼들이 집적거리려고 지랄해요. 이 놈의 새끼들이.}

10214 @ (웃음)

10214 # 네가 그런 그런 그렇거슬 바더줄 가만 둔다요? 기양 호늘 네빠르제. {내가 그런 그런 그런 것을 받아줄 가만 둔대요? 그냥 혼을 내버리지.}

10214 # 그레가꼬는 딱 지비로 네가 요리 드로와부러제. {그레가지고는 딱 집으로 내가 이리 들어와 버렸지.}

10214 # 그레가꼬 드와서 여그서 농사 지꼬 사라제라. {그레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지요.}

10214 # 치치 그렇게 시아바이 모:시고 시어마이 모:시고 예:기덜 거넘 다 이꼬 고로고 사라쎌.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그 녀석들 다 있고 그렇게 살았어.}

10214 # 그래도 그때는 (침을 다시며) 고생을 허고 사라쎌도 어천 중도 모르고 살:고 서방 사라쎌 때가 고생을 더 헤쎌. {그래도 그때는 (침을 다시며) 고생을 하고 살았어도 어쩐 줄 ('중'은 '줄'에 해당하는 의존명사)도 모르고 살고 서방 살았을 때가 고생을 더 했어.}

10214 # 영광서 삼:서 나락짱시 험서 여그서 살:때도 고로고 {영광서 살면서 벼장사 하면서 여기서 살 때도 그렇게}

10214 # 응 인 생 그런 얘기를 아널라젠디 생전 네 그런 얘기 아네. 넘보고도 아너곤 아난디. {응 인 생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생전 내 그런 얘기 안 해. 남보고도 안 하곤 안 하는데.}

10214 # 쪼이를 헤가꼬 {췌다('쪼이'는 '췌다'의 방언형)를 헤가지고}

10214 @ 아. 쪼이를 (웃음) 노름 노름헤가꼬 {아. 췌다를 (웃음) 노름 노름헤가지고}

10214 # 농사 지 예 농사 지:면 썩:: 가따 너무 쏘빠그 다 가퍼부러 가시리면. 나락 홀타가꼬. {농사 지 예, 농사 지으면 썩 갖다가 남의 \*\*\* 다 갚아 버려, 가을이면. 벼 타작해가지고}

10214 @ 오:메. {오매.}

10214 # 그러면 보미면 굶:끼를 밤먹떼기 허고 사라쎌요. {그러면 봄이면 굶기를 밤먹듯이 하고 살았어요.}

10214 # 근디 영광으로 나가서는 굶:뜯 아네쎌. {그런데 영광으로 나가서는 굶지는 았았어.}

10214 # 근디 인자 네:가 도라저 나 머꼬 근디, 또 영광으로 나가서는 아이 너무 장사헌 사라튼 너무 비까꼬 마:니 허제 어쩐대요? {그런데 이제 내가 \*\*\* 나 먹고 그런데, 또 영광으로 나가서는 아이 남의 장사하는 사람은 남의 빚 가지고 많이 하지 어쩐대요?}

10214 # 나라글 열:마드니 마:니를 파라야 형게 {벼를 알마든지 많이를 팔아야 하니까}

10214 # 그레가꼬 고가~이로 한나썩 판디 {그레가지고 곡간으로 하나 가득('한나썩'은 '하나 가득'의 뜻) 파는데}

10214 # 아 인자 그 정미소서 도:늘 가따 팔제라이. 근디 그 놈 팔머는 {아 이제 그 정미소에서 돈을 가져다 팔지요. 그런데 그것 팔면은}

10214 # 썩:: 데모기머는 서:팔 데모기머는 안 팔고 나:뒤따가 인자 설: 세고 방에까네서 여:네 가따 쟁미를 허난디 {썩 대목이면은 설달 대목이면은 안 팔고 놔 두었다가 이제 설쇠고 방앗간에서 연해 갖다 정미를 하는데}

10214 # 썩:: 데모게 썩 네: 부러 나락 그노물. {썩 대목에 썩 내 버려. 벼 그것들.}

10214 # 또 놀:라, 가꼬 놀라고 {또 놀려, 가지고 놀려고 }

10214 # 그레가꼬 쪼이해서 그놈 짝: 업썰불고 짝: 업썰불고 허요이. {그레가지고 섰다 해서 그것 짝 없애 버리고 하오.}

10214 # 그럴 때 네:마나 징허거쑈?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징그럽겠소('징허다'는 '징그럽다', '고약하다'의 뜻)?}

10214 # 오::직허면 주글라고 아조 벨 지꺼리를 다해바도 모:쭙고 사:라미 억찌로는 모쭙는 거십따다. {오죽하면 죽으려고 아주 별짓을 다 해봐도 못 죽고 사람이 억지로는 못 죽는 것 입디다.}

10214 # 글고 세끼들따메 모쭙꺼썰따다 켈:로. 벨시로께 주글라고 함:번 해:바도 {그리고 새끼들 때문에 못 죽겠습디다 무엇보다도('켈로'는 '젤로'로서 어원은 '제일로'이지만 여기서는 '무엇보다도'의 뜻이다.). 아무리('별스럽게'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의 뜻이다.) 죽으려고 한번 해 봐도.}

10214 # 이노무 세끼더리 망케망케 기:말로 모다 우리 큰 따리 열두살 무거썰. 즈가부지 주거썰때. {이 놈의 새끼들이 많이많이 게처럼('말로'는 '처럼'의 방언형) 모두 우리 큰딸이 열두 살 먹었어. 저희 아버지 죽었을 때.}

10214 # 그런디 어찌거쑈? {그런데 어찌겠소?}

10214 # 그르고 글 네:가 산:니를 생가거면 예:기를 한다허면 한:도 꼬또 업썰게 예:기를 아닐라젠는디 (웃음) {그리고 내가 살던('산'은 '살던'의 뜻) 일을 생각하면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웃음)}

10214 @ (웃음)

10214 # 얘기를 허던 {얘기를 하던}

10214 @ 공께 {그러니까}

10214 @ (웃음) {(웃음).}

##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10218 @ 그 엔:날 잘 살던 양반들도 제 주위에 바도 점:부 그 노:름해가꼬 다 날려볼데요 그거슬 살리믈. {그 옛날 잘 살던 양반들도 제 주위에 봐도 전부 그 노름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대요, 그것을 살림을.}

10214 # 예. {예.}

10218 # 그레썰요 . 그레가꼬 인자 한자 삼:서는 네:가 한자 삼:서는 베구과 보든 아네썰. {그랬어요. 그레가지고 이제 혼자 살면서는 내가 혼자 살면서는 배고과 보지는 않았어.}

10218 # 네 한자 살림힘서는 야:튼 싱냥, 난 몽땅 뒤. {나 혼자 살림하면서는 하여튼 식량, 나는 몽땅 뒤.}

10218 # 몽땅 두고 나무면 또 사먹뜨라도. {몽땅 두고 남으면 또 사 먹더라도.}

10218 # 그러자 생:전 베구과 보든 아네썰요, 네:가 살림힘서는, 진짜로. {그러자 생전 배고과 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살림하면서는 진짜로.}

10218 @ 웃음

10214 # 그리고 돈: 가지고 성가셔보도 아너고. {그리고 돈 가지고 성가셔 보지도 않고.}

10218 @ 아저썰 도라가시니까는 인자 맘:데로 멀 하셔쎈 혼자이~? {아저썰 돌아가시니까는 이제 마음대로 뭘 하쎄쎈 혼자? }

10218 # 인자 네:가 농사 지어서 이럭저럭 허고 바또 버러서 이럭저럭흥게 예:기도 그남동  
너무치로 잘 갈치도 모덤 그놈 갈치고 그럼서 형게 기양 돈: 가지고도 그러::케 기양 외통  
터지게 그러케 구에도 암바더보고 그러고 사라썌요 기양. {이제 내가 농사 지어서 이럭저럭  
하고 밭도 부쳐서 이럭저럭 하니까 아이도 그나마 남처럼 잘 가르치지도 못한 그것 가르치  
고 그러면서 하니까 그냥 돈 가지고도 그렇게 그냥 애터지게('애통'은 '애'의 뜻) 그렇게 구  
애도 안 받아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10214 @ 예. {예.}

10218 @ 아이고. 쫘 아쉽긴 일찍 도라가셔서 아쉽기는 헌데 또 고론 저메서는 또 더 오래  
사라게셔쓰면 더 모:쓸 고생을 {아이고. 쫘 아쉽긴 일찍 돌아가셔서 헌데 또 그런 점에서는  
또 더 오래 살아 계셨으면 더 몸쓸 고생을}

10218 # 아 근디 사:라미 너머 똑:똑해가꼬 인자 쫘이는 해도 오래 사라쓰면 사라미 크게  
되야는 되야 마라자거면 큰 그르게는 된디 {아 그런데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제 섰다  
는 해도 오래 살았으면 사람이 크게 되기는 돼. 말하자면 큰 그릇은 되는데}

10218 # 인자 모미 긍:강허덜 모데썌. 군데가꼬와서 병드러 가꼬 나서 {이제 몸이 건강하  
지를 못했어. 군대 갔다 와서 병 들어가지고 나서}

10218 # 군데가서 그때는 청막치고 구닌드리 자니까 그때 눈: 그때는 하도 누니 마니 오는  
세사~이라 누:니 컴::나게 와가꼬 게양 청마기 짜바져버려따게. 자는 데서. {군대 가서 그때  
는 천막 치고 군인들이 자니까 그때 눈 그때는 하도 눈이 많이 오는 세상이라 눈이 굉장히  
와가지고 그냥 천막이 짜그라져('짜바지다'는 '짜그라지다'의 방언형) 버렸다고 해. 자는 데  
서.}

10218 # 그레가꼬 이 몸뜨레 모다 서꿀로 다쳐가꼬 {그레가지고 이 몸뚱이 모두 서까래로  
다쳐가지고}

10218 @ 아이고 {아이고}

10218 # 병: 드러부러썌. {병 들어 버렸어.}

10218 # 병:드러가꼬 와가꼬 고로코 더 얼릉 거시게부러쩌라. {병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렇게 더 얼른 거식해 버렸지요.}

10218 @ 음. {음}

10218 @ 그림 아까 말씀 머: 시부 시붐 시어머니한테는 특빠리 시집싸리 가통거 시:마게  
아나서께꾸뇨? {그림 아까 말씀 뭐 시부 시어머니한테는 특별히 시집살이 같은 것 심하게  
안 하셨겠군요?}

10218 예, 시웁 어째서 그냐면 우리 시아바이한테는 거시기 저그서 따로 살 때 {예, 시어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시아버지한테는 거시기 저기서 따로 살 때}

10218 @ 아 {아}

10218 # 나 영광서 살 때는 여그서 따로 사라게끄던. 나 막 시집와서 따로 살고. {나 영광  
서 살 때는 여기서 따로 사셨거든. 나 막 시집와서 따로 살고}

10218 # 그때는 시아바이가 시집싸리 시킵따다. {그때는 시아버지가 시집살이 시킵디다.}

10218 # 어째서 시집싸리냐면 자근어메라 헌 양반이 나를 미여서 꼬를 모빠. 네가 머이든  
지 잘 현다형게. {어째서 시집살이냐면 작은 어머니라고 하는 양반이 나를 미워서 꼴을 못  
봐. 내가 무엇이든지 잘 한다고 하니까.}

10218 # 베도 잘짜제 일:도 잘허제 머:시든지 누:가 잘 누구든지 다 잘한다고만 허그딩.  
{베도 잘 짜지 일 잘하지. 무엇이든지 누가 잘 누구든지 다 잘한다고만 하거든.}

10218 # 공계 그 꼬를 마:꼬 계양 거시경가 어쩡가 그레가꼬는 시아바이가 텅임서 막 머라 거드라고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고 그냥 거식하는지 어떤지 그레가지고는 시아버지가 다니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10218 # 먼: 일:만 자리면 잘 쌀지 아냐 베만 잘 짜면 잘 쌀지 아냐고 막 머라거고 그로고 텅이드라고요. 그레째 다름 거시기는 업:꼬 {무슨 일만 잘하면 잘 살 줄 아느냐 베만 잘 짜면 잘 살 줄 아느냐고 막 야단치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랬지 다른 거시기는 없고.}

10218 @ 음. {음.}

10218 # 인자 영광서 살다 여그 드와서는 또 저그 할 자근어머니락 헌 낭바니 열:릉 도라 가게써 또 {이제 영광에서 살다 여기 들어와서는 또 저기 작은어머니라고 하는 양반이 얼른 돌아가셨어, 또.}

10218 @ 아. {아.}

10218 # 문자. {먼저.}

10218 # 그렇게 시어마이 모냐 도라가서농게 기냥 나안테로 와게버려제. {그러니까 시어머니 먼저 돌아가서 놓으니까 그냥 나한테로 오서 버렸지.}

10218 # 그래서 나안테 오서서는 생::저는 해:주능 거 잡쭈제 요만 소리도 아녀셔요, 요마넌 소리도. {그래서 나한테 오서서는 생전은 해 주는 것 잡수지 이만한 소리도 안 하셔요, 이만한 소리도.}

10218 # 시어마니도 꿔:만 네시제 먼 머라고도 아녀고 생전. {시어머니도 화만 내시지 무슨 뭐라고도 안 하고 생전.}

10218 # 꿔:를 그리 네셔. 먼: 성격기 그러시능가 어찌능가 한나잘만 이씨면 암:시랑 아네도 요로코 놀짜가도 회를 네시고 그러시고 그레. 꿔:를 네셔. {화를 그리 내셔. 무슨 성격이 그러시는지 어찌는지 한 나절만 있으면 아무렇지 않아도 이렇게 놀다가고 화를 내시고 그러시고 그레. 화를 내셔.}

10218 # 그렇게 그레제 다름 거슨 업 다른 승은 업써, 우리 시어마이가. {그러니까 그러지 다른 것은 없 다른 흥은 없어. 우리 시어머니가.}

10220 @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 자근 거 마누라 도라간 뒤에 시아버지를 그러케 쉬:께 바다 줘썬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 작은 거 마누라 돌아간 뒤에 시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받아 주었어요?}

10220 @ 보통 가트면 멀 드로냐고? {보통 같으면 뭘 들어오냐고?}

10220 # 다른 디도 다 그레제 그때. {다른 곳도 다 그랬지. 그때.}

10220 # 다 암바다준다거제. 머:더로 그런 시아바이 반냐게제라. {다 안 받아 준다고 하지. 뭐하러 그런 시아버지 받느냐고 했지요.}

10220 # 어::트케 그 시어마이랑 헌 낭바니 계양 여:시 쉬:께 마라자면 여:시 뺑녀시가타가 꼬 기양 {어떻게 그 시어머니라고 하는 양반이 그냥 여우 쉽게 말하자면 여우 불여우('백여시'는 표준어의 '불여우'에 대응하는 방언형) 같아가지고 그냥 }

10220 @ 자근엄마가? {작은어머니가?}

10220 # 자근어메 난중에 계양 여그 큰집 식구는 꼴도 모뽏고 큰집 자식뜨른 꼴도 모뽏고 아 여그 우리 참 실랑이란 사람하고 상:주고 사썬 멘너늘. {작은어머니 난중에 그냥 여기 큰집 식구는 꼴도 못보고 큰집 자식들은 꼴도 못보고 아 여기 우리 참 실랑이란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고('상주고'는 아마도 '상종을 하지 않고'의 뜻으로 추정됨) 살았어 몇 년을.}

10220 @ 아하. {아하.}

10220 # 자그 그 어메란 사라미 광 차:꾸 머시로 게양 거시기를 해:쌍게 {작은 그 어머니란 사람이 자꾸 무엇으로 그냥 거시기를 해 대니까 }

10220 # 그러코 게양 저리 나가꼬 모다 그러코 사라씨라. 그러드이 {그렇게 그냥 사이가 나빠가지고 ('절나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다'의 뜻) 모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더니}

10220 # 그 어메 주꼬 낭게는 요러코 오싱게 누구던지 다 그러제 멀라 반냐고? 그래도 {그 어머니 죽고 나니까는 이렇게 오시니까 누구든지 다 그러지. 뭐하려고 받느냐고? 그래도}

10220 # 그 살림사리를 거그서 다: 업:씨고 거그다 다: 나두고 당신 오뽀파리만 한나 가꼬 와씨. {그 살림살이를 거기서 다 없애고 거기다 다 놓아 두고 당신 옷보파리만 하나 가지고 와서}

10220 # 오뽀파리만 한나 {옷보파리만 하나}

10220 @ 거그서 다 자시기 이씨쫘니까? {거기서 다 자식이 있었습니까?}

10220 # 아드리 이제. 우리 시야제 이씨 지금. 잘 싸라라우 지금. 썸 굴람서 방에깐 허고 현다. {아들이 있지. 우리 시동생 있어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저 군남서 방앗간 하고 하는데.}

10220 # 그래도 거그서 머이든지 네가 도라거면 쓰거씨도 시야글 헐라그든 (혀를 차며) 네가 생가글 해바씨요. {그래도 거기서 무엇이든지 내가 달라고 그러면 좋겠어도 \*\*\* 하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 봤어요.}

10220 # 네가 이거슬 도라거머는 서로 형제간에 우에만 모:더제 네가 이까징거 가지가면 머:더냐? 네가 우리서 네 쓰는 살림도 다 이꼬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하면은 서로 형제간에 우에만 못하지 내가 이까짓것 가져가면 뭐하느냐? 내가 우리집에서 나 쓰는 살림도 다 있고 그래서}

10220 # 데:치나 시어마이 도라가지고 낭게 시누더리 거그 어메 딸드리 이짜나요? 어메가 데리곤 딸드리 이씨 셔:시. {과연('데치나'는 '과연'의 방언형)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누이들이 거기 어머니 딸들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들이 있어. 셋이.}

10220 # 그 시누드리 기양 오슬 해:서 기양 확:: 빠라서 기양 시아바이 오슬 빠라서 기양 막 그 숭가네 바느질 허드라고 썸 사모지네 사모 아네. {그 시누이들이 그냥 옷을 해서 그냥 확 빨아서 그냥 시아버지 옷을 빨아서 그냥 막 그 순간에 바느질하더라고 삼우 지내 삼우 안에.}

10220 # 바느질을 다 해가꼬 그놈 보파리를 이르게 싸서 나보고 가꼬가라 허드라고요. {바느질을 다 해가지고 그것 보파리를 이렇게 싸서 나보고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10220 # 이냥 인자 어메가 업:쌍게 자네가 바뜰소 고리고. {이냥 이제 어머니가 없으니까 자네가 받들게, 그리하고.}

10220 # 한:참 생가게보고 그노를 이:고 와씨. {한참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이고 왔어.}

10220 # 이:고와서 네 압따지 딱 비여서 시아바이 방에다 노코 오슬 하겨슬 다 너:서 다머드리 입게 해:드리고 그레씨요. {이고 와서 내 압다지 딱 비워서 시아버지 방에다 놓고 옷을 핫것을 다 넣어서 담아 드리고 입게 해 드리고 그랬어요.}

10220 @ (웃음) 아. {아.}

10220 # 그렇게 지금 도라가지고 다 도라가지고 안 지게씨도 인자 한 냥바니나 두 냥반 인는 냥반드리 시방도 말해.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도 이제

한 양반이나 두어 양반 있는 양반들이 시방도 말해.}

10220 # 그러코 시아바이한테 거시기 해:따고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거시기했다고.}

10220 # 착:: 건:실허게 그러코 해썌도 어썌 여그 와게서도 참 말 한자리도 나도 아네썌게 당신도 아네썌마는 나도 아너고. {착 건실허게 그렇게 했어도 어썌 여기 오셨어도 참 말 한 마디도('자리'는 이야기나 소리 등을 세는 단위) 나지도 았았으니까 당신도 안 했지마는 나도 안 하고.}

10220 # 반찬꼬리라도 짹:: 장마닥 사다가 데:접허고 {반찬거리라도 꼭 장마다 사다가 대 접하고}

10220 # 그렇게 나보고 다 공경 어:런 공경 잘해따고 허기는 허제라이~. {그러니까 나보고 다 공경 어른 공경 잘했다고 하기는 하지요.}

10220 @ 예. {예.}

10220 # 그런 지도 잘 네가 자렌능가 모텐능가 나는 모르고 나는 형근다고 헨:는디 {그런 줄도 잘했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는 모르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10220 # 장년에 우리 산니를 해썌라우. 비: 시고 모다 해:썌. 우떼 할메 하나썌 허고 {작년에 우리 산일을 했어요. 비 세우고 모두 했어. 웃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10220 @ 예. {예.}

10220 # 진자나부지 진자나썌 산니를 헨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산일을 하는데}

10220 # 늘근 조카드리 썌 당:질드리 와서 그런 예기 험띠다. {늙은 조카들이 저 당질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함디다.}

10220 # 당:송모가 하라부지한테 자리시고 모다 할무이한테도 자리시고 차례게농게 이러케 북빠더가꼬 요러코 거식헨다고. {당숙모가 할아버지한테 잘하시고 모두 할머니한테도 잘하시고 잘하셔 놓으니까 이렇게 북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시기한다고.}

10220 @ 음. {음.}

10220 # 고로 그런 예:기를 험띠다. 나는 자런지 모던지를 모르제라, 나는. {그러 그런 얘기를 함디다. 나는 잘한 줄 못한 줄을 모르지요, 나는. }

10220 # 네 까느론 헨다고 해:썌에. {내 판으론('깐'은 '판'의 방언) 한다고 했지.}

10220 @ (웃음) 예. {예.}

10220 @ 그럼 그 시어머니는 그 시아버지를 잘 받 바다드려가지고 잘 사이조케 사썌썌요? {그럼 그 시어머니는 그 시아버지를 잘 받 받아 들여가지고 잘 사이 좋게 사썌썌요?}

10220 # 말: 아네썌. {말 안 했어.}

10220 # 우리 시어마이가 {우리 시어머니가}

10220 @ 말 아네부러썌요? {말 안 해 버렸어요?}

10220 # 영:감니를 고:리 가서 고로코 생:전 거시거고 사란는디 오면 바더드리거썌요? {영감님을 그리 가서 그렇게 생전 거식하고 살았는데 오면 받아들이썌어요?}

10220 # 영:감니미 웅게 쫓차부리든 모더고 시 조 방에서 자시고 당시는 나허고 한테서 여그서 자시고 {영감님이 오니까 쫓아 버리지는 못하고 시 조 방에서 자시고 당신은 나하고 한테서 여기서 자시고}

10220 # 말: 아너게썌. 말 아너고 도라가게썌. {말 안 하썌어. 말 안 하고 돌아가썌어.}

10220 @ 먼년가이나 함께 그러케 사썌썌요? {몇 년 간이나 함께 그렇게 사썌썌요?}

10220 # 먼년 안사라썌꺼시요. {몇 년 안 살았을 거요.}

10220 # 한 살:기는 술차니 사라썌 그레도. 여그 와게서 한 심녀는 아마 사라썌꺼시요. {한



살기는 상당히('술차니'는 '상당히'의 뜻) 살았어, 그래도. 여기 오셔서 한 십 년은 아마 살았을 거요.}

10220 @ 먼저 쉬약 아버지미 도라가셔쎄요? {먼저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10220 # 아니요. {아니요.}

10220 # 시어머니가 몬자 도라가셔쎄. 예.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 예.}

10220 @ 시어머니가 도라가셔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10220 @ 응. {응.}

10220 # 시어머니 도라가시고도 검:나게 오래 살다 도라가게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도 굉장히 오래 살다 돌아가셨어.}

10220 @ 그먼 홀로 또 시아버지 또 모셔쎄네요? {그러면 홀로 또 시아버지 또 모셨겠네요?}

10220 # 그러제라우. {그러지요.}

10220 @ 아이고. 정말 힘드셔쎄네요. {아이고, 정말 힘들겠네요.}

10220 # 우리 시아버지가 야든 아오베 도라가게쎄. {우리 시아버지가 여든 아홉에 돌아가셨어.}

10220 @ 어? (놀라며) {어?}

10220 # 궁게 그땐 시상에는 검::나게 오래 사라게쎄라우. {그러니까 그땐 세상에는 굉장히 오래 사셨지요.}

10220 @ 오래 사셔쎄. 지금도 오래 사신디 \*\*\*\* {오래 사셨지요. 지금도 오래 사시는데. \*\*\*\*}

10220 # 야든 아오베 도라가게쎄도 {여든아홉에 돌아가셨어도}

10220 # 그레도 한::나도 미운 맘도 업꼬 오래 사라간 오래 사린다 그 맘도 업꼬 우리는 고로코 사라쎄라. 그렇게 {그레도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고 오래 살아갔 오래 산다 그 마음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10220 @ 예. {예.}

10220 # 먼 저리 업쎄 사라쎄. {무슨 나쁜 감정('절'은 나쁜 관계 또는 사람 사이의 나쁜 감정)이 없이 살았어.}

10220 # 미운 마미 업:쎄 살고. {미운 마음이 없이 살고.}

10220 @ 음. {음.}

10220 # 기양{그냥}

10220 # 아더럴 모:똥가꼬 당시니 늑빠레 모:잡수고 산:다 허고이 불쌍허기만 허고 쥘:허기만 허고 그럼 맘만 가꼬 사라서 요마니도 미운 마미 업쎄 사라쎄 시아버지허고도 {아들을 못 뉘가지고 당신이 늑그막('늑발'은 '늑그막'의 방언형)에 못 잡수고 산다 하고 불쌍하기만 하고 ('쥘허다'는 '불쌍하다'의 뜻)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서 이만큼도 미운 마음이 없이 살았어. 시아버지하고도.}

10220 @ 음. {음.}

10220 @ 예. {예.}

10220 @ 머 특빠리 일하시거나 그러지는 아나셔쎄네요? {뭐 특별히 일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겠네요?}

10220 # 이:른 모:데시제. {일은 못하시지.}

10220 @ 예. {예.}

10220 @ 아이고 그러세요. 음. {아이고 그러세요. 음.}

10219 @ 여기 친정하고 시대가고 요 보니 어떻게 생활형편이 이렇 거뜨리 마:니 다릅니  
 까? 며 어뜨게 사:는 {여기 친정하고 시대가고 요 보니 어떻게 생활 형편이 이런 것들이 많  
 이 다릅니까? 뭐 어떻게 사는}

10219 # 가:터. 인자 서:로 우리 친정도 양:바니고 강산 김까 진:짜 양바니제라이. 그르고  
 여그 강:가도 양:바니고. 그러니까 {같아. 이제 서로 우리 친정도 양반이고 광산 김씨 진짜  
 양반이지요. 그리고 여기 강씨도 양반이고 그러니까}

10219 # 모다 허는 행:불리가 행서기 다: 가뜰따다, 와서 봉게. {모두 하는 형 \*\*이 행색이  
 다 같습디다. 와서 보니까. }

10219 @ 아, 그래쎄요. {아, 그랬어요.}

10219 # 다 여그도 검::나게 양:반사리를 험띠다 시집옹게 기양 아조. {다 여기도 굉장히  
 양반살이를 함디다. 시집오니까 그냥 아주. }

10219 @ 음. {음.}

10219 # 다 호:적싸리 이씨가꼬 다 종:덜 나두고 시게머꼬 여그도 옹게 그럽따다. {다 중  
 문서('호적살이'는 종문서에 종 이름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을 가리킨다.) 있어가지고 다 종들  
 놔두고 시켜 먹고 여기도 오니까 그럽디다.}

10219 # 궁게 사:는 거시기는 가:뜰따다 봉게. {그러니까 사는 거시기는 같습디다, 보니  
 까.}

10219 @ 아. 비순해:서 큰 차이는 업쎄네요이~? {아. 비슷해서 큰 차이는 없었네요.}

10219 # 예. {예.}

10219 @ 예. (6초) {예.}

10219 @ 주위에서 시집싸리 마:니 시킨 집또 보셔쎄요? {주위에서 시집살이 많이 시킨 집  
 도 보셨어요?}

10219 @ 요 주위에서도. 혹씨 사:는 {요 주위에서도 혹시 사는?}

10219 # 이 주위에서 {이 주위에서 }

10219 @ 으~으~ 동 보면 여페서 {으~으~ 동 보면 옆에서}

10219 # 일 이제 이끼도. {있 있지, 있기도.}

10221 @ 응. 지금하고 다르자나요? 지그문 그러케 며 {응.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뭐}

10221 # 궁게 시집싸리를 고레따고 현:능가 어젠능가 모르거쑈마는 요: 우게찌비서 산 사  
 라문 그리 시어마이허고 그르코 안 줍따다 보면.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그랬다고 했는지 어  
 켜는지 모르겠소마는 이 윗집에서 살던 사람은 그리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안 좋습디다, 보  
 면.}

10221 # 안조코 서로 강 고로코 헤싸코 싸:머고 그럽따다. {안 좋고 서로 그냥 그렇게 해  
 대고 싸움하고 그럽디다.}

10221 # 궁게 시집싸리 해:따고 모다 그러쌍:게 모르거쑈따다 시집싸리 현:능가 어젠능가  
 {그러니까 시집살이했다고 모두 그래 대니까 모르겠습디다, 시집살이 했는지 어쨌는지.}

10221 @ 음. {음.}

10221 # 이런 사라문 그때는 어:디 탕이들 아너고 산: 시상이라 거그도 지바는 지바닌디.  
 {이런 사람은 그때는 어디 다니지를 앓고 살던 세상이라 거기도 집안은 집안인데.}

10221 # 검:나게 시집싸리 해:따고 인자 예:기 허면 그런디 {굉장히 시집살이 했다고 이제

얘기하면 그런데.}

10221 @ 음. {음.}

10221 # 이런 사라는 모르제라. 안 텅임서 바:서 시집싸리 시젠능가 어젠능가. {이런 사람은 모르지요. 다니면서 안 봐서 시집살이 시켰는지 어쨌는지.}

10221 @ 금께 한지베서 가치 사:면 고로케 싸우미 이러나요. 예 따로 떠러져 살면 좀 덜: 한테 엔나레는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면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예, 따로 떨어져서 살면 좀 덜한데 옛날에는}

10221 # 그때느는 조금 사는 사لامي 업제라우. {그때는 판살림을 차려서('조금'은 '판살림'의 방언형) 사는 사람이 없지요.}

10221 @ 업찌요이~. {없지요.}

10221 # 아:면. 다 지그밍게 자식뜨리 다 보 나가버르제 식 그때는 다 한테 사라제라. {아무렴. 다 지금이니까 자식들이 다 미리('보'는 '미리'의 뜻) 나가 버리지. 그때는 다 한테 살았지요.}

10221 # 그러고 인자 자근 아드른 여우먼 저금네고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은 결혼시키면 ('여우다'는 '결혼시키다'의 뜻) 판살림 내고}

10221 @ 어 {어}

10221 # 동:네다가{동네다가}

10221 @ 예. {예.}

10221 # 그레제. {그랬지.}

10221 @ 예. {예.}

10221 @ 저금넬때는 머 좀 농사도 좀 띠여 줘니까? {판살림 내려면 뭐 좀 농사도 좀 떼어 줘니까?}

10221 # 노니 마:는 사라는 띠여 주제. {논이 많은 사람은 떼어 주지.}

10221 # 암:만. 띠여 주제라우. {아무렴. 떼어 주지요.}

10221 @ 아. {아.}

10221 # 띠여 주제. {떼어 주지.}

10221 @ 그러지요. 예. {그러지요. 예.}

## 1.2.6 환갑잔치

10223 @ 그다메 엔:나레 인자 큰 잔치로 인자 요세는 잘 그 향:갑가통게 크게 세:찌요 향:가블? 그레찌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큰 잔치로 이제 요세는 잘 그 환갑 같은 것 크게 쇠었지요 환갑을? 그랬지요?}

10223 # 그 엔나레는 푸 부:자가 향:갑세제 향:갑 켜 싸람 업:써. {그 옛날에는 부자가 환갑 쇠지 환갑 쇠는 사람 없어.}

10223 @ 그레요? {그레요?}

10223 # 예. 향:갑켄 싸람 업써. {예. 환갑 쇠는 사람 없어.}

10223 # 지그밍게 기양 향:갑 세고 칠순 세고 막 팔순도 세고 그러제 {지금이니까 그냥 환갑 쇠고 칠순 쇠고 막 팔순도 쇠고 그러지.}

10223 # 어:디가 향:갑 켜 싸라미 얼마나 이따우? {어디 환갑 쇠는 사람이 얼마나 있대요?}

10223 @ 아 보:통 사라른 항:갑 잘 안 세나요? {아, 보통 사람은 환갑 잘 안 쇠나요?}  
 10223 # 응 보:통 싸람 항:갑 여페도 모까바제라. {응, 보통 사람 환갑 옆에도 못 가봤지요.}  
 10223 @ 오:: 부:자가 되어야이~. {오, 부자가 되어야.}  
 10223 @ 그래요이~. {그래요. }

## 1.2.7 장례 철차에 대한 이야기

10226 @ 그러면 인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러케 초상도 치뤄보셔젠네요, 다이~?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초상도 치러 보셨겠네요, 다?}  
 10226 # 예. {예.}  
 10226 @ 응, 그러면 {응, 그러면 }  
 10226 # 웅열 나와 지게썰 떼 궁게 자근어머니락 현 낭반도 {\*\* 나와 계실때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라고 한 양반도}  
 10226 @ 아 치뤄 오셔 {아, 치러 오셔}  
 10226 # 네:가 가서 동서허고 두:리 조 거식허고 {내가 가서 동서하고 둘이 거식하고}  
 10226 # 인자 데 동서가 예:기들 보네썩따다. {이제 동서가 아이들을 보냈습디다.}  
 10226 # 어머이가 더 아프싱게 쪼까 와보시라고 저:나 헤:뜨라고. {어머니가 더 아프시니까 조금 와 보시라고 전화 했더라고.}  
 10226 # 그래서 가썩라. 가뜨~이 그날 썩녀게 도라가게썩.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  
 10226 # 동서허고 나허고 종신히썩 두:리. {동서하고 나하고 종신했어. 둘이.}  
 10226 @ 아:: {아.}  
 10226 # \*\*\*\*{\*\*\*\*}  
 10226 @ 그러며는 그런 시그로 누가 인자 상이 딱 당허면 알려야되자나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누가 이제 상을 딱 당하면 알려야 되잖아요?}  
 10226 # 그리제. {그러지.}  
 10226 @ 거 어:트케 알릅니까? {거 어떻게 알릅니까?}  
 10226 # 그때는 저:나가 별라 음:는 세사~이라 아그 사:라미 다 가. {그때는 전화가 별로 없는 세상이라 사람이 다 가. }  
 10226 @ 사:라미? {사람이?}  
 10226 # 지방에도 막 사:라를 가. {지방에도 막 사람을 가.}  
 10226 @ 어~. {어.}  
 10226 # 글때는 그땐 시상에는 사:람드리 여페서 산 사라미 마:네. 업:는 사람드리. {그때는 그땐 세상에는 사람들이 옆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 없는 사람들이.}  
 10226 @ 아. {아.}  
 10226 # 우리지비서 법 거 모다 거:다라 주고 밤 머꼬 현 사람드리 마:너자나요? {우리집에서 법 거 모두 거들어 주고 밥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0226 @ 예. {예.}  
 10226 # 그런 사람들 보네면 기양 덜:고 담바끄리고 다 땡에. {그런 사람들 보내면 그냥 냅다 달음박질하고 다 다녀.}

10226 @ 아하. {아하.}

10226 # 어:디고. 고려제. {어디든지 그러지.}

10226 @ 그이까 {그러니까}

10226 @ 거 멀 저네 보면 머 부:고 가통걸 써가꼬 고로케 {거 뭘 전에 보면 뭘 부고 같은 것을 써가지고 그렇게}

10226 # 예. 그렇게 그때는 부:고를 써가꼬 지그른 이려고 우폐를 안 부쳐 부리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부고를 써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우표를 부쳐 버리잖아요?}

10226 @ 예. {예.}

10226 # 그때는 사:라미 가써, 다. {그때는 사람이 갔어, 다.}

10226 @ 사:라미. {사람이.}

10226 # 차비만 줘:서 보내. {차비만 줘서 보내.}

10226 @ 아. {아.}

10226 # 차비만 싹 더퍼서. {차비만 싹 덮어서.('덮다'는 '전체적으로 헤아리거나 셈하다'의 뜻)}

10226 @ 근데 고 부:고를 바로 지바느로 안 드렌 너:트라니까뇨. {그런데 그 부고를 바로 집안으로 안 들여 넣더라니까요. }

10226 # 암:시랑 아네. {아무렇지도 않아.}

10226 # 부:게 부:게가 머 무더따? 그런데 인자 초상난 디서 와따게서 그러제. {부고에 뭐가 묻었대요? 그런데 이제 초상난 곳에서 왔다고 해서 그러지.}

10226 @ 어~어~. {어어.}

10226 # 암시랑 아녕 거시여.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10226 @ 금게 {그러니까.}

10226 @ 금게 인제 엔:나레 보머는 요 다무라기나 요론 디다 꼬자노코 글드마뇨.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머는 이 답이나('다무락'은 '답'의 방언형) 이런 곳에다 꽂아 놓고 그러더구먼요. }

10226 # 글 안는 사라믄 또 글 아너고 다 그놈도 바더서 두고 딱:딱: 두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또 그러지 않고 다 그것도 받아서 두고 딱딱 두고.}

10226 # 또 품 가풀라면 그놈 보고 품 가푸로 텅이고 다 그레써. {또 품 갇으려면 그것 보고 품 갇으러 다니고 다 그랬어.}

10226 @ 아. {아.}

10226 # 근디 인자 그런 사라미 그러제 글 아네써. 근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러지,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10226 # 하이나 거가 멀 어제따? 암:시랑 아너제. {행여나 거기에 뭐가 어쨌대요? 아무렇지도 않지.}

10226 @ (웃음).

10226 @ 그러머는 갑짜기 도라가시면 관 가통 거슨 어떠케 짜요? {그러면은 갑자기 돌아가시면 관 같은 것은 어떻게 짜요?}

10226 @ 미리 헤:노 {미리 해 놓}

10226 # 우리, 아니여. {우리, 아니야.}

10226 # 우리 에레서는 어:른덜 도라가시고 우리 친정에서를 봉게 관파늘 네:나써 다. {우리 어려서는 어른들 돌아가시고 우리 친정에서 보니까 널을('관판'은 관을 짜는 널을 가리킨

다.) 내 놓았어, 다. }

10226 # 노:인들 지젠는 사라른 큰:: 소를 비여서 다 네:날 네:놔. 이르고 짜게서 이르고 이르고. {노인들 계신('지겠다'는 '계시다'의 방언형) 사람은 큰 술을 베어서 다 내놔 내놔. 이렇게 쪼개서('짜개다'는 '조개다'의 뜻) 이렇게 이렇게.}

10226 # 그르믄 글로 좀 암 머그라고 널: 뛰고 다 그레썬요 멍이레는. {그러면 그것으로 좀 먹지 말라고 널: 뛰고 다 그랬어요 명절에는.}

10226 @ 아. {아.}

10226 # 이 늘:과늘 가꼬 느:를 뛰여써 그놈 노코. {이 널: 판자를 가지고 널을 뛰었어 그것 놓고.}

10226 @ 아. 좀 안 머그라고 바라물 췌능 거예요? {아. 좀 먹지 말라고 바람을 쏘이는 거예요?}

10226 # 응 조만 머그라고. 이르고 늘:로 늘: 뛰여. 예, 그렌는디 그로고 헨:는디. {응, 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널로 널: 뛰어. 예,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10226 # 인자 초상나면 그노를 다:: 큰 짜구지리 저르드마. {이제 초상 나면 그것을 다 큰 자귀질 하더구먼.}

10226 # 큰 짜구질 해서 요로코 먹쥬로 요로코 텅게가꼬 그래서 인자 마당에서 느:를 찹: 떠다. {큰 자귀질 해서 이렇게 먹쥬로 이렇게 텅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널을 찹디 다.}

10226 @ 아. {아.}

10226 # 근디 인자 우리 커서는 저 우리 시지바서는 널: 안짜써. {그런데 이제 우리 커서는 저 우리 시집 와서는 널 안 찼어.}

10226 # 다 이르고 짜:오제, 찌그서. {다 이렇게 짜 오지, 저기서.}

10226 @ 짜:오세요? 아. {짜 오세요? 아.}

10226 @ 과:거에는 미리 쪼:끔 \*\* 술나무 가통 거슬 딱 {과거에는 미리 조금 \*\* 소나무 같은 것을 딱 }

10226 # 예, 우리 에레서는 그러고 그레썬라. 우리 거그 거 우리 친정에서도 부:자찹 우리 하나부지가 도라가젠는디 {예, 우리 어려서는 그렇게 그랬어요. 우리 거기 그 우리 친정에서도 부자집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0226 @ 음. {음.}

10226 # 다:: 생에 꼬또 기양 물 디레서 이르고 방에서 기양 다 사람방에서 다 멘들고 {다 상여꽃도 그냥 물 들여서 이렇게 방에서 그냥 다 사랑방에서 다 만들고}

10226 # 그러케 다 흘란스럽게 험떠다, 부자라. {그렇게 다 화려하게('흔란스럽게'는 '화려하게'의 뜻) 함디다, 부자라.}

10226 @ 음. {음.}

10226 # 근디 지그믄 아무리 부자도 글 아넌디 그때는 그리썬.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부자라도 그러지 않는데 그때는 그랬지.}

10226 # 다:: 생에도 멘드라썬. 물 디레서. 종우에다 {다 상여도 만들었어. 물 들여서, 종이에다.}

10226 @ 생에도 {상여도}

10226 # 종우에다 물 디레가꼬 {종이에다 물 들여가지고}

10226 @ 음. {음.}

10226 @ 그리고 인제 생에 멘: 사람들 동:네 싸람 다 메:주고 {그리고 이제 상여 메는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메어 주고}

10226 # 그러제라, 동:네싸람 다 메:주고. {그러지요. 동네 사람 다 메어 주고.}

10226 @ 음. {음.}

10226 # 그때는 사:라미 마:넝게 먼 생에 메능 거시 머 걱정이대요? 나 사:라미 나며 도라가는데. {그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무슨 상여 메는 것이 뭐 걱정이대요? 나 사람이 남아돌아가는데.}

10226 @ (웃음) # 어:디든지. 지그미 사:라미 업제. {어디든지. 지금이 사람이 없지.}

10226 @ 근데 인제 도:니 업:는 사람드른 생에 몸: 메지아나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상여 못 메잖아요?}

10226 # 음:씨도 동:네싸람드른 다 와서 해줘. {없어도 동네 사람들은 다 와서 해 줘.}

10226 @ 아니. 돈 업쓴 사람드른 생에를 만들지 모:다고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은 상여를 만들지 못하고}

10226 # 그때는 몬:멘들고, 또 이씨. 동네가 생에가. {그때는 못 만들고, 또 있어. 동네에 상여가.}

10226 @ 아. {아.}

10226 # 그놈 머 터:다 쓰고나면 딱: 뒤. {그것 뭐 터서 쓰고 나면 딱 뒤.}

10226 # 두어따가 또 그놈 또 쓰고 또 쓰고 {두었다가 또 그것 또 쓰고 또 쓰고 }

10226 @ 공 공:동으로 쓰는 생에구나. {공 공동으로 쓰는 상여구나.}

10226 # 응 공:동으로 생:가시 이씨씨 그때는. {응, 공동으로 상여가 있었어 그때는.}

10226 @ 그러구나. {그렇구나.}

10226 @ 그러면 생에 암 메고 가는 사라몬 업씨요? {그러면 상여 안 메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

10226 # 생에 안 메고 간 사라몬 업:제. 암만 업:씨도 생에는 메제. {상여 안 메고 가는 사람은 없지. 아무리 없어도 상여는 메지.}

10226 @ 아하. {아하.}

10226 # 기양 동:네싸라미 이르코 메:고 강게 머글 꺼슨 이편지 업편지 그저 수란잔씩 머 꼬 다 그양 가서 무더주고 그러자나요? 원치 가난한 사라몬? {그냥 동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니까 먹을 것은 있든지 없든지 그저 술 한 잔씩 먹고 다 그냥 가서 물어 주고 그러잖아요? 워낙 가난한 사람은?}

10226 @ 음. 그런데요. { 음. 그랬네요.}

10226 # 장:게 양 간 사라미나 생에 안 메제. {장가 안 간 사람이나 상여 안 메지.}

10226 # 장:게 양 간 사라몬 생에 안 메. {장가 안 간 사람은 상여 안 메.}

10226 @ 아하. 장게 {아하. 장가.}

10226 # 음. {음.}

10226 # 기냥 들켜시르허제. 장게 양 간 사라몬. {그냥 들것으로 하지. 장가 안 간 사람은.}

10226 @ 아. {아.}

10226 @ 그건 어:트케 해요 그먼?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

10226 # 거먼 지그몬 니야까라도 이제만 그때는 니야까로 업쓰면 기양 떠:메고 가. {그러면 지금은 손수레라도 있지마는 그때는 손수레도 없으면 그냥 떠메고 가.}

10226 @ 관네 관 {관에 관}

10226 # 이르케 이측 간 가늘 이러코 떠:머가 이르케 머 더퍼가꼬 {이렇게 이쪽 관 관을 이렇게 떠메고 이렇게 뭐 덮어가지고}

10226 # 그때는 가메~이다 더푸제라우, 가메~이. {그때는 가마니에다 덮지요, 가마니.}

10226 # 우리 에레스는 가메~이 더푸떠다. {우리 어려서는 가마니 덮습디다.}

10226 # 시방은 그런 법 업:제. 근디 그때는 {시방은 그런 법 없지. 그런데 그때는}

10226 @ 관 과늘 {관 관을}

10226 # 가늘 강 가멩이 더퍼. {관을 그냥 가마니 덮어.}

10226 @ 아. {아.}

10226 # 생에도 안 찌고. {상여도 안 쓰고.('찌다'는 '쓰다'의 뜻으로 추정됨.)}

10226 @ 아{아}

10226 # 장:게 양 간 사라문. {장가 안 간 사람은.}

10226 @ 고런 거슬 머락 해요? 고거슨?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은?}

10226 # 그럭 몰:라 머:라 허능가 모른디 그러케 헤 허드랑게 장:게 양 간 사라문. {그럭 몰라. 뭐라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더라니까 장가 안 간 사람은.}

10226 @ 응. 들꺼시라 해요. {응. 들것이라 해요.}

10226 # 생전 예 들꺼시. 강. {생전 예 들것이. 그냥.}

10226 # 먼 금:방 주그먼 그날 가따 거시게버려. 거 생에 장:게 안 상안 사라문. {무슨 금방 죽으면 그날 가져다 거시기해 버려. 그 상여 장가 안 간 사람은.}

10226 # 나 열:령 먼 하레 지네고 머더고도 아너고 {나 열른 무슨 하루 지내고 무엇 하지도 앓고}

10226 @ 금게 처:녀고 총:가기고 다. {그러니까 처녀고 총각이고 다.}

10226 # 예, 그날 그레부러. {예, 그날 그레 버려.}

10226 @ 어. {어.}

10226 @ 예:기드른 어쩜니까? 예:기들 예기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아이들.}

10226 # 예:기드른 기양 금방 가따 무더버르제. \*\* {아이들은 그냥 금방 가져다 물어 버리지. \*\*}

10226 @ 관도 안 찌고 {관도 안 찌고 }

10226 # 가늘 안 찌고 그때는. {관을 안 찌고 그때는}

10226 # 인자 커야 간 쪼까라도 간 커야 간 짜제 예:기드른 간 안 짜. {이제 커야 관 조금이라도 관 커야 관 짜지 아이들은 관 안 짜.}

10226 @ 음. 고려면 지게에다 기양 바로 떠:꼬 가가지고 {음. 그러면 지게에다 그냥 바로 떠메고 가가지고}

10226 # 제:간헝거뜨른 보등꼬 가고 {조그마한 것들은 안고 가고}

10226 # 엔:나레는 예:기드리 마:니 실패를 허니까 보면 보등꼬 가고 허드마, 아부지드리.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실패를 하니까 보면 안고 가고 하더구먼, 아버지들이.}

10226 @ 아. 고 먼 글케 묘:도 안 쓰고 {아. 그 무슨 그렇게 묘도 안 쓰고 }

10226 # 메:도 안 쓰고 계양 지피 파고 깡 무꼬 기양 거그다 동: 나버르고 그런다 험떠다 예:기더른. {묘도 안 쓰고 그냥 깊이 파고 짹 묻고 그냥 거기다 돌 놔 버리고 그런다고 합디다, 아이들은.}

10226 @ 응, 예기드른. {응, 아이들은.}



10226 # 어제 그야면 먼 짐성 모:꺼시거라고 독: 주서다 동: 나버르고 그런다 험띠다. {어찌 그러냐면 무슨 짐승 못 거시기하라고 돌 주어다 돌 놔 버리고 그런다고 합디다.}

10226 @ 음. 그래요이~. {음, 그래요.}

###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30 @ 거 즉 큰지비이니까 제:사 마:니 지:내서께썩요? {거 즉 큰집이니까 제사 많이 지내셨겠어요?}

10230 # 예. {예.}

10230 # 그러제라우. 우리 하나부지 지:사는 진지하나부지까 질:고 우리 시아바이 시어마이 지네시 지네고 {그러지요. 우리 할아버지 제사는 증조할아버지까지 지내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지내시 지내고.}

10230 @ 어 일러네 그러면 메차레나? {어 일 년에 그러면 몇 차례나?}

10230 # 세:번 {세 번}

10230 @ 세:번\*\* {세 번\*\*}

10230 # 네우간 하베서 지네도 세:번 지넨디 {내외 합해서 지내도 세 번 지내는데}

10230 @ 세:번 지네. {세 번 지내.}

10230 # 장년부텨 할 다 합:짜해서 지네. {작년부터 다 합자해서 지내.}

10230 @ 하폐서 지네고 {합해서 지내고}

10230 # 어째서 그냐면 넘더리 다:: 합짜해서 지네고이 너무 지반드리 또 다 날 바다서 막 지네고 {어째서 그러냐면 남들이 다 합자해서 지내고 남의 집안들이 또 다 날 받아서 막 지내고}

10230 @ 그래요. {그래요.}

10230 # 그렇게 모다 봉게 시야제드리 기양 우리진 시야 나이 잡순 시야제드리 고 하베줍띠다. {그러니까 모두 보니까 시동생들이 그냥 우리집 시동 나이 잡순 시동생들이 그 합해줍디다.}

10230 @ 응. {응.}

10230 # 고생 모다 헐 피료가 업따고 우리도 이리케 하베서 지네자고 그레가꼬 하베서 지네요. 그러케. {고생 모두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도 이렇게 합해서 지네자고 그레가지고 합해서 지내요. 그렇게.}

10230 @ 저이는 오래 데썩요 하폐서 지넨 지가. {저희는 오래 댔어요 합해서 지넨 지가.}

10230 # 우르는 아 그라네썩요. 장년부텨 하베저썩요. {우리는 그러지 았았어요. 작년부터 합해졌어요.}

10230 @ 아 장년에사. {아 작년에야.}

10230 # 넘더리 다:: 그러니까 인자 우리 시야제분드리 메뻔 안 지게꼬 도시가 상:게 메뻔 안 지게썩. 여그 두:분베끼 안 지게썩. {남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동생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도시에 사니까 몇 분 안 계셔. 여기 두 분밖에 안 계셔.}

10230 @ 음. {음.}

10226 # 근디 그 낭반드리 이리코 하베주시드라고. 그렇게 워:녕 소롭띠다. 그케 하베 지네 봉게. 각까지 다 지네다가.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렇게 합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훨썬('워녕'은 '예상보다 훨썬'의 뜻) 수월합디다. 그렇게 합해서 지내 버리니까. 갖가지 다 지내다

가.}

10230 @ 우리 애기엄마는 제사만 지낼라거든 막 꾸메 막 양물을 낚습니다. 미리 며칠전부터. {우리 애기엄마는 제사만 지내려고 하면 막 꿈에 막 악몽을 낚습니다. 미리 며칠 전부터.}

10230 # 왜 그래? {왜 그래?}

10230 @ 어째서? {웃음} 부:답스로와가꼬 그러지요. {어째서? {웃음} 부답스러워가지고 그러지요.}

10230 # 그 부:답스럭게 허면 쓰가니? {그 부답스럽게 하면 되나?}

10230 # 네가 네 정성꼐 해야지 네 정서꼐. {내가 내 정성꼐 해야지, 내 정성꼐.}

10230 # 제간 허든 마:니 허든지 네 정성은 {조금 하든 많이 하든지 내 정성은}

10230 @ 지그믄 인제 마:니 습파니 되가지고 잘 하는데 엔:날 처음 겨론 막 해:가지고 인자 그 제:사 지낼라고 생각허면 {지금은 이제 많이 습관이 돼가지고 잘 하는데 옛날 처음 결혼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제사 지내려고 생각하면.}

10230 # 하이고 지그믄 지:사 지넹거 우리는 양:꾸또 아니여, 지:사는. {하이고, 지금은 제사 지내는 것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야, 제사는.}

10230 @ 엔:나레는 어째써요? {옛날에는 어땀어요?}

10230 # 인자 엔:나레는 수:가 마:넹게 지바니 마:넹게 저녀기면 지:사 지넹 진:설헤노코 상을 메슬 나서 바블 머거. {이제 옛날에는 수가 많으니까 집안이 많으니까 저녁이면 제사 지내 진설해 놓고 상을 몇을 놓아서 밥을 먹어.}

10230 # 또 머꼬 또 지:사 지네고 나면 지:사 지넹따고 또 머꼬 {또 먹고 또 제사 지내고 나면 제사 지넹다고 또 먹고}

10230 # 또 그 이트 아치메사 싹:: 와서 머꼬 {또 그 이튿날 아침에야 싹 와서 먹고}

10230 # 아조 밥짱씨허다 먼: 표를 모빠. 그래도 그때는 다:: 염녀비 와서 다 해:줘. 해:준 사라미 다 이씨. 염:는 사람드리. {아주 밥장사 하다 무슨 표를 못 봐. 그래도 그때는 다 꼼꼼히 챙기면서('염녀비'는 '꼼꼼히 챙기는 모양'을 나타낸다) 와서 다 해 줘. 해 주는 사람이 다 있어. 없는 사람들이.}

10230 # 호:적싸리 살:고 {종살이 살고}

10230 # 그렇게 인자 이런 사라믄 고생은 그러케 아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고생은 그렇게 안 해.}

10230 # 머이든지 데:서 허기만 허제. {무엇이든지 대어서 하기만 하지.}

10230 # 그레쫌게 그러거슨 나는 성:양가시고 사라씨. 한나도 성: 양가시고 사라씨. 그러케 해:도. {그랬으니까 그런 것은 나는 성가시지 않고 살았어. 하나도 성가시지 않고 살았어. 그렇게 해도}

10230 # 그러도 지그믄 지:사 그러코 지넹게 일 먼 지:사 지넹 거또 양가터, 시방은 계양. {그래도 지금은 제사 그렇게 지내니까 일 무슨 제사 지내는 것도 안 같아. 시방은 그냥.}

10230 # 하도 사:라미 업:썰게.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10230 # 인자 우리 아덜 딸 그저 사우 딸 그러코 모다 와버링게 그르제 {이제 우리 아들 딸 그저 사위 딸 그렇게 모두 와 버리니까 그러지.}

10230 @ 그러지요 {그러지요.}

10230 # 사람 업씨. 지반 싸라믄 업:씨. {사람 없어. 집안 사람은 없어.}

10230 # 다 나가 상:게 {다 나가 사니까.}

10230 @ 그러면 엔:나레는 제:사 함번 지네면 동네 사람드리 다 아침에 와서 밥 머거요?  
 {그러면 옛날에는 제사 한 번 지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침에 와서 밥 먹어요?}

10230 # 그러제라우. {그러지요.}

10230 # 인자 찌:짜게 멀:리나 되면 마 이 거:광 사라든 다 무거써. {이제 저쪽에 멀리나 되면 막 이 근방('거광'은 '근방'의 뜻) 사람은 다 먹었어.}

10230 @ 그 인 어느 집 제:산지 다 알:고요? {그 인 어느 집 제산지 다 알고요?}

10230 # 그러제. {그러지.}

10230 @ 친척 아니여도? 아니 {친척 아니여도? 아니}

10230 # 친척 아니여도 넘도 이려고 가까면 동네로 여페 가까면 다 와서 머거써. {친척 아니여도 남도 이렇게 가까우면 동네로 옆에 가까우면 다 와서 먹었어.}

10230 @ 와서 머거요. {와서 먹어요.}

10230 # 예, 가까서 머거. {예, 가가와서 먹어.}

10230 @ 고를 떼나 어디 고기 마또 보고 좀 그러켄네요. {그럴 떼나 어디 고기 맛도 보고 좀 그렇겠네요.}

10230 # (웃음).

10230 @ 엔:날 가트먼이~. {옛날 같으면.}

10230 # 그러제라우. {그러지요.}

10230 @ 으~. {으.}

10230 @ 그면 그 양반들또 빈:소느로 읍니까? 그 머 제:사 지네로 {그러면 그 양반들도 빈손으로 읍니까? 그 뭐 제사 지내러.}

10230 # 예, 시 {예, 시}

10230 @ 나무 지베 {남의 집에}

10230 # 그때는 빈소느로 오고 우리 지바네서는 자 뽕싸 가꼬고 {그때는 빈손으로 오고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뽕쌀 가져오고. }

10230 @ 뽕쌀 가 {뽕쌀 가}

10230 # 그러제. {그러지.}

10230 @ 쌀: {쌀.}

10230 # 시방잉게 고기가 사가꼬제 그때는 뽕쌀 한 되씩 가꼬제. 지그면 뽕쌀 잘 양가꼬와, 다 고기 사가꼬고. {시방이니까 고기 사가지고 오지 그때는 뽕쌀 한 되씩 가져오지. 지금은 뽕쌀 잘 안 가져와. 다 고기 사가지고 오고.}

10230 @ 그러시제. {그러시지.}

10230 # 거시건 우리 조카드른 기양 도:니로 봉:토지에다 동:가꼬고 그레요. {거식한 우리 조카들은 그냥 돈으로 봉투에다('봉토지'는 '봉투'의 방언형) 돈 가져오고 그레요.}

10230 @ 그러치요이~. {그러지요.}

10230 # 조카드른. {조카들은.}

10230 @ 엔:나레는 다 뽕쌀 한 줍 음. {옛날에는 다 뽕쌀 한 줍 음 }

10230 @ 그러면 그 제:사 음:식 가통거 요령거또 엔:나레는 걸:게 마:니 장만해썬니까?  
 {그러면 그 제사 음식 같은 것 이런 것도 옛날에는 걸게 많이 장만했습니까?}

10232 # 그르제. 털:씩 마:니 헤제. 떠글 이런 데시리로 인절미는 허고도 이 시리뽕마네도 요러코 크나큰 데시리로 한나씩 헐는디 {그러지. 훨씬 많이 했지. 떡을 이런 대시루로 인절미는 하고도 이 시루떡만 해도 이렇게 크나큰 대시루로 하나씩 했는데. }

10232 # 그래도 그 떡 하나도 업씨 다 업:씨지제. {그래도 그 떡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  
지.}

10232 # 다 싸:주고 {다 싸 주고}

10232 @ \*\* 사라미 마:능께 {\*\* 사람이 많으니까}

10232 # 다:: 싸주고 머꼬 그렇게 {다 싸 주고 먹고 그러니까}

10232 @ 그렇게 으~ 어~. {그러니까 으 어.}

10232 # 근디 지그믐 멍능 거슨 하나도 업씨 싸: 중게 그리제.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은  
하나도 없이 싸 주니까 그러지.}

10232 # 우리도 이차메 지:사에 떡 함말 헨는데 먹튼 아네. {우리도 이번에 제사에 떡 한  
말 했는데 먹지는 않아.}

10232 # 썩떡 조:케 해능께 그놈 가파서 모다 인자 나코 뒤:파 고:머꼬 헨다고 {썩떡 좋게  
해 놓으니까 그것 가져와서 모두 이제 나중예('나코'는 '나중예'의 뜻) 두었다가 구워 먹고  
한다고}

10232 @ 음. {음.}

10232 # 그노믐 다: 싸:중게 그리제 지비서 멍능거슨 업씨. 저너게 머거야 떡 한 접씨도  
다: 암머거. {그것을 다 싸 주니까 그러지 집에서 먹는 것은 없어. 저녁에 먹어야 떡 한 접  
씨도 다 안 먹어.}

10232 # 가일도 시방은 잘 암머거, 가일도. {과일도 시방은 잘 안 먹어, 과일도.}

10232 @ 평소에 잘 머그니까 그러치요. {평소에 잘 먹으니까 그러치요.}

10232 @ 응. {응.}

10232 # 평소에 잘 머궁게 모다 가일도 귀허게 안 살고 궁게 가일도 그러케 머글라고 아  
네. {평소에 잘 먹으니까 모두 과일도 귀하게 안 살고 그러니까 과일도 그렇게 먹으려고 안  
해.}

10232 # 반찬 장마네서 밥 허면 저너게 와서 밥 머거 부르면 딱 끝나 부러. 다룽거 다 벨  
라 암머거. {반찬 장만해서 밥 하면 저녁에 와서 밥 먹어 버리면 딱 끝나 버러. 다른 것 다  
별로 안 먹어.}

10232 # 언:쟁게 저여빠블 바 반찬 장마네서 바블 허제. {언제든지 저녁밥을 반찬 장만해  
서 밥을 하지.}

10232 # 바블 딱 해:노코 오는 냥반들 바블 차려 드레. {밥을 딱 해 놓고 오는 양반들 밥  
을 차려 드려.}

10232 @ 음. {음.}

10232 @ 궁게 엔:나레는 보통 때는 몸:먹파가 그날 쭉끔 멀:죤 머그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는 보통 때는 못 먹다가 그날 조끔 뭇 줌 먹으니까.}

10232 # 응, 그러치요. {응, 그러치요.}

10232 # 그러케 음시글 {그렇게 음식을.}

10232 @ 제:사때는 특빠리 이런 음시근 안 된다 그러거 이썸니까? 제:사때는 머 {제사 때  
는 특별히 이런 음식은 안 된다 그런 것 있습니까? 제사 때는 뭐? }

10232 # 지:사때 아놀라 가능거슨 {제사 때 안 올라 가는 것은}

10232 @ 응, 예. {응, 예.}

10232 # 그럴테 이썸테제라. 궁게 인자 {그럴 테 있을 테지요. 그러니까 이제}

10232 # 우리는 지:사때 올라가는 반찬만 사버르데서 무:슨 아놀라가능가 어쩡가 몰:라. {

우리는 제사 때 올라가는 반찬만 사 버릇해서 무엇이든 안 올라가는지 어떤지 몰라.}

10232 # 야 그거쯤 올라가는 반찬만 사서 허고허고 해:서 {야 그것 좀 올라가는 반찬만 사서 하고하고 해:서.}

10232 @ 주로 그거 생선가통거슨 먼: 올려썹니까? 제:사 {주로 그것 생선 같은 것은 무엇 올렸습니까? 제:사?}

10232 # 생선 가통거슨 상에도 올리고 덕짜 올리고 조구가 젤: 크고 {생선 같은 것은 상에도 올리고 덕자('덕자'는 병어처럼 생긴 물고기) 올리고 조기가 제일 크고}

10232 @ 조구가 제일 크고 {조기가 제일 크고}

10232 # 응, 조구가 젤: 크고 그러제. {응, 조기가 제일 크고 그러지.}

10232 @ 음. {음.}

10232 @ 덕:짜라능거슨 명: {덕자라는 것은 무슨}

10232 # 이리키 덕짜 이러코 납따경거 이썸, 덕짜. 고거시 비싸. {이렇게 덕자 이렇게 납작한 것 있어, 덕자. 그것이 비싸.}

10232 # 덕짜 함마레 {덕자 한 마리에}

10232 @ 병:치하고 다릉거예요? {병어하고 다른 것이예요? }

10232 # 궁게 뺑치라고도 허고 덕짜라고도 헌데 {그러니까 병어라고도 하고 덕자라고도 하는데}

10232 @ 아 \*\* 가통거 어~. {아 \*\* 같은 것 어.}

10232 # 근디 고거시 이리미 인자 언체는 덕짜여. {그런데 그것이 이름이 이제 위낙은 덕자여.}

10232 # 자:궁거시 뺑치고. {작은 것이 병어고.}

10232 @ 아:아:. {아아.}

10232 # 근디 {그런데}

10232 # 고거시 큰: 노문 마:노쳐논짜리도 이꼬 이:마뉘짜리도 이꼬. {그것이 큰 것은 만오천 원 짜리도 있고 이만 원짜리도 있고.}

10232 @ 어~. {어.}

10232 # 자 자:근노문 마:논짜리도 이꼬 고거시 비싸라 병치. {자 작은 것은 만원 짜리도 있고 그것이 비싸요. 병어. }

10232 @ 아:: 그래꾸노. {아, 그랬군요.}

10232 @ 상어 상어 상에도 엔:나레는 마:니 {상어 상어 상어도 옛날에는 많이}

10232 # 상에도 사고 {상어도 사고}

10232 @ 그다메 떠근 어:뎌 떠글 주로 제:사때 올릴 떡뜨른 합니까? 어떤? {그 다음에 떡은 어떤 떡을 주로 제사 때 올릴 떡들은 합니까? 어떤?}

10232 # 시리떡 시리는 상에 놀랑게 시리떠근 벨라 안 거시경게 상에 놀라고 쪼끔 허고 {시루떡 시루는 상에 놓으려니까 시루떡은 별로 안 거시기 하니까 상에 놓으려고 조금하고.}

10232 @ 예. {예.}

10232 # 자 인절미를 지그문 마:니 허제. 그저네는 흰떡또 헨는디 흰떠근 누가 잘 암머궁께 아너고 {이제 인절미를 지금은 많이 하지. 그전에는 흰떡도 했는데 흰떡은 누가 잘 안 먹으니까 안 하고.}

10232 @ 응. {응.}

10232 # 쑥 너서 인절미해. {쑥 넣어서 인절미 해.}

10232 # 인 그러면 인절미를 잘 머거 모다. {인 그러면 인절미를 잘 먹어 모두.}

10232 @ 예. {예.}

10232 # 자 가서 구워서도 머꼬 헐다고 {이제 가서 구워서도 먹고 헐다고.}

10232 @ 또 정:가통거슨 먼:저를 마:니 {또 전 같은 것은 무슨 전을 많이?}

10232 # 저:는 멩테전. {전은 멩테전.}

10232 @ 예. {예.}

10232 # 생멩테 그놈 떠다가 고놈 부치고 {생멩테 그것 떠다가 그것 부치고}

10232 # 자 다룽거또 맘:테로 부치고 자폰데 아무꺼라도 부쳐. 버서또 사다 부칠라면 부치고 자 세우가통거또 사다 부칠라면 부치고 인자 아:무꺼나 부치고 시폰데로 부쳐, 요거슨. {이제 다른 것도 마음대로 부치고 싶은 데 아무 것이라도 부쳐. 버섯도 사다 부치려면 부치고 이제 새우 같은 것도 사다 부치려면 부치고 이제 아무 것이나 부치고 싶은 대로 부쳐, 이것은.}

10232 @ 음. {음.}

10232 @ 그러지요. 음. {그러지요. 음 }

10232 @ 으. 머 하나도 어려웁거 업:쓰시지요? 엔:날 살:든 이야기니까. {으. 뭐 하나도 어려운 것 없으시지요? 옛날 살던 이야기니까.}

10232 # 예. {예.}

10232 @ {웃음.}

10232 # 그렇거슨 어렵튼 안체. {그런 것은 어렵지는 않지.}

10232 @ 으~, 어렵튼 안체. {웃음} 예. {으, 어렵지는 않지. {웃음} 예.}

## 1.4 의생활

###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10418 @ 그다메 엔:나레 함번 다 여:쥬 바:찌마는 인자 종합찌그로 함번 더 여:쥬랍니다. 아 그 인제 {그 다음에 옛날에 한 번 다 여:쥬 봤지마는 이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여:쥬랍니다. 아 그 이제}

10418 @ 여그서는 미영 삼 모시 세: 쥬에서 주로 마:니 하싱건 머:예요? {여기서는 목화 삼 모시 셋 중에서 주로 많이 하신 것은 뭐예요?}

10418 # 미영. {목화}

10232 @ 미영을 마:니 하셔쥬요? {목화를 많이 하쥬어요?}

10232 # 예. {예.}

10232 # 미영허고 모시허고 {목화하고 모시하고}

10232 @ 모시하고 {모시하고}

10232 # 응. {응.}

10418 # 인자 멩기베는 어:찌다 난는 사라미 한 사라미나 나:쥬 멩기베는 그러케 안나쥬. {이제 명주는 어찌다 낳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낳지 명주는 그렇게 안 낳았어.}

10418 @ 아 멩지베. {아, 명주.}

10418 @ 저 누에 누에이~?. {저 누에 누에? }

10418 # 삼 삼도 여그서 안 나코. {삼 삼도 여기서 안 낳고.}

10418 # 예. 누예. {예. 누예.}

10418 @ 삼\*\* 어~. {삼\*\* 어.}

10418 # 삼베 사른 난는디가 따로 이써. {삼베 삼은 낳는 데가 따로 있어.}

10418 @ 아. {아.}

10418 # 동:네가. {동네가.}

10418 @ 그러면 모시를 하셔쎄요? {그러면 모시를 하셨어요?}

10418 # 모시는 미영베허고 모시허고는 주로 허제. {모시는 무명하고 모시하고는 주로 하지.}

10418 @ 음::. { 음. }

10418 # 그거슨 츠 겨으레는 미영베 여르메는 모시베. {그것은 겨울에는 무명, 여름에는 모시.}

10418 @ 음::. {음.}

10418 # 그러제. {그러지.}

10405 @ 그럼 모시는 메월따레 심:썸니까? {그럼 모시는 몇 월에 심습니까?}

10405 # 수문 거시 아이라 함번 뿌리 가따 송거노먼 {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뿌리 가져다 심어 놓으면}

10418 @ 아 고먼 {아 그러면}

10418 # 암:디라도 싹 송거노먼 그노미 여:네 뿌리 빼더서 요로코 여그다 향끈 송거노먼 싹:: 버러서 웹:바시 다 머 모시받 돼야버러. {아무 데라도 싹 심어 놓으면 그것이 연해 뿌리 뻗어서 이렇게 여기다 \*\* 심어 놓으면 싹 떨어져 온 밭이 다 뭐 모시받 돼 버려.}

10405 # 그러면 인자 그노를 키워서 허제. {그러면 이제 그것을 키워서 하지.}

10405 @ 아. {아.}

10418 # 그러면 비 향:시 인자 함번 송거노먼 그노만 가꼬해. {그러면 향시 이제 한 번 심어 놓으면 그것만 가지고 해.}

10405 @ 그럼 그 언:제 베:요? {그럼 그 언제 베어요?}

10405 # 이거시 머 초부를 모시 다:: 씨 몬 모 다 송거노코 바테다가 곡썸 다: 너:노코 초벌 밭:꺼시요, 모시릴. {이것이 뭐 초벌을 모시 다 씨 모 다 심어 놓고 밭에다가 곡식 다 넣어 놓고 초벌 벨 거요, 모시를.}

10405 @ 그러면 한 육치월? 지 요세 {그러면 한 육칠월? 지금 요새}

10405 # 치월 양가제 유:월 {칠월 안 가지. 유월.}

10405 @ 유:월딸쯔미나 {유월썸이나}

10405 # 응응 그러제. {응,응, 그러지.}

10405 @ 아 유월딸쯔메 비어요이~? {아, 유월썸에 베요?}

10405 # 유월딸쯔메 예. {유월썸에 예.}

10406 # 그때 딱 비여서 눅 비여서 인자 그놈 가꼬 인자 박꼭 곡썸 다 해농게 인자 틸:트미 이러코 켜:서 켜:고이~ 저너기면 으:런더른 불 썸노코도 쌍:코 고로고 {그때 딱 베어서 눅 베서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밭곡 곡식 다 해놓으니까 이제 틸:틈이 이렇게 켜:서 켜:고 저 녀이면 어른들은 불 켜놓고도 삶고 그러고}

10406 @ 어터케 거 고 전 함번도 안 받는데 모시는 어터케 그 모시 이피 데를 데를 해요? {어떻게 거 고 저는 한번도 안 봤는데 모시는 어떻게 그 모시 잎이 대를 대를 해요?}

10406 # 데를 텍 이꼬 {대를 텍 있고}

10406 @ 이피 아니고 데 {있이 아니고 대}

10406 # 데를 시누데 가치 {대를 해장죽('시누데'는 '해장죽'의 방언형) 같이}

10406 @ 예 {예.}

10406 # 시누데 아르시요? {해장죽 아시요?}

10406 @ 예 아라요. {예, 알아요.}

10406 # 시누데알로 커. {해장죽처럼('알로'는 '처럼'의 뜻) 커. }

10406 @ 예. {예.}

10406 # 그러면 이르케 디리야 비여가꼬 입씩 다 홀타 빠리고 이르 이르케 똑: 꺼끄면 이르코 이르코 쪽: 홀트면 끄 꺼 껌따근 껌땅만 낭:꼬 데는 이리코 나와. {그러면 이렇게 \*\*\* 베어가지고 잎사귀 다 훑어 버리고 이렇게 똑 꺾으면 이렇게 이렇게 쪽 훑으면 껌질은 껌질만 남고 대는 이렇게 나와.}

10406 @ 예. {예.}

10406 # 우게 요러코 미테허고 해서 강 나무면 {위에 이렇게 밀하고 해서 그냥 남으면}

10406 # 그노물 또 카리썬. {그것을 또 칼 있어.}

10406 @ 예. {예.}

10406 # 품:품 품:는 카리. {품품 품는 칼이.}

10406 # 요로코 쪽: 푸른 쪽: 요로코 푸면 껌따기 썩 푸머저 부리고 인자 흐:건 소:게 알븐 거시기만 나며. {이렇게 쪽 품으면 쪽 이렇게 품으면 껌질이 썩 품어져 버리고 이제 하얀 속에 얇은 거시기만 남아.}

10406 @ 음. {음.}

10406 # 인자 고노물 몰라가꼬 인자 쪼게. {이제 그것을 말려가지고 이제 조금}

10406 # 다 켜. 이리코 손토비. {다 켜. 이렇게 손톱이.}

10406 # 손토블 그때는 짜리면 절때 모썬, 모시 썰랑게. {손톱을 그때는 자르면 절대 못 썬. 모시 썰러니까.}

10406 # 소느로 다: 켜, 가늘게. {손으로 다 켜, 가늘게.}

10406 @ 응. {응.}

10406 # 켜게가꼬 돛는 토비 이썬 이리케. {썬가지고 톨는 톨이 있어, 이렇게.}

10406 # 토브로 인자 끝 데그빠글 탁 도파. 그레야 날캄헤야 그노미 이:서지썬. {톨으로 이제 끝 대가리를 탁 톨아. 그레야 날카롭게('날캄허다'는 '날카롭다'의 방언형) 그것이 이어지 지.}

10406 @ 응. {응.}

10406 # 이르케 탁:탁 더해서 도파가꼬 인자 안 거시게진 놈 이빨로 글거감서 이르케잉게 삼:썬. {이렇게 탁탁 더해서 톨아가지고 이제 안 거식해진 것 이빨로 굽어가면서 이렇게 삼 지.}

10406 @ 고 독:고 도:구를 토비라 그레요? {그 도구를 톨이라 그레요?}

10406 # 응? {응?}

10406 @ 톨? {톨?}

10406 # 톨카리라고 {톨칼이라고.}

10406 @ 토브로. {톨으로.}

10406 # 이거시 이거슨 톨칼. {이것이 이것은 톨칼. }



10406 @ 먼 머:라고요? {뭐 뭐라고요? }

10406 # 이 거시 툭. 거시기 모시 돛는 칼, 툭칼. {이것이 툭. 거시기 모시 툭는 칼, 툭칼.}

10406 @ 툭칼? {툭칼? }

10406 # 응. 툭칼 고거시. {응. 툭칼. 그것이.}

10406 @ 응. {응.}

10406 # 근디 글로 도파가꼬 앙거시기헐때는 이빨로 그러케 거러 강고 이러코 사머요, 물 파게다 이러코. {그런데 그것으로 툭아가지고 거시기 안 할 때는 이빨로 그렇게 걸어 감고 이렇게 삼아요, 무릎에다('물팍'은 '무릎'의 방언형) 이렇게.}

10406 @ 응 이서요이~? {응, 이어요?}

10406 # 예, 이서. {예, 이어.}

10406 @ 응. {응.}

10406 # 사머가꼬 인자 베 나체. {삼아가지고 이제 베 낳지.}

10406 @ 영. 베 난:능거슨 인자 베트레 올려가지고 {영. 베 낳는 것은 이제 베틀에 올려가지고}

10406 # 예, 헤:서 그레헤:가꼬 사머가꼬 날:고 여:칸 복잡해:. {예, 그리 해가지고 삼아가지고 날고 여간 복잡하지 않아.('여칸'은 '아주'의 뜻)}

10406 # 나라가꼬 (웃음) 미영때다 올린 놈말 다 올려가꼬 나라가꼬이~ {날아가지고 (웃음) 무명대에다 올린 것을 다 올려가지고 날아가지고}

10406 # 이러케 거시기 또:: 다 메: 또. {이렇게 거시기 또 다 매, 또. }

10406 # 세: 거시계약 보두이 또 이스 보두가 이썸. {세 거시기 바디가 또 있으 바디가 있어.}

10406 @ 응. {응.}

10406 # 보두가 칠썸미 이꼬 팔썸 저 거시 팔썸이 이꼬 그레. 팔썸은 더 조아, 가늘고 베가. {바디가 칠썸이 있고 팔썸 저 거시기 팔썸이 있고 그레. 팔썸은 더 좋아, 가늘고, 베가.}

10406 @ 응. {응.}

10406 @ 응. {응.}

10406 # 그르코 헤서 허머는 인자 거그다 꺾여가꼬 또 메:. 그러면 인자 {그렇게 헤서 하면은 이제 거기다 꺾어가지고 또 매. 그러면 이제.}

10406 # 미돌 사돌 이꼬 데:고 그거슬 이기 허면 베가 안 되야버러. {밑을 샷을 있고. 함부로('데고'는 '함부로'의 뜻) 그것을 이기 하면 베가 안 돼 버러.}

10406 # 그렇게 인자 미돌 사도리 이썸가꼬 인자 거노를 찢:때도 고로고 그러제. {그러니까 이제 밑을 샷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찢 때도 그렇게 그러지.}

10406 @ 응. {응.}

10406 # 이:슬때도 고놈 미돌 사돌 아라서 이서야제, 잘몬 이서부르면 베레부러 베를. {이을 때도 그것 밑을 샷을 알아서 이어야지, 잘못 이어버리면 버러 버러 베를.}

10406 @ 응. {응.}

10406 # 그렇게 가리베 되야부러. {그러니까 가루베 돼버러.}

10406 @ 미돌 사돌 오:리 두가지예요? 미도리 이꼬 사도리 이꼬? {밑을 샷을 올리 두 가지예요? 밑을이 있고 샷을이 있고?}

10406 # 오:른 똑 가튼 오슬 그러코 오:를 그러고 멘드라. 어제아나면 {올은 똑 같은 올을 그렇게 올을 그렇게 만들어. 어제 그러냐면}

10406 # 그러면 지:꼬 잘릅꼬 그러코 메를 니다야 베가 데제, 마라자거먼. {그러면 길고 짧고 그렇게 \*\*\*\*\* 베가 되지, 말하자면.}

10406 # 요로 발 쪽 자바덴이든 쪽 올라가고 노:면 이러코 탕 노코 요노미 이러코 올라가고 고롱게 그거시 미돌 사돌 데야부러. {이러 발 쪽 잡아당기면 쪽 올라가고 놓으면 이렇게 탁 놓고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밑을 샷을 돼 버려.}

10406 # 잉에를 거러. 잉에라고 또 이썸, 이러케 거러가꼬. {잉아를 걸어. 잉아라고 또 있어, 이렇게 걸어가지고.}

10406 # 그러면 인자 그노미 그르케 짜:지제 요르코. 요로코 해서 짜고 요로코 해서 짜야 베가 될건 아니여?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렇게 짜지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짜고 이렇게 해서 짜야 베가 될 것 아니야?}

10406 @ 예. {예.}

10406 # 그릉거슨 이르코 짜:면. 그래서 베가 되야. {그런 것은 이렇게 짜면. 그래서 베가 돼.}

10406 @ 음. {음.}

10406 # 그릉게 그노를 잘모데버르면 가리베 되야 부러. 잘 몬: 니서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해 버리면 가루베 돼 버려. 잘못 이어 버리면.}

10406 # 논뚜렁말로 이러코 투뜯 이러코 뚜껍이 고로고 되야부러 베가. 그러니까 고로코 허면 모:쓰제. {논두렁처럼 이렇게 이렇게 뚜껍이 그렇게 돼 버려 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못쓰지.}

10406 @ 음. {음.}

10410 @ 그러머는 모시는 일녀니면 메피리나 나세요? {그러면은 모시는 일 년이면 몇 필이나 낵으세요?}

10410 # 모 그러케 마:니 몬:나, 모시베는. {모 그렇게 많이 못 낵아, 모시베는.}

10410 @ 그러지요. {그러지요.}

10410 # 예 모시베는 일러네 여르메 그러코 해야꼬 두:물까지 해:가꼬 땅 모시베를 나:머는 시:물 허면 모지레면 시:물값 거야꼬 인자 베 짜는 집 그거뿐고 머 씨라거나 머이라고 짜능거뿐고. 그런디. {예, 모시베는 일 년에 여름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물까지 해가지고 딱 모시베를 낵으면은 세 물 하면 모자라면 세 물 값 그래가지고 이제 베 짜는 집 그것보고 뭐 씨라고 하느냐 뭐라고 짜는 것보고. 그런데}

10410 # 그거까지 허고 시:물까지 허고 그런디 마:니 몬:나 모시베는. {그것까지 하고 세 물까지 하고 그런데 많이 못 낵아, 모시베는.}

10410 # 마:니 헐레야 헐 쭈가 업써. {많이 할래야 할 수가 없어.}

10410 # 여름 이:덜라 어쩔라 마:니 모더제. {여름 일할라 어쩔라 많이 못하지.}

10410 # 마::니 나면 야튼 모시베는 두:피리나 날거시요 두필. {많이 낵으면 하여튼 모시베는 두 필이나 낵을 거요. 두 필.}

10406 @ 두필? {두 필?}

10406 # 예. {예.}

10410 @ 그면 두:필 허머는 두:필 허면 오슬 메빠리나 지썸니까? {그러면 두 필 하면은 두 필 하면 옷을 몇 벌이나 짓습니까?}

10406 # 마운자. {마흔 자.}

10410 @ 그러면 멘 메빠리나 지:썸니까? {그러면 몇 몇 벌이나 짓습니까? }

10406 # 궁게 오슨 메뵐 허능가 모른디 자쭈로는 마운자라 수무자가 함피리여. {그러니까 옷은 몇 벌 하는지 모르는데 잣수로는 마흔 자가 스무 자가 한 필이야.}

10406 @ 함피링게 {한 필이니까}

10406 # 예, 수무자가 함피리여. {예, 스무 자가 한 필이야.}

10410 @ 그니까 여르모슨 고로케 모시로 해서 지꼬 그다메 인자 숨: 늘라면 미영 인자 해야되 {그러니까 여름 옷은 그렇게 모시로 해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숨 넣으려면 목화 이제 해야 돼.}

10406 # 인자 가으레는 또 미영으로 고로코 해서 자사서 베를 나코 {이제 가을에는 또 목화로 그렇게 해서 자아서 베를 넣고}

10410 # 곧디 미영베는 시야네도 나코 봄까지 나니까 미영베는 마:니 날:쭈 이썸. {그런데 무명은 겨울에도 넣고 봄까지 넣으니까 무명은 많이 넣을 수가 있어.}

10410 @ 음. {음.}

10410 # 메피리고 날:쭈 이썸. {몇 필이고 넣을 수가 있어.}

10410 @ 미영은 언제 그걸 {목화는 언제 그걸}

10410 # 잘만허면. {잘만 하면.}

10410 @ 저 땀:니까? {저 땀니까?}

10402 # 가으레. {가을에}

10402 @ 아 가시레 따:가꼬 {아, 가을에 따가지고}

10402 # 음. {음.}

10402 @ 오옴. 고거는 또 어트케 과:정이 어트케 되요, 미영은 인자? {오옴. 그것은 또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돼요, 목화는 이제?}

10402 # 다 우리넌 에레서 다 헤:씨라우. {다 우리는 어려서 다 했어요.}

10402 # 미영을 바테가서 이러코 따요. 글먼? {목화를 밭에 가서 이렇게 따요, 그러면?}

10402 # 병실병실 이러코 폐가꼬 이쓰면 그릇 가꼬와서 명:을 이러코 다:: 따가꼬 와서 비벼서 까:던지 {병실병실 이렇게 피어가지고 있으면 그릇 가져와서 목화를 이렇게 다 따가지고 와서 비벼서 까든지}

10402 # 바테서 모:따허머는 그라너면 거그서 요로코 업썸서 다:까 요건, 송얼송얼. {밭에서 다하지 못하면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이렇게 얹드려서 다 까. 이것, 송이송이.}

10402 @ 응. {응.}

10402 # 까:서 알맹이만 가꼬와. {까서 알맹이만 가져와.}

10402 # 그라다 이자 이러코 몰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말려.}

10402 # 몰려가꼬 발:치고 이러코 몰려. 보로지 미테로 빠:지라고. {말려가지고 발 치고 이렇게 말려. \*\*\* 밑으로 빠지라고.}

10402 @ 응. {응.}

10402 # 발:치고 이로코 몰려가지고는 게레 그 {발 치고 이렇게 말려가지고는 가려. 그}

10402 # 묻 이썸. 그거또 띠여네능거시 미영에서도. 좁쌀가통거 그건 띠여네פל로 다: 게레서 띠여네고 {뭐 있어. 그것도 떼어내는 것이 목화에서도. 좁쌀 같은 것 그것 떼어내 \*\* 다 가려서 떼어 내고.}

10402 # 쇠로 이러코 아서. {쇠로 이렇게 앓아.}

10402 @ 아서요? {앓아요?}

10402 # 막 아서. 이러코 메:기 일로 메김서 이러고 막:: 이러코 험서 아서. {막 앓아. 이렇

게 먹이 이것으로 먹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앓아.}

10402 @ 씨 빼:요? {씨 빼요?}

10402 # 씨 빼. {씨 빼.}

10402 # 그러면 그레가꼬는 타. {그러면 그레가지고는 타.}

10402 @ 음. {음.}

10402 # 할로. {할로.}

10402 # 할로 이려고 탐면 통당통당 탈마네. 그거또 잘 탈제만 알:면 (웃음) {할로 이렇게 타면 통당통당 탈만 해. 그것도 잘 탈 줄만 알면. (웃음)}

10402 # 콩으로 {콩으로}

10402 @ 응. {응.}

10402 # 콩 당과따가 골로 짹:짹: 칼 거시 주레다가 불라. {콩 담갔다가 그것으로 짹:짹: 칼 거시기 줄에다가 발라.}

10402 # 그레야 안 드러부췌. {그레야 들어불지 앓아.}

10402 @ 응. {응.}

10402 # 반들반드레가꼬 콩치를 해. {반들반들해가지고 콩칠을 해.}

10402 @ 아. {아.}

10402 # 콩칠 그러케 해서 해:야꼬 인자 미영을 타. {콩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목화를 타.}

10402 # 그레야꼬는 이리케 모라, 꼬치. {그레가지고는 이렇게 말아, 고치.}

10402 @ 미영은 타면 고거시 넘쩍:해집니까? {목화는 타면 그것이 넘적해집니까?}

10402 # 예. {예.}

10402 # 봉을봉을봉을 이리고 넘떼게지제. {봉을봉을봉을 이렇게 넘적해지지.}

10402 @ 응영. {응영.}

10402 # 얹띠얹띠얹띠 그러면 그노를 또 꼬:치를 말 꼬:치 마라요 이리코. {얹띠얹띠얹띠고 그러면 그것을 또 고치를 말 고치 말아요, 이렇게.}

10402 @ 꼬:치 마라이~? {고치 말아.}

10402 # 예. {예.}

10402 # 이리코 고:치 말자면 어:디메로 쭈시이췌니까 그 쭈시페로 마라, 쭈시페. {이렇게 고치 말하자면 어디처럼 수수 있으니까 그 수수대로 말아, 수수대.}

10402 @ 어. {어.}

10402 # 그레가꼬 인자 요로코 자사 {그레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아.}

10402 @ 쭈시페 이췌면 쭈시 너:노코 그 우:그로 요러케 {수숫대 있으면 수숫대 넣어 놓고 그 위로 이렇게 }

10402 # 예 이로코 이로코 강 미영을 노코는 쭈시페 노코는 요로코 요로코 비비면 강 그러코 꼬:치 뒤후로 꼬:치 뒤후로 그레. {예, 이렇게 이렇게 그냥 목화를 놓고는 수숫대 놓고는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 그냥 그렇게 고치 돼 버리고 고치 돼 버리고 그레.}

10402 # 그레가꼬 또 자사가꼬 인자 베 나:채. {그레가지고 또 자아가지고 이제 베 낳지.}

10402 # 베 낳는 가경이 말:도 모데, 아조. {베 낳는 과정이 말도 못해, 아주.}

10402 # 어:뜨게 가지췌가 만:턴지. {어떻게 가짓수가 많든지.}

10402 @ 그니까 인제 일판 그 꼬:치에가가지고 물레에다 해서 시:를 자사야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고치에 가가지고 물레에다 해서 실을 자아야 되지요?}

10402 # 예 그러제. {예, 그러지.}

10402 @ 음음. {음음}

10402 # 그래서 물레에다 이러코 시:를 명:땡이가 요만:씩허게 멘드르제. {그래서 물레에다 이렇게 실을 무명실 뭉치가 ('미영땡이'는 '무명실 뭉치'를 가리킨다.) 이만씩하게 만들지.}

10402 @ 음. {음.}

10402 # 미영땡이. 고로코 해:야꼬 고노믈 {무명실 뭉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

10402 @ 미영땡이요? {'미영땡이'요?}

10402 # 예, 미영땡이. 그거뽕고는 미영땡이라게. 그레가꼬는 {예, '미영땡이'. 그것뽕고는 '미영땡이'라고 해. 그레가지고}

10402 @ (기침)

10402 # 이러코 거시기가 이썸. 날른 건 나:능거시. 근디 미영땡이를 열:계등가 메겐썸 고 거또 이저버런네. {이렇게 거시기가 있어. 나는 것 나는 것이. 그런데 무명실 뭉치를 열 개 든가 몇 개씩 그것도 잊어버렸네.}

10402 # 요로코 쟁게노코 인자 요로코 나라, 고노믈. {이렇게 끼워 놓고 이제 이렇게 날아, 그것을.}

10402 # 쪽:쪽 뽕바서 요로코 쑤부:기 해:노코 해:노코는 {쪽쪽 뽕아서 이렇게 수북하게 해 놓고 해 놓고는}

10402 # 마당에다 이러코 저::그우데끔 말뚝글 말뚝또 다 이썸. 게쑤가 이썸. {마당에다 이렇게 저기 위에 말뚝을 말뚝도 다 있어. 갯수가 있어.}

10402 @ 음. {음.}

10402 # 한나가 무조끈 텅거시 아이라 {한나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10402 @ 음 {음.}

10402 # 그래서 바거노코 인자 이러케 나라, 고노믈. {그래서 박아 놓고 이제 이렇게 날아, 그것을.}

10402 # \*케 나라. {\*케 날아.}

10402 @ 와따가따 인제이~. {왔다갔다 이제.}

10402 # \*데가꼬 \*\*\* 이러케 이러케 가세 지여 세오리 가서먼 가세지여서 이러케 걸:고 걸:고 그레. 그레야 그 거시기가 텅게 {\*데가지고 \*\*\* 이렇게 이렇게 가워 지어. 세 올이 가면 가워 지어서 이렇게 걸고 걸고 그레. 그레야 그 거시기가 당겨.}

10402 # (웃음) 그러코 우수와주꺼썸. 그러고 해:가꼬 나라가꼬 그노믈 {(웃음) 그렇게 우스워 죽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날아가지고 그것을}

10402 # 또 거더. 이러코 이러코 다 이르코. {또 걷어.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10402 # 가시 거시킨놈말로 이러코 한:나 아눔쿠러저. 이르코 거시게서 거드먼. 이로코 이로코 해서 건:선 그세로코 게야코 두면 거시기가 이썸, 거드머는. {가시 거식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도 형클어지지 않아. 이렇게 거식해서 걸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 그레가지고 두면 거시기가 있어. 걸으면은.}

10402 @ 아. {아.}

10402 # 그로코해서 거더가꼬 썰마 또. {그렇게 해서 걸어가지고 삶아 또.}

10402 @ 아:: {아.}

10402 # 그노믈. {그것을.}

10402 @ 썰마요? {삶아요?}

10402 # 그래야 짹짹이~. {그래야 질기지.('짹다'는 '질기다'의 방언형)}

10402 @ 아:: {아.}

10402 # 안 쌀무면 시마게 하나도 업:짜라우. {삶지 않으면 힘이('시마'는 '힘'의 뜻) 하나도 없지요.}

10402 # 쌀마가꼬 빨:끈 짜가꼬는 인자 메:. {삶아가지고 팍('발끈'은 팍 짜는 모양을 가리킨다.) 짜가꼬는 이제 매.}

10402 @ 음. {음.}

10402 # 인자 푸를 조금 빨레 풀 노를 되::디되게 해:가꼬는 고노를 거그다 막 불라서 여르코 푸를 요르코 해:노코 메:. {이제 풀을 조금 빨레 풀할 것을 되디되게 해가지고는 그것을 거기다 막 발라서 이렇게 풀을 이렇게 해 놓고 매.}

10402 # 메서 이로코 물려서 {매서 이렇게 말려서}

10402 @ 멘:단 마른 무슨 말입니까? {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402 # 그를 베 멘다고. {그것을 베 맨다고. }

10402 @ 베 멘다고? {베 맨다고?}

10402 # 응, 베 멘다고. {응, 베 맨다고.}

10402 # 그래가꼬 도투머리에다 감:제 찰:라면. {그래가지고 도투마리에다 감지, 짜려면}

10402 @ 어~. {어.}

10402 # 그 텔레비 안 바:쏘? 도투머리 안 바게제라이~? 그그그면 {그 텔레비전 안 봤소? 도투마리 보셨지요? 그그 그러면}

10402 # 고로코 인자 뱀:떼 나:서 이리코 가며. {그렇게 이제 뱀덩이 놓아서 이렇게 감아.}

10402 # 한 한나 메:고 한나 몰라가꼬 한나 메:서 강꼬:: 한나 몰라가꼬 강:꼬 그레. {한 하나 매고 하나 말려가지고 하나 매서 감고 하나 말려가지고 감고 그레.}

10402 @ 음. {음.}

10402 # 그래가꼬 인자 베를 짜:제. 짜:야 멘드라지제 인자. 베가 되제. {그래가지고 이제 베를 짜지. 짜야 만들어지지 이제. 베가 되지.}

10402 # 가정이 겁: 복잡해, 베 난는 가정이. {과정이 쾅(장히) 복잡해, 베 낳는 과정이.}

10402 @ (웃음) 그러시조. 그러머는 이제 고 미영 베로는 인제 머 숨: 너서 온 해임는 그런 \*\*\* {(웃음) 그러시지요. 그러머는 이제 그 무명으로는 이제 뭐 숨 넣어서 옷 해 입는 그런 \*\*\* }

10402 # 그르제. 글로 숨:너서 하겔 해:입꼬 그레제라. {그러지. 그것으로 숨 넣어서 핫것 해 입고 그랬지요.}

10402 # 그때는 다 바이 한 함:봉만 해:임는 시상잉게. {그때는 다 오로지('바이'는 '아주'나 '전혀'의 뜻이나 여기서는 '오로지'의 뜻으로 쓰였다.) 한복만 해 입는 세상이니까.}

10402 @ 음. {음.}

10402 # 접꺼해:입꼬 하겔 해:입꼬. {접것 해 입고 핫것 해 입고.}

10411 @ 그 이런 그 질쌔 일 헐:떼 어:트게 항꺼번 동:네싸람들 모여서 혹씨 푸마시허거나 그러케 {그 이런 그 질쌔 일할 때 어떻게 한꺼번에 동네 사람들 모여서 혹씨 품앗이하거나 그렇게 }

10411 # 미눔 잔:능거슨 푸마시해. {목화 갖는 것은 품앗이해.}

10411 @ 아, 미영 잔:능 미영 자실 때는 {아, 목화 갖는 것은 목화 자을 때는}

10411 # 미영 잔:능거슨. 예, 서로 니잔 오노른 네야 저 거시기 잔:꼬 또 네이른 느그 뉘야

자:꼬 그르꼬서 멘명씩 푸마시헤 {목화 잣는 것은. 예, 서로 네 것 오늘은 내것 저 거시기  
잣고 또 내일은 너희 누구 것('야'는 '것'의 뜻) 잣고 그렇게 해서 몇 명씩 품앗이헤.}

10411 @ 푸마시헤요? {품앗이헤요?}

10411 # 예. {예.}

10411 @ 오~. {오~}

10411 @ 그러면 {그러면}

10411 # 푸마시 안넌 사라문 푸마시 아너고 기양 자기야만 허고 {품앗이 안 한 사람은 품  
앗이 안 하고 그냥 자기 것만 하고.}

10411 @ 오. {오.}

10411 @ 근데 거 가:치 하면 더 시 재미꼬 저기하자나요? {그런데 거 같이 하면 더 재미  
있고 저기하잖아요?}

10411 # 네 그러기는 허제라. 재미끼는. {네, 그러기는 하지요, 재미있기는.}

10411 @ 그림 물레를 가꼬 그지브로 갑니까? {그림 물레를 가지고 그 집으로 갑니까? }

10411 # 그러제. {그러지.}

10407 # 물레:틀 가꼬가고 독: 가꼬가고. {물레틀 가져가고 돌 가져가고}

10407 @ 독? {돌?}

10407 # 독. 물레똑또 솔차니 커어. {돌. 물레돌도 상당히 커.}

10407 # \*\*노코 그레야 그노틀 요 거시기다 이러코 놔:야 물레지를 돌리제. {\*\*놓고 그레  
야 그것을 이 거시기다 이렇게 놔야 물레질을 돌리지.}

10407 @ 아:: {아.}

10407 # 가가 가락 인는 데다가 {가가 가락 있는 데다가}

10407 @ 눌러놔요 {눌러 놔요.}

10407 # 가락 인는 데다 누르고. {가락 있는 데다 누르고 }

10407 # 괴 갈 가락 이꼬 괴:머리 이꼬 {괴 갈 가락 있고 괴머리 있고}

10407 # 괴:머리 인 게:에다가 가라글 이르코 쩡기고 요로코 허제 자:제라우. 그러면 인자  
거그서 이러코 도라가 줄 주를 또 물레에가 이코 해:가꼬 {괴머리 인 괴에다가 가락을 이렇  
게 끼우고 ('쩡기다'는 '끼우다'의 뜻) 이렇게 하지 잣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돌아  
가 줄을 또 물레에 이렇게 해가지고.}

10407 # 그래서 그르먼 인자 가라기 도라가야 미영이 자사지제 이르코 빼:지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락이 돌아가야 목화가 자아지지. 이렇게 빼지지.}

10407 @ 그러지요. {그러지요.}

10407 # 그러면 요로코 올리고 그러고 그러고 허제.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그렇게  
하지.}

10411 @ 그먼 고 푸마시허능거슬 보고 머:라고 이르미 이썸니까? {그러면 그 품앗이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름이 있습니까?}

10411 # 아니, 어 업:썸. 그거슬 푸마시라고 그레. {아니, 어 없어. 그것을 품앗이라고 그  
레.}

10407 # 탄:디서는 어:서 무슨 두레:라고 허던디 여그서는 그런 마른 업:썸썸썸? {다른 데  
서는 어디서 무슨 두레라고 하던데 여기서는 그런 말은 없었지요?}

10407 # 두레라고? {두레라고?}

10411 @ 두레일 현다고{두레일 한다고}

10411 # 아니여. 두레락 아네. 여그는 읍:써. 글안해. {아니야. 두레라고 안 해. 여기는 없어. 그러지 않아.}

10411 @ 거렁거 아네씨요? {그런 것 안 했어요?}

10411 # 거렁거 읍:써. 예. {그런 것 없어. 예.}

10411 # 기양 이:런 너버더서 이:렁거뽕고 푸마시해서 헨닥 허고 싹 {그냥 이런 놈 얻어서 일한 것보고 품앗이해서 한다고 하고 샀.}

10411 # 기양 푸마시 모:더면 싹꾼 사서 허능거뽕고는 싹꾼사서 헨다고 그러제. {그냥 품앗이 못 하면 샀꾼 사서 하는 것보고는 샀꾼 사서 한다고 그러지.}

10411 @ 음. 그래요이~. 음. {음. 그래요. 음.}

10411 @ 그러서구나. 음. 조씀니다. {그러셨구나. 음. 좋습니다.}

10411 @ 그 다메 예:: 먼 저기가 마:니 인는데 그 일리리 다 진:자 허실라면 너무 힘들꺼 가꼬 그 과:정을 말:씀 하실라머는이~. {그 다음에 예 뭐 저기가 많이 있는데 그 일일이 다 진짜 하실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과정을 말씀하시려머는}

10407 @ 그럼 질쌘 이:를 할 때 그때 그 베가통 거또 딱 짜보셔씨요이? {그럼 질쌘 일을 할 때 그때 그 베 같은 것도 딱 짜 보셨지요?}

10407 # 하이구 {아이고}

10407 # 베를 말도모더게 짜제라우. {베를 말도 못하게 찼지요.}

10407 @ 지베다 그럼 베트리 이씨씨요? {집에다 그런 베틀이 있었어요?}

10407 # 예, 베틀 다 이제. {예, 베틀 다 있지.}

10407 # 아이, 이러고 미영도 타고 다 헤땅게라우, 에레서, 나는 클때. {아이, 이렇게 목화도 타고 다 했다니까요, 어려서 나는 클 때.}

10407 @ 그럼 {그럼}

10407 @ 그러면 베 짤 때 그럼 호 혼자 지베서 하 할 하시 하시지요? {그러면 베 짤 때 그럼 호 혼자 집에서 하시지요 }

10407 # 아, 그러제라우. {아, 그러지요.}

10407 @ 어~ 머 {어 뭐}

10407 # 보메 헤 질때는 한 필씩 짜. {봄에 해 길 때는 한 필씩 짜.}

10407 @ 하루에? {하루에?}

10407 # 예. 하레. {예, 하루에.}

10407 # 베 잘 짤 사라른 함 필씩 짜고 나도 함 필씩 짜:씨라. 예. {베 잘 짜는 사람은 한 필씩 짜고 나도 한 필씩 찼어요. 예.}

10407 @ 오~. 그먼 그거슬 가따가 나가서 팔:거나 그러지는 안 허셔씨요? {오.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나가서 팔거나 그러지는 안 하셨지요?}

10407 # 파라. {팔아.}

10407 # 파라서 돈 파라서 써. {팔아서 돈 팔아서 써.}

10407 @ 아. {아.}

10407 # 절쌘 마:니 헤가꼬 절쌘 마:니 헤가꼬 논 산 사람도 이씨요, 엔:나레는. {길쌘 많이 헤가지고 길쌘 많이 헤가지고 논 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10407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407 # 아:먼. 논 산 사람도 이제 어제 그먼 그놈 파라가꼬 요로코 저네 모두먼 저네는 노를 제:까씩 돈 제:까씩 주고도 논 안 사쏘? {아무럼. 논 산 사람도 있지. 어제 그러냐면 그



것 팔아가지고 이렇게 전에 모으면 전에는 논을 조금씩 돈 조금씩 주고도 논 샀잖아요?)

10407 @ 네. {네.}

10407 # 그렇게 다 그래서 논 사고 그래쎄, 저네는. {그러니까 다 그래서 논 사고 그랬어, 전에는.}

10407 @ 음. {음.}

10411 @ 자기 지바네서만 쓰능 거시 아니고 나가서 팔:기도 하고 {자기 집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팔기도 하고}

10411 # 예 예 파러 장에. {예, 예, 팔아 장에.}

10411 # 장에 가서 장날. {장에 가서 장날}

10411 @ 장나래. 음. {장날에. 음.}

10412 @ 그러면 베 짤 때는 힘드신데 노래도 불르고 좀 그러시거나 그런 {그러면 베 짤 때는 힘드신데 노래도 부르고 좀 그러시거나 그런 }

10412 # 노래 불 거시기가 이따? 베에다 정신드린다 {노래 부를 거시기가 있대요? 베에다 정신 들이는데 }

10412 # 베에다 정신드려서 짜:야제:: {베에다 정신 들어서 짜야지.}

10412 @ {웃음}

10412 # 베가 깜짝 잘모더면 잘모더면 부그로 폭 찢러서 여그를 툭 떨어부러:. {베가 깜빡 잘못하면 잘못하면 북으로 폭 찢러서 여기를 툭 떨어뜨려 버려.}

10412 # 궁게 북: 안 떠러치게 그거또 영:리하게 잘해야 벼글 안 떠러치고 잘 짜제. {그러니까 북 안 떨어뜨리게 그것도 영리하게 잘 해야 북을 안 떨어뜨리고 잘 짜지.}

10412 # 제각제각제각 자:들 잘 짜야 하래 함피를 짜:제{제각제각제각 \*\* 잘 짜야 하루 한 필을 짜지.}

10412 # 시데군데 짜:고 이씨면 베 모:짜제라이. {한눈팔고('시데군데'는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의 뜻) 짜고 있으면 베 못 짜지요.}

10412 @ 그런데 그 졸리고 피곤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 졸리고 피곤하고 그러면}

10412 # 그러든 아네. 베에 정신 체레서 짠:디 어디가 졸린다우? {그러지는 않아. 베에 정신 차려서 짜는데 어디 졸린대요?}

10412 # 안 졸려. {안 졸려.}

10412 @오::: {오.}

10412 # 베 짤 처:으메 처:으메 베::엑 짜머는 하래 짜고 나면 이런 디가 퇴오기 나, 이런 디가. {베 짤 처음에 처음에 베 짜머는 하루 짜고 나면 이런 데가 근육이 뭉쳐('퇴옥나다'는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이 뭉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데가.}

10412 @ 아. {아.}

10412 # 퇴옥 나가꼬 기양 아파 주꺼서. 그래도 이틀 짜고 사을 짜면 풀려. {근육이 뭉쳐가지고 그냥 아파 죽겠어. 그래도 이틀 짜고 사흘 짜면 풀려.}

10412 # 그테로 그거시. 그룽게 글로 짜:먹제. {그테로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짜 먹지.}

10412 @ 그래도 꼬:빡 으자에 안저서 짤:라면{그래도 꼬빡 의자에 앉아서 짜려면}

10412 # 아:면. 그 야그게 짜제라우. {아무럼. 그 약하게 짜지요.}

10412 @ 먼 남자들가트면 수리라도 한잔씩 먹꼬 그럴텐데 {무슨 남자들 같으면 술이라도 한 잔씩 먹고 그럴텐데.}

10412 # 그때는 배만 부르면 쓴디 배도 안 불러. {그때는 배만 부르면 되는데 배도 안 불러.}

10412 # 배고파서 배고파 다지꺼 배 모짤단 사람도 이써써, 배 고파서. {배고파서 배고파 \*\*\* 배 못 짤다는 사람도 있었어. 배고파서.}

10412 @ 배고파서? {배고파서?}

10412 # 그러제. {그러지.}

10412 @ 으~. {으.}

10412 @ 그 전 저네 어디 곡성에서 조사할때보니까 술 막걸리 찌갱이 이찌라 야:랭이? {그 전 전에 어디 곡성에서 조사할 때 보니까 술 막걸리 찌꺼기 있지요? 아랑?}

10412 # 예. 아레~ {예. 아랑.}

10412 @ 응? {응?}

10412 @ 아:레~이. {아랑.}

10412 # 아랭이는 우리도 이써써, 머거써. 어째서 그냐면 거그서 술 네레써. {아랑은 우리도 있었어. 먹었어. 어째서 그러냐면 거기서 술 고았어.}

10412 @ 예. {예.}

10412 # 우리 친정똥네서. 사네 가서 그 산 봄 조:은디가 이써, 움빠:거니. 무쌍게 거가서 쫘 네레, 수를 해:가꼬 가서. {우리 친정 동네서. 산에 가서 그 산 보면 좋은 데가 있어 움팍하게. 무서우니까 거기 가서 쫘 고아. 술을 해가지고 가서.}

10412 @ 응. {응.}

10412 # 아레~이 수를. {아랑주를.}

10412 # 그러면 그 설 사까링가 머:싱가 요리코 너:서 머그먼 쪼까 떠보면 머글만해. 우리는 그래도 친정에서 그러:케 기양 궁:꼬 그런 시상은 안 사라서 그르코 저기는 아네써. {그러면 그 설 사카린지 뭔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조금 떠 보면 먹을 만해. 우리는 그래도 친정에서 그렇게 그냥 굶고 그런 세상은 안 살았어. 그렇게 저기는 앓았어.}

10412 @ 음.

10412 # 우리 친정에서도. {우리 친정에서도 }

10412 @ 아이, 근데 인제 그 여자드리 길쌈하면서 고령거또 머꼬 그래따고 그러드라고요. {아이, 그런데 이제 그 여자들이 길쌈하면서 그런 것도 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10412 # 예, 그러제. {예, 그러지.}

10412 @ 어~어~. {어어.}

10412 # 그거또 머꼬 뚜분 거 찌갱이도 머꼬 {그것도 먹고 두부 거 찌꺼기도 먹고}

10412 # 뚜부 곤 찌게~이 비지. {두부 곤 찌꺼기 비지.}

10412 @ 비지. {비지.}

10412 # 그거뽕고 비지락 허드만. {그것보고 비지라고 하더구만.}

10412 @ 예. {예.}

10412 # 비지 그거또 머꼬. {비지, 그것도 먹고.}

10412 @ 음. {음.}

10412 # 나 여그 시지봉게는 우리 친정에서는 고롱거 안 머건는디 벨거슬 다 머급떠다, 여그는. {나 여기 시집오니까 우리 친정에서는 그런 것 안 먹었는데 별것을 다 먹습디다, 여그는.}

10412 # 배고파가고 술찌갱이도 다 머꼬 벨 그래따갑떠다. {배고파가지고 술 찌꺼기도 다

먹고 별 그랬다고 함디다.}

10412 @ 술 찌겅이도 {술 찌꺼기도}

10412 # 우리는 그렁 꼬른 안 사라바서 몰:라 {우리는 그런 꼴은 안 살아 봐서 몰라.}

10412 @ 음. {웃음}

10412 @ 그레썬요. 그먼 {그랬어요. 그러면}

10412 # 그먼 인자 여기 누에는 안 키워보셔꼬이~ {그러면 이제 여기 누에는 안 키워 보셨고?}

10412 # 예, 우리는 누에는 안 키워썬요. {예, 우리는 누에는 안 키워었어요.}

### 1.4.3 옷 만들기

10419 @ 자 그러면 인제 그 미영가지고 인제 우선 오슬 해:입는데 온제 먼 어:편 오뜨를 주로 해:입썬니까? 미영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무명가지고 이제 우선 옷을 해 입는데 언제 뭐 어떤 옷들을 주로 해 입썬니까? 무명으로는?}

10419 # 여자드 남자드른 이르게 바지 이르게 함:복 바지허고 여르메는 중우 {여자들 남자들은 이렇게 바지 이렇게 한복 바지하고 여름에는 중의}

10419 # 알봉게 항공 호꺼싱게 중우라 허드만. 남자들 여름 오뽏고는. {얹으니까 한곳 흘 것이니까 중의라고 하더구먼. 남자들 여름옷보고는.}

10419 @ 예 {예.}

10419 # 중우 우아래 중우허고 {중의 위아래 중의하고}

10419 @ 예. {예.}

10419 # 일:꾼들 드 등지잠베~이라 허고 이러고 잘롭게 해:중게 등지잠베~이라 허고. {일꾼들 등잠방이라 하고 이렇게 짧게 해 주니까 등잠방이라 하고}

10419 @ 음. {음.}

10419 # 일:꾼들 등지잠베~이 두:벌씩 해:조 {일꾼들 등잠방이 두 벌씩 해 줘.}

10419 @ 네. {네.}

10419 # 일너네. {일 년에.}

10419 @ 예. {예.}

10419 # 그러고 해:주고, 여자드른 흰 치메 안넙꼬 인자 늘근 노:인드리나 흰치메 입썬 절른 사라드르 쥬물 드리고 입꼬 {그렇게 해 주고. 여자들은 흰 치마 안 입고 이제 늙은 노인들이나 흰 치마 입지. 젊은 사람들은 쥬물 들어서('-고'는 '-어서'의 뜻) 입고}

10419 # 거명물 드러서 입꼬 {거명물 들어서 입고}

10419 @ 으흠. {으흠.}

10419 # 고로서 치메 해:입꼬 우게는 흐:거니 입꼬 그레썬요. {그래서 치마 해 입고 위는 하얗게 입고 그랬어요.}

10419 @ 음. {음.}

10419 @ 그럼 물드른 쥬무른 {그럼 물들은 쥬물은}

10419 # 사:다가 디레. 장애가 이썬썬. {사다가 들어. 장애 있었어.}

10419 @ 물 물까물 사요? {물감을 사요?}

10419 # 예. 물까물 사다가 드레 지비서. {예, 물감을 사다가 들어, 집에서.}

10419 @ 따로 지금 머 요새가치 머 {따로 지금 뭐 요새같이 뭐}

10419 # 장에 가면 {장에 가면}

10419 @ 쪽 조글 비여따가 지베서 막 허거나 그러지는 앙코 {쪽 쪽을 베어다가 집에서 막 허거나 그러지는 앓고}

10419 # 인자 예 장에 가면 무르 무리 다 이썸. {이제 예 장에 가면 물이 다 있어.}

10419 @ 아::: {아.}

10419 # 다른 물장사라고 이썸. {다른 물장수라고 있어.}

10419 @ 아::: {아.}

10419 # 궁게 다 거가 사다가 데리제.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 사다가 들이지.}

10419 @ 음. {음.}

10419 # 인자 모시베 나가서도 그러코 허고 {이제 모시베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

10419 @ 음.

10419 @ 그러면 아 미영 말고 모시가꼬는 먼: 머 먼:? {그러면 아 무명 말고 모시 가지고 는 뭐 뭐 뭐? }

10419 # 모시도 여르메 그러코 해:입째라우. 모시는 시여녕거시라 {모시도 여름에 그렇게 해 입지요. 모시는 시원한 것이라.}

10419 @ 예. {예.}

10419 # 여르메 이르코 어:런덜 잔 중우 헤이비 입:꼬 남자들 {여름에 이렇게 어른들 줌 중의 해 입고 남자들}

10419 @ 예. {예.}

10419 # 여자드른 적삼 해:입꼬 치메 헤이꼬 {여자들은 적삼 해 입고 치마 해 입고}

10419 @ 적삼 치메 {적삼, 치마.}

10419 # 모시로 그레썸. {모시로 그랬어.}

10419 @ 음. {음.}

10419 @ 그레요. 음. {그레요. 음.}

10419 # 부모드리 얌:잔해야 모시온 어더입째 {부모들이 얌전해야 모시옷 얻어 입지.}

10419 # 부모드리 얌:자나너먼 모시온 모:더더이버. 우리넌 우리 어머이가 어::트게 질싸미고 음:식 제가니고 잘 해꼬 얌:잔하시던지 {부모들이 얌전하지 않으면 모시옷 못 얻어 입어.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질싸미고 음식 재간이고 잘 했고 얌전하시든지}

10419 @ 음. 모시베 나서 모시베 여름 꺼::머이 물 디레서 빠작빠작빠작 다드마서 파러레는 치메 해:주고이~{음, 모시베 낳아서 모시베 여름 까맣게 물 들어서 뽀작뽀작뽀작 다듬어서 팔월에는 치마 해주고}

10419 # 저 우:또리는 적삼해주고 그레썸, 우리 어머니는. {저 윗도리는 적삼해 주고 그랬어, 우리 어머니는.}

10419 @ 근데 그 모시:베는 그 금바 함번 이브먼 또 금방 저기해지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모시베는 금방 한 번 입으면 또 금방 저기해지고 그러지요?}

10419 # 궁게 철따라서만 이버, 여름처레 입꼬. {그러니까 철 따라서만 입어, 여름철에 입고.}

10419 # 언:제든지 여름처레만 입제 모시는. 인자 이런 미영베로 형거슨 여름철 가을철 업:썸 하:너고 입꼬 {언제든지 여름철에만 입지 모시는. 이제 이런 무명으로 한 것은 여름철 가을철 없이 계속해서('한하고'는 '계속해서'의 뜻) 입고.}

10419 @ 음. # 그러제. {그러지.}

10419 @ 그니까 미영배 이블라면 그거 달: 풀메게서 잘 그거 해:주어야되거뜨라고요. {그러니까 무명 입으려면 그것 풀 먹여서 잘 그것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요.}

10419 # 아:면. 모시도 그러제. {아무럼. 모시도 그러지.}

10419 # 그렇게 시방은 세:상도 떠난 세상 아니요? {그러니까 시방은 세상도 편한 세상 아니요?}

10419 @ 음. {음.}

10419 # 저네는 다:: 미영배 오슬 허머는 기냥 빨면 때가 진다요? {전에는 다 무명 옷을 하면은 그냥 빨면 때가 진대요?}

10419 # 그때는 짜드리지 오:사게 짜드리 입제에::. 얼렁얼렁 푸레서 얼렁얼렁 모:데중게 일:만 허고 웅:게 {그때는 찌들게 오사하게 찌들게 입지. 얼른얼른 풀 해서 얼른얼른 못 해주니까 일만 하고 오니까.}

10419 # 그러면 쌀마. 쟈물 사다가 쟈물 엔:나레 쟈물 이썬썬. {그러면 삶아. 찻물 사다가 찻물 옛날에 찻물 있었어.}

10419 @ 음.

10419 # 따릴 때마다 쌀마서 바베가꼬 그레가꼬 푸레가꼬 다 다드마서 바느질 허고 {\*\* 때마다 삶아서 밥해가지고 그레가지고 풀 해가지고 다 다듬어서 바느질 하고}

10419 # 여름오슨 기냥 데루고 다드마서 {여름옷은 그냥 다리고. 다듬어서.}

10419 # 기냥 바느질 이르게 헨노미라 여름오슨. 기냥 푸레서 다:: 데루고 그러제. {그냥 바느질 이렇게 한 것이라 여름옷은. 그냥 풀 해서 다 다리고 그러지. }

10419 # 볼바가꼬 해:서 너러따가 {뽕아가지고 해서 널었다가}

10419 @ 그니까 지그른 비누가 인는데 그때는 비누가 업: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누가 있는데 그때는 비누가 없고 그러니까}

10419 # 비누지른 해:썬. 비누지른 비누가 이썬썬 이끼는. 꺼멍 비누도 이꼬 비누는 이썬는 디도 {비누질은 했어. 비누질은 비누가 있었어, 있기는. 거멍 비누도 있고 비누는 있었는데}

10419 @ 으~. {으.}

10419 # 그 비누로 때를 다 모:빼 {그 비누로 때를 다 못 빼.}

10419 @ 아~. {아.}

10419 # 오래 오슬 오래 이봉게. {오래 옷을 오래 입으니까.}

10419 @ 그래서 쟈물. {그래서 찻물.}

10419 # 시방망 기양 이브면 한:참만 입꼬 하레만 이버도 버서 빨래랑 허요 시방은? {지금 처럼 그냥 입으면 한참만 입고 하루만 입어도 벗어 빨래랑 하잖아요 지금은?}

10419 @ 예. {예.}

10419 # 근디 그때는 그리틀 모:데썬.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틀 못 했어.}

10419 # 이러고 쌀마서 푸레서 임능 걸 어쭈고 얼렁얼렁 빨:거썬? {이렇게 삶아서 풀 해서 입는 것을 어떻게 얼렁얼런 빨겠소?}

10419 @ 예. {예.}

10419 # 모:딩게 오시 거머. {못 하니까 옷이 검어.}

10419 # 그렇게 인자 쌀마야만 때가 다 저. {그러니까 이제 삶아야만 때가 다 저.}

10419 @ 어. {어.}

10419 # 그래서 이버썬. {그래서 입었어.}

10424 @ 궁게 쥔무를 산 사서 하셔따고 그레짜나요? {그러니까 쥔물을 사서 하셨다고 그렷잖아요?}

10424 # 예, 사서. {예, 사서.}

10424 @ 거 쥔무리 머 어트케 머:슬 엔:날 보니까 이 제 제를 가따가 이러케 {거 쥔물이 뭘 어떻게 무엇을 옛날 보니까 이 제 제를 가져다가 이렇게}

10424 # 제로도 허고도 {재로도 하고} @ 음. {음.}

10424 # 제로도 허는디 쥔물로 사다가 마:니 허제. 제는 콩떼, {재로도 하는데 쥔물로 사다가 많이 하지. 제는 콩대.}

10424 @ 음.

10424 # 콩떼를 떼서 양:꾸또 서끄지 아너고 콩떼만 떼서 가마:니 다머놔따가 {콩대를 떼서 아무 것도 섞지 않고 콩대만 떼서 가만히 담아 놓았다가}

10424 @ 음.

10424 # 그노를 시리에다 다머가꼬 무를 부서나:두면 텡강텡강 바터져. {그것을 시루에다 담아가지고 물을 부어 놔 두면 방울방울('텡강텡강'은 소주가 조금씩 고아지는 모양을 형용하는 말.) 발아져.}

10424 # 그노미 우리나라가꼬 {그것이 우리나라가지고.}

10424 # 그러면 글로 쌀뜨면 그거시 미끄랑게 조까 떼가 저. {그러면 그것으로 삶으면 그것이 미끄러우니까 조금 떼가 저.}

10424 @ 음. {음.}

10424 # 그래서 그레쥔. 쥔무를 마:니 사서 썬썬라우. {그래서 그렷지. 쥔물을 많이 사서 썬어요.}

10424 @ 쥔무른 그거시 화양약푸미이에요? {쥔물은 그것이 화학약품이에요?}

10424 # 응, 그러제. {응, 그러지.}

10424 # 여:칸 도게, 양쥔물 그거슨. {아주 독해. 양쥔물 그것은.}

10424 # 잘모겨시거면 크닐나, 막 그거슨. {잘못 거식하면 큰일나. 막 그것은.}

10424 @ 음. {음.}

10424 @ 아 양쥔물 말씀하시능거 {아 양쥔물 말씀하시는 것.}

10424 # 궁게 딱 적땅이 너:서 허제 빨레 허면. {그러니까 딱 적당히 넣어서 하지, 빨래하면.}

10424 # 사다가 땅:: 나:두고 적땅이 쪼끔씩 너:서 쌀뜨면 그러고 껌그더고 조아. {사다가 딱 놔두고 적당히 조금씩 넣어서 삶으면 그렇게 깨끗하고 좋아.}

10424 # 그때는 항:시 헤버튼형게 다 알제라이. 일만허면 썬당거슬. {그때는 항시 헤버릇하니까 다 알지요. 얼마만큼 썬다는 것을.}

10424 @ 음. {음.}

10424 @ 빨:레 할떼도 고 오까메 따라서 빨레가 하능 방버비 다릅니까? 미영베아고 아까 마란 모시하고 고 빨:레하는 방 {빨래할 때도 그 옷감에 따라서 빨래가 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무명하고 아까 말한 모시하고 그 빨래하는 방}

10424 # 가터. 그거스 그렇거슨 가트제. {같아. 그것은 그런 것은 같지.}

10424 @ 음. {음.}

10424 # 그렇거슨 인자 멩기가통거시나 틀릴랑가 몰라도 {그런 것은 이제 명주 같은 것이

나 다를지 몰라도. }

10424 @음.

10424 # 다릉거 가:터이쎄. {다른 거 같지.}

10424 # 멍기베는 다듬끼도 고야거고 우리넌 안 멍기오슬 아네이버 바쎄. 다릉거슨 거시게도 멍기오슬 아네이번는다 {명주는 다듬기도 고약하고 우리는 안 명주옷을 안 해 입어 봤어. 다른 것은 거식해도 명주옷은 안 해 입었는데.}

10424 # 그거슨 다듬끼를 쪼까 쓰거께 다드마야 이버. 멍기는 그락짜락 해서 모:데이버. {그것은 다듬기를 조금 좋게('쓰겼게'는 ' 좋게'의 뜻) 다듬어야 입어. 명주는 그럭저럭 해서 못 해 입어.}

10424 @ 음.

10424 # 쓰거께 다드마야해 이거슨. { 좋게 다듬어야 해, 이것은.}

10424 @ 음. {음.}

10424 @ 그래요. 음. {그래요. 음 }

10425 @ 그:: 빨:레도 해:입찌만 엔:나레는 인자 오시 마:니 떠러지면 주워서 입꼬 그러잔 씁니까? {그 빨래도 해 입지만 옛날에는 이제 옷이 많이 헤어지면('떨어지다'는 '해어지다'의 방언형) 기워서 입고 그러잖습니까?}

10425 # 다:: 주워제라우. 다: 주워이버쎄. {다 기웠지요. 다 기워 입었지.}

10425 # 주워서 빠라가꼬 푸레서 다 다드마가꼬 그 흐 또 흥:겍 그 온 떠러진눔 또 이쎄. 글먼 그눔 또 푸레서 다 다드마 놔:따가 성헌디 찰라서 또 이러코 다 죽:꼬 주:꼬 그러제. {기워서 빨아가지고 풀 해서 다 다듬어가지고 그 형겍 그 옷 해진 것 또 있어. 그러면 그것 또 풀 해서 다 다듬어 왔다가 성한 데 찰라서 이렇게 다 겹고 겹고 그러지.}

10425 @ 음. {음.}

10425 @ 제봉트른 그 엔:나렌 업:써짜나요? 바느 바느질로 다 하셔쪼이~? {재봉틀은 그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바느질로 다 하셨지요?}

10425 # 소니로 마:니 헨:는디 우리 클떼도 제방침 이쎄쎄. {손으로 많이 했는데 우리 클 때는 재봉틀 있었어.}

10425 # 우리 부자쎄 우리 동네도 한 지비 이쎄는다 {우리 부갓집 우리 동네도 한 집이 있었는데.}

10425 @ 아. {아}

10425 # 그렇게 인자 거가서 여름네:: 밤메주고 적삼도 해:다입꼬 오토 해다입꼬 그레제라우. (웃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여름 내내 발 매주고 적삼도 해다 입고 옷도 해다 입고 그랬지요. (웃음) }

10425 # 적삼 한나 가서 허머는 하레 가서 밤메줘. {적삼 하나 가서 하면은 하루 가서 발 매 줘.}

10425 @ 오. {오.}

10425 # 하레 가서 {하루 가서}

10425 @ 자봉침 {재봉틀}

10425 @ 자방침 쓴 {재봉틀 쓴}

10425 # 궁게 우리는 인자 그렇거슨 네:가 가서 가서 거집 이:레주고 가서 해:다 입꼬 해:다 입꼬 그레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은 내가 가서 가서 그 집 일 해 주고 가서 해다 입고 해다 입고 그랬어.}

10425 @ 아. {아.}  
 10425 # 적쌈 가통거슨. {적삼 같은 것은}  
 10425 @ (웃음) 예. 예. {예, 예.}  
 10425 @ 조금 쉬여따가 마:니 하셔쓰니까 {조금 쉬었다가 많이 하셨으니까}  
 10425 # 아이 겐찬해요 그거슨. {아이 괜찮아요 그것은.}  
 10425 @ 쉬여따가 예 쉬여따가 인자 또 한 오:분 쉬여따가 하하지요. 잠까뇨. {쉬었다가 예 쉬었다가 이제 또 한 오 분 쉬었다가 하하지요. 잠깐요.}

## 1.3 생업 활동<sup>3)</sup>

###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41 # 고려민 이:를 텀병그리고 모:꼴리능 거시여. {그러면 일을 텀병거리고 못 줄이는 거야.('꼴리다'는 '꼴다'의 사동형으로서 '양을 줄이다'의 뜻)}  
 10341 # 이:를 딱 모냐 헐릴 나:중에 하고 서노를 아라서 이:를 해야 이:리 척:척 주름성 그러제. {일을 딱 먼저 할 일 나중에 하고 선후를 알아서 일을 해야 일이 척척 줄면서 그러지.}  
 10341 @ 며 지금 이:른 엔:날 일허고 비하면 {뭐 지금 일은 옛날 일하고 비하면}  
 10341 # 에이, 지그른 일:도 아니고 양:꾸또 아니여. 아니 바방끄니를 아네주는디 농사를 야:무리 마:니 지여도. {에이, 지금은 일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야. 아니 밥 한 끼니를 안 해 주는데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여도.}  
 10341 # 다:: 마차서 머거부러 건. {다 맞춰서 먹어 버려 그것은.}  
 10341 # 하이고 시:상에 나 일해무꼬 농사 지여무꼬 살:때는 아지꺼레 창:꺼리 나뺌 정:때 참:뺌 또 저녁뺌 {아이고, 세상에 나 일해 먹고 농사 지어 먹고 살 때는 아침결에 곁두리('참거리'와 '참밥'은 '곁두리'의 방언형), 점심('낫밥'은 점심), 점심 때 곁두리 또 저녁뺌}  
 10341 @2 참말로이~ {정말로}  
 10341 # 아이고 그노를 다 해:준닐 생각허면 {아이고 그것을 다 해 준 일 생각하면}  
 10341 @2 마:니도 먹꼬이~ {많이도 먹고.}  
 10341 # 어쭈고 그노를 다 허연 그꼬물 다 {어떻게 그것을 다 했 그것을 다}  
 10341 @ 주로 참:꺼리는 뭘: 해줍니까? {주로 곁두리는 뭘 해 줍니까?}  
 10341 # 바비제. {밥이지.}  
 10341 @2 \*\* 인능거. {\*\* 있는 것.}  
 10341 @ 또 바비여? {또 밥이야?}  
 10341 # 아:면. 아척 나주께도 침 일:헌 사라믄 바블 머거야 해. 다룽 거 다 암 묵거. {아 무렵. 아침 아직까지도 일 하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해. 다른 것 다 안 먹어.}  
 10341 @2 그래. {그래.}  
 10341 @2 밤 머거야지. {밥 먹어야지.}  
 10341 # 바벌 머거야제. {밥을 먹어야지.}  
 10341 # 그렇게 이:리 박 꼴리능 거시여. {그러니까 일이 밥 줄이는 거야.}

---

3) 제보자는 김귀님 할머니이다.



10341 # 일 안 하면 밥 양 굴제라우. {일 안 하면 밥 안 줄지요.}

10341 @ (웃음)

10341 @ 아니 요새는 머 다름거또 {아니 요새는 뭐 다른 것도}

10341 # 요 지금더런 게양 다름거 사다무거. 짜장 불려다 무거 부러 막 그러자나요. {요 지금들은 그냥 다른 것 사다 먹어. 자장면 불려다 먹어 버려. 막 그러잖아요.}

10341 @ 음 아니 좀 쯤 별찌기나 간:시글 주자나요? {음, 아니, 좀 쯤 별식이나 간식을 주잖아요?}

10341 # 간:시글 모다 머거 불고 근디 지그든 그때는 글 아네썬. 밤만 머거썬 밤만. {간식을 모두 먹어 버리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 밤만 먹었어, 밤만.}

10341 @ 밤만. {밥만.}

10341 # 발 가직꼐 이또 업:썬제라 그때는. 그릉게 그러제. {별것도 없었지요('있도 없다'는 '없다'의 뜻), 그때는. 그러니까 그러지.}

10341 # 그리고 돈: 업썬 사다 먹또 모:더고 {그리고 돈 없어서 사다가 먹지도 못하고.}

10341 @ 하루에 아침 세:참꺼리 점심 참:꺼리 저녁 다서끼를 바블 해야 되건네요. {하루에 아침 결두리 점심 결두리('새참거리'는 '결두리'의 방언형) 저녁 다섯 끼니를 밥을 해야 되겠네요.}

10341 @ 예, 그러제라우. {예, 그러지요.}

10341 # 그릉게 어:썬고 그러코 생에뎡가 몰라 시방 생각허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릉게 생겼든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10341 @2 하루가 그낭 {하루가 그낭}

10341 # 한자 강 그노믈 게양 너 들:빠테 녀 세보게 이러나서 밥 해서 창:꺼리 바찬빠블 썬: 해서 썬: 퍼노코 반찬 준비 썬: 해노코는 나가. {혼자 그냥 그것을 그냥 들발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서 결두리 반찬 밥을 썬 해서 썬 퍼 놓고 반찬 준비 썬 해 놓고는 나가.}

10341 # 네:가 쥐:니 나가야 일헐 꺾 이:덜 시기제. {내가 주인이 나가야 일할 것을 이렇게 시키지.}

10341 @ 응.

10341 # 너비 썬: 나오면 어찌코어찌코 허라고 이럴 딱: 시게노코 지비 드와서 또 나빠블 준:비 어느 정도 해:노코는 인자 참:되면 또 참:꺼리 가꼬 나가. {놈이 썬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일을 딱 시켜 놓고 집에 들어와서 또 낫밥을 준비 어느 정도 해 놓고는 이제 결두리 때 되면 또 결두리 가지고 나가.}

10341 # 그래서 참:꺼리 그놈 머꼬 오면 또 그놈 치여. {그래서 결두리 그것 먹고 오면 또 그것 치워.}

10341 # 치우고는 인자 또 나뺌 해:. {치우고는 이제 또 점심 해.}

10341 # 고로고 나뺌 머꼬나면 또 인자 치:고는 또 인자 저녁때 참:뺌 해.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이제 치우고는 또 이제 저녁 때 결두리 해.}

10341 # 고로고 해:썬. 고로고 사라썬. 어:디가 각 졸썬 어디가 붙 똥구녕 부치고 양글 세:가 업썬 그때는. {그릉게 했어. 그릉게 살았어. 어디에 \*\*\* 어디에 엉덩이('똥구녕'은 직역하면 '항문'이지만 여기서는 '엉덩이'의 뜻) 붙이고 앉을 새가 없어, 그때는.}

10341 @2 그러니까요?

10341 @ 예:기드른 누가 봄니까? {아이들은 누가 봄니까?}

10341 # 예:기더른 그도 어썬고 예:기들 텔꼬 다 해:썬라. {아이들은 그래도 어떻게 아이들

데리고 다 했어요.}

10341 # 나:두고 허고 지금에기들도 까탈시롭께 안헤써라. 에기덜 밤머금서 전분 무그문 나:두고 계양 밥한수칼씩 메기면 나:두고 보고 일:허고 그레제. {와 두고 하고 지금 아이들 처럼 까다롭게('까탈시롭다'는 '까다롭다'의 방언형) 안 했어요. 아이들 밥 먹으면서 젓 문 먹으면 와 두고 그냥 밥 한 숟가락씩 먹이면 와 두고 보고 일하고 그랬지.}

10341 # 시방 에기덜만 폰나두면 모:싸라. 아이고 어::치코 이메비가 뜨슬 바쁜지 이노무 세끼더리 당채 계양 {지금 아이들만큼 \*\*\*\* 못 살아. 아이고 어떻게 어미 애비가 뜻을 받들 든지 이놈의 새끼들이 당최 그냥}

10341 @ 마저요. 요세 에기들 {맞아요. 요새 아이들.}

10341 # 꼬를 모뽀거써 꼬를 모뽀거써. {꼴을 못 보겠어. 꼴을 못 보겠어.}

10341 # 우리 아그더른 그러케 안 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

10341 # 우리 아들도 성:지리 그베가꼬 계양 망 머시락허제 {우리 아들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막 야단치지.('머시락허다'는 '야단치다'의 뜻)}

10341 # 우리 메누리도 그러제 궁게 고로코 계양 뜨:또 안 해. {우리 며느리도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아.('뜻도 안허다'는 '아이들이 버릇없이 행동하다'의 뜻)}

10341 # 근디 하::따 너무집 가보면 계양 어::찌꼬 에기덜 뜨슬 바터주던지 아이고 꼬 농:꼬를 모:뽀거써 계양. {그런데 아따 남의 집 가 보면 그냥 어떻게 아이들 뜻을 받아 주든지 아이고 꼴을 못 보겠어 그냥.}

10341 @ (웃음)

10341 @ 반찬은 그러면 참:뽕 혈떼는 어떠 멀: {반찬은 그러면 결두리 할 때는 어떠 뭘}

10341 # 다:: 기냥 흰:밥 그 바차니로 허제. {다 그냥 한 밥 그 반찬으로 하지.}

10341 @ 그 반찬 {그 반찬}

10341 # 아 그 반찬으로 다 허제. {아, 그 반찬으로 다 하지.}

10341 @ 그 또까튼 밥 반찬 다서뽕 명네 하루에. {그 똑같은 밥 반찬 다섯 번 먹네 하루에.}

10341 # 그러제. {그러지.}

10341 @ (웃음) 요세 가트먼 (웃음) {요새 같으면}

10341 # 크레도 바비나 제:간씩 머근다우? 요세는 공기뽕또 다 만:타고 제:간써글 다 다무락 현디 {그래도 밥이나 조금씩 먹는대요? 요세는 공기밥도 다 많다고 조금씩 담으라 하는데.}

10341 # 그때는 요짜뽕 조짜뽕 {그때는 이쪽 밥 저쪽 밥 }

10341 @ 고봉으로 {고봉으로}

10341 # 요로코 담:제 요로고 (웃음) {이렇게 담지 이렇게.}

10341 # 박끄럭 큰노드로 {밥그릇 큰 걸로.}

10341 @2 지금 바끄런 이뜨마노. 엔:날 그 박끄런. {지금 밥그릇 있더구먼요. 옛날 그 밥그릇.}

10341 # 응 엔:날 우:도 다 이써. {응, 옛날 우리도 다 있어.}

10341 # 다 누가 누가 도라거먼 쥐:뿌르고도 이써. {다 누가 누가 달라고 하면 쥐 버리고도 있어.}

10341 @ 으흠. {으흠.}

10341 @2 동생이 지남버네 보더니 그거 그:리므로 쫘 그리고 십따 그러던데 {동생이 지난 번에 보더니 그것 그림으로 쫘 그리고 십다 그러던데.}

10341 @ 박끄럭 먼: 박끄럭 {밥그릇 무슨 밥그릇?}

10341 @2 딱 이러케 하 하얀 사기 박끄런 {딱 이렇게 하얀 사기 밥그릇.}

10341 @2 큰:: 엔:날 박끄런. (큰 옛날 밥그릇.)

10341 # 엔:날 박끄럭 사그 박끄럭 큰놈 이씨가꼬 그거이 그 사그 박끄럭 이꼬 또 스텡 박끄럭 큰놈 이꼬 그러제. {옛날 밥그릇 사기 밥그릇 큰 것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사기 밥그릇 있고 또 스텡레스 밥그릇 큰 것 있고 그러지.}

10341 # 사그 박끄럭 쓴:디 난:주~에는 또 스텡인 박끄러시 나와제. {사기 밥그릇 썼는데 나중에는 또 스텡레스 밥그릇이 나왔지.}

10341 @2 사기 박끄럭 보더니 쫘 사쓰면 하던데 {사기 밥그릇 보더니 쫘 샀으면 하던데.}

10341 @ 먼 사기 박끄러글 다 사? (웃음) 무::슨 그르슬? {무슨 사기 밥그릇을 다 사? 무슨 그릇을?} (웃음)

10341 @2 그:리고 십따고. {그리고 십다고.}

10341 @2 그:림 그리는 애라. {그림 그리는 애라.}

10341 # 아니, 그렇거 모다 거식헌 사람더른 절몬 사람더른 다 귀썰다가 나:두고 그레. {아니, 그런 것 모두 거식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에다 놔 두고 그레.}

10341 # 모다 엔:날꺼슬. {모두 옛날 것슬.}

10341 # 나도 너무가 도라게싸서 쥐:뿌리고 그레썰. {나도 남이 달라고 해 대서 쥐 버리고 그랬어.}

10341 @ 엔나레는 박끄러기 커찌요? {옛날에는 밥그릇이 컷지요?}

10341 # 예. {예.}

10341 @2 핑장히 커. 국끄르또 크고. {핑장히 커. 국그릇도 크고.}

10341 @ 사기? 우리는 녹끄르슬 마:니 씨:궁거 가튼데. 어려썰. {사기? 우리는 놋그릇을 많이 써 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10341 # 녹끄르또 이꼬. {놋그릇도 있고.}

10341 @ 예. {예.}

10341 # 녹끄르또 이꼬. 부:자더른 다 녹끄르. 하이고 녹끄르근 쓸라면 징헤, 징헤. {놋그릇도 있고. 부자들은 다 놋그릇. 아이고 놋그릇은 쓰려면 징그러워('징허다'는 '징그럽다'의 뜻), 징그러워.}

10341 @2 징헤, 따글라면. {징그러워. 닦으려면.}

10341 @ 따거야 땡게 {닦아야 되니까}

10341 # 음.

10341 # 하이고 {아이고}

10341 @ 나도 어려썰 때 지푸라기로 짝글란 기어기 나. {나도 어렸을 때 지푸라기로 닦으려 한 기억이 나.}

10341 # 아조 어깨가 빠:질라게 녹끄르글 다 따글라면 아조. {아주 어깨가 빠지려고 해. 놋그릇을 다 닦으려면 아조.}

10341 # 따끄먼 뽕닥뽕닥허게 따꺼야제 시테부테 따끄먼 모:쓰고. {닦으면 반짝반짝하게 닦아야지. 흐지부지('시테부제'는 '흐지부지'의 뜻) 닦으면 못쓰고.}

10341 @ 음. {음.}

10341 @ 그다메 스텡이 나옴께 편하제. {그 다음에 스텡레스가 나오니까 편하지.}

10341 # 예, 녹끄룩 그놈 쓰다가 스텡 나옴께 펜헤써. {예, 녹끄룩 그것 쓰다가 스텡레스 나오니까 편했어.}

10341 @ 예. {예.}

10341 @ 그레 겨우레는 녹끄룩 내 기어기 나네, 녹끄룩 따끈. 사기 박끄룩또 음. {그레. 겨우레는 녹끄룩 내 기억이 나네, 녹끄룩 닭은. 사기 밥끄룩도 음.}

10341 @ 거 엔 여자들 이일: 그로고 보면 엔:나레는 어머어마허게 형겨여 이:를. {그 여자들 일 그렇게 보면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일을.}

10341 @2 아이고 베 짜는 이야기 드러보니까 까깝허네요 드끼만 해도 오:메. {아이고, 베 짜는 이야기 들어 보니까 갑갑하네요, 듣기한 해도 오매.}

10341 # 베 짜는 기구가 메 까진지 몰라. 말:도 모테. 나도 이저부러서 다 겐주사살 알:도 모:더겨써 게쭈를. {베 짜는 기구가 몇 가진지 몰라. 말도 못해. 나도 잊어버려서 다 \*\*\*\* 알지도 못하겠어, 갯수를.}

10341 # 베 한 톨 이러케 메:서 노코 짜:는 기수리 거시기가 가지기씩헤. 잉에 잉에 달면 잉에 이제. 머 저시 사치미라고 이제. 또 요 먼 빙:어리가 비거리라고 이제. {베 한 톨 이렇게 매서 놓고 짜는 기술이 거시기가 갖가지 있어. 잉아 잉아 달면 잉아 있지. 뭐 시침대라고 있지. 또 이 무슨 비거린가 비거리라고 있지.}

10341 # 벨거시 다 이써. {별 것이 다 있어.}

10341 @2 머리 안 조으면 모다건네요 그거또 이~? {머리 좋지 않으면 못 하겠네요, 그것도?}

10341 @ {웃음}

10341 @2 베 짜는 거또 굉장히 힘들건네요. {베 짜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10341 @ 베 짜는 거시 다: 형 거시 아니여 여자락 해서. {베 짜는 것이 다 하는 것이 아니야, 여자라고 해서.}

10341 @2 응. @ 베를 잘 짜는 사람이 따로 이써. {베를 잘 짜는 사람이 따로 있어.}

10341 # 모:짜는 여그 아페 할메 여그 안 텅입떠여? {못 짜는 여기 앞에 할머니 여기 다니지 않습디까?}

10341 @ 음.

10341 @2 예. {예.}

10404 #클 때 바늘귀 꿰찌도 모르고 시지봐서. 베가 어쭈고 생인지도 몰라. 클때 안 허고 와농게. {클 때 바늘귀 꿰 줄도 모르고 시집 와서. 베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클 때 안 하고 와 놓으니까.}

10404 # 그렇게 시어마니가 원치 얌:전형게 사라써.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워낙 얌전하니까 살았어.}

10404 # 밤나 그레. 시 우리 시어마니가 얌:전형게 사라따고. 양:꺼또 헐찌 몰라도. {밤낮 그레. 우리 시어머니가 얌전하니까 살았다고. 아무 것도 할 줄 몰라도.}

10404 @ {웃음}

10404 @ 그니까 {그러니까}

10404 # 그거슨 머리가 영:리허면 돼. 베 짜능 거또 우:는 누가 깔치도 아니고 게양 잉:에만 다라주고 허머는 올라가서 짜고 엄마가 {그것은 머리가 영리하면 돼. 베 짜는 것도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잉아만 달아 주고 하면은 올라가서 짜고 엄마가.}

10404 # 우리 어머니가 인자 요로고 베를 짜:시다가 네로와. 그러면 기양 숨: 화장시리라도 갈라면 네로면 강 열:름 올라가서 올라가서 짜: 줘. 네가 짜: 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베를 짜시다가 내려와. 그러면 그냥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내려오면 그냥 열른 올라가서 올라가서 짜 줘. 내가 짜 봐.}

10404 # 쪼까씩. 그로고 베 메:는 디서 가리세기는 아라 부러. {조금씩. 그렇게 베 매는 데서 가로세기는 알아 버려.}

10404 @2 음.

10404 # 미돌 사술 다 아라부러. {밀을 샷을 다 알아 버려.}

10404 @2 음.

10404 # 어:른덜 허는 디 보먼 아라. {어른들 하는 것 보먼 알아.}

10404 @ 음

10404 @2 음.

10404 # 그래서 그렇길 아라버리면 산 미돌 사술만 아라 빠리면 베 거식허능거시여 베 짜:능거시여. {그래서 그런 것 알아 버리면 샷 밀을 샷을만 알아 버리면 베 거식하는 거야. 베 짜는 거야.}

10404 # 건: 이슬 찌 아:니까. {그것은 이슬 줄 아니까.}

10404 # 그레췌 우:는 또 누가 묻 허라고 갈쳐 보든 아네췌. {그랬지. 우리는 또 누가 뭐 하라고 가르쳐 보지는 않았어.}

10404 # 보고 다 해: 부러췌. 궁게. {보고 다 해 버렸지. 그러니까}

10404 @ 궁게 지금가치 머 밤만 허능게 아니제. 엔:나레는 베도 짜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밥만 하는 것이 아니지. 옛날에는 베도 짜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10218 # 하이 벨건 벨건 다 해췌, 이:를. {아이, 별것 별것 다 했어, 일을.}

10218 # 어췌서 그냐면 학교를 안 텅에농게 우:는 {어췌서 그러냐면 학교를 안 다녀 놓으니까 우리는}

10418 @2 자급자조기자나요? 다:: 해야 데자나요? {자급자족이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10418 # 멘:: 일만 해췌 일만. 응, 일만 해췌. {맨날 일만 했어 일만. 응, 일만 했어.}

10218 @ 음, 그인자 나이들면 골병이 들지요. {음, 그 이제 나이 들면 골병이 들지요.}

10218 # 그렇거슨 해:서는 골병 안 든데. {그런 것은 해선 골병 안 드는데.}

10418 @, @2 (웃음)

10218 # 그렇거슨 해:서는 골병 안 든디 {그런 것은 해선 골병 안 드는데}

10418 @ 아니 요런데 인제 머 물팍 가통거 요런디가 다:: 그러케 일 마:니 허고 그러면 {아니, 이런 데 이제 뭐 무릎 같은 것 이런 데가 다 그렇게 일 많이 하고 그러면}

10218 @ 에이고 {아이고}

10218 @ 쪼금 나쁜 더 이야기를 더 해:보시조. 인제: 요거는 {조금 남은 더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이제 이것은.}

## 1.5 식생활4)

---

4) 제보자는 김귀님 할머니이다.

### 1.5.1 채소 재배와 요리

10501 @ 식생활 식생활 채:소 엔:나레 다 여쭙 봐:든 이야기네요. 다시 한번만. {식생활, 식생활, 채소 옛날에 다 여쭙 보았던 이야기네요. 다시 한 번만.}

10501 @ 바테서 채:소 길르자나요이~? 머:: 주로 바테서? {밭에서 채소 기르잖아요? 뭐 주로 밭에서?}

10501 # 엔:나레는 바테서 채:소 기룬거시라고는 미영 바테다 미영밤 무시 느코 {옛날에는 밭에서 채소 기르는 것이라고는 목화밭에다 목화밭 무 넣고}

10501 @ 미영반 무시 {목화밭 무}

10501 # 응, 콩바테다가 이러케 무시 느코. {응, 콩밭에다 이렇게 무 넣고}

10501 @ 예. {예.}

10501 # 베:추 종자도 느코 그래서 여르메 헤:머꼬 {배추 종자도 넣고 그래서 여름에 해 먹고}

10501 @ 예. {예.}

10501 # 그레제 인자 채:저는 이려고 가실 닥친 채 치웁 다치면 갈:고 {그랬지. 이제 채전은 이렇게 가을 닥친 칠월 닥치면 갈고}

10501 # 가르레 머글라먼노른 시야네 짐장혈란노른 그레썬. {가을에 먹으려는 것은 겨울에 김장하려는 것은 그랬어.}

10502 @ 그 무시하고 베:추 정도 {그 무하고 배추 정도}

10502 # 베:추 가통거 너:파가 인자 뽀바다가 이려고 멘드라머꼬 {배추 같은 것 넣었다가 이제 뽑아다가 이렇게 만들어 먹고}

10502 @ 예. {예.}

10502 # 무시는 허머는 \*\* 가서 토까다 머꼬 뜨더. 뜨더 머거, 가서. 잔 짐치 다문놈 떠러 지면 가서 또 뜨꼬 또 뜨꼬 허면 또 남나고 남나고 허면 가시레 무시 케면 무시가 요러코 미뜨러. {무는 하면은 가서 \*\*\* 먹고 뜯어. 뜯어 먹어, 가서. 김치 담근 것 떨어지면 가서 또 뜯고 또 뜯고 하면 또 하면 또 나고 나고 하면 가을에 무 캐면 무가 이렇게 밀 들어.}

10502 # 그놈 캐다가 머 무더노코 시야네 머거. {그것 캐다가 뭐 물어 놓고 겨울에 먹어.}

10502 @ 음.

10502 # 시야네 찐지도 멘드라머꼬 무시너물도 헤머꼬 그레썬. {겨울에 무채도 만들어 먹고 무나물도 해 먹고 그랬어요.}

10501 @ 그러면 엔:나레는 꼬:치 가통거또 저기 헤:썬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고추 같은 것도 저기 했습니까?}

10501 # 꼬:치 가통거 헤:도 마:니 아네제. 저네는 제::까썬 헤썬. {고추 같은 것 해도 많이 안 했지. 전에는 조금씩 했어.}

10502 # 궁게 꼬:치도 제:간썬 헤가꼬 시방칠로 어디가 꼬:치까리 너:서 머거파요? 제:까썬 너서 머거제. {그러니까 고추도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처럼 어디 고춧가루 넣어서 먹었대요? 조금씩 넣어서 먹었지.}

10502 @ 아 귀헤썬요? {아, 귀했어.}

10502 # 귀헤제 꼬치가. {귀했지, 고추가.}

10501 # 꼬:치릴 마:니 아넹게. {고추를 많이 안 하니까.}

10502 # 마:니 혈찌릴 몰라썬. 바시 업꼬 무시 업:썬서 모딩거시 아이라 꼬:치를 마:니 혈

찌를 몰:라썬. {많이 할 줄을 몰랐어. 밭이 없고 뭐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고추를 많이 할 줄을 몰랐어.}

10502 # 그렇게 썰:까썬 그저 가라서 해무꼬 해무꼬 그레썬. {그러니까 조금씩 그저 갈아서 해 먹고 그랬어.}

10502 # 금면 잘허면 머꼬 모:더면 적:꼬 그레썰라우. {그러면 잘 하면 먹고 못 하면 적고 그랬지요.}

10502 @ 음.

10502 # 그렌는디 인자 나:중에는 나 여그 와서도 그렇게 마:니 아네썬.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나 여기 와서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

10502 # 근디 난:중에 인자 마:니 허기 시작해가꼬 마:니썬 해: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많이썬 했지.}

10502 # 그레가꼬 인자 나:중에는 인자 또 모판 부서가꼬 허고 어쭈고 해가꼬 인자 마니썬 또 허고 그레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모판 부어가지고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썬도 하고 그랬지.}

10501 @ 아::

10501 # 처음에는 그러꼬 썰:까썬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씩.}

10501 @ 그르니까 자연 자연니 꼬:치를 지금가치 마:니는 먹찌는 모테켄네요? {그러니까 자연 자연히 고추를 지금같이 많이는 먹지는 못했겠네요?}

10501 # 그러제. 그때는 마:니 몬: 머거썰이~. {그러지. 그때는 많이 못 먹었지.}

10501 @ 김치 당글때도 그러케 마:니 몬 {김치 당글 때도 그렇게 많이 못}

10501 # 안 썰:까썬 썰:까썬 너:썰 어디가 빨:거니 썰꾸기 질도저도 가:남도 업썰썰 그때는. {조금씩 조금씩 넣었지. 어디 빨강게 김칫국이('젓국'은 '젓을 넣어 담근 김칫국'을 가리킨다) \*\*\*\* 가당치도 았았지.('가남'은 '가늌'의 방언형으로서 '가남이 았다'는 '가당치 았다'로 해석된다.) 그때는}

10501 @ 어:: # 그래도 짐치 만나서 만나서 짐치만 만나 모다 머거썰라우. (웃음) {그래도 김치 맛나서 맛나서 김치만 맛나 모두 먹었지요.}

10502 # 지금말로 양니를 다 느끼나 허간디? 시방은 {지금처럼 양념을 다 넣기나 하나? 지금은}

10502 @ 그러몬 {그러면}

10502 @ 마늘 가통거슨 어트케 그거슨 {마늘 같은 것은 어떻게 그것은}

10502 # 마느른 다 해 무거썰. {마늘은 다 해 먹었지.}

10502 @ 해머거썰요? {해 먹었어요?}

10502 # 마늘 응 마느른 다 그때도 송거서 머금게. {마늘 응 마늘은 다 그때도 심어서 먹으니까}

10502 @ 응 마느리나 파 가통건 다 지베서 {응, 마늘이나 파 같은 것은 다 집에서}

10502 # 그렇거슨 다 송거서 먹썰 마늘 파 가통거슨. {그런 것은 다 심어서 먹지. 마늘 파 같은 것은.}

10502 @ 무시는 여러가지꺼 해먹짜나요? 무시가꼬는? {무는 여러가지 해 먹잖아요? 무 가지고는?}

10502 # 그러제. {그러지.}

10502 # 무시너물또 허고 짠:지도 멘들고 짐치도 당:꼬 그러제. {무나물도 하고 무채도('짠

지'는 '무채'의 방언형) 만들고 김치도 담그고 그러지.}

10502 # 메까지를 허제. {몇 가지를 하지.}

## 1.5.2 나물 채취와 요리

10504 @ 예로근 바테서 기룬거 말:고 인제 또 사네를 간다등가 더 드:레 나가서 좀 캐기도 하고 너물 캐기도 하고 그러 {이렇게 밭에서 기르는 것 말고 이제 또 산에를 간다든지 들에 나가서 좀 캐기도 하고 나물 캐기도 하고 그러}

10504 # 그거슨 인자 {그것은 이제}

10504 # 보메. 봄네. {봄에. 봄 내내.}

10504 @ 보메. {봄에}

10504 # 응 보메 받 받 노네 바체 가서는 바테 너무리고 보 거시기 곱바부리 가통거 모다 그런 강:테제기 가통거 인자 그렇거시고 {응, 봄에 밭 논에 밭에 가서는 밭에 나물이고 거시기 '곱바부리' {나물의 일종} 같은 것 모두 그런 '강테제기' {나물의 일종} 같은 것 이제 그런 것이고}

10504 # 논노무른 썩 짜랑 논두렁 짜랑부리라고 이꼬 보리뱅이라고 이꼬 부미나리라고 이꼬 숙뿌쟁이라고 이꼬 고로코 이썩. {논나물은 짜랑 논두렁 썩바귀라고 ('짜랑부리'는 '썩바귀'의 방언형) 있고 '보리뱅이'라고 있고 불미나리라고 있고 '숙뿌쟁이'라고 있고 그렇게 있어.}

10504 # 논노물 모다 여러가지여 논노물도. {논나물 모두 여러가지야, 논나물도.}

10504 @ 음.

10504 # 그렇거 해:다 무꼬 그레 노네서. {그런 것 해다 먹고 그레, 논에서.}

10504 @ 사네 가머뇨? {산에 가면요?}

10504 # 사네 가면 취. 취도 인자 여러가지 이썩. 먼 챔빈너물도 이꼬 먼: 너물도 이꼬 거거이 {산에 가면 취. 취도 이제 여러가지 있어. 무슨 참빗나물도 있고 무슨 나물도 있고 그것이}

10504 # 지:비충 너무링가 머:싱가도 이꼬. 그거또 이르른 여러가지 이썩, 사네 가도. {제비충 나물인지 뭔지도 있고. 그것도 이름은 여러가지 있어, 산에 가도.}

10504 @ 사네 가도. {산에 가도}

10504 # 인자 지 치가 질: 목쩍이고 {이제 취가 제일 목쩍이고}

10504 @ 아 취가? {아, 취가}

10504 # 음. @ 음. 아 취를 그러면 엔:날부터 마:니 머건네요? {음, 아, 취를 그러면 옛날부터 많이 먹었네요?}

10504 # 그러제. 저네보덤 취를 마:니 먹제. {그러지. 전에부터 취를 많이 먹지.}

10504 # 그때는 움:는 세상이라 취를 마:니씩 뜨더다 해:무거제 사네 가서. {그때는 없는 세상이라 취를 많이씩 뜯어다 해 먹었지, 산에 가서.}

10504 # 배고풍게 취 마:니씩 뜨더다 쌀마서 기양 모다 무쳐서 머거제라우. {배고프니까 취 많이씩 뜯어다 삶아서 그냥 모두 무쳐서 먹었지요.}

10504 @ 취가 그거 향기가 조:차나요? {취가 그것 향기가 좋잖아요?}

10504 # 예, 향기가 조:체. {예, 향기가 좋지.}

10504 # 그거도 머꼬도 빙:페도 업:꼬 그거슨. {그것도 먹고도 병폐가 없고 그것은}

10504 @ 예. 예. {예, 예.}



10506 @ 그다메:: 감 이썬라. 저네 이야기 해쥬? 여그 모심둘레가 이따고 그레썬가요? 여그도? {그 다음에 가만 있어라. 전에 이야기 했지요? 여기 민들레 있다고 그랬던가요 여기도?}

10506 # 예, 여그도 이썬요. 둘레 머심둘레. {예, 여기도 있어요. 둘레 민들레.}

10506 @ 응.

10506 @ 그거또 해:무거요? {그것도 해 먹어요?}

10506 # 해:머거. {해 먹어.}

10506 @ 엔:날부터 해무거썬요? {옛날부터 해 먹었어요?}

10506 # 예, 엔:날부터 해무거썬요. {예, 옛날부터 해 먹었어요.}

10506 # 그거이 썬썬해. 썬거 조아한 사람드리 머거 그거슨. {그것이 썬썬해. 썬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어, 그것은.}

10506 @ 아 모심둘레? {아, 민들레?}

10506 # 예. {예.}

10506 # 그거 썬마가꼬 게양 념베다 썬글썬:허니 썬장에다가 무쳐서 썬글썬:허면 썬거 잘 머근 사라문 잘 머거. {그것 썬아가지고 그냥 남비에다 썬글썬:하게 썬장에다가 무쳐서 썬글썬:하면 썬 것 잘 먹는 사람은 잘 먹어.}

10506 @ 음.

10506 # 고거슨. 썬거 멍는 사라만 머꼬 암 머꼬. {그것은. 썬 것 먹는 사람만 먹고 안 먹고.}

10506 @ 또 이렇거 이썬요? 뻔뻔쟁이라고 이썬요? 뻔뻔쟁이? {또 이런 것 있어요? 질경이라고 있어요? 질경이?}

10506 # 예, 뻔뻔쟁이도 이꼬 {예, 질경이도 있고}

10506 @ 응. # 뻔뻔쟁이도 이썬. {질경이도 있어.}

10506 @ 고거또 나물 해:무거요? {그것도 나물 해 먹어요?}

10506 # 예, 뻔뻔쟁이. {예, 질경이}

10506 # 아니. 뻔뻔쟁이는 나물 해몽는 거시 아이라 그거시 머:따 약초를 썬닥 허드만. {아니, 질경이는 나물 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에 약초를 썬다고 하더구먼.}

10506 # 논뚜리게가 이썬는디 시방은 논뚜리게 야게 부룽가 뻔뻔쟁이 귀:경도 업썬라, 지그문. {논두렁에 있었는데 지금은 논두렁에 약 해 버리니까 질경이 구경도 못해요, 지금은.}

10506 # 그거시 너물로 아네 머거썬 뻔뻔쟁이 {그것이 나물로 안 해 먹었어, 질경이}

10506 @ 아 야그로. {아, 약으로}

10506 # 응. 야그로 무:슬 썬는디. {응, 약으로 뭘을 썬는데}

10506 @ 그러면 야그로 해:몽는 거뜨리 어떻게 이썬요? 머:슬 머. {그러면 약으로 해 먹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뭘을 뭘?}

10506 # 나는 양나무는 모르요. 썬전 그렁 거슨 네가 아네썬라. 사네 가면 양나마 여그 우리 동서는 양나무를 다 아라. {나는 약나무는 모르요. 썬전 그렁 것은 내가 안 했어요. 산에 가면 약나무 여기 우리 동서는 약나무를 다 알아.}

10506 # 즈그 친정 어메가 양나무를 다 해:버르데서 근디 너 나는 우리 친정에서도 양나무는 누가 아네썬던. 그레가꼬 양나무는 몰:라.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약나무를 다 해 버릇해서 그런데 나는 우리 친정에서도 약나무는 누가 안 했거든. 그레가지고 약나무는 몰라.}

10506 @2 잉모초가룽거 {익모초 같은 것}

10506 @ 음

10506 # 사네 가면 양나무가 이썸 다. {산에 가면 약나무가 있어 다.}

10506 @ 그러지요. {그러지요.}

10506 # 여 무 문: 나무라고 이꼬 먼:나무라 이꼬 다 이썸요. {여 무슨 나무라고 있고 무슨 나무라고 있고 다 있어요.}

10506 @ 음.

10506 # 그래도 인자 그렇거슨 난 아네바서 몰:라.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은 난 안 해 봐서 몰라.} @ 음. {음.}

10509 @ 그러면 절르서슬때 흑씨 이런 데 사네 가서 나물도 뜯꼬 그러서썸요? {그러면 젊으셨을 때 흑씨 이런 데 산에 가서 나물도 뜯고 그러셨어요?}

10509 # 암:마. 사네 마:니 텅에썸 예. 살 끈 너물 뜯꼬 꼬사리 꺾꼬. {아무렴. 산에 많이 다녔지 예. 나물 뜯고 꼬사리 꺾고}

10509 @ 아.

10509 # 도라지도 캐고 {도라지도 캐고.}

10509 @ 어:디 사네 가요? {어디 산에 가요?}

10509 # 거가 사니 친진디 친정똥네도. {거기가 산이 친지인데 친정 동네도}

10509 @ 친정똥 {친정똥(네)}

10509 # 여그는 앙가썸 여그서는. {여기는 안 갔어, 여기서는.}

10509 @ 여기서 아직 결혼해가지고는 안 {여기서 아직 결혼해가지고는 안}

10509 # 여그서는 여그는 음:썸 {여기서는 여기는 없어.}

10509 @ 업썸. {없지요.}

10509 # 예, 업:썸. 사네 가면 머:시 업:썸. {예, 없어. 산에 가면 뭐가 없어.}

10509 @ 응.

10509 @ 아 결혼하기 저네 친정에서 {아,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10509 # 예, 거그는 그러코 마:네 머:시던지. {예, 거기는 그렇게 많아, 뭐든지.}

10509 # 그런디 여그 웅게는 음:뜨만. 사네도 취도 업:꼬 꼬사리도 업:꼬 근디 인자는 꼬사리가 나. {그런데 여기 오니까는 없더구먼. 산에도 취도 없고 꼬사리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꼬사리가 나.}

10509 # 인자는 꼬사리가 나고. 음:썸 여그는 사네 가야 머:시 앙:꾸또 업썸. {이제는 꼬사리가 나고. 없어. 여기는 산에 가야 뭐가 아무 것도 없어.}

10509 @ 음::.

10509 @ 게 머 사니 만:치 아느니까. {게 뭐 산이 많지 않으니까.}

### 1.5.3 밀반찬의 조리

10521 @ 그 다으메 인제 예 저까른 영광은 아무래도 바다 가까우니까 저칼 가통거 마:니 해:잡썸시조? {그 다음에 이제 예 젓갈은 영광은 아무래도 바다 가까우니까 젓갈 같은 것 많이 해 잡썸시지요?}

10521 # 그러제라. {그러지요.}

10521 @ 예. {예.}

10521 # 저까른 사 보꼬니여도 먹꼬 자본테로 사다먹제. {젓갈은 사 볼까 해도 먹고 싶은

대로 사다 먹지.}

10521 @ 지베서 당그거시거나 그러진 {집에서 담그신 것이나 그러지는 }

10521 # 그저네는 다 마통갈로 그저 나 농사질때는 다:: 저까를 사다 찌 눈:섬까지 사다가 가네써. {그 전에는 다 \*\*\*\* 그저 나 농사 지을 때에는 다 젓감을 사다 저 눈섬에 가서 사다가 간했어.}

10521 @ 어디요? {어디요?}

10521 # 눈:섬 염산 염산 눈:서미라고 거가 게빠다칸 여 진:다리 {눈섬 염산 염산 눈섬이라고 거기가 갯가니까 여 '긴다리'('긴다리'는 지명).}

10521 @ 예. {예.}

10521 # 거그서 나오는 디여 거가. {거기서 나오는 데야. 거기가.}

10521 @ 아.

10521 # 응. 거가. {응, 거기가.}

10521 @ 염사니 거 저시 마:니 나지 안씀니까? {염산이 거 것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10521 # 예, 거가 궁게 거:리 저저 진:다리 {예, 거기가 그러니까 그리 저저 긴다리}

10521 @ 예 {예.}

10521 # 거그서 고:리 나와. {거기서 그리 나와.}

10521 @ 아.

10521 # 그러제. 그러면 인자 거그치가 만나다고 고:리 가 사로 뎡이고 그레써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거기 것이 맞나다고 그리 가 사러 다니고 그랬어요.}

10521 @ 아.

10521 @ 머:스로 저슬 마:니 담:씀니까? {뭇로 젓을 많이 담그셨습니까?}

10521 # 그 전깎도 여러가지여. 인자 이러코 꺼런 빈지를 비늘 엄:는 빈지력 {그 젓감도 여러가지야. 이제 이렇게 \*\* '빈지락' 비늘 없는 '빈지락'}

10521 @ 아.

10521 # 그런 노므로 저슬 다머야 만나. 비늘 인능 거슨 안 만나. 저슬 다머도. {그런 것으로 젓을 담가야 맞나. 비늘 있는 것은 안 맞나. 젓을 담가도.}

10521 @ 우리 시골 저기는 기양 보:통 뎡치전 까들 쟁도로 {우리 시골 저기는 그냥 보통 뎡치젓 같은 정도로}

10521 # 뎡치저슨 보:통 당:꼬 {뎡치젓은 보통 담그고}

10521 @ 담:꼬 {담그고}

10521 # 응 뎡치저슨 당:꼬. 보:통 이런 짐치 다 머글라고 다물라면 이런 빈지력전 조은 노를 마:니 사고이. {응, 뎡치젓은 담그고. 보통 이런 김치 담가 먹으려고 담그려면 이런 '빈지락젓' 좋은 것을 많이 사고.}

10521 # 짐장힐라면 또 저깎 이르를 이저버런네. 그거시 머시냐? {김장하려면 또 젓감 이름을 잊어 버렸네. 그것이 뭐냐?}

10521 @2 저:너. {전어}

10521 # 저:너. 고거슬 마:니 사서 다머. {전어 그것을 많이 사서 담가.}

10521 @ 엔나레 저:너 {옛날에 전어}

10521 # 고거슨 예, 예, 엔나레 사서 강 이러코 크나큰 향간 거시기 오가리다 다머서 이런 투마그로 가꼬 와 그때는. {그것은 옛날에 사서 그냥 이렇게 크나큰 오지항아리 거시기 오지항아리에다('오가리'는 '오젓물을 발라 구운 항아리) 담가서 이런 \*\*으로 가지고 와, 그때

는.}

10521 # 절 나 절머서는 가꼬면 그날 함바구리씩 두바구리씩 사서 해서 장:짱에다 놔:뒤. 가네서. {나 젊어서는 가지고 오면 그날 한 바구니씩 두 바구니씩 사서 해서 장독대에다 놔 뒤, 간해서.}

10521 # 그러면 기양 가시레 짐장헐라 보면 노::레가꼬 강 사거가꼬 그러케 조아. {그러면 그냥 가을에 김장하려고 보면 노래가지고 그냥 삭아가지고 그렇게 좋아.}

10521 # 그래 그놈 데레서 다머. 짐장열. {그래. 그것 닳여서 답아. 김장을.}

10521 @ 아.

10521 # 근디 시방은 다 적꿍 사서 다머 부러. 그코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다 젓국 사서 담가 버려. 그렇게 안 하고.}

10521 # 시방은. 그 진짜제. {지금은. 그 진짜지.}

10521 # 지그른 방:부제 너:치아나? 전 적꾸글 암비네라고. 다 데서. {지금은 방부제 넣잖 아? 젓국을 안 변하라고? 다 돼서.}

10521 @ 거 소금 짠 짜디짠떠도 그도 {소금 짜디짠떠도 그래도}

10521 # 짜도 그래도 반 변:질웨, 이트면. 그러니까 방:부제 느체. {짜도 그래도 반 변질돼, 이틀테면. 그러니까 방부제 넣지.}

10521 @ 으음.

10520 @ 그다음에 여기는 청국짱 가통거 여기서 다르셔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청국장 같은 것 여기서 담그셨어요?}1

10520 # 아:만. 메주 쭈고 청국짱을 얼마나 해무거짜나? 우리 시아버지::가 청국 조아하시 고 시어마이도 청국 자시고 궁게 꼭:: 시야에는 청국 따머서 {아무렴. 메주 쭈고 청국장을 얼마나 해 먹었잖아? 우리 시아버지가 청국장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도 청국장 자시고 그러니 까 꼭 겨울에는 청국장 담가서}

10520 @ 거 어:트케 담:썬니까? 고거? {그거 어떻게 담급니까? 그거?}

10520 # 그거슨 양꾸또 아니여, 일허기. 그거 청국 허기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일 하기. 그것 청국장 하기는.}

10520 # 썰마서 물경허니 콩을 쌀마. {삶아서 물렁하게 콩을 삶아.}

10521 @ 콩을 콩을 쌀마. {콩을 콩을 삶아.}

10520 # 아:면. 그레가꼬 무리 마:느면 무를 딱 바터뿌리고 또 제지연 제지은다고 제저. {아무렴. 그레가지고 물이 많으면 물을 딱 받아버리고 또 \*\*\*\* 지진다고 지저.}

10520 # 그레가꼬 {그레가지고}

10521 @ 제지헌단 무슨 마리에요? {'제지헌다'는 무슨 말이에요?}

10521 # 제진다는 소리는 인자 물 읍:쓰라고 꼬스트라고 물 탁 바터불고 마:너면 소쿠리다 바터서 도로 소테다 부:꼬는 또 불 조까 때:. {'제진다'는 소리는 이제 물 없도록 고슬고슬하 도록 물 탁 받아버리고 많으면 소쿠리에다 받아서 도로 슬에다 붓고는 또 불 조금 때.}

10520 # 때:나파가 인자 소두랑 여러 나파가 어느 정도 시거야제 너머 뜨건 노메다 안 뜨 고 너머 차도 안 뜨고 그레. {때 놓았다가 이제 솔뚜껑 열어 놓았다가 어느 정도 식어야지. 너무 뜨거운 것에다 안 뜨고 너무 차도 안 뜨고 그레.}

10520 # 딱:: 조:시가 마저야제. {딱 정도가('조시'는 알맞은 정도를 뜻하는 일본말) 맞아야 돼.}

10520 # 너머 뜨거우면 강 팔팔팔 꼬러가꼬 안 떠. {너무 뜨거우면 그냥 팔팔팔 끓어가지

고 안 떠.}

10520 # 제청구기. 그래서 딱 이리코 시리에 다머서 하루 벨거서가꼬 엔:나레 걸레 마능게 걸레다 이리 딱 깔고 방에다 나:두고는 안 시글 정도만 이리코 더퍼나 보테기로. (재청국장 이. 그래서 딱 이렇게 시루에 담아서 하루 \*\*가지고 옛날에 걸레 많으니까 걸레에다 이렇게 딱 깔고 방에다 놔 두고는 안 식을 정도만큼 이렇게 덮어 놔, 포대기로.)

10520 @ 음.

10520 # 그러면 사을만 되면 기양 다 떠가꼬 시리 질질질질 허제. 시리. {그러면 사흘만 되면 그냥 다 떠가지고 실이 질질질질 하지, 실이.}

10520 @ 음.

10520 # 그 시그방 청국 머거보면 그때 청국치로 만난지 모르거떼. {그 지금 청국장 먹어 보면 그때 청국장처럼 맛난 줄 모르겠데.}

10520 # 그때는 청구기 그러고 마시쥔는다. {그때는 청국장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10520 # 그때는 베고풍게 만난능가 어쩔능가 몰라도. {그때는 베고프니까 맛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10520 @ (웃음) 그러게쥬. 거 간단허네요. {그러겠지요. 거 간단하네요.}

10520 # 음 간단해. 그렇겐 हे무끼는. {음, 간단해. 그런 것 해 먹기는.}

10520 @ 콩을 쌀마서 {콩을 삶아서.}

10520 @2 바쳐가지고 {밭아가지고}

10520 # 방에다 이리코 다머서 띄우기만 허면 돼지. {방에다 이렇게 담아서 띄우기만 하면 되지.}

10520 @ 띄운다는 거시요. {띄운다는 거요.}

10520 # 응, 띄우면 조금 너코 띄우면 쩌:키만 허면 데야, 도:구통에다. {응, 띄우면 조금 넣고 띄우면 쪼기만 하면 돼, 절구에다('도구통'은 '절구'의 방언형).}

10520 @ 음.

10520 @2 저 지푸라기 깔자나요? {거 지푸라기 깔잖아요?}

10520 # 음.

10520 @ 지푸라기를 미테다 까라? {지푸라기를 밑에다 깔아?}

10520 # 미테다 까러. 어째 그냐면 지금도 청국 떠올라면 쩌 이르코 멘드라서 너:트라고 지 지푸라글? {밑에다 깔아.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도 청국장 띄우려 하면 저 이렇게 만들어서 넣잖소? 지푸라기를?}

10520 # 다:: 너. 여거지거 그거또 방버비고 또 만납꼬 그럴라고. {다 넣어. \*\*\* 그것도 방법이고 또 맛나고 그러려고.}

10520 @ 아 집 지푸라기 곱팡이 굶니 드려이쎄 {아, 쥬 지푸라기 곱팡이 굶이 들어 있어.}

10520 # 굶니 이쎄 가꼬 그러제. {굶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10520 @ 음. 그래서 곱:팡이 인:다고 음. 그래쎄요? {음, 그래서 곱팡이 인:다고 음, 그랬어요?}

10520 @ 청구기라고 그러고 어떤 디서는 담복짱이라고 여기서는 그런 말 안쎄쎄요? {'청국'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담복장'이라고 여기서는 그런 말 안 쎄어요?}

10520 @2 틀려 틀려 담복짱은 {달라. 달라 담복장은.}

10520 # 담복짱? {담복장?}

10520 @ 어 담복짱? {어, 담복장?}

10520 @ 집짱이랑 거 아셔서 집? {집장이란 것 아세요? 집 }

10520 # 담복 {담복}

10520 # 집짱은 집짱도 마:니 다머머거제. 집짱은 저 꼬:친넙 꼬:친넙 뜨더서 가네와따가 시야네 다머서 보메도 멩 봉까지도 머꼬 그러제라우. {집장은 잡장도 많이 담가 먹었지. 집장은 저 고춧잎 고춧잎 뜯어서 간해 놓았다가 겨울에 담가서 봄에도 먹 봄까지도 먹고 그러지요.}

10520 # 고거슨 찹쌀로 주글 썬서 되지거게 썬:고 메주까리 조까 느코 고추까루 느코 다무면 되야 고거 며 집짱은. {그것은 찹쌀로 죽을 썬서 되직하게 썬고 메줏가루 조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담그면 돼, 그것 뭐 집장은.}

10520 @ 음 자네는 아네바제? {음, 자네는 안 해 봤지?}

10520 @ 머거바 머거보도 안헤제? {먹어 봐, 먹어 보지도 않았지?}

10520 # 우리는 집짱도 열:마나 마시게 잘 다머 머긴는다 {우리는 집장도 얼마나 맛있게 잘 담가 먹었는데}

10520 # 어:런드리 조아하싱게 잘 다머는다 어:런덜 안 지게썬게 땡짱 안 다머썬. 우리 아그더른 집짱 어:런덜 도라가시고 나서 집짱 다머논게는 문 이거시 반찬 된다고 엄마 다머냐고 글드라고. {어른들이 좋아하시니까 잘 담갔는데 어른들 안 계시니까 집장 안 담갔어. 우리 아이들은 집장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서 집장 담가 놓으니까 무슨 이것이 반찬 된다고 엄마 담갔느냐고 그러더라고.}

10520 @ (웃음)

10520 # 그 저로는 안 다머부러썬. (웃음) {그 뒤부터는 안 담가 버렸어.}

10520 # 그 우리 어:런더른 그걸 조아하지아나요? 그런 {그 우리 어른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

10520 @ 조아하시자나요? {좋아하시잖아요?}

10520 # 응, 밥 비베 잡쭈고 조아요 그거슨, 집짱은. 묵덕짱 조아하시고. {응, 밥 비벼 잡쭈고 좋아요, 그것은, 집장은. 담복장 좋아하시고}

10520 # 머짐 메주를 뜨머는 이리코 썬서 이리코 해:와따가 메주가 어느 정 다 뜨머는 고노물 이르고 다 뽀사서 너러나따가 고구페다 꼭::꼭 찌여서 밥 쪼까 저시 쪼까 느:코는 쪼무락쪼무락 김치 김치를 엔:나레 이리코 향아리다 막썬서 다머 머궁게 {메주를 뜨면은 이렇게 썬서(?) 이렇게 해 났다가 메주가 어느 정도 다 뜨면은 그것을 이렇게 다 뺏아서 넣어 났다가 절구궁이에다('고구페'는 '절구궁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도구페'인데 여기서는 '고구페'로 쓰였다.) 꼭꼭 찧어서 밥 조금 조금 넣고는 주물럭주물럭 김치 김치를 옛날에 이렇게 향아리에다 막 썬서 담가 먹으니까}

10520 # 김치저꾸그로 쳐서는 해서 요로코 밥 툄따다 저역뽀 형게 소테다 땡 놔뒤. {김치젓국으로 쳐서는 해서 이렇게 밥 \*\*\* 저녁밥 하니까 술에다 딱 놔 뒤.}

10520 # 그러면 딱 사거. {그러면 딱 삭아.}

10520 # 그러면 인자 거그다 김치조꾸글 쳐서 간마쳐서 머그면 어:른더른 그러케 조와요 고거슨 또. {그러면 이제 거기다 김치 젓국을 쳐서 간 맞춰서 먹으면 어른들은 그렇게 좋아요, 그것은 또.}

10520 @ 고거시 뭐 {그것이 뭐?}

10520 # 그거뽀고 묵덕짱이라게. {그것보고 '묵덕장'이라고 해.}

10520 @ 아. 고거 묵떡짱이라. {아, 그거 묵떡장'이라}

10520 # 예, 묵떡짱. {예, 묵떡장}

10520 @2 그거시 담복짱허고 가통거 아니예요? {그것이 담복장하고 같은 것 아니예요?}

10520 @ 어 그렇갑따. 고거 묵떡짱이라게요. {아, 그런가 보다. 그거 '묵떡장'이라고 해요.}

10520 # 예, 묵떡짱이라게. 그거뵈고. {예, '묵떡장'이라고 해. 그것보고.}

10520 @ 음.

10520 # 우리 시아바이는 그러케 묵떡짱을 조아하셔. {우리 시아버지는 그렇게 '묵떡장'을 좋아하셔.}

10520 @ 음.

10520 @ 그럼 묵떡짱은 메주까루에다가 바블 조금 너:가지고 사킹가바요? {그럼 담복장은 메줏가루에다가 밥을 조금 넣어가지고 삭히나 봐요.}

10520 # 예, 김치찌국 {예, 김치 젓국}

10520 @ 김치저국 {김치 젓국}

10520 # 김치저국. 엔:나레 김치 마니 다뭇게 김치찌구기 만나야 묵떡짱이 마시 이썸. {김치 젓국. 옛날에 김치 많이 담그니까 김치 젓국이 맛나야 담복장이 맛이 있어.}

10520 @ 아. 김치찌국. {아, 김치 젓국}

10520 # 예, 예. {예, 예.}

10520 @ 어. 음.

10520 @ 그러면 집짱은 아가 꼬:친니베다가 꼬:친닙가지고 만드라 {그러면 집장은 \*\* 고춧잎에다가 고춧잎 가지고 만들어}

10520 # 꼬:친니블 해:서 이러케 가네봐. {고춧잎을 해서 이렇게 간해 봐.}

10520 @ 가네봐요? {간해 봐요?}

10520 # 응, 소그메다 딱 가네서 봐:두고 인자 쪼까씩 다며 무거. 쪼금씩 다며 무끼도 허고. {응, 소금에다 딱 간해서 봐:두고 이제 쪼금씩 담가 먹어. 쪼금씩 담가 먹기도 하고.}

10520 @ 음.

10520 @ 고거는 무슨 메주를 넌:다능가 그러진 아네요? {그것은 무슨 메주를 넣는대튼가 그러지는 않아요?}

10520 # 메죽까리 {메줏가루}

10520 @ 메주까리 {메줏가루}

10520 # 메주까리가 이썸. 그러면 {메줏가루가 있어. 그러면}

10520 # 고노를 쪼끔 너:서 다므면 더 마시썸. {그것을 쪼금 넣어서 담그면 더 맛있어.}

10520 @ 아. 집짱도 {아, 집장도}

10520 # 으음.

10520 @ 음.

10520 # 거 시짱 집짱 그렇거 당:끼는 일:도 아니여라우. 찹쌀로 죽 쪼까 날쌍해서 썸:서 다무면 금방 다뭇서 머거 부린디 그거슨. {거 지금 집장 그런 것 담그기는 일도 아니어요. 찹쌀로 죽 쪼금 무르게('날쌍허다'는 '약간 무르다'의 뜻) 썸:서 담그면 금방 담그면서 먹어 버리는데 그것은.}

10520 @ 음.

10520 # 근디 지금 꼬:치장 꼬:치 몸: 머거. 꼬:친닙. {그런데 지금 고추장 고추 못 먹어, 고춧잎.}

10520 @2 농약 떼메. {농약 때문에}

10520 # 하::도. 아:면. 약또 약또 말도 모더게 형게 꼬치에다. {하도. 아무럼. 약도 약도 말도 못하게 하니까, 고추에다}

10520 @ 음.

10520 @2 꼬:친님 조아혈게 아니구만. {고춧잎 좋아할 게 아니구먼.}

10520 @ 꼬:치를 그러케 야기 마:능가바. {고추를 그렇게 약이 많은가 봐.}

10520 # 저네는 야글 아녕게 머거제. 시방은 몸:머거. {전에는 약을 안 하니까 먹었지. 지금은 못 먹어.}

10520 # 어::트케 야글 험다고, 아조 도거게, 꼬:치를 병: 안혈라고. {어찌 약을 한다고. 아주 독하게. 고추를 병 안 하려고}

10520 @2 음. {음.}

10520 # 말도 모데 야글. {말도 못해, 약을.}

10520 @ 음. 참, 머글꺼 아니네. {음. 참. 먹을 게 아니네.}

10520 @2 그먼 고추까루도 마:니 머글꺼 아니네요? {그러면 고춧가루도 많이 먹을 게 아니네요?}

10520 @ 고추도 약 {고추도 약}

10520 # 그래도 고추는 또 겐찬허닥 허등만. {그래도 고추는 또 괜찮다고 하더구먼.}

10520 @2 예. {예.}

10520 # 꼬추는 소:게로 베어드러 암 베다다가 이러케 내려버리제 흘러네레버리제. {고추는 속으로 안 베어들어. 이렇게 내려버리지. 흘려 내려버리지.}

10520 @2 네. {네}

10520 # 가족 자주기 꼬:치 자주근 그러케 드러가든 안헨다여. {가족이 고추 가족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10520 @2 네. {네.}

10520 # 그렇게 겐찬헨디 꼬:치넙싸근 다 써드러서 거시거자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괜찮은데, 고춧잎은 다 베어들어서 거식하잖아요? 그러니까}

10520 @ 음. 소그른 여기서는 그냥 여그서 사다 잡쭈셔쭈? {음, 조금은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사다 잡수셨지요?}

10520 # 예. {예.}

10520 @ 오. 여그 엽저니 여 쫘 미테 이편테 엔:나레도 엽저니 이썬썬니까? 이 근처에 {오, 여기 엽전이 여 쫘 밑에 어떤 곳 옛날에도 엽전이 있었습니까? 이 근처에?}

10520 # 이썬썬. {있었지.}

10520 # 엽저니 두 간테 이썬. 썬:: 아네 광백싸라고 이꼬 또 거시기도 이르이 익꾸도 이꼬 그레썬. {엽전이 두 군데 있어. 저 안에 광백사라고 있고 또 거시기도 이름이 입구도 있고 그랬어.}

10520 @ 음.

10520 # 근디 근디 지그른 광백싸니 읍썬저따 허등가 어디가 엽썬진다 허싱 엽전 한나 읍:썬저따 형거까십따.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광백산이 없어졌다 하던가 어디가 없어진다 하시 엽전 하나 없어졌다 하는 것 같습디다.}

10520 # 근디 장녀네 썬에 머그로 가봉게 아::따 망:키도 허드만, 그 볼마기 아조. {그런데 작년에 장어 먹으러 가 보니까 아따 많기도 하더구만, 그 너른 벌에('볼막'은 '벌막'으로서



너른 땅을 뜻하는 '벌'과 공간을 나타내는 '막'의 합성어) 아주.}

10520 @ 예. {예.}

10520 @ 우리도 한번 가 바쳐요. {우리도 한 번 가 봤어요.}

10520 # 겐::나드만, 아조. 거가 다 기양 번번:허이. {굉장하더구먼. 아주. 거기가 다 그냥 넓게.('번번허다'는 들이 아주 넓은 모양을 가리킨다.)}

10520 # 소금뽀막 해:난는디 궁게 짱에 머꼬 나옴게 그세 거 소그미 되니라고 사뽀사뽀 되드라고. {소금만 해 냈는데 그러니까 장어 먹고 나오니까 그 사이에 거 소금이 되느라고 '사뽀사뽀'('사뽀사뽀'은 소금이 조금씩 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되더라고.}

10520 # 갈때는 봉게 강 다 물만 차가꼬 이떠니. {갈 때는 보니까 그냥 다 물만 차가지고 있더니.}

10520 @ (웃음)

10520 @ 그럼 엔:나레 그먼 소금장시드리 도라다녀썬요 동네에? {그럼 옛날에 그러면 소금장수들이 돌아다녔어요, 동네에?}

10520 # 그 저네는 소금사라고 소금사라고 외기도 해:따 험떠다 엔:나레는. 그렌는디 {그 전에는 소금 사라고 소금사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함디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10520 # 그 지그문 다 아네. 기양 차로 모다 사다가 노코 팔면 인자 거그서 사다 머꼬 {그 지금은 다 안 해. 그냥 차로 모두 사다가 놓고 팔면 이제 거기서 사다 먹고}

10520 @ 그러시조. {그러시지요.}

10520 # 또 {또}

10520 # 누가 아름 이썬면 가따 도라거면 거그서 가따도 주고 {누가 아름 있으면 줬다 달라고 하면 거기서 가져다가 주고}

10520 @ 썬:그 진도 가떠니 거그는 소그물 부를 떼서 소그물 만드러따 그레요. {저기 진도 줬더니 거기는 소금을 부를 떼서 소금을 만들었다 그레요.}

10520 @ 여그는 처닐 그냥 헤뻐세 말리자나요 지그문이~? (여기는 천일 그냥 햇볕에 말리잖아요 지금은?)

10520 # 군:소그미구만 군:소금. {구운 소금이구먼. 구운 소금}

10520 @ 군:소금 예. {구운 소금, 예}

10520 # 그거슬 부를 떼서 멘등 거시 아니라 이런 소그물 가따 구워. {그것을 부를 떼서 만드는데 아니라 이런 소금을 가져다 구워.}

10520 # 군:소그물 팔라고 {구운 소금을 팔려고.}

10520 @ 아 일반 소그물 군:다고요? 또 \*\* 한번? {아, 일반 소금을 구운다고요? 또 \*\* 한번}

10520 # 그거슨 굶:꺼또 여러가지여. {그것은 구운 것도 여러가지야.}

10520 # 여 여러뽀 군:놈 이꼬 한번 군:놈 이꼬 아옴뽀 군:놈도 이꼬. {여러 번 구운 것 있고 한 번 구운 것 있고 아옴 뽀 구운 것 있고}

10520 # 꼬:매. 여러번 군:노문. {까매. 여러 번 구운 것은}

10520 @ 주검 가통거 {죽염 같은 것}

10520 # 주검, 주경이라 해:가꼬 {죽염, 죽염이라 해가지고}

10520 @ 응응응.

10520 # 더 조:타고 그러제. {더 좋다고 그러지.}

10520 @ 응. 그 장 향아리 가통거또 팔러 다니는 사람 이썬썬요? {응, 그 장향아리 같은}

것도 팔러 다니는 사람 있었지요?}

10520 @ 어트께 사서써요? {어떻게 사셨어요?}

10520 # 그때는 다 팔로 텅에써. {그때는 다 팔러 다녔어.}

10520 # 실:코 실:코 팔로 텅에써 그때는 {싹고 싹고 팔러 다녔어, 그때는}

10520 @ 어.

10520 # 그릉게 사제 모다. {그러니까 사지, 모두.}

10520 # 그라너먼 또 장에가 사 오고. {그러지 않으면 또 장에서 사 오고}

10520 @ 음.

10520 # 장에가 사서 지고 오고. {장에서 사서 지고 오고}

10520 # 자:근노른 이고도 오고 그레췌. {작은 것은 이고도 오고 그랬지.}

10520 @ 그 사람드리 와서 한번 딱 항아리 돌려노코 도:는 나중에 바다가지고 막 그레췌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번 딱 항아리 돌려 놓고 돈은 나중에 받아가지고 막 그랬습니까?}

10520 # 예상도 혈쭈도 이췌. 아:는 사라른 예상 허고. 모:른 사라른 예상 아너고 기양 사고 그레제라. {외상도 할 수도 있지. 아는 사람은 외상 하고. 모르는 사람은 외상 안 하고 그냥 사고 그러지요.}

10520 @ 항아리느노이~. {항아리는요.}

10515 @ 영광에서 스 이 우 다른 데는 업따 이런 머 반차니나 머글꺼리 이췌니까? 다른 영광 췌 특싸니 특췌기다 먼 특빠리 헤: 잡췌는 건. {영광에서 다른 데는 없다 이런 뭐 반찬이나 먹을거리 있습니까? 다른 영광 췌 특산이 특색이다 뭐 특별히 해 잡췌는 것}

10515 # 겐: 잘 모리건넌데 텔레비 보면 영광 움:능 거시 마:니 이췌따다. {그걸 잘 모르겠는데 텔레비전 보면 영광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0515 # 텔레비에서 나오능거 뽏머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 보면은}

10515 # 진짜 그런 조웅 거슨 여그서는 맘모빠. 여그는 움:췌. {진짜 그런 좋은 것은 여기서 맛 못 봐. 여기서는 없어.}

10515 @ 응.

10515 # 텔레비 보머는. {텔레비전 보면은}

10515 # 거 배에서 자붕거시고 머:시고. {거 배에서 잡은 것이고 뭐고}

10515 # 나 영광 나오면 사명는다 암바췌 인지까지 함번도. {나 영광 나오면 사서 먹는데 안 봤어, 이제까지 한 번도.}

10515 @ 응.

10515 @ 응? 웅어? {응? 웅어?}

10515 @ 웅어는.

10515 # 웅어 그렁거슨 다 이꼬 {웅어 그런 것은 다 있고.}

10515 @2 웅어는 다른 데에 엄:능거 가테요, 영광만 이꼬. {웅어는 다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영광만 있고.}

10515 # 웅어 웅어가 다른디는 업췌? {웅어, 웅어는 다른 데는 없어?}

10515 @ 예. {예.}

10515 # 그르 몰라. 그거슨 모린다. {그르 몰라. 그것은 모르는데.}

10515 # 진짜 고기 이름도 나 드터도 다 이저부런네. {진짜 고기 이름도 나 들어도 다 잊어 버렸네.}

10515 # 진짜 조은 고기가 마신는 고기가 이뜨만. {진짜 좋은 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있더구먼.}

10515 # 근데 요런디는 여그를 아노드랑게 영광을. {그런데 이런 곳은 여기를 안 오더라니까, 영광을.}

10515 # 텔레비 보먼 인는디 {텔레비전 보먼 있는데}

10515 @ 응.

10515 # 보먼 {보먼}

10515 # 오먼 저런놈 사머그먼 쓰거따 헌디 아노드라고. {오먼 저런 것 사 먹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오더라고.}

10515 @ {웃음}

10515 @ 그러면 엔:날 생선 가통거슨 뭘: 마:니 잡썩썩요? 잡썩따는 생서는? {그러면 옛날 생선 같은 것은 뭘 많이 잡썩어요? 잡썩다는 생선은?}

10515 # 엔:나레는 조구가 썰: 커썰. {옛날에는 조기가 제일 컸지.}

10515 @ 조구? {조기}

10515 @ 영광 {영광}

10515 # 응, 보메는 조구 사다가 저 조구신산헌다고 생조구 사다가 {응, 봄에는 조기 사다가 저 '조기신산' 한다고 생조기 사다가}

10515 @ 조구 머요? {조기 뭐요?}

10515 # 조구 신산헌다고? {'조기신산'한다고?}

10515 @ 조구 신산? {'조기신산'?}

10515 # 응, 조구 생조구 사다가 이러 끼레 명능거 보고 조구신사니라 허드만. {응, 조기 생조기 사다가 이러 끓여 먹는 것 보고 '조기신산'이라고 하더구먼.}

10515 @ 아.

10515 # 보메. 보메 썬 굴비 세눔 나먼. {봄에. 봄에 새 굴비 새 것 나먼}

10515 @ 아.

10515 # 엔:나레는 이런 오가제비 굴비라고 우리 실랑 이썰 때는 {옛날에는 이런 '오가제비' 굴비라고 우리 신랑 있을 때는}

10515 @ 무슨 무슨 조구요? {무슨 무슨 조기요?}

10515 # 오가제비 굴비. 이러코 {'오가제비' 굴비}

10515 @ 오가제비. {'오가제비'}

10515 # 큰:놈 존:놈보고는 이러고 오가제비 굴비라게. {큰 것 좋은 것보고는 이렇게 '오가제비' 굴비라고 해.}

10515 @ 음.

10515 # 요로코 생인놈 사노먼 진짜 마또 이꼬 머글꺼 이썩라우 진짜. 고론놈 사노먼 그러고. {이렇게 생긴 것 사 놓으면 진짜 맛도 있고 먹을 것 있어요, 진짜. 그런 것 사 놓으면 그러고.}

10515 # 그때는 쪼까 도:니 이썩게 우리 실랑 이썰때는 그래도 어제 가편지 거 고기가 그거시 먼: 고기냐. 고기 이르플 이저부런네. 큰 걸 요로코 지드라능건. {그때는 조금 돈이 있으니까 우리 신랑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거 고기가 그것이 무슨 고기냐 고기 이름을 잊어 버렸네. 큰 것 이렇게 길다란('지드란허다'는 '길다랗다'의 방언형) 것.}

10515 # 고거슨 검:나게 비싸. 고기가. {그것은 굉장히 비싸, 고기가.}

10515 @2 미너? {민어?}

10515 # 미너 미너 인자 미너. {민어, 민어, 이제 민어}

10515 @2 예. {예.}

10515 # 미너 그거슨 진짜로 비싸. {민어 그것은 진짜로 비싸.}

10515 # 그거슨 키로에 얼마해. {그것은 킬로에 얼마 해.}

10515 # 여그 읍:쫘게 사먹또 모데 그거슨. {여기 없으니까 사 먹지도 못 해, 그것은.}

10515 # 나락 향 가메이썩 주고 사머겨썩. 엔:나레도. {벼 한 가마니썩 주고 사 먹었어, 옛날에도.}

10515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515 # 그 고기가 진짜 또 마시썩. {그 고기가 진짜 또 맛있어.}

10515 # 미너가 물려서 수란주로 머거도 마시꼬 기냥 세:파늘 해도 그 외 더 마신는 거시 업:썩 미너 고기가. {민어가 말려서 술 안주로 먹어도 맛있고 그냥 회를('세판'은 '회판'으로서 '회'를 뜻함) 해도 그 외에 더 맛있는 것이 없어, 민어 고기가.}

10515 @ 아.

10515 # 그맘마치 비싸. {그만큼('그만만치'는 '그만큼'의 뜻) 비싸.}

10515 @ 아.

10515 @ 우리집

10515 # 떡 뽻뽻따구나 먼:나 {뽻다귀나 무엇이나}

10515 @2 점부 요새는 수이비여. {전부 요새는 수입이야.}

10515 # 머거 보먼 조사서 해:쳐도 만나제마는 그거 그런 놈 자바서 지저도 그러케 마시썩 미너가. {먹어 보먼 다져서('쫘다'는 '쪄다'의 방언형인데 여기서는 '다지다'의 뜻) 회 쳐도 맛나지마는 그것 그런 것 잡아서 지저도 그렇게 맛있어, 민어가.}

10515 @ 제사쌍에 마:니 올리능게 미넨데. {제사상에 많이 올리는 것이 민어인데.}

10515 # 미너 그거가꼬 줌:체 제사쌍에 모듈려. {민어 그것 가지고 줌체 제사상에 못 올려.}

10515 @ 모데요? {못해요?}

10515 # 비싸건 \* 비싸요. {비싸긴 비싸요.}

10515 @2 지그른 점부 수이비잉거 가튼데 {지금은 전부 수입인 것 같은데.}

10515 # 지그른 수입헤부르고 여그를 나오들 안헤부러. {지금은 수입해 버리고 여기를 나오지를 앓아.}

10515 # 비쌍게 여그는 나오들 안헤. {비싸니까 여기는 나오지를 앓아.}

10515 # 그 미너 머근 제 나도 검:나게 오래웨. {그 민어 먹은 지 나도 굉장히 오래 돼.}

@ 아하. {아하.}

10523 @ 그 영광은 인제 아무래도 말:썩하시니까 그런데 어디 다른 지방 가문 영광하면 굴비거드뇨. {그 영광은 이제 아무래도 말썩하시니까 그런데 어디 다른 지방 가면 영광 하면 굴비거든요.}

10523 # 응, 영광 굴비 제일. {응, 영광 굴비 제일}

10523 @ 그러자나요? {그러잖아요?}

10523 @ 그러면 엔:나레 그러케 굴비를 지베서 마:니 헤 잡썩썩썩요?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굴비를 집에서 많이 해 잡수셨어요?}

10523 # 그러제 사다 마거썩. {그러지. 사다 먹었지.}

10523 @ 어:터케 만듭니까 굴비는? {어떻게 만듭니까, 굴비는?}

10523 @ 굴비를 이러케 우리는 사다가 기양 이러코 지저도 머꼬 간해따가 귀:머꼬 {굴비를 이러케 우리는 사다가 그냥 이러케 지저도 먹고 간했다가 구워도 먹고}

10523 @ 궁께 인자 조구를 사다가 말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를 사다가 말려야 되지요?}

10523 # 조구를 썬노드로 사다 아:먼 물끼 물끼 말리제. {조기를 생것으로 사다가 아무럼 물끼 물끼 말리지.}

10523 @ 어:따가 말립니까 요런 구겨를? {어디다가 말립니까, 이런 그것을?}

10523 # 이러케 기양 거시게다 말려. {이렇게 그냥 거시기에다 말려.}

10523 # 그때는 거 두고도 말려도 그때는 겐찬해써라. 지금칠로 포리도 그러코 업:써저제 그때는. {그때는 거 두고도 말려도 그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처럼 파리도 그렇게 없었었지, 그때는.}

10523 # 시방으노 아파트가 거시기라도 안 이썬. 모다 물리는 거시라도. 근디 글안해도 그러코 석 벌려노코 머꼬 그레써. {지금은요 아파트에 거시기라도 있잖소? 모두 말리는 것이라도.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썬 벌려 놓고 먹고 그랬어.}

10523 @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말려가지고}

10523 # 저네 우리 할머니 살림할 때 하나버지 살림할 때는 부자라 어::트케 귀한 장팡 어:디 창고로 아조 굴비를 머이고 작싸레 메노코 어찌고 검나게 너러노코 몰려가꼬 여름네:: 잡순닥 험띠다. {전에 우리 할머니 살림할 때 할아버지 살림할 때는 부자라 어떻게 귀한 장독대 어디 창고로 아조 굴비를 뒹고 작살에 매어놓고 어떻게 굉장히 널어 놓고 말려가지고 여름 내내 잡순다고 함디다.}

10523 # 잡싸딱 험띠다 그 예기 드러버르먼. 그러면 오래 머글라머는 짱짱 몰려가꼬 보리 쏘게다 다 무든닥 해. {잡수었다고 함디다, 그 얘기 들어 버리면. 그러면 오래 먹으려면은 단단히 ('짱짱'은 '단단히'의 뜻) 말려가지고 보리 속에다 다 묻는다고 해.}

10523 # 보리쏘게다. 이 통보리 똥:보리. 그레가꼬 머그먼 거시기가 안 난닥 해. 이러트먼 찌니 안 나. {보리 속에다. 이 통보리 통보리. 그레가지고 먹으면 거시기가 안 난다고 해. 이를테면 진이 안 나.}

10523 # 그러 그러케서 부 조:타게.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해.}

10523 @ 보리 보리쌀 소게 너: 뉘야 오래 이러케 보:과늘 하능구노. {보리 보리쌀 속에 넣어 두어야 오래 이렇게 보관을 하는군요.}

10523 # 음, 오래 보관 오래 보관 예. {음, 오래 보관 오래 보관, 예.}

10523 @ 음.

10523 # 통보리싸레다 너:노코 머그먼. {통보리쌀에다 넣어 놓고 먹으면}

10523 @ 음.

10523 @ 궁께 엔:나레도 굴비 머글라면 부자여야 데써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굴비 먹으려면 부자여야 됐어요?}

10523 # 그러제 저네는 부자여사 먹제. 지그먼 다 머그요 모다 부자나 아니나. {그러지. 전에는 부자여야 먹지. 지금은 다 먹잖소? 모두 부자나 아니나.}

10523 # 그거또 부자 아닌 사람 업:써 그거또. {그것도 부자 아닌 사람 없어, 그것도.}

10523 # 음:는 사람드리 더 잘 머거.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먹어.} @ {웃음}

10523 # 여그서 음:서 아조 읍씨머는 아조 음:는 사람드리 더 잘 머거. 영:세민 해 중게 더

잘 먹고. {여기서 \*\* 아주 없으면은 아주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먹어. 영세민 해 주니까 더 잘 먹고.}

10523 @ (웃음) 아::: 그때도 엔:나레는 좀 귀한 고:급 저기여꾸마뇨 굴비가. {아 그때도 옛날에는 좀 귀한 저기였구먼요, 굴비가.}

10523 # 진짜 생 그때는 지금 온 그런 굴비 나오도 아네, 존:노미. {진짜 생 그때는 지금 나오는 그런 굴비 나오지도 않아. 좋은 것이.}

10523 # 어려서 나와 버려. 지그든 다 어려서 나와 버렁강게 인자 현:디 그때는 강 뿌::여니 뻔들뻔들뻔들현노무 굴비가 기양 이러케 생인 노미 나오면 진짜 고노미 마시쎄. {얼어서 나와 버려. 지금은 다 얼어서 나와 버리니까 이제 하는데 그때는 그냥 부엌에 번들번들한 놈의 굴비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이 나오면 진짜 그것이 맛있어.}

10523 # 아조 해:노면. {아주 해 놓으면}

10523 @ 그니까 굴비 처레 어디 가서 사옵니까? 생조구를? {그러니까 굴비 철에 어디 가서 사옵니까? 생조기를?}

10523 # 아:면 사오제. {아무렴. 사 오지.}

10523 @ 아. 어디 저그 범썰이나 요론다 가튼 {아, 어디 저기 범성포나 이런 데 같은 }

10523 # 인자 여으 범썰 가튼 디가 사고 그거슨 그그 아:를 이쓰면 말:해. 가따 도라고. 그러면 가따 줘. {이제 여기 범성포 같은 데에서 사고 그것은 거기 알음이 있으면 말해. 가져다 달라고. 그러면 가져다 줘.}

10523 @ 영. 생조구를? {어, 생조기를?}

10523 # 그제 생조구를. {그러지. 생조기를.}

10523 @ 그래가지고 여그서 지베서 말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에서 말려요?}

10523 # 예, 지베서 인자 가네가꼬 오닐 말리고 그러제. {예, 집에서 이제 간해가지고 그것을 말리고 그러지.}

10523 @ 엔:나레는 그 지금가짜 아네 물 곡 물꼬기드리 굉장히 마:나따 글드라고요. 지그든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같지 않고 물곡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10523 @ 조구 조기도 그냥 파 파시때는 굉장히 마:나따 그러고 흥청망청 혈때 {조기 조기도 그냥 파시 때는 굉장히 많았다 그러고 흥청망청할 때}

10523 # 그때는 만헨능가 몰라도 머 조구 가통 건 게빠닥 우게서 나오제 문 밍무레서는 안 잡제 {그때는 많았는지 몰라도 뭐 조기 같은 것은 바다에서('갯바닥'은 '개펄' 또는 '바다'를 가리킨다.) 나오지 민물에서는 안 잡지.}

10523 @ 안 잡지요. {안 잡지요.}

10523 # 그러제. 밍물쎄는 안 잡제 (그러지. 민물에서는 안 잡지.}

10523 @ 그\* 근데 지그보다고 고령 거 인제 지그든 머 오염되고 날씨도 안 조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보다도 그런 것 이제 지금은 뭐 오염되고 날씨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10253 # 여 밍물꼬기랑거슨 시방은 누가 독 전 먹또 안해 잘. 밍물꼬기 {이 민물고기란 것은 지금은 누가 먹지도 않아 잘. 민물고기.}

10523 @ 예. 그러묘. 오여미 마:니 돼서. {예, 그럼요. 오염이 많이 돼서.}

10515 @ 근데 여기 요 백쭈는 백쭈가 바다가가 이짜나요? 요쭈게 가면이~? {그런데 여기 이 백수는 백수가 바닷가가 있잖아요? 이쪽에 가면?}

10515 # 예. {예.}

10515 @ 근데. {그런데}

10515 @ 물꼬기를 막 꼭 저 생선을 마:니 잡거나 그리 그러지는 아느냐씨요? {물꼬기를 막 꼭 저 생선을 많이 잡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10515 # 배에서 생선 나와. {배에서 생선 나와.}

10515 @ 백수에서도 나와요? {백수에서도 나와요?}

10515 # 자버가꼬 나와요 백수에서. {잡아가지고 나와요, 백수에서.}

10515 # 그렇게 자 우리 저그 조합뽕워네가 인는 조카는 막 게 가장이룅가 이씨. 우리 조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종합병원에 있는 조카가 막 거 과장으론지 있어, 우리 조카가.}

10515 # 근디 즈그 모다 누구덜 기양 즈그 친척기고 누구고 계양 즈그 칭고드리고 거시걸 라면 배를 하나 딱 마쳐버려. {그런데 저희 모두 누구들 그냥 저희 친척이고 누구고 그냥 저희 친구들이고 거식하려면 배를 하나 딱 맞춰 버려.}

10515 # 거그다가 저:나를 해:서. 그러면 고기 가꼬 나오면 가서 수::데로 가서 머시그 먹:꼬 자폰 데로 생인 걸 다 머꼬 나무면 가꼬기도 허고 그레.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그러면 고기 가지고 나오면 가서 수만큼 가서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대로 생긴 것 다 먹고 남으면 가져오기도 하고 그레.}

10515 @ 아 거기서 자봄 자분다고요? {아, 거기서 잡는다고요?}

10515 # 자분 순 배로 배수배수 배 드론 노물. {잡는 순 배로 배 들어온 것을.}

10515 @ 오:: 그 즈 배에서 회:로 머꼬? {오. 그 배에서 회로 먹고?}

10515 # 예. {예.}

10515 # 배에서 가서 회:로 머꼬. 싱거 싱싱허제. {배에서 가서 회로 먹고. 싱싱한 것 싱싱하지.} @ 어. {어.}

10515 # 우리도 장녀네 나도 가서 머건넌디 우리는 우리 사우가 두:째 사우가 가자게 가꼬 간는디 {우리도 작년에 나도 가서 먹었는데 우리는 우리 사위가 둘째 사위가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10515 # 우리 따리 두:째 따리 거그 고기 장시 현 사람 가:게 현 사라를 세:판 현 사람보고 동창이여. {우리 딸이 둘째 딸이 거기 고기 장사하는 사람 가게하는 사람을 회판 ('세판'은 '회판'의 방언형으로서 여기서는 회 장사를 뜻한다.) 하는 사람과 동창이야.}

10515 @ 아하.

10515 # 그렇게 인자 고기가 종:거 나오면 고기 종:거 나와따고 저:나 허면 함번씩 가서 머궁갑떠다. 그레가꼬 장년도 나보고 가자게가꼬 가서 머거씨.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좋은 것 나오면 고기 좋은 것 나왔다고 전화하면 한 번씩 가서 먹나 봅디다. 그레가지고 작년에 도 나보고 가자고 해가지고 가서 먹었어.}

10515 @ 음.

10515 # 진짜 잘해줘. 고 만나고 그레. {진짜 잘 해 줘. 거 맛나고 그레.}

10515 @ 음.

10515 # 싱싱해. 무레서 금방 나온노미라. {싱싱해. 물에서 금방 나온 것이라.}

10522 @ 그다메 술 담그능 건 함번 해보써씨요? 막걸리 머 이러케 청주 가통거 다머보써씨요? 베베? 제:사 {그 다음에 술 담그는 것 한 번 해 보셨어요? 막걸리 뭐 이렇게 청주 같은 것 담가 보셨어요? 제사}

10522 # 그렇거슨 말헐꺼또 업씨 다 해부러제. {그런 것은 말 할 것도 없이 다 해 버렸}

지.}

10522 @ 영. 그러면 한번 말 그 어:떠케 청주를 그러케 만드는지 한번 {어. 그러면 한 번 말 그 어떻게 청주를 그렇게 만드는지 한 번}

10522 # 청주털? {청주를}

10522 @ 으.

10522 @ 제:사때 즐라고 마:니 쓰지요? {제사 때 쓰려고 많이 쓰지요?}

10522 # 그러제. {그러지.}

10522 # 근디 인자 이로코 마:를 밀탈 엔:나레 가라서 안 머거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밀을 옛날에 갈아서 먹잖았소?}

10522 @ 밀? {밀?}

10522 # 밀. {밀.}

10522 # 마:를 이리 가라서 가리는 이러고 빼:서 이로코 먼: 해:머꼬 윈 우리 절머서 허고 클 때 허고는 글로 누루글 디더쑈. {밀을 이리 갈아서 가루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뭐 해 먹고 원래 우리 젊을 때하고 클 때하고는 그것으로 누룩을 만들었어.('딘다'는 '누룩을 만들다'의 뜻)}

10522 @ 밀:로. {밀로.}

10522 # 지올로. 밀 지우리락 해 그거뽕고. {기올로. 밀기올이라고 해, 그것보고.}

10522 @ 아 밀찌올. 영. {아, 밀기올. 영.}

10522 # 응, 가리 빼:머꼬 난 그거뽕고 지올 해서 물 모까서 고지라고 이쑈. 이러케 똥그르르 고지. {응, 가루 빼 먹고 난 그것보고 기올 해서 물 쳐서('모끄다'는 '반죽하기 위해 물을 치다'의 뜻) 고지지라고 있어. 이렇게 동그르르 고지.}

10522 # 그러면 요로코 차테기 또 지:꼬. 마포로 멘든 차테기 이쑈. 거그서 차테기 다머서 구녀게 딱 드러갈만허게 다머. 그레가꼬는 딱 드러가서 해:야꼬 이러고 딱 비베서 딱 발로 짹 볼바 부러. {그러면 이렇게 자루('차테기'는 '자루'의 방언형) 또 만들고, 마포로 만든 자루 있어. 거기서 자루 담아서 구멍에 딱 들어갈 만하게 담아. 그레가지고는 딱 들어가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비벼서 딱 발로 짹 밟아 버려.}

10522 # 그러면 단단헐겔 아니여 암 뽕게지고. {그러면 단단할 것 아니야? 안 뽕게지고?}

10522 @ 예. {예.}

10522 # 그래서 인자 떠워. {그래서 이제 띄워.}

10522 @ 음.

10522 # 그래서 띄워가꼬 잘 뜨두 누루기 잘 떠야 수리 마시쑈. {그래서 띄워가지고 잘 뜨두 누룩이 잘 떠야 술이 맛있어.}

10522 @ 고지는 그러면 먼 틀 가통거예요? {고지는 그러면 무슨 틀 같은 것이에요?}

10522 # 아:면. 이런 나무 {아무럼. 이런 나무}

10522 @ 나:무로 뉘 만드러가지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10522 # 알부느 나무 꺾따강가 모르거쑈따다 멘등거시 이러케 딱 공그리 이러케 멘등게. 그럭 그럭 해야꼬 멘드러쑈 그럭고. {얇은 나무 꺾질인지 모르겠습디다. 만든 것이 이렇게 딱 단단하게('공그리'는 '콘크리트'의 방언형이지만 여기서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의 뜻이다.) 이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렇게.}

10522 # 그레가꼬 그 누룽만 잘 떠 버리면 수른 말 무러 볼꺼덱쑈 만나. {그레가지고 그 누룩만 잘 떠버리면 술은 말 물어 볼 것 없이 맛나.}



10522 @ 아:.

10522 # 수른 누루기 잘 떠야 수리 마시썸. {술은 누룩이 잘 떠야 술이 맛있어.}

10522 @ 그럼 고 누루그로 인자 어터케 합니까? {그럼 그 누룩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522 # 고로고 누룩 그 누룩 그놈가꼬 인자 잘 뜨면 그놈 빠사가꼬는 술빠블 썸제. {그렇게 누룩 그 누룩 그것가지고 이제 잘 뜨면 그것 뿔아가지고는 술밥을 썸지.}

10522 @ 예. {예.}

10522 # 술빠 썸고 술락 사고. {술밥 썸고 술락 사고.}

10522 @ 야기요? {약이요?}

10522 # 술락 이썸. {술락 있어.}

10522 # 술라글 안 느면 수리 잘 안 돼. {술락을 안 넣으면 술이 잘 안 돼.}

10522 @2 이:스트 이:스트 가통경가바. {이스트 이스트 같은 것인가 봐.}

10522 @ 아.

10522 # 술라글 드리가야 수리 돼제. {술락을 들어가야 술이 되지.}

10522 # 그 고로고 해:서 인자 수를 해: 뉘. 해: 누면 수리 잘 돼제.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해 놔. 해 놓으면 술이 잘 되지.}

10522 # 그라고 {그리고}

10522 @ 네 어래서 기어게는 여그 그 술 술빠 {나 어려서 기억에는 여기 그 술 술빠}

10522 # 음 썰빠 {음, 술빠}

10522 @ 술빠, 꼬:두바비라 그레요. {술빠, 고두밥이라 그레요.}

10522 # 예, 꼬두밥. {예, 고두밥}

10522 # 마시썸라 그러면 {맛있어요? 그러면}

10522 @ 고 아주 기양 {그 아주 그냥}

10522 # 그놈 어더무글라고 모다 거시거제 술빠 줌 {그것 얻어 먹으려고 모두 거식하지. 술빠 줌}

10522 @ {웃음}

10522 # 쌀 쌀:바비라 점부다 썸리라. {쌀 쌀밥이라 전부 다 쌀이라.}

10522 @ 영.

10522 @ 고 거그다가 누룽 너:코 {그 거기다가 누룩 넣고}

10522 # 누룽 너코 {누룩 넣고}

10522 @ 무를 줌 너:썸니까? {물을 줌 넣습니까?}

10522 # 아:면. 물로 거시거제. {아무럼. 물로 거식하지.}

10522 @ 무를 더 너:썸요? {물을 더 넣지요?}

10522 # 물 너서 착:착 치데가꼬 무를 어느 정도 부:썸. {물 넣어서 착착 치대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붓지.}

10522 @ 그레가꼬 {그레가지고}

10522 # 그레야 그노미 쌀:도 퍼지고 누룩또 퍼지고 해야꼬 수리 돼제. {그레야 그것이 쌀도 퍼지고 누룩도 퍼지고 해가지고 술이 되지.}

10522 @ 그레가꼬 따뜨한 데다가 요러케 놔:두지요? {그레가지고 따듯한 곳에다가 이렇게 놔 두지요?}

10522 # 따뜨시 썸 썸: 놔. {따뜻이 썸 썸 놔.}

10522 # 그레가꼬 수리 뻗글뻗글뻗글 막:: 괴:면 기양 훌딱훌딱훌따닥 괴는 소리가 나. 뽀

글썽글썽 나. {그래가지고 술이 빠글빠글빠글 막 괴면 그냥 훌쩍훌쩍훌따닥 괴는 소리가 나. 뽀글뽀글뽀글 나.}

10522 @ 메치리나 되면 그러등가요? {며칠이나 되면 그러던가요?}

10522 # 응?

10522 @ 메치리나 되면 {며칠이나 되면}

10522 # 수를 오늘 나:제 해:따가면 저녁 세보게 어느 정께 되면 어느 정도 괴야. {술을 오늘 낮에 했다고 하면 저녁 새벽에 어느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괴어.}

10522 @ 아 벌써 괴아요? {아, 벌써 괴어요?}

10522 # 아 그러면 {아, 그러면}

10522 # 누룩 막:: 게서 이르고 가서 문차 보면 술오가리가 우게까지 조까 따따형기가 이 쓰면 윤: 봉지를 여러부러야 해. {누룩 막 괴어서 이렇게 가서 만져 보면 술 향아리가 위에 까지 조금 따뜻한 기미가 있으면 향아리 위를 덮은 종이 덮개를 열어 버려야 해.}

10522 @ 아.

10522 # 그리야제 한:허고 더퍼두면 수리 제너머부러. 씨:가꼬 안 만나, 수리. {그래야지 한없이('한하고'는 '한없이' 또는 '계속해서'의 뜻) 덮어 두면 술이 넘어 버려. 씨가지고 안 맛나, 술이.}

10522 @ 아.

10522 # 그거또 술도 조:시를 마차서 잘 해야 만나제 무조건 허능거시 아니여. {그것도 술도 알맞은 정도를 맞춰서 잘 해야 맛나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야.}

10522 @ 그러지요. {그러지요.}

10522 # 응, 그래야꼬 혈면 수리 고로코 마시썰. 고로코 인자 {응, 그래가지고 하면 술이 그렇게 맛있어. 그리고 이제}

10522 # 참쌀로 청주 가통거 허능거슨 {참쌀로 청주 같은 것 하는 것은}

10522 @ 음.

10522 # 여그 밀:까리 이짜너요? {여기 밀가루 있잖아요?}

10522 @ 음.

10522 # 밀:까리를 바삭::히이~ 무까야 해 바시러니. {밀가루를 물기가 많지 않도록 물을 쳐야 해. 물기가 많지 않도록.('바삭하다'와 '바실하다'는 모두 '물기가 많지 않아 고슬고슬하다'의 뜻)}

10522 # 바시러니 모까서 콧:: \*\* {물기가 많지 않도록 물을 쳐서 콧 \*\*}

10522 @ 모끈다고요? {모끈다고요?}

10522 # 바시러니 모까 무를. {물기가 많지 않도록 물을 쳐, 물을}

10522 @ 무를 모끈단 마리 무슨 마리에요? {물을 '모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522 # 무를 {물을}

10522 # 밀 가리에다 요러케 무를 침성 요러케 허치는 거슬 모끈다고 그러지. {밀가루에다 이렇게 물을 치면서 이렇게 훌뿌리는('허치다'는 '훌뿌리다'의 뜻) 것을 '모끈다'고 그러지.}

10522 @ 아 시를 지야 {\*\*\*\*\*}

10522 # 바시르르니 모까가꼬는 막:: 비베. {물기가 많지 않도록 물을 쳐가지고는 막 비벼.}

10522 # 바실바실허게 막:: 비베가꼬는 보시레~이라 모까야지 질면 그거슨 베레부러. {물기가 많지 않도록 막 비벼가지고는 물기가 많지 않게 물을 쳐야지 질면 그것은 버려 버려.}

10522 @ 음.

10522 # 게야꼬 이러고 꼭::꼭 지여서 요로코 꼭 지여서 이케 놔:두면 누루기 잘 떠. 더퍼서 놔: 두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꼭 만들어서 이렇게 꼭 만들어서 이렇게 놔 두면 누룩이 잘 떠. 덮어서 놔 두면.}

10522 @ 음.

10522 # 노::러니 떠. {노랑게 떠.}

10522 # 인자 글로 청주 가통거슨 해, 찹쌀로. {이제 그것으로 청주 같은 것은 해, 찹쌀로.}

10522 # 그러면 그거스 동동주말로 그러케 조:제, 고로케 허면 수털 허면. 골로 허면. {그러면 그것이 동동주처럼 그렇게 좋지. 그렇게 하면 술을 하면. 그것으로 하면.}

10522 # 음 어찌 열:름 증가네는 그런 밀:까리 허도 아너고 밀:찌울 허도 아너고 고로코 해가꼬 지사때마다 술 해서 그러코 머거써 수를 해:가꼬 아조. {음, 어찌 열른 중간에는 그런 밀가루 하지도 않고 밀기울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 때마다 술 해서 그렇게 먹었어. 술을 해가지고 아주.}

10522 # 궁게 술 만나게 헐다고 열::마나 아조 거식헐다고 아조 술 만나다고. {그러니까 술 맛나게 한다고 얼마나 아주 거식헐다고 아주 술 맛나다고.}

10522 # 나는 수를 그러케 마시케 잘해써라우. 그러고 여르메 농사질 때도 가:튼 보리술로 해:도 나는 기양 술레술로락 해:부러 그러면 게양. {나는 술을 그렇게 맛있게 잘했어요. 그리고 여름에 농사 지을 때도 같은 보리술로 해도 나는 그냥 \*\*\*\* 해 버려. 그러면 그냥}

10522 # 거를 꺼또 업씨 막 바타서만 머거버렇게 뽕:거이 조:치아나요 수리? {거를 것도 없이 막 받아서만 먹어 버리니까 말짱게 좋잖아요, 술이?}

10522 @ 음.

10522 # 근디 다른 사람덜 술도 기냥 통:특허이 보리술 해:노면 그러제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 술도 그냥 특특하게 보리술 해 놓으면 그러지.}

10522 @ 음.

10522 # 그렇게 술 만납게 헐다고 일:만 모라거면 기양 아이고 아무게평네 술 만납게 쏘 술 머그로 올란닥 험서 이:좌. {그러니까 술 맛나게 한다고 일만 오라고 하면 그냥 아이고 아무개떡네 술 맛나니까 술 먹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일 와.}

10522 @ 오:: # 고로고 고로고 너미 고로고 따레써. 머:슬 해:주면 거식헐다고 {그렇게 그렇게 남이 그렇게 따랐어. 뭘 해 주면 거식헐다고.}

10522 @ 일꾼드리. 음. {일꾼들이. 음.}.

10522 @ 근데 한때는 수를 몬:만들게 해:씨요이~? {그런데 한때는 술을 못 만들게 했어요?}

10522 # 모리게 수머서 헤쎄. {모르게 숨어서 했지.}

10522 # 누루글 감추고 날리여쎄. 근디 인자 증가네 난:중에는 기양 느꼬쥬부러쎄 다 해:머그라고. {누룩을 감추고 난리였지. 그런데 이제 중간에 나중에는 그냥 늦쥬('늦구다'는 '늦추다'의 방언형) 쥬 버렸지. 다 해 먹으라고.}

10522 @ 아:: # 예, 거식해서. 그 들키면 크닐나, 별금 물고. {예, 거식해서. 그 들키면 큰 일나. 별금 물고.}

10522 @ 그러지요. # 영. 궁영궁영 그래쎄. {영, \*\*\* 그랬어.}

10522 @ 그건 몰:레몰레 해쎄요? {그건 몰래 몰래 했어요?}

10522 # 예, 몰:레몰레 해:머거찌. {예, 몰래 몰래 해 먹었지.}

10522 @ 오::.

10522 @ 고건 인자 또 저기 자부로 다니기도 하고 술 누룽인능가 검:사 {그것 이제 또 저기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술 누룩 있는지 검사}

10522 # 야, 요로코 뒤로 텅이고 그레제라. 인능가 불라고 뒤로 텅이고. {야, 이렇게 뒤지러 다니고 그랬지요. 있는지 보려고 뒤지러 다니고.}

10522 @ 오::.

10522 @ 걸린 사람도 이썬꼬. {걸린 사람도 있었고}

10522 # 응, 걸린 사람도 이꼬 그레썬 그때. {응,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랬어, 그때.}

10522 @ 그러면 머예요 걸리면 어떻게 벌금 {그러면 뭐 해요? 걸리면 어떻게 벌금}

10522 # 벌금 무러 벌금. 술 들키면 {벌금 물어 벌금. 술 들키면}

10522 # 궁게 그 사람들 오면 기양 (웃음) 들 마자 들케따고 수로가리 가따 드르러니 가따 부서 부러 그거술. 그레 걸그레 벌그물 안 무러 더러케 부서 부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면 그냥 들켰다고 술 향아리 가져다 드르르 가져다 부어 버려 그것을. 그레 벌금을 안 물어. 그렇게 부어 버리면.}

10522 # 암무꼬 가따 드르러니 부서 부르면 벌금 안 무러. {먹지 않고 가져다 드르르 부어 버리면 벌금 안 물어.}

10522 @ 어. (웃음)

10522 # 그러기도 허고 그레썬요.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10522 @ 음.

10522 # 근디 식 그 뒤:로 어찌 난:중에는 계양 팍 거시기 되야 버러썬. 맘:데로 해:머그라고. {그런데 그 뒤로 어찌 나중에는 그냥 거시기 되어 버렸어. 마음대로 해 먹으라고.}

10522 # 똑 \*\*\*

10522 @ 왜냐면 인자 거: 양:조장이 이짚썬니까? 궁게 그 사람들만 인자 수를 만들게끔 해:나짜나요? {왜냐면 이제 거 양조장이 있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이제 술을 만들게끔 해 놓았썬아요?}

10522 # 양:조장 이썬도 난:중에는 고 해:머그라 해:썬라. 그레가꼬 다 해:머거썬. {양조장 있어도 나중에는 해 먹으라고 했어요. 그레가지고 다 해 먹었어.}

10522 # 거그서 바더다 머금서도 다 해:서 머거썬, 수를. {거기서 받아다 먹으면서도 다 해서 먹었어, 술을}

10522 @ 음.

10522 # 일 헐라면 함 말통 가조라고 허면 가조고 다테통 가조라고 허면 다떼통 가조고 그레썬, 양:조장에서. {일 하려면 한 말 통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 오고 닷 되 통 가져오라고 하면 닷 되 통 가져 오고 그랬어, 양조장에서.}

10522 @ 그럼 청주는 하고 막걸리는 다르자나요? {그럼 청주하고 막걸리는 다르썬아요?}

10522 # 막걸리는 거리고 {막걸리는 거르고}

10522 @ 예. {예.}

10522 # 아까 네가 머궁게 청주는 {아까 내가 먹으니까 청주는}

10522 @ 예. {예.}

10522 # 네:나 찰쌀로 해서 {내나 찰쌀로 해서}

10522 @ 예. {예.}

10522 # 용수 {용수}

10522 @ 예. {예.}

10522 # 용수를 바거. {용수를 박아.}

10522 @ 예. {예.}

10522 # 우리는 시방 용수도 이썬라. {우리는 지금 용수도 있어요.}

10522 @ 그래요? {그래요?}

10522 # 하도 수를 해:머거서. {하도 술을 해 먹어서.}

10522 @ (웃음)

10522 # 근디 용:수를 수를 해:노코 {그런데 용수를 술을 해 놓고}

10522 @ 응.

10522 # 딱: 이케 해서 용수 그 소게다 땅 이러케 무더 나:도. {딱 이렇게 해서 용수 그 속에다 딱 이렇게 묻어 놔 뒤.}

10522 @ 예. {예.}

10522 # 그래서 딱: 도:그로 눌러 나:두면 그 소게가 멜::근 물만 차. {그래서 딱 돌로 눌러 놔 두면 그 속에 말간 물만 차.}

10522 # 그러면 떠노코 또 바 또 나:두면 또 차고 떠:논번 서너 짜고 그거시 청주여. {그러면 떠 놓고 또 바 또 놔 두면 또 차고 떠 놓은 것 서너 짜고 그것이 청주야.}

10522 @ 음.

10522 # 그 그런짜 만나고 그거슨. 청 찹쌀로 해:서 그러코 해:노면. {그런 진짜 맛나고 그것은. 찹 찹쌀로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10522 @ 궁게 청주를 딱 뜨고 나문 노문 인자 바툼니까? 그런 막걸리가 돼나 {그러니까 청주를 딱 뜨고 남은 것은 이제 밭습니까? 그런 막걸리가 되나?}

10522 # 짹:: 바타저불고 읍:썬. 딱 마 그 용:소를 부셔노머는 {짹 받아져 버리고 없어. 딱 그 용수를 부어 놓으면은}

10522 @ 으.

10522 # 나오면 또 뜨고 나오면 또 뜨고 나:중에는 밤말로 딱 게:땡말로 데야가꼬 미꾸냉에가 이썬. {나오면 또 뜨고 나오면 또 뜨고 나중에는 밥처럼 딱 개떡처럼 되어가지고 밀구 멍에 있어.}

10522 @ 아.

10522 # 읍:썬. {없어.}

10522 @ 엽:썬요? {없어요?}

10522 # 예, 읍:썬. 거를 꺼시 읍:썬. {예, 없어. 거를 것이 없어.}

10522 @ 아 거를 꺼시 엽:썬요? {아, 거를 것이 없어요.}

10522 # 예. {예.}

10522 # 나는 고로코 해:머거싸 술. {나는 그렇게 해 먹었어요, 술.}

10522 @ 응.

10522 # 증가네 한:허고. {중간에 계속해서.}

10522 @ 그러면 막걸리는 따로 찹쌀 아니고 다룽걸로 이러케 {그러면 막걸리는 따로 찹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10522 # 기양 막걸리는 요른 디서는 기야 일할때 마:니썬 머글라고 허능거슨 막걸리로 해:서 기양 걸러서 머꼬 {그냥 막걸리는 이런 곳에서는 그냥 일할 때 많이썬 먹으려고 하는 것

은 막걸리로 해서 그냥 걸러서 먹고}

10522 @ 그거슨 {그것은}

10522 # 간마취서 걸러서꼬 {간 맞춰서 걸러서 먹고}

10522 @ 그거슨 멀: 쌀:로 해요 아니면 쌀? {그것은 뭘 쌀로 해요? 아니면 쌀?} # 응?

10522 # 어찌냐고? 쌀 아 쌀로 허고 {어찌냐고? 쌀 아 쌀로 하고.}

10522 @ 아

10522 # 여리메는 보리로 허고 {여름에는 보리로 하고.}

10522 @ 보리로 하고 {보리로 하고}

10522 # 응 그래. {응, 그래.}

10522 @ 음.

10522 @ 용수가 그게 데로 만들덩가요? {용수가 그것이 대로 만들던가요?}

10522 # 예, 데로 다 데여써. {예, 대로 다 되었어.}

10522 @ 데로. {대로.}

10522 @ 이 고거 인제 트트로 오로케 드러오구마뇨 이러케. {이 그것 이제 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구먼요, 이렇게.}

10522 # 예, 트트로 물만 싹: 드와. 그러면 {예, 틈으로 물만 싹 들어와. 그러면}

10522 @ 싹: 드와가지고 {싹 들어와가지고}

10522 # 깍 가라양꼬 메:거 드로면 가망가망 떠 네:노코 나면 그거이 도로 드로와 쌀살 차고 드러가 할:라테지고 그레 그러제. 그레가꼬 청주제 그거시. {깍 가라얏고 말짱게 들어오면 가만가만 떠 내 놓고 나면 그것이 도로 들어와 쌀살 차고 들어가 가득 차고 그레 그러지. 그레가지고 청주지, 그것이.}

10522 @ 그 영광에는 또 영광 그 소주라고 그 유:명한테 {그 영광에는 또 영광 그 소주라고 그 유명한테}

10522 # 예. {예.}

10522 @ 영광 그 무슨 {영광 그 무슨?}

10522 @2 불소중경가? {불소중가?}

10522 # 아니 {아니.}

10522 @ 토주? 토주? {토주? 토주?}

10522 # 토종인디 법썩 어디서 헐꺼 그 토종은. 여그도 바 그놈 바더다 쓰는디 이썩 토종. {토종인데 법성포 어디서 할거야, 그 토종은. 여기도 바 그것 받아서 쓰는 곳 있어, 토종.}

10522 # 그거슨 징허게 도케 그거슨. 사:십 사:십또라등가 오:십또라등가 어평가 세중은. 검:나게 도케. {그것은 핑장히 독해, 그것은. 사십 사십도라든가 오십도라든가 어평가 소주는. 핑장히 독해.}

10522 @ 근데 그런 소:주 가통거또 하 헤 네리보써썩요? {그런데 그런 소주 같은 것도 해고아('내리다'는 '소주를 고다'의 뜻) 보셨어요?}

10522 # 쥔 나는 아 쇠주는 안 네레반는디 예레서 네린 디는 바:썩. {소주 나는 아 소주는 고아 보지 않았는데 어려서 고는 것은 봤어.}

10522 @ 아.

10522 # 네리 쇠주 네린 디는. {고아 소주 고는 것은}

10522 @ 고건 어:트케 합니까 소주 네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주 골?}

10522 # 쇠주 네린 이러코 수를 이러코 헤. 보통 이러코 헤:가꼬. {소주 고는 이렇게 술을

이렇게 해.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10522 @2 증뉴 증뉴헌 {증류, 증류하는}

10522 # 네리는 기구가 이썸. {고는 기구가 있어.}

10522 @ 음.

10522 # 요 쇠주 네리는 기구가. {이 소주 고는 기구가.}

10522 @ 음.

10522 # 근디 술 소순 이런 소시고. {그런데 술은 이런 술이고}

10522 @ 네. {네.}

10522 # 이런 소테다가 그 기구를 딱 거러. {이런 술에다가 그 기구를 딱 걸어,}

10522 @ 예. {예.}

10522 # 걸:고는 이려고 푹:푹: 떠러진 디가 이르고 주전자말로 꼭떼기가 이썸가꼬 조르러 이 이려고 꼭떼기가 이썸면 거그다 이로코 딱 해서 박 나:두고는 {걸고는 이렇게 푹:푹: 떨어진 데에 이렇게 주전자처럼 꼭대기가 있어가지고 조르르르 이렇게 꼭대기가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딱 해서 놔 두고는}

10522 # 그 우게가 소두방이 이썸. 소두방으로 딱 더퍼 우게를. {그 위에 술뚜껑이 있어. 술뚜껑으로 딱 덮어, 위를.}

10522 @ 으음.

10522 # 그러면 거그다 무를 소두방에다 무를 한나씩 부서놔. {그러면 거기에다 물을 술뚜껑에다 물을 가득 부어 놔.}

10522 @ 음.

10522 # 그러면 막:: 끄르면 그 물 그놈 떠네뿔고 또 부꼬 또 부꼬 그럼따다. 그레가꼬는 {그러면 막 끓으면 그 물 그것 떠내 버리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럼디다. 그레가지고는}

10522 # 쇠주 그노를 네리능 거슨 가늘 바:가꼬 다 네리면 마징가 어쩡가 모르거썸 거거슨. {소주 그것을 고는 것은 간을 봐가지고 다 고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그것은}

10522 # 그로코 네립따다 쇠주 네린디 보면. {그렇게 곱디다. 소주 고는 것을 보면}

10522 @ 음.

10522 # 그레부면 다 네리면 그노를 떠:고 습 그 아랭이 그노를 소판지에서 퍼네고 그러드만. 예레서 보면. {그래버리면 다 고면 그것을 떼고 그 아랑 그것을 술에서 퍼내고 그러더구면. 어려서 보면.}

10522 @ 아, 아랭이. {아, 아랑}

10522 # 음, 아랭이로. {음, 아랑으로}

10522 @ 아랭이는 {아랑은}

10522 # 물 찌게이고 아랭이라고 {물 찌꺼기이고 아랑이라고}

10522 @ 소 소주 아랭이라고 {소 소주 아랑이라고}

10522 # 음. 소주 네링거뽕고 아랭이라고 {음. 소주 고는 것을 보고 아랑이라고}

10522 @ 아랭이라고 그러고 {아랑이라고 그러고}

10522 @ 그럼 다른 청주나 이렇 거슨 아랭이라고 아네요? {그럼 다른 청주나 이런 것은 아랑이라고 안 해요?}

10522 # 아네썸. 그거슨. {안 했지, 그것은.}

10522 # 찌갱이 강 바따 버러버르제. 그놈 머꼬는. {찌꺼기 그냥 밭아 버려 버리지. 그것 먹고는}

10522 @ 찌꺼기 버립니까? 아 소주나 아랭이. {찌꺼기 버립니까? 아 소주나 아랑?}

10522 @ 보통은 소주는 보통 찌베션 잘 안 해 먹쪄? {보통은 소주는 보통 집에선 잘 안 해 먹지요}

10522 # 잘 안체 소주는. {잘 았지, 소주는.}

10522 # 잘 안해. 그뜨이 우리 에로서 우리 친정 동네는 또 해쵸. {잘 안 해. 그래도 어려서 우리 친정 동네는 또 했어.}

10522 # 허는 사람 이쵸쵸. {하는 사람 있었어.}

10522 @ 아.

10522 # 꼭 거가서 네리고 네리고 그레쵸. {꼭 거기 가서 고고 고고 그렸어.}

10522 @ 아.

10522 # 에렇게 가서 보고 그레쵸. {어리니까 가서 보고 그렸지.}

10522 @ 음. 그레요이~. {음, 그레요.}

10522 @ 음.

10522 # 여그서도 찌:저작똥네 금:구기란 디서 쇠주 네레쵸라우. {여기서도 저 저쪽 동네 금국이란 데서 소주 고았어요.}

10522 # 중간까지도 네레쵸 거그는. {중간까지도 고았어, 거기는.}

10522 @ 그러면 {그러면}

10522 @ 어떤 사람드리 소주를 네레서 글먼 팔:라고 그림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소주를 고아서 그러면 팔려고 그림니까? 아니면}

10522 # 팔제. {팔지.}

10522 # 쇠주 네레서 {소주 고아서}

10522 @ 아. 자기들이 팔라고 {아 자기들이 팔려고}

10522 # 팔라고 허제라우. {팔려고 하지요.}

10522 # 금게 그거또 마:작허면 사사로 허능거시여.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사적으로 하는 거야.}

10522 # 허면 들키면 안 돼. {하면 들키면 안 돼.}

10522 @ 음.

10522 # 여그 금:구기란 데서도 쇠주 네레서 파라쵸 요 중간까지도. {여기 금국이란 데서도 소주 고아서 팔았어. 이 중간까지도.}

10522 @ 음.

10522 # 쇠주 네레서 {소주 고아서}

10522 @ 그레요? {그레요?}

10522 @2 엔날 소주는 비싸겐네? {옛날 소주는 비쌌겠네?}

10522 # 영광 어:이서도 허고. {영광 어디서도 하고.}

10522 # 영광 어:디서도 네리고 그레쵸. {영광 어디서도 고고 그렸어.}

10522 # 그먼 물:리 다 사오고 그레쵸. \*\* {그러면 몰래 다 사오고 그렸어. \*\*}

10522 @ 그 지금 그 영광 거 소주라능 거시 바로 그렌날 그러케 사사로 향거뜨리지요? {그 지금 그 영광 그 소주라는 것이 바로 그 옛날 그렇게 사적으로 한 것들이지요?}

10522 # 예, 그거이 쵸야 그거시여. {예, 그것이 결국('쵸야'는 '같다, 마찬가지로' 등을 강조하는 말로서 '결국'의 뜻.) 그것이야.}

10522 @ 음.



10522 @ 공께 인제 지역에 따라서 소주에다 멀: 너:가지고 쫘 머 약초를 넌:다등가 머 해:가지고 마슬 인자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소주에다 뭘 넣어가지고 쫘 뭘 약초를 넣는다든지 뭘 해가지고 맛을 이제 다르게}

10522 # 쪼끔 도케 거그 그 수른. {조금 독해, 거기 그 술은.}

10522 @ 음.

10522 # 그렇게 인자 머 당굴라면 그런 놈 사다가 당구고 {그러니까 이제 뭘 담그려면 그런 것 사다가 담그고}

10522 @ 그러치요. {그러지요.}

10522 @ 엔나레 마:니 인제 그다메 머 당그싱 거슨 머 테:게 다 저기 형거니까 다른 지방이나 어빠슬해:서 인자 허구요. {옛날에 많이 이제 그 다음에 뭘 담그는 것은 뭘 대개 다 저기 한 것이니까 다른 지방이나 엇비슷해서 이제 하고요.}

## 1.8 세시 풍속과 놀이<sup>5)</sup>

### 1.8.2 전통 놀이

10802 @ 여기 흑씨 머 그 굴또 하고 이런 사람 이쨌요? 이 동:네나 이런 {여기 흑씨 뭘 그 곳도 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이 동네나 이런?}

10522 # 구설? {곳을?}

10802 @ 예. {예.}

10802 # 아:면. {아무럼.}

10802 # 다 검:나게 구설 잘 처쨌 멍기리면 {다 굉장히 곳을 잘 쳤지, 명절이면.}

10802 @ 그레쨌요? {그랬어요?}

10802 # 근디 인자 사:라미 다 업쨌저 버렇게 굼물도 다 업:쨌저버리고 그레쨌. {그런데 이제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굼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랬지.}

10802 @ 아.

10802 # 나 시집올게도 검:나게 억세게 치드만. 쨌 정월따리면 정월 한달네 구쳐. {나 시집 오니까 굉장히 억세게 치더구먼. 저 정월이면 정월 한달 내내 곳 쳐.}

10802 # 이지비 가서 죽 쨌서 머꼬 술 머꼬 치고 저지비 가 치고 그레쨌. {이 집에 가서 죽 쨌서 먹고 술 먹고 치고 저 집에 가 치고 그랬어.}

10802 @ 누가 침니까? 구슬? {누가 침니까? 곳을?}

10802 # 남자드리. {남자들이.}

10802 @ 동:네 남자드리. {동네 남자들이}

10802 # 아:면. 그때는 남자드리 싹: 이쨌게 껌메기 친 사람 따로 이꼬 장구 친 사람도 이꼬 방구 친 싹로 이꼬 {아무럼. 그때는 남자들이 싹 있으면서 껌과리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장구 치는 사람도 있고 방구 치는 따로 있고}

10802 # 이러코 소:구 치는 사람 따로 이꼬 다 따로따로 이쨌. {이렇게 소구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

10802 @ 아.

---

5) 제보자는 김귀님 할머니이다.

10802 @ 요새 가트면 농악 한다는 {요새 같으면 농악 한다는}

10802 # 음. 농아기여 마라자면. {음, 농악이야, 말하자면.}

10802 @ 음.

10802 # 그리썬. {그랬어.}

10802 @ 그래가지고 정월 썬 설 보름 요때썬 뒤면 치고 놀구마뇨? {그래가지고 정월 썬 설 보름 이때썬 뒤면 치고 놀구면요?}

10802 # 예, 한:허고 치고 노라. {예, 계속해서 치고 놀아.}

10802 @ 음.

10802 # 그래가꼬 인자 썬 디리는 디는 썬 디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썬 디리는 데는 썬 디리고}

10802 @ 음.

10802 # 보메 {봄예}

10802 @ 음.

10802 # 그래. 그러고 끝나고 그러제. {그래. 그리고 끝나고 그러지.}

10802 @ 음.

10802 # 여그는 주른 안 디립따다. {여기는 썬은 안 디립디다.}

10802 # 우리 친정똥네는 썬 디리는데. {우리 친정 동네는 썬 디리는데.}

10802 @ 아, 썬 디리는데 {아, 썬 디리는데.}

10802 # 예. {예.}

10802 @ 여기는 그냥 농앙 그 굽만 치덩가요? {여기는 그냥 농악 그 굽만 치덩가요?}

10802 # 굽만 치고. {굿만 치고}

10802 @ 고롱거또 이찌요? 이러케 굽치고 도라다니면서 집썬마다 도라다님성. {그런 것도 있지요? 이렇게 굽 치고 돌아다니면서 집썬마다 돌아다니면서.}

10802 # 그때가 사:춘드리 마능게 집썬마다 땡임성 이려고 술 머꼬 {그때가 사촌들이 많으니까 집썬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술 먹고}

10802 # 굽 치고 네지베 와서 치면 {굿 치고 내 집에 와서 치면}

10802 @ 또 뭘 주고 {또 뭘 주고}

10802 # 죽또 닥 짜바서 죽또 썬주고 {죽도 닭 잡아서 죽도 썬 주고}

10802 @ 음.

10802 # 그러제라우. 머꼬 놀람 놀:면 {그러지요. 먹고 놀라 놀면}

10802 @ 음.

10802 # 기냥 어썬고 놀꺼시요? 빈:니비로 머거야 놀제. {그냥 어떻게 놀 거요? 빈 입으로 먹어야 놀지.}

10802 @ 금께 인제 그집 까서 굽쳐주머는 그지베 머 썬 복 보기 오라구 처중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집 가서 굽 쳐 주면은 그 집에 뭘 썬 복 복이 오라고 쳐 주는지}

10802 # 인자 그런 딱허도 허고 조아라고도 치고. {이제 그런다고 하기도 하고 좋으라고도 치고.}

10802 # 와서 재미로도 허고. {와서 재미로도 하고}

10802 @ 응.

10802 # 나머 머 조:응거시 따로 이썬랍떠여? 재미로 허제. {남의 뭘 좋은 것이 따로 있겠습니? 재미로 하지.}

10802 # 그때는 모파 텅임서 모다 재미로 해찌. 보먼. {그때는 모아 다니면서 모두 재미로 했지, 보먼.}

10802 @ 음, 그래요이~? (음, 그래요?)

10802 @ 그바께 정월따래 정위리 아무래도 시고 제:일 항가힐 때 아니에요이~? 그때 굳 치능 거 웨에 다른 머 노 노리가통 거 {그밖에 정월에 정월이 아무래도 쉬고 제일 한가할 때 아니에요? 그때 곳 치는 것 외에 다른 뭐 놀이 같은 것?}

10806 @ 아까 뭐 널: 뛰여따고 저래따 그렌는데 그거슨 언:제 뽀 {아까 뭐 널 뛰었다고 저랬다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 뽀}

10806 # 늘: 뛰능 거슨 여:자더리 뛰여. 정월딸도 지고 파월에도 뛰고 {널 뛰는 것은 여자들이 뛰여. 정월도 뛰고 팔월에도 뛰고}

10806 @ 뛰고 {뛰고}

10806 # 그렇게 놀:때 {그러니까 놀 때}

10806 @ 아 그거이 널: 파늘 가따가 그 관 쓰는 널: 그거 마:니를 {아, 그것이 널판을 가져다가 그 관 쓰는 널 그것 많이를}

10806 # 예, 널: 관 씨는 널 가뚜와 요로코 먼 광: 우게다 다 노코 뛰:면 {예, 널 관 쓰는 널 가져다 이렇게 뭐 \* 위에다 다 놓고 뛰면}

10806 # 널 뛰면 얼:마나 재미따고 (웃음) {널 뛰면 얼마나 재미있다고?}

10806 @ 어::.

10806 # 그걸 나:두고 뛰여 거기다 {그걸 놔 두고 뛰여, 거기다.}

10806 @ 아, 그러쿠나. 어. 음. {아, 그렇구나, 어, 음.}

10806 @ 그머 여자드른 다른 노리 논:다능거슨 머 널:뛰기 아니고 다릉거슨 머 이쓰 머 이썸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다른 놀이 논다는 것은 뭐 널뛰기 아니고 다른 것은 뭐 있습 뭐 있습니까?}

10806 # 강:강:술래도 허고 {강강술래도 하고}

10806 @ 강:강:술래도 해:썸니까? {강강술래도 했습니까?}

10806 # 예, 강:강:술래도 허고. {예, 강강술래도 하고}

10806 @ 아. 바메? {아, 밤에?}

10806 # 바메. 저녁게. {밤에, 저녁에.}

10806 어::.

10806 # 모트먼 모트먼 {모으면, 모으면}

10806 @ 언:제 언:제 해요? {언제 언제 해요?}

10806 # 저녁기면 해. 저녁기면 {저녁이면 해. 저녁이면}

10806 @ 어느 게저래? {어느 계절에?}

10806 # 어?

10806 # 정월따래 허고 파워레 인자 파월 봄:날또 허고 여쎌날또 허고. 그리고 파워레는 마:니 안 노라. 양이틀 하니틀 놀:면 마저. 파러레는. {정월에 하고 팔월에 이제 팔월 보름 날도 하고 엿새날도 하고. 그리고 팔월에는 많이 안 놀아. 양 이틀 한 이틀 놀면 맞아, 팔월 에는.}

10806 @ 정위레 마:니 해:썸요? {정월에 많이 했어요?}

10806 # 정위레. 정위레가 인자 오래 놀:제. {정월에. 정월이 이제 오래 놀지.}

10806 @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10806 @ 응?

10806 @ 어:디서요? {어디서요?}

10806 # 마당에서 노라. 마당에서. {마당에서 놀아, 마당에서}

10806 @ 너무집 마당? {남의 집 마당?}

10806 # 아:무 마당이고 다린 마당에서 노라. 마당 큰 디서. {아무 마당이든지 다른 마당에서 놀아. 마당 큰 데서.}

10806 @ 마당이 널버야 된디. {마당이 넓어야 되는데.}

10806 # 마당 마당 큰 디서 뛰:고 노라 그러코. {마당 마당 큰 데서 뛰고 놀아, 그렇게.}

10806 @ 오.

10806 # 문넉씨야 문 너러라 허고 막 뛰:고 놀고 막: 벨 지꺼릴 다허고 노라. 요 연 놀:때는 {문넉씨야 문 열어라 하고 막 뛰고 놀고 막 별 짓거리를 다하고 놀아. 이 연 놀 때는.}

10806 @ 그러면 그 여자들끼리 놀:때는 그러면 음식또 해:머꼬 그러니까? {그러면 그여자들끼리 놀 때는 그러면 음식도 해 먹고 그러니까?}

10806 # 아 떡 이씨면 떡또 썬 머꼬 {아, 떡 있으면 떡도 썬 먹고}

10806 @ 아.

10806 # 여자드른 인자 남자들말로 수른 암머거썬게 그때는. 지금잉게 술 먹썬 그때는 술드른 암 머거썬.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처럼 술은 안 먹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이니까 술 먹지 그때는 술들은 안 먹었어.}

10806 @ 그먼 여자드리 그게 강:강:술래 허며는 남자드른 머:라고 안 힘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그렇게 강강술래 하면은 남자들은 뭐라고 안 합니까?}

10806 # 머:락 아너제. 여자들 놀:꺼신지 알제 멩이렇게. {뭐라고 안 하지. 여자들 노는 것인 줄 알지. 멩절이니까.}

10806 @ 아, 멩이렇게. {아, 멩절이니까.}

10806 # 예, 멩이렇게 놀:꺼신지 알제. {예, 멩절이니까 노는 것인 줄 알지.}

10806 @ 음.

10806 @ 그래요. {그래요.}

10802 @ 그 남자드른 그러면 머: 합니까? 아까 마란 그런 굳 칭거 웨에 다룽 거 머. {그 남자들은 그러면 뭐 합니까? 아까 말한 그런 곳 치는 것 외에 다른 것 뭐?}

10802 # 여그는 벨라 남자드리 거식형거시 업:썬따다. {여기는 별로 남자들이 거식하는 것이 없습디다.}

10802 # 인자 멩질 아닐때도 남자드리 게양 썬:그런 디는 우리 처:녀때는 사람방이 동네가 큰:: 사람방이 이씨가꼬이~ 부:자가 이씨가꼬 그렇게 {이제 멩절 아닐 때도 남자들이 그냥 저 그런 데는 우리 처녀 때는 사람방이 동네에 큰 사랑방이 있어가지고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0802 # 독 취 밤:만 머그먼 남자드리 거그 모타가꼬이~ 가서 그 세네키도 꼬:고 신:도 삼:꼬 그러케 와서 모다 놀:고 그러디 여그는 그럴 꺼슨 안터라고요. {밥만 먹으면 남자들이 거기 모아가지고 가서 그 새끼도 꼬고 신도 삼고 그렇게 와서 모두 놀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안 하더라고요.}

10802 # 누가 신 상:꼬 머턴 디를 안트라고요. {누가 신 삼고 뭐 하는 것을 안 하더라고요.}

10806 @ 음.

10806 # 여글 옹게, 시집 옹게는. {여기를 오니까, 시집 오니까는.}

10806 @ 음.

10802 # 그레가꼬 {그레가지고}

10802 @ 윤:노리나 이렇 거슨 인나요? {웃놀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10806 # 윤 윤:노리 가통거슨 잘 안 험떠다. {웃 웃놀이 같은 것은 잘 안 합디다.}

10802 @ 여기서는 안헤써썌요? {여기서는 안 했었어요?}

10802 # 응, 벨라 안헤. {응, 별로 안 헤.}

10802 @ 음.

10802 # 윤:노리가 허먼 재미는 인는다. {웃놀이가 하면 재미는 있는데.}

10806 @ 음.

10802 # 남자더리 {남자들이}

10802 @ 음.

10802 # 파뤼레는 윤: 놀드마. {팔월에는 웃 놀더구먼.}

10802 # 돈:네기 돈:네기 남자더리 유:슬 놉:떠다. 돈:네기. 파뤼레는. {돈 내기 돈 내기 남자들이 웃을 놉디다. 돈 내기. 팔월에는}

10809 @ 그럼 정월하고 파뤼하고 트기 일런 데:게 크게 두:번 놀구마뇨? {그럼 정월하고 팔월하고 특히 일년 대개 크게 두 번 놀구먼요?}

10809 # 그러제 두:번 놀제. {그러지. 두 번 놀지.}

10809 @ 거간 머 다노나 백쥬에 {그러면 뭐 단오나 백쥬에}

10809 # 그러거슨 안 노라. {그런 것은 안 놀아.}

10809 @ \*\* 안 노라. {\*\* 안 놀아.}

10809 # 음, 여그는 멩이를 잔멩이를 안 쉼. {음, 여기는 명절을 잔 명절을 안 쇠.}

10809 @ 아.

10809 # 여그는 절때. {여기는 절대.}

10809 @ 음.

10809 # 저런 다른 디는 잔멩일도 쇠:서 머:또 헤:머꼬 그런디 여그는 이 아예 멩이를 안 쉼떠다. {저런 다른 데는 잔 명절도 쇠:서 뭐도 헤 먹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예 명절을 안 쉼디다.}

10809 @ 예. {예.}

10809 # 잔멩이른 꼭 설:허고 파뤼허고베끼는 {잔 명절은 꼭 설하고 팔월하고밖에는}

10809 @ 서:뤼허고 파뤼베끼는이~ 예. {설하고 팔월밖에는 예.}

10804 @ 이렇거또 그:네 가통거또 타고 그른 {이런 것도 그네 같은 것도 타고 그런}

10804 # 어:따 줄 뿔:떠만 이썌면 테: 메:노먼 예:기드리 타고 그레썌라, 줄 뿔:떠만 이썌면. {어디에다 줄 뿔 곳만 있으면 매어 놓으면 아이들이 타고 그랬어요. 줄 뿔 곳만 있으면.}

10804 @ 응.

10804 # 나무 큰:: 놉 이썌가꼬 {나무 큰 것 있어가지고}

10804 @ 응. 머:탄다 그럼니까 그때는? {응, 뭐 탄다 그럼니까? 그때는?}

10804 # 여 저 {이, 저}

10804 # 그걸 그거뽕고? {그것보고?}

10804 @ 예. {예.}

10804 # 그:네 탄다고 그러제. {그네 탄다고 그러지.}  
 10804 @ 그:네라고 그레썬니까? 엔:나레. {그네라고 그렸습니까? 옛날에?}  
 10804 @ 음.  
 10804 # 다린 이리미 업:짜네요? 그거슨?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그것은.}  
 10804 @ 머 군:지 탄다 {뭐 '군지' 탄다?}  
 10804 # 줄 탄다고 머:던다고 안 허고 {줄 탄다고 뭐 한다고 안 하고}  
 10804 @ 우리 어레썬 때는 군:지 탄다 그렌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군지' 탄다 그렸는데}  
 10804 # 군지탄다고? {'군지' 탄다고?}  
 10804 @ 응. 여기서는 그런 말? {응, 여기서는 그런 말?}  
 10804 # 안 헤:썬. 그:네 탄다고 그레썬. {안 했어. 그네 탄다고 그렸어.}  
 10804 @ 그:네 탄다고요. 음. {그네 탄다고요. 음.}

### 1.8.3 전설과 설화

10812 @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동 이 마으레서 머 (기침) 전:헤 내려오는 이야기나 이렇거  
 이썬니까? 무슨 (기침) 무슨 마을과 팔련항거라등가 아니며는 머 저 뒤에 사니라등가 머 저  
 리라등가 머 {자 마지막으로 이 동 이 마을에서 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이런 것 있습니  
 까? 무슨 무슨 마을과 관련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뒤에 산이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뭐}  
 10812 # 글썬라. 뭐 다 이저부러썬 지방. {글썬요. 뭐 다 잊어 버렸소. 지금.}  
 10812 @ (웃음)  
 10812 # 저네 저네 형거시라 저네 어:런덜 형거썬 다 이저부러썬. {전에 전에 한 것이라  
 전에 어른들 한 것을 다 잊어 버렸어.}  
 10812 @ 어.  
 10812 # 하도 거식허고 상게 {하도 거식하고 사니까.}  
 10812 @ (기침)  
 10812 @ 여기 효 효: 효:자비 누구 비가 이짜나요? 머 가기 제 거 뭇. {여기 효자비 누구  
 비가 있잖아요? 뭐 각이 제 뭇}  
 10812 # 어:디가 효:자비가 이썬? {어디에 효자비가 있어?}  
 10812 @ 여그 길가에다가 뭇 세워나뜨마 {여기 길가에다가 뭇 세워놔디구먼.}  
 10812 # 그걸 아니여. {그것 아니야.}  
 10812 @ 그럼 머:임니까, 그건? {그럼 뭐임니까, 그건?}  
 10812 # 여그 시 여그 신장노에까 형거슨 {여기 시 여기 신작로 가에 한 것은}  
 10812 @ 어예예예예.  
 10812 # 고 웅게 네레가는 거 지 웅게로 네레가능 거시기라고 썬나썬. 웅게다고. {거 웅게  
 ('웅게'는 지명) 내려가는 거 지 웅게로 내려가는 거시기라고 썬 났어. 웅게라고.}  
 10812 # 인자 차가 요리 쪽 들어감만 가제 거그를 모르자나요 그 동네를? {이제 차가 이  
 리 쪽 들어가기만 가지 거기를 모르잖아요, 그 동네를?}  
 10812 @ 아니 말고 그 먼 제:각 가통거 이편데 {아니, 말고 그 무슨 제각 같은 것 있던  
 데.}  
 10812 # 응?

10812 @ 세 세로 제:각까통거. {새로 제각 같은 것.}

10812 # 아, 저그가? {아, 저기에?}

10812 @ 응응.

10812 # 그거슨 지:각 어가 아니라 시:정이고 {그것은 제각 아니라 시정이고}

10812 @ 시정? {시정?}

10812 # 여그 가나라면 우리 가:게 여페 {여기 가노라면 우리 가게 옆에}

10812 @ 예예. {예, 예.}

10812 # 그건 지시 저 시:정이고 {그것은 저 시정이고}

10812 @ 시정이요? {시정이요?}

10812 # 비는 우리 하나부지 비여. {비는 우리 할아버지 비야.}

10812 # 우리 하나부지 비. {우리 할아버지 비.}

10812 @ 아. 할아버지 비예요. {아, 할아버지 비예요?}

10812 # 네. {네.}

10812 # 그러고 인자 하라버지 우때 하나부지 비고 인자 우리 사네다는 또 인자 우리 장녀네 비 해:고 상 다 노코 그레제.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옷대 할아버지 비고 이제 우리 산에다는 또 이제 우리 작년에 비 하고 상 다 놓고 그랬지.}

10812 @ 웨 하라버지 비를 거기다 놔 뒤써요? {왜 할아버지 비를 거기다 놔 두었어요?}

10812 # 인자 우때 하나부지 비를 거그다가 거그다 형거시 아이라 그 우:쩍 망네 아덜네 지비다 해:써. {이제 옷대 할아버지 비를 거기다가 거기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옷집 막내 아들네 집에다 했어.}

10812 @ 아.

10812 # 그랜넨디 거그다 거시기도 지:꼬 직 지:강말로 아:네다 거시기도 지:꼬 다 그랜넨디 지벌 파라 머거버러써. {그랬는데 거기다 거시기도 짓고 제각처럼 안에다 거시기도 짓고 다 그랬는데 집을 팔아 먹어 버렸어.}

10812 @ 아.

10812 # 닥차 조카 지반 손자노미 {조카 집안 손자놈이.}

10812 @ 예. {예.}

10812 # 불량해가꼬 {불량해가지고}

10812 @ 아 누가 쯔 광주 싸라미 산:다등가 {아, 누가 쯔 광주 사람이 산다등가}

10812 # 응. 광주 싸라미 사써. {응, 광주 사람이 샀어.}

10812 # 그렇게 비를 너무 집따 놔:두거쑈? 그렇게 인자 우리 손장게 우리 동서가 인자 우리 시야제가 거그 당신네 터에다가 가파 모:셔제. {그러니까 비를 남의 집에다 놔 두겠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자니까 우리 동서가 이제 우리 시동생이 거기 당신네 터에다가 가져다 모셨지.}

10812 @ 아하.

10812 # 비를. {비를}

10812 @ 그래서 옹겨꾸나, 할쭈업씨 월레. {그래서 읊겼구나. 할 수 없이 원래.}

10812 # 예, 그래서 그거시 그래서 그레써. {예,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그랬어.}

10812 # 그거슨 인자 메:딘는디다 안 쓰는 비고 {그것은 이제 묘 있는 데에 안 쓰는 비고}

10812 @ 아하.

10812 # 그래서 그레써. 인자 여그 산소에다는 장녀네 험서 다 비:또 허고 {그래서 그랬어.}

이제 여기 산소에다가는 작년에 하면서 다 비 또 하고}

10812 @ 그러면 하라버지는 비가 두:개네요이~? {그러면 할아버지는 비가 두 개네요?}

10812 # 예, 그러제. {예, 그러지.}

10812 @ 으흠.

10812 @ 멍가 먼: 특빠란 이:를 하셔서 비를 해:노셔쓰까?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셔서 비를 해 놓으셨을까?}

10812 # 인자 엔:나레 돈 마니 버러썩게 그렇갑제라. {이제 옛날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나 보지요.}

10812 # 그냥반 여그 학교 땅도 당시니 거그장반 땅이고 다 모다 그런닥 험띠다. {그 양반 여기 학교 땅도 당신이 거의 그 양반 땅이고 다 모두 그런다고 함디다.}

10812 @ 음음.

10812 # 궁게 거그다도 다 묻 해:노코 그레답디다 여그 학교다도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다 뭐 해 놓고 그랬답디다 여기 학교에다가도}

10812 @ 음. # 그그

10812 @ 예. {예.}

10812 @ 그러네요. {그러네요.}

10812 @ 테:강 테:강 제가 여 여쭙 볼 이야기드른 먼 자세하게 이야기허면 한:정이 업:찌 마는 뭐 그 정도로 테:가 텡:강 여쭙 바:썩니다. {대강 대강 제가 여쭙 볼 이야기들은 무슨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한정이 없지마는 뭐 그 정도로 대강 대강 여쭙 봤습니다.}

10812 @ 아이고 고생하셔썩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10812 # 고생이라 \*\*\* 네가 \* 우리가 {고생이라 \*\*\* 내가 \* 우리가}

(이하 답답)

=1 @ 우리가 사월 제가 사월 이:십메칠부터 와썩겁니다만 사월 사:월 사멸 사:월 오:워리 {우리가 삼월 제가 사월 이십 며칠부터 왔을 겁니다만 삼월 사월 삼월 사월 오월이}

=1 @ 사:월 이십오 이십오 한 두:달 두:달 가까이 (웃음) 이제 아마 그 저기 나:중에 제가 정:리하다가 썩음 조:사가 덜: 되거나 요령 걷 이쓰면 다시 한번 와가지고 그때 인제 마지막 그로 걷 언:제 그때가 인제 여름 지나고 올랑가 어썩랑가 모르거썩니다마는 그때나 함번 더 오구요. {사월 이십오 이십오 한 두 달 두 달 가까이 이제 아마 그 저기 나:중에 제가 정리하다가 조금 조사가 덜 되거나 이런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와 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그때가 이제 여름 지나고 오려는지 어썩려는지 모르겠습디다마는 그때나 한 번 더 오고요.}

=1 @ 테:충 마무리가 된네요. {대충 마무리가 됐네요.}

=1 @2 이:른 다 끝나부썩? {일은 다 끝나 버렸어?}

=1 @ 음 인자 자세항건 한:정이 업:는데 머 그냥 지남버네 그 남자 유원상씨 안테 썩 하라 버지한테 조사항게가 썩 이썩가지고 고건 썩 제외해:썩. {음, 이제 자세한 것은 한정이 없는 데 뭐 그냥 지난번에 그 남자 유원상씨한테 썩 할아버지한테 조사한 것이 썩 있어가지고 그 건 썩 제외했어.}

=1 @ 그러니까 그 해:써서 그 양반도 상당히 마:니 아:시더라고. 그래서 조사를 썩 하긴 해:썩.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그 했어서 그 양반도 상당히 많이 아시더라고. 그래서 조사를 썩 하긴 했지.}



=1 # 그렇게 아이 네가 거:리르 그때 헤 그냥반 헤:제. 모:른 사라문 물: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곳을 그때 헤 그 양반 했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

=1 @ 잘 아:시드라고요. {잘 아시더라고요.}

=1 # 예, 아까 거 봉:덩양바니라 현 양바는 양:끄또 모린당게. {예, 아까 그 봉덕양반이라 하는 양반은 아무 것도 모른다니까.}

=1 @ (웃음) 그래요. {그래요.}

=1 # 네:가 바:도 무:슬 물:라 그냥바는. 궁게 양 거석헤찌라. {내가 봐도 뭘 몰라 그 양반은. 그러니까 안 거식했지요.}

=1 @ 음.

=1 @ 그 그 양반네는 열씨미 뒤에가 먼 터가 인능가 머 땅이 바시 인능가 {그그 양반네는 열심히 뒤에 무슨 터가 있는지 뭘 땅이 밭이 있는지}

=1 # 누가? {누가?}

=1 @ 악 꼬 유원상 {아까 그 유원상}

=1 # 유원사 응 게 받 아페도 터 이꼬 뒤에도 터 이꼬 {유원상 응, 게 받 앞에도 터 있고 뒤에도 터 있고}

=1 @ 터 이꼬이~ 응. {터 있고, 응}

=1 # 다 너무꺼시여. 어째그냐면 {다 남의 것이야. 어째 그러냐면}

=1 # 튀기꾸네다 다 파라무근 터제. 바시 모다. {튀기꾼에다 다 팔아 먹은 터지. 밭이 모두.}

=1 @ 누구한테 파라 {누구한테 팔아?}

=1 # 쥐:니 반 쥐니 튀기꾸네다 파라무거 {주인이 밭 주인이 튀기꾼에다 팔아 먹어.}

=1 # 엔:날 튀기꾼드리 다 사로텅에쏘? 그냐? {옛날 튀기꾼들이 다 사러 다녔잖소? 그냐?}

=1 @ 여기르료? {여기를요?}

=1 # 아:면. 여기 집터도 다 파라무근 사라문 다 파라무거써. 튀기꾸네다 {아무렴. 여기 집터도 다 팔아 먹은 사람은 다 팔아 먹었어. 튀기꾼에다.}

=1 @ 웨? {왜?}

=1 # 그때는 어찌게 비싸게 중게 다 파라무거제. {그때는 어떻게 비싸게 주니까 다 팔아 먹었지.}

=1 @ 어.

=1 # 돈: 마:니씩 바꼬 파라무거제 그웁 {돈 많이씩 받고 팔아 먹었지 그웁.}

=1 @ 잘 웁 지금보다 비싸 조레 존:나요? {잘됐 지금보다 비싼 값에 줬나요?}

=1 # 하, 그때는 돈: 마:니씩 쥐:제. {하, 그때는 돈 많이씩 줬지.}

=1 @ 웨 그따요? 무슨 이유? {왜 그랬대요? 무슨 이유?}

=1 # 몰라. 튀기꾸니 고로고 텅임서 파라 싸써 그런 때. {몰라. 튀기꾼이 그렇게 다니면서 팔아 댔어, 그 때.}

=1 # 그때 심:허게 튀기꾼 텅임서 사서가꼬 지금 그때 사기만 헤:제 튀기꾸니 나타나들 안 현디라우. {그때 심하게 튀기꾼 다니면서 사가지고 지금 그때 사기만 했지 튀기꾼이 나타나지를 앓는데요.}

=1 # 다 시방 집또 그테로 살고 고차가꼬 모다 살고 튀기꾼 고차가꼬 살고 전답또 그놈 다 버러무꼬 살고 그레 지금. {다 지금 집도 그대로 살고 고쳐가지고 모두 살고 튀기꾼 고쳐가지고 살고 전답도 그것 다 부쳐 먹고 살고 그레 지금.}

=1 @ 아::

=1 # 헛 노물. {한 것을}

=1 # 집터 집터 다 사썬 모다. {집터 집터 다 샀어, 모두.}

=1 @ 나무 {남의}

=1 @ 서우리나 이런 사람드리 사노키만 해꾸나.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 놓기만 했구나.}

=1 # 음. 그렇가. 그때 그때 돈 만헌 사람드리 그러고 텅임서 튀기꾼 모다 사썬 이런 시골따가 산도 사고. {음, 그러는지. 그때 그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면서 튀기꾼 모두 샀어, 이런 시골에다가 산도 사고.}

=1 @ 오. 오.

=1 # 다 그레썬. {다 그렸어.}

=1 @ 여기 네가올 특빠라게 이유가 엄:는데이~. {여기 내려올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1 # 그도 그레도 고로코 와서 사썬라 모다. 그레가꼬 집터도 다 파라머꼬 모다 {그레도 그레도 그렇게 와서 샀어요, 모두. 그레가지고 집터도 다 팔아 먹고 모두.}

=1 @2 이 마으리 이뿌게 생겨짜나? {이 마을이 이쁘게 생겼잖아?}

=1 @2 집뜰도 이뿌고 {집들도 이쁘고}

=1 @ 아 튀기꾸니 머 마을 이뿌다고 사가니? {아, 튀기꾼이 뭐 마을 이쁘다고 사나?} =1 @2 {웃음}

=1 # 자기 돈 벌라고 사제. {자기 돈 벌려고 사지.}

=1 @ 먼 네가 먼 개발 된다등가 먼: 이유 {무슨 내가 무슨 개발된다든지 무슨 이유}

=1 # 인자 썬:그 개발 되기는 된다 험떠다마는 모르거쑈. {이제 저기 개발되기는 된다 합디다마는 모르겠소.}

=1 # 시방 썬:그 아네 화:사리 썬:그 거시기로 개발된다고 지금 거그다가 골:푸장 지여 지금. {지금 저기 안에 하사리('하사리'는 지명) 저기 저기 거시기로 개발된다고 지금 거기다가 골프장 지어, 지금.}

=1 @ 아 아드니미 지금 일한 거그 {아, 아드님이 지금 일하는 거기}

=1 # 예, 예, 골:푸장에 {예, 예, 골프장에}

=1 @ 팔:푸장 {골프장}

=1 # 궁게 {그러니까}

=1 # 게:발 되기는 된다 험떠다마는 {개발되기는 된다고 합디다마는}

=1 @ 팔:푸장은 마:니 지여요. {골프장은 많이 지어요.}

=1 # 예. {예.}

=1 @ 허 이곤썬고세다가 고창도 망:코 군산도 망:코 {허, 이곳저곳에다가 고창도 많고 군산도 많고}

=1 @ 함평 무안 {함평 무안}

=1 # 근디 골푸장 그거또 지:머는 여그 농사 지여 머꼬 사는 사:라미 지장이 이뜨만. 여 텔레비에 나온 디 봉게. {그런데 골프장 그것도 지으면은 여기 농사 지어 먹고 사는 사람이 지장이 있더구먼. 이 텔레비전에 나온 것 보니까.}

=1 @ 농야글 마:니 하지요. {농약을 많이 하지요.}

=1 # 서루 거:루가 술차임 썬:끔 떠러지기는 떠러전는데도 그 사라미 사과 배를 허넨디 그 거시 안 데버러. {서로 거리가 상당히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사과 배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버려.}

=1 @ 아.

=1 # 꼬또 남 마:니 암페부르고 마:니 열:도 안허고 그레가꼬 {꽃도 많이 안 피어 버리고 많이 열지도 않고 그레가지고}

=1 @ 웨 그러까 {왜 그럴까?}

=1 @2농야글 마:니 해서 {농약을 많이 해서}

=1 # 거그다가 마:니 하소오늘 허드라고. 요 테레비에 나와 나온디 봉게 {거기다가 많이 하소연을 하더라고. 이 텔레비전에 나와 나온 것을 보니까.}

=1 # 근디 그거를 거시기를 안헤줘 마라자거면. {그런데 그것을 거시기를 안 해 줘, 말하자면.}

=1 @ 보:상을 안 헤줘. {보상을 안 해 줘.}

=1 # 응 보:상을 안헤줘. 공게 이리 어뜨케 허냐 허고 막 거시기를 허드만 테리비에서. {응, 보상을 안 해 줘.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막 거시기를 하더구면, 텔레비전에서.}

=1 # 공게 그거또 데:고 허면 안 되거뜨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1 @ 고 꼴푸장 반:데 허는 디가 마:네요. {그 골프장 반대하는 곳이 많아요.}

=1 # 예, 공게 {예, 그러니까}

=1 # 막 어쭈고 꼴푸를 칭고. 연:십험서 그렇가 어쨌가 기양 지비로 꼴푸가 네 나:가꼬 어:디 머 백짱 뉘 백짱도 한나 떠 떼레부션네 먼 터에도 기양 철제가 이꼬 이뜨라고 꼴푸가. {막 어떻게 골프를 치는지 연습하면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그냥 집으로 꼴푸가 나가지고 어디 뭐 벽장 누구 벽장도 하나 떼레부셨네 무슨 터에도 그냥 \*\*가 있고 있더라고 꼴푸가.}

=1 @ 공:이 공:이 {공이 공이}

=1 # 막 공:이 기양 고리 이썬가꼬 막 주서네고 그드라고 금서 막 머락 허드라고 {막 공이 그냥 그리 있어가지고 막 주워 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1 # 이러니 어쨌케 머:슬 헤무꼬 살건냐고 허고 허고 막 헤:싸트라고. 봉게 테레비 봉게 {이러니 어떻게 뭘 해 먹고 살겠느냐고 하고 하고 막 해 대더라고. 보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1 @2 너무 가까웁따 \*\*\*\* {너무 가까운가 보다 \*\*\*\*}

=1 # 공게 또 가까운 마:키드라고 {그러니까 또 가까운 \*\*더라고.}

=1 @ 고:롱거뽏다도 {그런 것보다도}

=1 # 공게 그거또 {그러니까 그것도}

=1 @ 이 잔디거드노 꼴푸장이? 다 잔디로 데인은 거 키올라면 농야글 마:니 {이 잔디거든요? 꼴푸장이? 다 잔디로 돼 있는 것 기르려면 농약을 많이}

=1 # 그렇게 농야글 위::낙 마:니 헨다게. 그렇게 또 거그서 함:피짜게서는 글드만. {그러니까 농약을 워낙 많이 한대.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한쪽에서는('한피짜'은 '한쪽'의 뜻) 그러더구면.}

=1 # 이 야글 헐라면 미리서 신고를 하고 야글 해야 할꺼 아니냐? {이 약을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하고 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1 @ 응.

=1 # 그레야 머 저길 허제. 무조끈 헨단 말:도 업씨 양만 헤:버르면 이 농민드리 어찌고 살건냐 양 념세를 마꼬 어찌고 살건냐? {그레야 뭐 저기를 하지. 무조건 한다는 말도 없이 약

만 해 버리면 이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약 냄새를 맡고 어떻게 살겠느냐?}

=1 # 고로고 허고 막 헤:싸코 막 하소오늘 허고드라고 {그렇게 하고 막 해 대고 막 하소연을 하고 하더라고.}

=1 # 그거또 성가시거뜨라고 데:치나 그렇거슬 가깝게 지:머는 {그것도 성가시겠더라고. 과연 그런 것을 가깝게 지으면은}

=1 @ 그렇게 {그러니까}

=1 @ 하이튼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러케 도라다녀 보면 잉구가 차::꾸 주러요.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인구가 자꾸 줄어요.}

=1 @ 절라남도든 판:데에 비해서 지금 잉구가 자꾸 여기 이 마을뿐만 아니라 고꼬세가 사:람드리 {전라남도든 판 곳에 비해서 지금 인구가 자꾸 여기 이 마을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람들이}

=1 # 다:: 나가버렇게 그래. 그런데다가 또 예:기는 제카 나코. {다 나가 버리니까 그래. 그런 데다가 또 아이는 조금 낳고}

=1 @ 그러니까요.

=1 # 지그른 침::부 버러무꼬 살고 도시로 나가갸꼬 마:니 나면 예기 둘: 나코 그란 하나나 코 마라부리고 {지금은 전부 벌어 먹고 살고 도시로 나가갸지고 많이 나면 아이 둘 낳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 낳고 말아 버리고}

=1 # 그러니까 잉구가 줄지이~. {그러니까 인구가 줄지.}

=1 # 여그보당 여가 더 적:따 험떠다. 어째서 그냐면 그저네 거 누가 누가 그땐 대통령 날 때 그렌냐? {여기보다 여기가 더 적다고 함디다. 어째서 그러냐면 그전에 거 누가 누가 그땐 대통령 날 때 그랬을까?}

=1 # 그러케 예:기만 몬나케 저기를 허라고 막 가네쏘? 정부에서 {그렇게 아이만 못 낳게 저기를 하라고 막 그러잖았소? 정부에서.}

=1 @ 음, 박정희시데때 {음, 박정희 시대 때}

=1 # 박정이가 그레똥가 응 박정이가 그레썬. 박정이가 그레따허등구 근디 {박정희가 그랬던가 응 박정희가 그랬어. 박정희가 그랬다고 하더구먼. 그런데}

=1 # 경산도 그쪼근 그르케 심:하게 안 허고 여그 여그만 그러코 헤:따 그러등만. 미야라고. {경상도 그쪽은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여기 여기만 그렇게 했다 그러더구먼. 미워라고.} =1 @ (웃음)

=1 # 그레갸꼬 여가 그 수:가 고리고 적:따 허드마. {그레갸지고 여기가 그 수가 그렇게 적다 하더구먼.}

=1 @ 에이 그러 그러 그러지를 양코 여깁싸람드리 서우리나 이런 디로 마:니 {에이, 그럴 그러 그러지를 앓고 여기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로 많이}

=1 # 그라고도 인자 사리 인는 사람 나가부리고 {그리고도 이제 사람이 있는 사람 나가 버리고}

=1 @ 나가 부리썰. {나가 버렸지.}

=1 # 그땐 짐::하게 아조 헤썬. 아튼 예:기 몬:나케. {그땐 심하게 아주 했어. 하여튼 아기 못 낳게.}

=1 @ 응.

=1 # 그레갸꼬 막 계양 기냥 공으로 헤:주고 막 그레짜나요? 예:기 수시를 {그레갸지고 막 그냥 그냥 공짜로 해 주고 막 그랬잖아요? 아이 수술을.}

=1 @ 예. {예.}

=1 @ 그레 인제 잉구가 이씨야 사:라미 이씨야 먼 장사도 되고 먼:또 되고 그러지아나요?  
{그레 이제 인구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무슨 장사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잖아요?}

=1 # 그러제. {그러지.}

=1 @ 예, 근데 자꾸 사:라미 업:꼬 그러니까 좀 걱정이라고요 요거시 시고리 아프로 어  
트케 될랑가 시푸고 {예, 그런데 자꾸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더라고요. 이것이 시  
골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싶고.}

=1 # 영광이 여그서는 젤: 나서. 영광이. {영광이 여기서는 제일 나아.}

=1 @ 아.

=1 # 어째서 영광은 사:방에서 모다등게. {어째서 영광은 사방에서 모아드니까.}

=1 # 여그 백쭈서 나오제 굴람씨라고 나오제 찌그 범썰서 나오제 데마로 어디 외나 어:디  
다:: 각짜 차가 다 고:리 드로와. {여기 백수서 나오지 군남에서라고 나오지 저기 범성포서  
나오지 데마로 어디 \*\* 어디 다 각자 차가 다 그리 들어와.}

=1 # 영광으로 고:리 드와가꼬 판디로 가고 . {영광으로 그리 들어와가지고 다른 데로 가  
고}

=1 # 그렇게 사:라미 잉구가 다 거가 마:네가꼬 영광씨 장사해서 돈: 모뻔 사람 업씨. {그  
러니까 사람이 인구가 다 거기에 많아가지고 영광에서 장사해서 돈 못 번 사람 없어.}

=1 @ 마저. 거 누구 잘와따허드마. {맞아. 거 누구 잘 왔다 하더구먼.}

=1 @ 네 :: 조카 사우 되는 애가 거그서 크게 전자 제품가게를 해요. 엘지. {내 조카사위  
되는 애가 거기서 크게 전자 제품 가게를 해요. 엘지.}

=1 # 엘지. {엘지.}

=1 @ 엘지 하나 이뜨마 데:리점 큰::놈 음. 근데 {엘지 하나 있더구먼. 대리점 큰 것. 음.  
그런데}

=1 @ 도:늘 마:니 버러따 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요.}

=1 # 영광씨 장사해가꼬 돈 모:뻔 사람 업땅게. 다 자기가 잘못해서 돔모빠러제, 장사가 안  
되야서 돈 모뻔 사람 업:씨. {영광에서 장사 해가지고 돈 못 번 사람 없다니까. 다 자기가  
잘못해서 돈 못 벌었지. 장사가 안 되어서 돈 못 번 사람 없어.}

=1 # 야:튼 마:슬 허던지. 허나 액쭈가 젤:로 다 마:네 거가. {하여튼 뭘 하든지. 하나 액수  
가 제일 다 많아. 거기가.}

=1 @ 그런다등만. {그런다더구먼.}

=1 # 다른 모다등게 고:리. {다들 모아드니까 그리.}

=1 # 하레 점:두룩 차가 고리 정계서만 다 간디 어:디로 {하루 저물도록 차가 그리 정거해  
서만 다 가는데 어디로.}

=1 @ 그리고 지남버네 만나서 그러드라고. 명절날 오면 자식뜨리 점:부 부모한테 먼 하나  
씩 사주고 간대요. {그리고 지난 번에 만나서 그러더라고. 명절날 오면 자식들이 전부 부모  
한테 뭘 하나씩 사 주고 간대요.}

=1 @ 전자제품 이~? 텔레비를 사준다 냉장고 사준다 김치냉장고 사준다 그러니까 {전자제  
품? 텔레비전을 사 준다 냉장고 사 준다 김치냉장고 사 준다 그러니까}

=1 # 그러제 {그러지.}

=1 @ 아이 광주 가튼 데는 명절날 전:자제품 다 문 다짜나? 여그는 그러케 그때 한목 데  
모글 본다 그러드라니까 {아이 광주 같은 곳은 명절날 전자제품 다 문 닫잖아? 여기는 그렇

게 그때 한목 대목을 본다 그러더라니까.}

=1 # 그래. {그래.}

=1 # 그마리 마쑈. {그 말이 맞소.}

=1 @ 어.

=1 @2 그러건네. \*\*\* {그러겠네.}

=1 @ 으으

=1 # 도시서 와서 에드리 다 이려고 사주고 강게 그마리 마저. {도시에서 와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사 주고 가니까 그 말이 맞아.}

=1 @ 으으.

=1 @ 그러니까 잘 텐다 허데. {그러니까 잘 된다 하데.}

=1 @ (웃음)

=1 # 영광이 켈: 장사가 잘 텐당계라우. {영광이 제일 장사가 잘 된다니까요.}

=1 @ 음.

=1 # 문: 장사고 장사가 잘 돼. {무슨 장사든지 장사가 잘 돼.}

=1 # 멍는 장사도 잘 되고 머:시든지 잘 되야. 사:라미 마:느니까 잘 되제. {먹는 장사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돼. 사람이 많으니까 잘 되지.}

=1 # 거:: 거그만 보다 느땅게. 차가 오면 거그다 푸고 또 또 나서 나가고 시꼬 나가고 또 보면 거그다 푸고 차게 차가 밤::나 고리 드러가만 가, 거그 차부로. {거기만 보다 늦어진다니까. 차가 오면 거기다 푸고 또 또 나서 나가고 싣고 나가도 또 보면 거기다 푸고 차가 차가 밤낮 그리 들어가기만 가, 거기 차부로.}

=1 @ 음. {음.}

=1 @ 아이곰. 자 {아이고, 자.}

## 1.6 거주 생활<sup>6)</sup>

### 1.6.1 집 짓기

10601 @ 예 온 이이 이버네느뇨 농사보다도 잘 집 집찐는 니를 쪼끔 그 집 찐는 그 과:정을 줌 여쭙볼게요. {예, 온 이이 이번에는요, 농사보다도 잘 집 집 짓는 일을 조금, 그 집 짓는 그 과정을 좀 여쭙 볼게요.}

10601 @ 집 진 터:: 이걸 어터케 골 고:름니까 어터케? {집 지은 터, 이걸 어떻게 골 고:름니까? 어떻게?}

10601 # 엔:나레는 집 지을때 여 요런지불 도다야 허거든? {옛날에는 집 지을 때 이 이런 집을 둔워야 하거든?}

10601 @ 예. {예.}

10601 # 그문 사:라미 바:주기 이 지게로 저서 부레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바지게 이 지게로 저서 부러가지고}

10601 @ 예. {예}

---

6) 제보자는 유원상 할아버지이다.

10601 # 그 다과. 마라자문 다과. 지녕네: 그냥. {그 다져. 말하자면 다져. 저녁 내내 그냥.}

10601 @ 머:스로 다굽니까? {무엇으로 다집니까?}

10601 # 그 다구는 도:를 요만:한 노를 해:서 거그다가 철사로 켜메가지고 줄 다라서 여러 이 담 테:여서시씩 고노를 다구제. {그 다지는 돌을 이만한 것을 해서 거기다가 철사로 잡아매가지고 줄 달아서 여럿이 담, 대여섯씩 그것을 다지지}

10601 # 소리힘성 다과. 마라자문 죽 썬먹꼬 인자 막걸리 가따먹꼬 그럼서 다과. {소리 하면서 다져. 말하자면 죽 썬 먹고 이제 막걸리 가져다 먹고 그러면서 다져.}

10602 @ 아 노래도 합니까? {아, 노래도 합니까?}

10602 # 아:문. 그 {아무렴. 그}

10602 # 얼릴러 상싸소리 인자 거 다구는 소리여. 그거시 거 거 {얼릴러 상사소리 이제 그 다지는 소리야.}

10603 # 다과가고 엔:나레는 주춧돌 인자 물체. {다져가지고 옛날에는 주춧돌 이제 묻지.}

10603 # 지등 시울랑게 지주 주춧돌리 팍 이 지 주 여러개가 드러가제. 마라자면. {기둥 세우려니까 지주 주춧돌이 팍 이 지주 여러 개가 들어가지, 말하자면.}

10603 # 상간 네:짜근 저:리가 네:게가 드러가고 세:게 드러가는 지비 이꼬 인자 주춧돌리. {삼 칸 네 짝은 저리 네 개가 들어가고, 세 개 들어가는 집이 있고, 이제 주춧돌이.}

10603 @ 예 {예.}

10603 # 오 인자 소 술 사네서 비여다가. {오, 이제 소 술 산에서 베어다가}

10603 @ 네 {네.}

10603 # 지등은 뺨드단 노드로 허고 보는 요 꼬부라진 늙 마라자면 이 그거뽕고 보라고 그레. {기둥은 반듯한 것으로 하고 보는 이 구부러진 것 말하자면 이 그것보고 보라고 그레.}

10603 @ 예 {예.}

10603 # 이자 보가 모테가 이쓰머는 또 저 아페 지그문 저러코 거시기 그러문 이:런디 {이제 보가 모여 있으면은 또 저 앞에 지금은 저렇게 거시기 그러면 이러는데}

10603 # 그때는 또 중 중보라고 요 짜그막:현 고부런장해 현 늙 귀해다가 비여서 느러네고. {그때는 또 중 중보라고 이 자그마한 구부정한('고부런장허다'는 '구부정하다'의 방언형) 것 구해다가 베어서 늘어 내고}

10603 # 엔:나레 그거이 흥 지게서 마라자면 담:비때나 썬 거시기 데 데받 데나, {옛날에는 그것이 흙 이겨서 말하자면 담뱃대나 저 거시기 대 대받 대나.}

10603 # 시누데나 쭈:시때나 인자 고놈 가지고 운찌블 마라자면 여꺼. {해장죽이나('시누대'는 해장죽의 방언형) 수숫대나 이제 그것 가지고 옷 짚을 말하자면 엮어.}

10603 # 사리끼로 검줄루 이르게 눌러가지고 여꺼가지고 흥 니게서 고노를 싹 까라. 혹 이 올려서, {새끼로 \*\*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엮어가지고 흙 이겨서 그것을 싹 깔아, 흙 이 올려서.}

10603 # 올려서 까라노코 인자 엔:나레는 마람 진:부로 마람 농사진 지브로 마람 여꺼서 이:고 그러고 사라썬. {올려서 깔아 놓고 이제 옛날에는 이영('마람'은 '이영'의 방언형) 짚으로 이영 농사 지은 짚으로 이영 엮어서 이고 그렇게 살았어.}

10603 @ 음 그래요 음.{음, 그래요. 음.}

10609 @ 집터를 딱 다지머는 인제 집 지슬라거면 먼점 고:사를 지네거나 그러기도 합니

까? {집터를 딱 다지면은 이제 집 지으려고 하면 먼저 고사를 지내거나 그러기도 합니까?}  
 10609 # 그러제. 고:사지네제. {그러지, 고사 지내지.}  
 10609 # 고:사 지네능거슨 집터 다굴때 고:사 지네고 {고사 지내는 것은 집터 다질 때 고사 지내고}  
 10609 @1 예. {예}  
 10609 # 또 상:냥 상:냥혈때 {또 상량, 상량할 때}  
 10609 @ 예 {예.}  
 10609 # 인자 상량에다 면년도 마라자면 글씨 써가지고 오구이~ {이제 상량에다 몇 년도 말하자면 글씨 써가지고 오고}  
 10609 @ 예. {예.}  
 10609 # 무슨 녀네 메칠 사:워리면 사:월 사워리면 사월. {무슨 년에 며칠 사월이면 사월, 삼월이면 삼월}  
 10603. @ 예. {예.}  
 10609 # 그:: 날짜를 하시 상:냥에다 써서 올레. {그 날짜를 항시 상량에다 써 올려.}  
 10609 # 그믐 그때 인자 그때 인자 떡 거 시리 해:노코 돼야지 머리 해:노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떡 그 시루 해 놓고 돼지 머리 해 놓고,}  
 10609 @ 아. {아.}  
 10609 또 탕목 떠서 상:냥 오 인자 올릴랑게 줄 쓰스 당모그로 엔:나레 미영베로 다라서 이러코 올라서 상:냥을 허고 그레제. {또 \*\* 떠서 상량 오 이제 올리려니까 줄 쓰스 당목으로 옛날에 무명으로 달아서 이렇게 올려서 상량을 하고 그랬지.}  
 10609 @ 예. {예.}  
 10609 # 그날 목쭈 생어리제. 거그다 도:늘 마니 노그면 목쭈 거싱게. {그날 목쭈 생일이 지. 거기다 돈을 많이 놓으면 목쭈 것이니까.}  
 10609 @ 예. {예.}  
 10609 @ 그럼 인자 터 다끝때도 고:사 지네고. {그럼 이제 터 닦을 때도 고사 지내고.}  
 10609 응. {응}  
 10603 @ 그 다텔때 인자 아까 마란 인제 그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기초?}  
 10603 # 응 {응}  
 10603 @ 기초를 할라면 거기다 먼: 무슨 무슨 도:를 헌닥헤쫓? 무슨도글 \*\*\*\*. {기초를 하려면 거기다 무슨 무슨 돌을 한다고 했지요? 무슨 돌을 \*\*\*\*}  
 10603 # 주춧돌. 마자른 지둥 바치는 주춧돌. {주춧돌, 말하자면 기둥 받치는 주춧돌.}  
 10603 @ 아. {아}  
 10603 @ 주춧돌 놓때는 거기다가 멀: 늴:니까? 거기다가 독 돌:만 노면 됩니까? {주춧돌 놓을 때는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거기다가 돌 돌만 놓으면 됩니까?}  
 10603 # 응. {응}  
 10603 # 파고 구덩이 파고 동: 노코 그러제. {파고 구덩이 파고 돌 넣고 그러지.}  
 10603 @ 동: 노코 다룽건 안노코요? {돌 넣고 다른 것은 안 넣고요?}  
 10603 # 응 {응}  
 10603 @ 어. {어.}  
 10603 # 그 인자 점 지시락 인자 문 넣고 나간: 거 조루러니 싸능 거슨 심방또기라고 그



레. {그 이제 저 기스락 이제 문 열고 나간 그 줄줄이('조르라니'는 '줄줄이'의 뜻) 쌓는 것은 땃돌이라고('심방뚝'은 '땃돌'의 방언형) 그래.}

10603 # 심방뚝글 싸. {땃돌을 쌓아.}

10603 @ 예 예. {예, 예.}

10603 # 그 요러 조르: 지그믄 세:메느로 허고 인는다, 심방뚝글 도:그로가꼬 싸고 다 흐그로 메:서 {그 이러 줄줄이 지금은 시멘트로 하고 있는데 땃돌을 돌 가지고 쌓고 다 흙으로 메워서}

10603 # 거 참 도:그로 마니. {그 참 돌로 많이}

10603 @ 음, 심방뚝그료? {음 땃돌을요?}

10603 # 음. 심방뚝 싸, 그리야 토방::이 생기제. {음 땃돌을 쌓아. 그래야 토방이 생기지.}

10603 @ 심방뚝, 심방뚝근 그러머는 {땃돌, 땃돌은 그러면은}

10603 # 심방뚝기, {땃돌이.}

10603 @ 심방 만들기 위해서 도:그로 {땃돌 만들기 위해서 돌로,}

10603 # 영, 아:문. {응, 아무렴.}

10603 # 궁게 지비 너푸머는 우리자 우리지베 요만치를 싸:는 디도 이꼬 {그러니까 집이 높으면은 우리자 우리집에 이만큼을 쌓는 데도 있고}

10603 # 강 두:자 썬 디도 이꼬 한자 썬 디도 이꼬. {그냥 두 자 쌓는 데도 있고, 한 자 쌓는 데도 있고}

10603 @ 그 도글 심방뚝기라고 그럼니까? {그 돌을 땃돌이라고 그럼니까?}

10603 # 응 심방뚝. {응, 땃돌.}

10603 @ 음. {음}

10603 @ 주춧뚝근 그러면 주로 먼: 도글 가따 씀니까? {주춧돌은 그러면 주로 무슨 돌을 가져다 씀니까?}

10603 # 사네서 점부 가따가 사네서 차자가. {산에서 전부 가져다가 산에서 찾아가.}

10603 @ 그 다메 나:무는 거 집찌슬 나:무는 어:디서 구하나요? {그 다음에 나무는 그 집찌슬 나무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10603 # 사네서 전:수 사네서 구해오제. {산에서 전부 산에서 구해 오지.}

10603 @ 사네서요? {산에서요?}

10603 # 응 사네서. {응, 산에서.}

10603 # 지그믄 먼: 디서 돈:주고 사다가 허지마는 {지금은 먼 곳에서 돈 주고 사다가 하지마는}

10603 @ 예. {예.}

10603 # 사네서 나:무, 허가 네서 군청에 가서 허가 네서 살림게가서 허가네서 비여서. {산에서 나무, 허가 내서 군청에 가서 허가 내서, 산림계 가서 허가 내서 베어서.}

10603 # 손수 눈 사:라미 지게로 저 네서. {손수 눈 사람이 지게로 저 내서}

10603 # 그놈 벌목 헤:서 딱 쟁에나. {그것 벌목해서 딱 쟁여 봐.}

10603 # 진:자 마라므로 썬 쟁에나서 이: 그거시 무:시냐거머는 쟁에서 베눌 눌러서 이어논능거 거 무:시냐면, {이제 이영으로 썬 쟁여 봐서 이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은 쟁여서 가리('베눌'은 '가리'의 방언형) 쌓아서 이어 놓는 것 뭐냐 하면}

10603 # 트리진 놈 자부라고 요러코 인자 이러코. {틀어진 것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10603 # 요:러케 꼭 영꼬 또 요러코 영꼬 요로코 영꼬 꺼 마이 해서 잡는 포기여. 쪼:꼴허게. {이렇게 꼭 엮고 또 이렇게 엮고 이렇게 엮고 많이 해서 잡는 셈이야('꼭'은 의존명사 '셈'의 방언형), \*\*\*\*.}

10603 @ 예. {예.}

10603 # 그래가지고 이제 목쭈 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목조 대서}

10603 @ 목쭈가 그니까 이제 그 나:무를 디 이러케 혈꺼 아십니까? 목 저 데:폐질도 허고. {목쭈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를 디 이렇게 할 것 아십니까? 목 저 대폐질도 하고}

10603 # 아:면. 목쭈가. 궁게 몽치미 집 한채 드러간디 몽칭 드러간디다 그 사:게 데레디다 방넌 몽칭 메께 이써. 그거슬 {암. 목쭈가. 그러니까 나무 기둥이('몽칭'은 나무 막대기나 나무 기둥을 뜻한다.) 집 한 채 들어가는데 나무 기둥 들어간 데가 그 사개 \*\*\* 박는 나무 기둥 몇 개 있어.}

10603 @ 예. {예.}

10603 # 주이니 감차나써 한나를. 거 목쭈가 썩 멘드라는 노물. 그레 목쭈가 강 가뻘저써. 마라자거면. {주인이 감취 났어 하나를. 그 목쭈가 썩 만들어 놓은 걸. 그레 목쭈가 그냥 가버렸어, 말하자면.}

10603 # 그거를 읍:썰부러따고. 궁게 그거이 고러코 시:밀헝거시여. 그거또.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세밀한 거야, 그것도.}

10603 @ 아, 그러쿠뇨. {아, 그렇군요.}

10603 @ 그러문 인자, 그러코 나:무나 머 아까 사:게나 이러거 다 짜:가지고 이러케 마쭈조? 이러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무나 뭐 아까 사개나 이런 것 다 짜가지고 맞추지요, 이렇게?}

10603 # 마쭈고도 중:방 디리고 인자 문설쭈 씨:고 마라자거면 {또 맞추고도 중방 들고 이제 문설쭈 세우고 말하자면}

10603 # 또 쭈:시때로 요 세이세이 베랑빱 메드룬디 여꺼. {또 수숫대로 이 사이사이 바람벽을 메우는 데 엮어.}

10603 @ 그거뵈고 멀: 여끈닥 험니까? {그것보고 뭘 엮는다고 합니까?}

10603 # 쭈시때로 인자 외때 여꺼 원때. 여그다 요 조루러니 원때 여꼬. {수숫대로 이제 외('윗대'는 '외'의 방언형) 엮어 외. 여기다 이 줄줄이 외 엮고}

10603 # 인자 집 쓰:러서 흑허고 역 이자 니게가지고 고놈 불라. {이제 짚 썰어서 훑하고 엮 이제 이겨가지고 그것 발라.}

10603 @ 예. {예.}

10603 # 불라야 베랑빠기 데제. 양:군 양:쪼그로 {발라야 바람벽이 되지. 양군 양쪽으로.}

10603 # 초 초백 인자 데백 인자 두:버늘 보루는디 불라가꼬 {초 초백 이제 도벽 이제 두번을 바르는데 발라가지고}

10603 # 제:사를 머:시로 허냐 허먼 보리떼께. {제사를 무엇으로 하나 하면 보릿대.}

10603 # 보리떼께:를 흑 처가지고 고노메다가 이계. {보릿대를 훑 처가지고 그것에다가 이겨.}

10603 # 소구통: 인자 거 절구통에다 이계가지고 {절구통 이제 그 절구통에다 이겨가지고}

10603 # 인자 제:사해야 그러고 인자 백찌로 인자 테베글 허제. {이제 제사해야 그리고 이제 벽지로 이제 도벽을 하지.}

10603 # 그 가정이 복짜베써 엔:날찌븐.{그 과정이 복잡했어, 옛날 집은.}

10603 @ 지붕, 지붕은 어더케 이여씨요? {지붕 지붕은 어떻게 이었어요?}

10603 # 지붕:은 마람 여꺼서 이여. {지붕은 이영 엮어서 이여.}

10603 @ 예. {예.}

10603 @ 마람 여꺼서요? 근데 마람 이케 이은 바로 위에 여기다가 이러케 천장도 만 만들고 그러자나요. {이영 엮어서요? 그런데 이영 이렇게 인 바로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천장도 만 만들고 그러잖아요?}

10603 # 마람 사:라미 여꺼서 요: 정도 데무 한 오:십짱 가져야 일꺼시여 마라자면. {이영 사람이 엮어서 이 정도 되면 한 오십 장 가져야 이을 거요, 말하자면.}

10603 # 지비 요 정도 허문 짐 니는 데: 나도 지블 마:니 이고 뎡엔는다. {집이 이 정도 하면 짐 이는데 나도 짐을 많이 이고 다녔는데}

10603 # 인자 지블 이:고 지붕싸리라고 사리끼로 눌러. {이제 짐을 이고 '지붕살'이라고 새끼로 눌러.}

10603 # 바람 안 불면 안 거치게. {바람 안 불면 안 걷히게.}

10603 @ 아 예, 그걸 머라고 머라고요? {아, 예예 그것을 뭐라고 뭐라고요?}

10603 # 지붕쌀. {'지붕살'}

10603 @ 아, 지붕쌀 {아, '지붕살'}

10603 # 지붕쌀 누리고는, 용마람 트러서 쥬: 우게 용마람 인자 거 마라머고 요로꼬요로고, 갱기서늘 용마람을 요로코 더퍼와 요로고. {'지붕살' 누르고는 용마람 틀어서 제일 위에 용마람 이제 거 이영하고 이렇게 이렇게 경계선을 용마람을 이렇게 덮어 와, 이렇게.}

10603 # 마라자면 그 용마람 그레야 지비 끝나. 인자 인: 거시. {말하자면, 그 용마람 그레야 집이 끝나. 이제 이는 것이.}

10603 @ 용마람 이써야 쫘 머찌게 보이조이? {용마람 있어야 좀 멋지게 보이지요?}

10603 # 음, 그러제. {음, 그러지.}

10603 # 그러고 인자 임:시로 사테리 노코 쥬: 뜰러서 데막까지 데:서 지시라글 쩜메. {그리고 이제 임시로 사다리 놓고 뽕 둘러서 데막대기 대서 기스락을 잡아매.}

10603 # 쥬: 뜰러 지시라글. {뽕 둘러 기스락을.}

10603 @ 아. 데막까지로 {아, 데 막대기로.}

10603 # 암:. 뒤 이써 아:머 디 데:고. {암. 뒤 있어. 아무 데 대고.}

10603 @ 아::. 지스라글. 안 쩜메면 그거시 {아, 기스락을. 안 잡아매면 그것이}

10603 # 안 쩜메무는 바람 불문 날라가부릉게. {안 잡아매면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니까.}

10603 # 궁게 그 지시라글 쩜밀 지븐 미테다가 쥬고자:를 싹: 바차 도라가. 쥬고자:를. {그러니까 그 기스라글 잡아매 짚은 밑에다가 쥬고자:를 싹 받쳐 돌아가. 쥬고자:를.}

10603 # 데나무에다가 지브로 여러코시 저:러서 데 요런 놈 해:서 쪽:: 데서 쥬 뜰러서 쥬:로코 지블 이여. {데나무에다가 짚으로 이렇게 결어서 데 이런 것 해서 쪽 대서 뽕 둘러서 해 놓고 짚을 이어.}

10603 # 그문, 우게다 데 데고 고놈허고 부너뎡에다가 막 쩜메야 딸싹 안채. {그러면 위에 다 데 대고 그것하고 '부넛대'에다가 막 잡아매야 꼼짝 안 하지.}

10603 @ 아 야무지게 무꾸네요이? {아, 야무지게 묶네요?}

10603 # 아::면. {암.}

10603 @ 인자 집 이을때는 데:게 지부로 다가 여꺼씨요? {이제 집 이을 때는 대개 짚으로 다가 엮지요?}

10603 # 지블 싹: 모 놓 어더서 여꺼가지고, {짚을 싹 모 놓 얻어서 엮어가지고}

10603 # 인자, 서 저 거무줄을 놀:러 지봉에다가, {이제 서 저 고무줄을 놀러, 지봉 위에다가.}

10603 # 그 마라물 돌려감서 사네키 그 마람끄슬 이러코 켜메. {그 이엇을 돌려가면서 새끼 그 이엇 끝을 이렇게 잡아 매.}

10603 # 저 안:쪼게 전:너머가서 켜:미고 여구다 켜:미머는 요거시 인자 켜::켜이 기양 가야금 쪼말로 기양 켜::켜해져. {저 안쪽에 저 넘어가서 잡아매고 여기다 잡아매면은 이것이 이제 켜켜히 그냥 가야금 줄처럼 그냥 켜켜해져.}

10603 @ 예. {예.}

10603 # 거으다가 이제 차꼬 감:켜 돌려감서러. 그: {거기다가 이제 자꾸 감지, 돌려가면서. 그}

10603 # 요런마:나머는 저쪼만침 해:노코 요쪼만침 해:노코 또 머리다 해:노코 이쪼 인자 보미정짜로 해:서 고로코 다 해:서 인자 거미줄 놀러서 일:떼게 해:가. {이런 만큼 하면은 저쪽만큼 해 놓고 이쪽만큼 해 놓고 또 머리에다 해 놓고 이쪽 이제\*\*\*자로 해서 그렇게 다 해서 이제 고무줄 놀러서 이을 때에 해 가.}

10603 # 궁게 마라미 무걱끄등 집 서:무썩 여꺼야 한 장이여. {그러니까 이엇이 무겁거든. 짚 서 못썩 엮어야 한 장이야.}

10603 @ 예. {예.}

10603 # 궁게 그노물 인자 노부더서 인자 또 영글 때 쌍: 영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놓 얻어서 이제 또 엮을 때 싹 엮지.}

10603 @ 예. {예.}

10603 # 사드레 우:로. {사다리 위로}

10603 @ 근데 인제 엮:는 지분 지부로도 안 니고 머 다르게도 이:고 그레썬니까? {그런데 이제 엮는 집은 짚으로도 안 이고 뭐 달리도 이고 그랬습니까?}

10603 # 그거슨 인자 산중, 산중 가머는 그 몽글떼라고. {그것은 이제 산중, 산중 가면은 그 '몽글대'라고.}

10603 @ 아 몽글떼요 {아 '몽글대'요}

10603 # 산 푸리 몽글떼라고 요로코 고노물 비여서 여꺼서, 지비 읍:쓰니까 골로 여꺼서 이제. {산 풀이 '몽글대'라고 이렇게 그것을 베어서 엮어서, 짚이 없으니까 그것을 엮어서 이제}

10603 @ 몽글떼도 데: 중:뉴예요? {'몽글대'도 데 종류예요?}

10603 # 아니여 푸리여. {아니야. 풀이야.}

10603 @ 아 푸리예요? {아, 풀이예요?}

10603 # 음, 푸린다.{음, 풀인데}

10603 # 그 엔:나레는 그 그 뿌리 가지고 마라자문 파서 찢라서 술: {그 옛날에는 그 그 뿌리 가지고 말하자면 파서 잘라서 술}

10603 # 소:리 장시드리 소:를 멘드라서 베도 메고 엔나레는 거: 풀 썬서 미영베 가통건 날:라머는 그 술:로 베를 메고 그레켜. {술 장수들이 술을 만들어서 베도 메고, 옛날에는 그 풀 썬서 무명 같은 것은 낳으려면은 그 술로 베를 메고 그랬지.}

10603 @ 예. {예.}

10603 # 그 푸를 가꼬 이어썬. {그 풀을 가지고 이었어.}

10603 @ 아.{아}

10603 @ 그다으메 젤: 돈 인는 사라른 인제 지와로 이:고 고 다으른 지부로 이:고, {그 다음에 제일 돈 있는 사람은 이제 기와로 이고 그 다음은 짚으로 이고}

10603 # 아:면. {암.}

10603 @ 그도저도 모던 사:라른 인제 아까 그,{그도저도 못한 사람은 이제 아까 그}

10603 # 응, 응 그 몽글푹 비여서 이:제. {응, 응, 그 '몽글푹' 베어서 이지.}

10603 @ 몽글푹 비여 가꼬, 예. {'몽글푹' 베어 가지고, 예.}

10603 @ 아까 그, {아까 그}

10603 # 궁게 지벌 또 고로코만 이자네 집 다바를 요만:씨게 다:: 무꺼. {그러니까 짚을 또 그렇게만 이지 않고 짚 다발을 이만큼씩 하게 다 묶어.}

10603 # 고노물 무꺼감스려 줄: 다라서 착:착 지붕에다 쟁에. {그것을 묶어 가면서 줄 달아서 착착 지붕에다 쟁여.}

10603 @ 멀: 다라서 주를 다라서요? {뭘 달아서 줄을 달아서요?}

10603 # 아니 강: 비늘 다라서 요려고 차근차근 쟁인당게 지붕얼 뽕뽕 도라감서로. {아니. 그냥 가리 달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쟁인다니까 지붕을 뽕뽕 돌아가면서}

10603 # 그 일년 지네면 비찌라그로 씨:러뽕저. 거 사근노물. 그럼 그 이튼물란 덴:너는 안 지여 고러코 허머는. {그 일년 지내면 빗자루로 쓸어 버려, 그 삭은 것을. 그럼 그 이튼 \*\* 몇년은 안 지어, 그렇게 하면은.}

10603 @1 아. {아}

10603 @ 두껍게 해 \*\*\* {두껍게 해 \*\*\*}

10603 # 영: 두껍게 요려고 무꺼서 요러코 딱 췌:: 돌러 쟁이:기도 헤써. {응, 두껍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딱 뽕 돌러 쟁이기도 했어.}

10603 @ 아 넘 너무 두꺼우면 안무거울까요? 무거우면? {아, 너무 너무 두꺼우면 안 무거울까요? 무거우면}

10603 # 지비 한 시보년 한 이:십년 이어도 지번 안짜그라저. {집이 한 십오 년 한 이십년 이어도 집은 안 짜그라저.}

10603 메:년 마라미 한 오:십장씩 올라가면 검:나게 무건디 그 이드메 오:십짱 올라가도 암:시랑 안 헤. {매년 이영이 한 오십 장씩 올라가면 굉장히 무거운데 그 이듬해 오십 장 올라가도 아무렇지 않아.}

10603 @ 허허 그래요? {하하, 그래요?}

10603 # 응 {응}

10603 @ 아까 저 반 설명하셔찌마뇨, 인자 요 벼글 만들라면 아까 인제 머 데로 여꺼가꼬 주시페로 머? {아까 저 설명하셨지만요 이제 이 벼를 만들려면 아까 이제 뭐 대로 엮여가지고 수숫대로 뭐}

10603 # 궁게 영는디 사이에다가 부넵떼를 시:워. 마라자른 짜:구질 헤:가꼬 단다너게 쇠아 글 바거야 지 거그다 테:서 역제. {그러니까 엮는데 사이에다가 '부넵대'를 세워. 말하자면 자귀질 해가지고 단단하게 췌기를('쇠악'은 '췌기'의 방언형) 박아야 지 거기다 대서 엮지.}

10603 @ 예. {예.}

10603 # 요지임 데머는 세:게더가 드러가 막떼기가 세:게가. 그른 세:줄 여꺼야 데야. 금 테:서 땅 마쳐서. {이쭈 대면은 세 개 더가 들어가. 막대기가 세 개가. 그러면 세 줄 엮어야 돼. 금 대서 딱 맞춰서.}

10603 # 양:쪽 마쳐서 딱 데:가면 인자 흑 보루머는 베랑빠기 끈나제. {양쪽 맞춰서 딱 데가면 이제 흙 바르면은 바람벽이 끝나지.}

10603 @ 그러군뇨. {그렇군요.}

10603 @ 그다메 집 지스면 요 바다게 불 드려노케 헤:야 텔꺼 아십니까? 불 방 따드다게 혈라면. {그 다음에 집 지으면 이 바닥에 불 들어 놓게 해야 될 것 아십니까? 불 방 따듯하게 하려면.}

10603 # 궁게 인: 된: 사네서 정:으로 도:글 도:글 방짱 멘드는 도:기 이썸. {그러니까 이 뒷산에서 정으로 돌을 돌을 구들장('방짱'은 '구들장'의 방언형) 만드는 돌이 있어.}

10603 # 그 지리 요러코 졸조리 요러고요러고 도:기 지린는 디서 거그다 정: 데고 망치로 뚜루면 요 그냥 납작꾸름해가꼬 뽕:뽕뽕뽕 이리고 버리진 놈 이썸. {그 길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이렇게 돌이 길 있는 데서 거기다 정 데고 망치로 뚫으면 이 그냥 납작스름해가지고 반듯반듯 이렇게 벌어진 것 있어.}

10603 # 강: 요리코 생인 방떼기 도:기 나와. 거 방 항:카네 야달짜 빵 열:짜 빵이 항 카네. {그냥 요렇게 생긴 구들장이 돌이 나와. 그 방 한 칸에 여덟 자 방 열 자 방이 한 칸에.}

10603 # 야달짜 빵은 야달째 한:창 싸라미 질머져서 야달째 네립마는 딱 그방 놔. {여덟 자 방은 여덟 짐 한창 사람이 짊어져서 여덟 짐 내리면은 딱 그 방 놓아.}

10603 # 글고 열:짜빵은 더 마:니 네야허고 전:수 도:글 그러고 정:으로 빠게가지고 방을 놔. {그리고 열자 방은 더 많이 내야 하고, 전부 돌을 그렇게 정으로 뽕개가지고 방을 놔.}

10603 # 방열 논:는디 마라자거면 요고또 부:를 때:니까 그때는 기:뚜그로 해서 무무 냉가 리 나가야 형게. {방을 놓는데 말하자면 이것도 불을 때니까 그때는 굴뚝으로 해서 무무 연기가 나가야 하니까.}

10603 # 이: 부리 처 아르모게서 저가 저가 정게다라거 부억 부어기 이따거머는 요조시로 요리코 올라와가꼬 여그가 여그를 허리다게 파 조루리니. {이 불이 처 아랫목에서 저기에 저기에 부억 부억 부억이 있다 하면은 이 상태로('조시'는 '알맞은 상태'나 '정도'를 뜻하는 일본말)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여기를 허리 당게 파, 나란히.}

10603 # 파가지고 도:글 괴:또글 인자 방에다 싹: 까라 그래야 방짜글 거그다 이로코 인자 게:또그다 딱땅 마쳐 나오제. {파가지고 돌을 핏돌을 이제 방에다 싹 깔아. 그래야 구들장을 거기다 이렇게 이제 핏돌에다 딱딱 맞춰 나오지.}

10603 @ 예예. {예, 예.}

10603 # 그러문 인자 여그를 어째 지피 파냐 허면 저그서 불때면 부를 자부탱에 마라자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째 깊게 파느냐 하면 저기서 불 때면 불을 잡아당겨, 말하자면.}

10603 # 그래서 인자 기:뚜그로 인자 일루 꼬테리다 기:뚜글 무제. 바까트로 빼:서. {그래서 이제 굴뚝으로 이제 이리로 꼬트머리에다 굴뚝을 묻지, 밖으로 빼서.}

10603 @ 아 그먼 안쫂기 더 지푸게 팍니까? {아, 그러면 안쪽이 더 깊게 팍니까?}

10603 # 응, 아:면 여그서 여그 지푸게 파 ??? ? ? ? ? ? {응, 암. 여기서 여기 깊게 파. \*\*\*}

10603 @ ??? 허리가 {\*\*\* 허리가.}

10603 # 아:면. 그리고 큰방은 가운데다 한나 더 파고. {암. 그리고 큰방은 가운데에다 하나 더 파고.}

10603 # 광:가 더 도시 인제 아리목 직 직꼬 요리 올라올쭈락 녀:께 요르코 각찌게 헤: 올라와 그레가꼬 강 요 찌:리는 그거보고 고레 판다고 그러는디 고레를 싹: 파. {파는가 더 돈

이제 아랫목 짓 짓고 이제 올라올수록 넓게 이렇게 가파르게(' 각지다'는 '가파르다'의 뜻) 해서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저리는 그것보고 방고래 판다고 그러는데 방고래를 싹 파.}

10603 @ 고래는 그 부리 가는 길이? {방고래는 그 불이 가는 길이?}

10603 # 아 응 그 그그 그 냉갈 나가는 그 기리 그거뽕고 고래라고 그래. {아, 응,그 그그 그 연기('냉갈'은 '연기'의 방언형. 특히 매운 연기를 가리킨다.) 나가는 그 길이 그것 보고 방고래라고 그래.}

10603 # 일리리 그거 다 파서 독: 강 요만 뽕뽕뽕 그: 쪽뜨락헌 놈 가따가 노아 놔:서 {일일이 그것 다 파서 돌 그냥 이만 반듯반듯한 그 길쪽한('쪽뜨락허다'는 '기다랗다'의 뜻) 것 가져다가 놔. 놔서}

10603 @ 고래 바다게다가요? {고래 바닥에다가요?}

10603 # 응응, 그리야 거 그 방짱 요런노를 가따 영:제. {응,응, 그래야 그 구들장 이런 것을 가져다 없지.}

10603 # 영거가꼬 인자 주멍만씩 헌 인자 쉼약 바거 인자. 세:세이 그레가꼬 인자 흐그로 불라 부르고. 지그른 세머느로 헌디 엔:나레는 흐그로 다 불라썬 고거또. {없어가지고 이제 주멍만큼씩 한 이제 썬기 박아 이제. 사이사이 그래가지고 이제 흙으로 발라 버리고. 지금은 시멘트로 하는데 옛날에는 흙으로 다 발랐어, 그것도.}

10603 @ 그러조이~. 음. {그러지요. 음.}

10603 @ 이게 머시 냉갈 안 아놀라 오게 잘: 발라야 하조. {이거 뭐가 연기, 안 안 올라 오게 잘 발라야 하지요.}

10603 # 응 {응.}

10603 # 궁게 초벌 불라가꼬 부를 떼문 마리머는 요러코 그미 막 버:러져. 그노문 인자 그 아까 보리 껌:껌 보리꺼시락 고거슬 항:시 엔:나레는 보리 치머는 고거슬 모타놔. {그러니까 초벌 발라가지고 불을 때면 마르면은 이렇게 금이 막 벌어져. 그것은 이제 그 아까 보릿대 보리 까끄라기 그것을 항시 옛날에는 보리 치면은 그것을 모아 놔.}

10603 # 그레가지고 가 강 가멩이에다 다머놔따가 골 제:사 그거뽕고 제:사라게. {그래가지고 가 그냥 가마니에다 담아 났다가 골 재사 그것보고 재사라고 해.}

10603 @ 아. {아.}

10603 # 또 열멩이로 쳐. 처가꼬 그 보리 꺼시라글 그 거그다 서꺼서 이 버:러진 디다가 싹:: 제:사지를 헌 그거뽕고 제:사지런다고 그래. {또 어레미로 쳐. 처가지고 그 보리 까끄라기를 그 거기다 섞어서 이 벌어진 데다가 싹 재사질을 한 그것보다 재사질 한다고 그래.}

10603 @ 예예. {예.}

10603 # 그 제:사질 허먼 안 버러져 불 아:무리 떼도. {그 재사질 하면은 안 벌어져. 불 아 무리 떼도.}

10603 @ 아하 아 거기다 보리 꺼시라글 너코 그렌네요. {아하, 거기다 보리 까끄라기를 넣고 그랬네요.}

10603 # 응. 아:문먼. 그거뽕고 보리뵈:껌라고 그렌는다. {응, 아무럼. 그것보고 보리 '뵈껌'라고 그랬는데.}

10603 @ 보리 먼:껌요? {보리 무슨 껌요?}

10603 1 보리 뵈:껌 {보리 '뵈껌'.}

10603 @ 보리 데껌? {보리 데껌?}

10603 # 잉. 그거슬 꼭 엔:나레는 다 지버너. 흥 니길때. {응, 그것을 꼭 옛날에는 다 집어 넣어. 흠 이길 때.}

10603 @ 네. {네.}

10603 # 그리고 인자 백찌로 보리제. 엔:나레 인는 사람 고리고 백찌로 보리고 장판 인자 엔:나레 장판 인자 들께 지름짜서 거 범:뉴 메제. 거그다가 닥 백찌를 막 불라가꼬 {그리고 이제 벽지로 바르지. 옛날에 있는 사람 그렇게 벽지로 바르고 장판 이제 옛날에 장판 이제 들께 기름 짜서 범유 매지. 거기다가 닥 벽지를 막 발라가지고}

10603 # 범:뉴 메기머는 빨그작작 헤:저. 그먼 차:꼬 또 보리고 한 여나무번 보루면 장판이 된당게. 백찌 인자 창호지 가치 인자 존:놈 엔:날 전지 불라가꼬. {범유 먹이면은 불그죽죽 헤져. 그러면 자꾸 또 바르고 한 여남은 번 바르면 장판이 된다니까. 벽지 이제 창호지같이 이제 좋은 것 옛날 전지 발라가지고.}

10603 @ 그 다:으메 요 요 말캉은 어떠케 노썸니까? {그 다음에 이 이 마루는 어떻게 놓 습니까?}

10603 # 말캉은 지둥 나무에다가 구멍 파가꼬 거그다가 사:게 마치 그거또. {마루는 기둥 나무에다가 구멍 파가지고 거기다가 사게 맞춰, 그것도.}

10603 # 인자 말캉은 지테:녕거시 가에가 한나 이꼬 가운데가 한나 이꼬. {이제 마루는 기다란('지텐허다'는 '기다랗다'의 방언형) 것이 가에 하나 있고 가운데에 하나 있고.}

10603 @ 어. {어.}

10603 # 요쪽 안:쪼그로 한나가 이꼬 세:게가 드러가. 세:게가 엉 그레가꼬 흠:폐기를 조루 루이 다 파, 양:쪼글. {이쪽 안쪽으로 하나가 있고, 세 개가 들어가. 세 개가 응 그레가지고 흠파기를 나란히 다 파, 양쪽을.}

10603 # 그 여 지:데능거 놀람서 파서 고놈 마쳐서 판자를 다: 짤라서 대패를 위게서 인자가면성 소:게다 느:코 때레. 때레서 탁 마쳐. {그 이 기다란 것 넣으려면서 파서 그것 맞춰서 판자를 다 잘라서. 대패를 위에서 이제 가면서 속에다 넣고 때려. 때려서 딱 맞춰.}

10603 # 응 그거시 인자 말:레릴 고리고 놔. {응, 그것이 이제 마루를 그렇게 놔.}

10603 # 이거 우게는 중천 인자 중천 지그 저 중천 아:면 중쳐늘 허제. {이것 위에는 반자('중천'은 반자의 방언형) 이제 반자 지금 저 반자 아무럼 반자를 하지.}

10603 @ 중천 어터케 험니까? {반자 어떻게 합니까?}

10603 # 중천 인자 서끄레다가 막때기 데:고 머쪼 헤:가지고 고노메다가 마쳐서 요로코 인자 막때기 데:고 머쪼 헤:가지고 그거뽕고 중천: {반자 이제 서까래에다가 막대기 대고 못질 해가지고 그것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이제 막대기 대고 못질 해가지고 그것보고 반자.}

10603 # 그거또 음 음:는 사라문 엔:나레는 서끌 다 이려고 누어서 보문 서끌 다 비:데게 허고 사라썸. {그것도 없 없는 사람은 옛날에는 서까래 다 이렇게 누워서 보면 서까래 다 보이듯이 그렇게 하고 살았어.}

10603 @ 중천 업:썸 사라요? {반자 없이 살아요?}

10603 # 응, 사라썸. 인는 사라미 고거또 헤:썸. {응, 살았어. 있는 사람이 그것도 했어.}

10603 @ 아 {아.}

10603 # 음 하 {음. 하.}

10603 @ 그러쿠나. {그렇구나.}

10603 # 음 (웃음) 그마치 차이가 나게 사라썸. {음. (웃음) 그만큼 차이가 나게 살았어.}

10603 @ 근데 중천 이쓰면 쥐가 마:니 살자나요 쥐가. {그런데 반자 있으면 쥐가 많이 살



잖아요. 쥐가.}

10603 # 쥐는 엽:씨제. 궁께 서꿀 빌:떼는 {쥐는 없었지. 그러니까 서까래 보일 때는.}

10603 @ 어 인자 서꿀 엽쓰믄. {어 이제 서까래 없으면.}

10603 # 쥐는 으으 인자 요러코 해노믄 이 시 세면찌비라 쥐가 엽:쫘게 그러제 엔:나레는 강 쥐가 강 득:뚝 뚝뚝 막 강 허고 {쥐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시 시멘트 집이라 쥐가 없으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그냥 쥐가 그냥 뚝뚝 뚝뚝 막 그냥 하고.}

10603 @ 그러니까 중천 중천 이쓰면. {그러니까 반자 반자 있으면.}

10603 # 응 응 {응, 응.}

10603 # 그래도 굴:근 지븐 부:자찌븐 다 여 해:씨 엔:날찢또 {그래도 굶은 집은 부잣집은 다 이 했어, 옛날집도.}

10603 @ 아 아 그러조. {아, 아, 그러지요.}

10603 @ 중처는 그러면 요 요 널:븐 판자가 이씨야 텔꺼인디 지그믄 머 베니야 판자로도 하고 그러지만 엔:나레는 머:스로 해땀니까? {반자는 그러면 이 이 넓은 판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뭐 베니어 판자로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뭘로 했답니까?}

10603 # 종이로, {종이로}

10603 @ 그냥 바다글 종이로만? {그냥 바닥을 종이로만?}

10603 # 중우로 저:: 백찌로 여그따 가머서 주레다가 철싸를 처가지고 철싸에다 풀 메게서 백찌 한조글 가머. {종이로 저 벽지로 여기다가 감아서 줄에다가 철사를 처가지고 철사에다가 풀 먹여서 벽지 한 조각을 감아.}

10603 # 가머서 요쪼기 치다가 또 조쪼 가:슬 가머. 그럼 팽:팽 해저. {감아서 이쪽을 치다가 또 저쪽 가를 감아. 그러면 팽팽해저.}

10603 # 고러코 해서 인자 한줄 요러코 해서 볼 마리머는 또 그 세이에다가 해:서 볼루고 네:중에는 인자 요러코 뽕 번버니 다 불라지제. 함빠네는 모:딩게. 엔:나레 고러케 해:씨.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줄 이렇게 해서 마르면은 또 그 사이에다가 해서 바르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뽕 반반하게 다 발라지지. 한 번에는 못 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어.}

10603 # 나:무로 허다가 철싸로 허다가 중처늘 고러고 해씨. {나무로 하다가 철사로 하다가 반자를 그렇게 했어}

10603 @ 그 다음에 그 무느뇨? 지금 요령거슨 저 서양식 무니지만 엔:나레는 {그 다음에 그 문은요? 지금 이런 것은 저 서양식 문이지만 옛날에는}

10603 # 엔:나레는 무니 문도 여러가지제 {옛날에는 문이 문도 여러가지지.}

10603 # 데살창문 인자 이 니:구녕 텅인건 뽕드르르 마:자믄 사진가꾸물로 멘드라. {데살창문 이제 이 네 구멍 생긴 것 \*\*\* 말하자면 사진 액자처럼('가꾸'는 '액자'의 일본말)(‘물로’는 ‘처럼’의 방언형) 만들어.}

10603 @ 예. {예.}

10603 # 그레가꼬 데를 쪼게가지고 이러고 떠:. 요러코요러코 요 떠서 여그다 이자 여그를 구머글 그 쪼길떠를 다: 파. 헨 도라감서 문 거 거시기를. {그레가지고 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떠. 이렇게 이렇게 이 떠서 여기다 이제 여기를 구멍을 그 끼울('쪼기다'는 '끼우다'의 방언형) 데를 다 파. 뽕 둘러가면서 문 거 거시기를.}

10603 # 그레가꼬 그거슬 쪼기고 인자 중우 바리면 문 데야. {그레가지고 그것을 끼우고 이제 종이 바르면 문 돼.}

10603 # 그 돌 인자 돌쭈구 사다가 쉼:로 멘든 걸 돌쭈구 사다가 바거가꼬 고러코 데살짱

문 그거뽕고 데살창무닌디 그지꺼리럴 마:니 헤:써. {그 돌 이제 뽕꺼귀 사다가 쇠로 만든  
 것 뽕꺼귀 사다가 박아가지고 그렇게 데살창문 그것보고 데살창문인데 그 짓을 많이 했어.}

10603 # 또 데로 이 바닥 깔고 사는 장판 죽석 죽석글 또 멘드라서 깔:고 {또 데로 이 바  
 닥 깔고 사는 장판 죽석 죽석을 또 만들어서 깔고.}

10603 @ 에 바다근. {예, 바닥은.}

10603 # 죽석글 저러. 저러가지고 그 치마양으로 고러고 마라자면 저러. 이 방 마쳐서 저:  
 러가지고 그거뽕고 죽석 장판이라고 그러제. 죽석. {죽석을 걸어. 걸어가지고 그 키마냥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걸어. 이 방 맞춰서 걸어가지고 그것보고 죽석 장판이라고 그러지. 죽석}

10603 @ 그니깐 엔:나레는 지금처럼 비니루도 업써쓸 꺼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  
 럼 비닐도 없었을 것이고.}

10603 # 응::, 읍:써. {응, 아, 없어}

10603 @ 이 조 종이장판 깔:면 제일 조은데 {이 조 종이 장판 깔면 제일 좋은데.}

10603 # 응 근디 그거또 읍:꼬 응 {응, 그런데 그것도 없고 응}

10603 @ 종지도 업는 사람 이써찌안씀니까? {종지도 없는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10603 # 죽석도 더러 장판헌디 부자찌비라사 다 헤써 {죽석도 더러 장판 하는데 부자집이  
 라야 다 했어.}

10603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603 # 죽석그로 장판하는:: 디. {죽석으로 장판하는데}

10603 @ 그럼 아주 업는 사라문 바닥또 업:써 사라써요? {그럼 아주 없는 사람은 바닥도  
 없이 살았어요?}

10603 # 아이 자리. 양:골로 자리. {아니. 자리 왕골로 자리.}

10603 @ 자리 깔고요. {자리 깔고요.}

10603 # 자리:도 양:골 자리가 통 놉 부:자집 싸람드른 통자리를 통노드로 양:고를 통노느  
 로 짚:노드로 깔고 {자리도 왕골 자리가 통 것 부자집 사람들은 통자리를 통으로 왕골을 통  
 으로 짚 것으로 깔고.}

10603 # 고노물 일:리리 다: 제게서 짚: 노드로 마라자면 모시::이로 끈:넌 헤:서 인자 가멧  
 이 짜테끼 나라가지고 인자 자리를 짜:서 그 자리를 깔고 사라써. {그것을 일일이 다 쪼개  
 서 짚 것으로 말하자면 모시로 끈을 해서 이제 가마니 짜듯이 날아가지고 이제 자리를 짜서  
 그 자리를 깔고 살았어.}

10603 @ 업 업:는 사람드른 거칠게 그냥 자리 깔:고 자구요. 그래꾸마뇨. 예, 무니 인제 데  
 살창무니 이써꾸뇨. {없 없는 사람들은 거칠게 그냥 자리 깔고 자고요? 그랬구먼요. 예 문  
 이 이제 데살창문이 있었군요.}

10603 # 데살창은 인자 문:니 시:살창 무늘 인자 목쭈가 인자 멘들고 시:살창 무니라 헌디  
 {데살창은 이제 문이 세살창 문을 이제 목수가 이제 만들고 세살창문이라 하는데}

10603 @ 데살창하고 시:살창하고 다릅니까? {데살창하고 세살창하고 다릅니까?}

10603 # 응 다르제. {응, 다르지.}

10603 # 고거슨 줄:주리 요 요리코요리코 싹: 드러가거께 멘드라서 짜 가서 악꾸 짜서 느:  
 느:서 멘들고 그 종우마 가꼬 드러가문 텅께 목쭈가 싹:허고. {그것은 줄줄이 이 이렇게 이  
 렇게 싹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짜 가서 틀 ('악꾸'는 '틀'의 일본말) 짜서 넣 넣어서 만들고  
 그 종이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목수가 싹 하고.}

10603 @ 아:. {아.}

10603 @ 데살창은 자기가 직접 데를 짜서 헹거시고 응 {데살창은 자기가 직접 데를 짜서 하는 것이고, 응}

10603 # 응 아:면. {응, 아무렴.}

10603 @ 지붕 일:때는 아까 지비라고 그렌는데 집 에 아까 마란 집또 이:꼬 아까 그 다음에 무슨 몽골때도 이:꼬 {지붕 일 때는 아까 짚이라고 그랬는데 짚 에 아까 말한 짚도 있고 아까 그 다음에 무슨 '몽골대'로도 이고}

10603 # 응, 몽골때로 짐 몬:닝거 한 산중. {응, '몽골대'로 짚 못 인 것 한 산중}

10603 # 산줄 논도 읍:꼬 반:만 버러먹꼬 사:는디가 산중이여, 엔:나레. 엔:나레 길령:이라고 거그 순 글로 짐 니고 사라쎌. {산중 논도 없고 밭만 부쳐 먹고 사는 데가 산중이야, 옛날에. 옛날에 길룡리라고 거기 순 그것으로 짚 이고 살았어.}

10603 # 몽골때로, 그레가꼬 거그서도 인자 돈 벌:머는 들:려게 나와서 집 사다가 그때는 소도 소 구루마로 시러 실코가서 마람 여꺼서 인: 사람 이:고. {'몽골대'로, 그레가지고 거그서도 이제 돈 벌면은 들녘에 나와서 짚 사다가 그때는 소도 소달구지로 실어 싣고 가서 이영 엮어서 이는 사람 이고.}

10603 # 궁계 메::년 이:기만해. 그 비여다가. 궁계 안세 비 와도. {그러니까 매년 이기만해, 그 베어다가. 그러니까 안 새. 비 와도.}

10603 @ 아. {아.}

10603 @ 그다메 도:닌는 사라몬 저기로 집 이제 집 말:고 머:로 이:썸니까? 도:닌는 사라몬?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은 저기로 짚 이제 짚 말고 뭘로 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10603 # 마람 여꺼서 {이영 엮어서}

10603 @ 마람 여꼬. {이영 엮고}

10603 # 음 지금 난 농사 직꼬 지부로 고놈 마람 다 여꺼서 {음, 지금 난 농사 짓고 짚으로 그것 이영 다 엮어서}

10603 @ 예. {예.}

10603 # 사네끼 꼬와서 어: 사네끼 또 지붕쌀 쫄째. 지스랙 쫄미는 사네끼 가늘게 쫄록쫄록 쫄:쎌. 여러가지로 꼬와. 또 용마람 사네끼 꼬와야제. (웃음) {새끼 꼬아서 어 새끼 또 '지붕쌀' 꼬지('쫄다'는 '꼬다'의 방언형). 기스락 잡아매는 새끼 가늘고 단단하게('쫄록쫄록'은 새끼를 단단히 꼬는 모양을 가리킨다) 꼬지. 여러 가지로 꼬아. 또 용마름 새끼 꼬아야지 (웃음).}

10603 @ 아 {아.}

10603 @ 사네끼도 종:뉴가 국:끼에 따라서 {새끼도 종류가 굵기에 따라서}

10603 # 아:면. 응 집한채 이:른 세:가지 집 그거 드러가 {암. 응 집 한 채 이는데 세 가지 짚 그것 들어가.}

10603 @ 사네끼가요? {새끼가요?}

10603 #1 사네끼가. {새끼가.}

10603 @ 그러몬 예 지와 가통 거슨 이여 보셔쎌요? 지와? {그러면 예 기와 같은 것은 이여 보셨어요? 기와?}

10603 # 지와는 인자 열메 안데야제 인:제가 {기와는 이제 얼마 안 되었지, 인 지가.}

10603 # 지와털 츠:메 정부에서 인자 영:농조하베다가 멘드라서 포:천 그때는 영광굴레 포:천 가서 조하비 이쎌쎌. 군:남. {기와를 처음에 정부에서 이제 영농조합에다가 만들어서 포천 그때는 영농 군내 포천 가서 조합이 있었어. 군남.}

10603 @ 예. {예.}

10603 # 거그서 인자 기와 한장에 세멘 함 포데 한 오:십짱이나 육십짱 빼무는 존:디 {거기서 이제 기와 한 장에 시멘트 한 포대 한 오십 장이나 육십 장 빼면은 좋은데.}

10603 # 한 백짱이나 빼가꼬 고노를 정부 인자 새마을 사업 험다고 쥘:써꺼든 정부에서 {한 백 장이나 빼가지고 그것을 정부 이제 새마을 사업한다고 줬었거든, 정부에서?}

10603 #1 글로 싱게 세메니 메테 양가서 기양 퍼실퍼실버실\*\*\*허니 지비 안조아 {그것으로 쓰니까 시멘트가 며칠 안 가서 그냥 바슬바슬바슬하게 집이 안 좋아.}

10603 #1 궁게 인자 목재 누:가 건저다가 목재 마:네서 건저다가 세며느로 세면 함 포에 오:십짱 네지 오:십오:짱 고로고 뽀바. {그러니까 이제 목재 누:가 건저다가 목재 많아서 건저다가 시멘트로 시멘트 한 포에 오십 장 내지 오십오 장 그렇게 뽀아.}

10603 @ 예. {예.}

10603 # 그 지와 찡는 가다가 이썸. 그놈 찌거가지고 지블 다 이여썸. 요 건네랑 다 그로코 그코 형 거시여. 기술짜만 데려다가 잉:거시여 고시 찌거서. {그 기와 찌는 거꾸집이('가다'는 '거꾸집'의 일본말) 있어. 그것 찌어가지고 집을 다 이었어. 이 건네랑 다 그렇게 그렇게 한 것이야. 기술자만 데려다가 집 인 것이야. 그것 찌어서.}

10603 @ 고거는 상당히 최:근 드러와서 ????? {그것은 상당히 최근 들어와서 \*\*\*\*\*?}

10603 # 응 최:근 드러서. {응, 최근 들어와서.}

10603 @ 예. {예.}

10605 @ 그 다:으메 요 집또 그 크기에 따라서 이르미 쯤 다르고 그러네요. 집또 큰 지비 이꼬 자:근 지비 이꼬 머 {그 다음에 이 집도 그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쯤 다르고 그러네요. 집또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뭐}

10605 # 궁게 그거시 삼칸 세:짜 막 삼칸 네:짜 요 네: 사:칸 네:줄배기이며는 요:리해서 여그서 바도 네:칸 저쪽그로 가서 네:칸 그걸 사:칸 네네 네:줄배기라고 그러제 {그러니까 그것이 삼 칸 세 짜 막 삼 칸 네 짜 이 네 사 칸 '네줄배기'면은 이리해서 여기서 봐도 네 칸 저쪽으로 가서 네 칸 그걸 사 칸 네 네 '네줄배기'라고 그러지.}

10605 @ 그러면 인제 이론 간도 업:씨 방 한나 그냥 {그러면 이제 이런 칸도 없이 방 하나 그냥}

10605 # 아:니요. 방이 여러게제세에서 사:칸 네:줄배기년 {아니요. 방이 여러 개 \*\*\*\* 사 칸 '네줄배기'는}

10605 @ 예 그니까요. 근데 그거시 아니고 쪼끄만 방 한나 정제 한나 인는 지븐 먼:지비라 그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조그만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집은 무슨 집이라고 그럼니까?}

10605 # 그거슨 토담찌비라 그레 토담찢. 엔:나레는 압꼬 짜:가지고 호그로 이로코 다과가지고 거그다 서끌 영꼬 지블 지서썸. {그것은 토담집이라 그레, 토담집. 옛날에는 틀 짜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다져가지고 거기다 서까래 얹고 집을 지었어.}

10605 @ 아. {아.}

10605 # 그거보고 토담찌비라 그레. 그 방 향칸 정제 향칸 그거는 크게도 모:데. {그것보고 토담집이라고 그레. 그 방 한 칸 부엌('정제'는 '부엌'의 방언형) 한 칸 그것은 크게도 못해.}

10605 @ 아하 토담찢 음. {아, 토담집. 음.}

10605 # 고거또 인자 중가네 인자 발말해:가꼬 항:툭 이게서 벅똥 멘드라서 짜:가지고 이

자 또 이어 지서쨌, 지벌. {그것도 이제 중간에 이제 발달해가지고 황토 이겨서 벽돌 만들  
어서 쌓아가지고 이제 또 이어서 지었지. 집을.}

10605 @ 고로면 엔:날 벽돌 아:닐때는 어터케 임:니까 그러면? {그러면 옛날 벽돌 안 할  
때는 어떻게 입니까, 그러면?}

10605 # 흑따르, 토담찌비랑께 그거시. {흙담, 토담집이라니까 그것이.}

10605 @ 아 흐글. {아, 흙을}

10605 # 요 압꾸 짜:가지고 거으다 흑 느:코 다과. 쇠때~이 되게 다과가꼬 거 거 지블 지  
지서쨌. {이 틀 짜가지고 거기다 흙 넣고 다져. 췌덩이 되게 다져가지고 그 그 집을 지 지  
었어.}

10605 # 그거 뽀고 토담 {그것보고 토담.}

10605 @ 그거시 벼기 되야부러요? {그것이 벽이 되어 버려요?}

10605 # 아:면 벽 베랑빠 되야. {암. 벽 바람벽이 돼.}

10605 @ 베랑빠기 되야부러요? 오:. {바람벽이 되어 버려요? 오.}

10605 # 그레아꼬 집 찌여. {그레가지고 집 지어.}

10605 @ 음 {음.}

10605 # 여그서 한: 요 우:게 찌비 시방 인는디 정부에 뜨더 부러쨌. 뽀 지브로 이쨌게 그  
거이 토담찌비 이쨌는디 {이것은 한 이 위에 집이 시방 있는데 정부에 뜯어 버렸어. 빈 집  
으로 있으니까. 그것이 토담집이 있었는데.}

10605 @ 토담찌비 {토담집이.}

10605 @ 고거는 그냥 {그것은 그냥}

10605 # 그로고 인자 그후로는 독:땀.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돌담.}

10605 @ 아. {아.}

10605 # 여그저 깔막 오름서 머야 단:장 싸따고? 그거이 우리가 다 상 거신디 거놈 인자  
단:장 싸가지고 또 집 찌서. {여기 저 가풀막('깔막'은 '가풀막'의 방언형) 오르면서 뭐야 담  
쌓았잖아? 그것이 우리가 다 산 것인데 그것 이제 담 쌓아가지고 또 집 지어.}

10605 @ 아. {아.}

10605 @ 고거시 독 독 싸 도:그로이~? {그것이 돌 돌 쌓아, 돌로.}

10605 # 음 도:그로 {음, 돌로.}

10605 @ 독:땀 이꼬 어떤 경우는 도:글 아:니고 나:무 막 요리코요리케 싸은 거또 이짜나  
요? 도:글 안 싸고 나:무 주서다가 그냥 데:충 요로케 {돌담 있고 어떤 경우는 돌을 아니고  
나무 막 이렇게 이렇게 쌓은 것도 있잖아요? 돌을 안 쌓고 나무 주어다가 그냥 대충 이러  
게.}

10605 # 엔:나레도 조 조:은 제:실 가튼디는 목제라고 {옛날에도 조 좋은 제실 같은 곳은  
목제라고}

10605 @ 목제말고 그냥 그냥 나:무 비여다가 데:충 \*\*\* 그러케 쭈시떼나 이롱거스로 데:충  
{목제 말고 그냥 그냥 나무 베어다가 대충 \*\*\*\*\*그렇게 수숫대나 이런 것으로 대충}

10605 # (웃음) 거시기 그거뽀고 이름 무시락 허나 우리도 그거슬 {(웃음) 거시기 그것보  
고 이름 뭐라고 하나 우리도 그것을}

10605 # 맹산서 네가 살:다가 요:리 와끄든? 거 저 잔등에다가 네가 고려코 지블 직꼬 사  
라쨌 {맹산서 내가 살다가 이리 왔거든? 요 저 고개에다가 내가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

10605 @ 아. {아.}

10605 # 작쌀 매가지고. 요러코 작싸를 요러코 둘라감서로 나:무를 요로코해가꼬 요:리 모  
 뻥고 요:리 모뻥고 허먼 요거시 요러코 돼야. 요러코 도라감스로. {나무토막('작살'은 '나무  
 토막'의 뜻) 매가지고. 이렇게 나무토막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못 박고 이리 못 박고 하면 이것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돌려가면서.}

10605 # 거그다가 인자 남 쭈:시떼고 무:시고 기양 흰:둘러서 쟁에가꼬 모:조떼고 무:시고  
 쟁에가꼬 허먼 인자 암:만 여 문 여러가꼬 거그서도 살:고 그래쎄. {거기다가 이제 남 수숫  
 대건 뒤편 그냥 뽕 둘러서 쟁여가지고 매춧대건('모조'는 '메조'의 방언형) 뒤편 쟁여가지고  
 하면 이제 아무리 이 문 열여가지고 거기서도 살고 그랬어.}

10605 @ 아 그래쎄요? 음 {아, 그랬어요? 음}

10605 # 그거뽕고 작쌀 작쌀찌비라고 그래 {그것보고 '작살' '작살집'이라고 그래.}

10605 @ 작살집. {'작살집'}

10605 # 작쌀 베:가꼬 {나무토막으로 매가지고}

10605 @ 작싸를 나무를 이르게 {'작살'은 나무를 이렇게}

10605 # 응 작싸를 매:능거뽕고 나:무 나:무를 요로코 멘등게. {응, '작살'을 매는 것보고  
 나무 나무를 이렇게 만든 것.}

10605 @ 나무로 서로 기 기:테게 만드려요 {나무로 서로 기 기대게 만들어요.}

10605 # 응 기:테게. {응, 기대게.}

10605 @ 사네서 나:무 해:가지고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10605 # 응 나:무 진:놈 비여어다가 고거또 지그른 물:까따 바그먼 헐꺼신디 사네끼로 여  
 껴서 우게 {응, 나무 긴 것 베어다가 그것도 지금은 못 가져다 박으면 할 것인데 새끼로 엮  
 어서 위에.}

10605 @ 나무로 서로 {나무로 서로}

10605 # 응 딱 요러코 여껴서 요러코 멘드라 {응, 딱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10605 @ 우:게만 딱 무꺼부러 {위만 딱 묶어 버려.}

10605 # 아:먼 {아무럼.}

10605 # 그어 인자 미테는 강:가니 뜨제 사네키로. 요리조리 목까게. 고러코 헤쎄 {그거 이  
 제 밑은 간간히 뜨지 새끼로. 이리저리 못 가게. 그렇게 했어.}

10605 @ 고거시 다미 돼요? {그것이 담이 돼요?}

10605 # 응 (웃음) {응. (웃음)}

10605 # 그거이 그때 그 그지비 제:일 부리 마니 나쎄. {그것이 그때 그 그 집이 제일 불  
 이 많이 났어.}

10605 @ 아 부리, 그러쿠뇨 {아, 불이 그렇군요.}

10605 # 부란번 건저 덩거딱 허머는 모:꺼쎄게 그지븐별. 그부리 제:일 마니 나쎄. {불 한  
 번 건저 붙었다고('덩그다'는 '불이 붙다'의 뜻) 하면은 못 켜으니까 그 집은. 그 불이 제일  
 많이 났어.}

10605 @ 영: {영.}

10605 # 글고 엔:나레는 호박까통거슬 박 까통거 다 거그다 영:끄든. 송거 그미테따 송구  
 먼 그거이 올라가서 타고가서 영:꼬 요런 집또 지붕에다가 호:박 바기 마:니 여러쎄. 송구니  
 까. {그리고 옛날에는 호박 같은 것을 박 같은 것 다 거기다 얹거든. 심어. 그 밑에다 심으  
 면 그것이 올라가서 타고 가서 얹고 이런 집도 지붕에다가 호박 박이 많이 열었어. 심으니  
 까.}

10605 @ 예. {예.}

10605 # 지그밍게 안 안 승거부링게 그러제. {지금이니까 안 안 심어 버리니까 그러지.}

10605 @ 그러면 인제 머 또 우 울 울타리란 거또 이짜나요 울타리 {그러면 이제 뭐 또 우 울 울타리란 것도 있잖아요, 울타리.}

10605 # 엔:나레는 솔라무 아:치를 솔라무 우게 그 가:지를 전:수 비여다가 까껴서 그 착 강:가니 말뚜글 바거, 그 우타리릴. {옛날에는 소나무 가지('아치'는 소나무 가지를 뜻함)를 소나무 위에 그 가지를 전부('전수'는 '전부'의 방언형) 베어다가 깎아서 그 착 간간히 말뚝 을 박아. 그 울타리를.}

10605 # 말뚜 빠거서 뽕장을 데. 뽕장을 고로 쪽: 데, 시:간데를. {말뚝 박아서 뽕장을('뽕 장'은 '띠장'의 방언형) 데. 뽕장을 그 쪽 데. 세 군데를.}

10605 # 그레가꼬 고노멸 그 솔라무 아:치를 이리코 푸서로 바거가꼬 {그레가지고 그것을 그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로 박아가지고.}

10605 @ 솔나무 아:치가 머:예요? {소나무 '아치'가 뭐예요?}

10605 # 솔까지 {솔가지.}

10605 @ 솔까지. {솔가지.}

10605 # 응. {응}

10605 # 고놈 여러코 요로코 생에썩게 그 바그머는 차근차근 노머는 게:속 바거가. {그것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박으면은 차근차근 놓으면은 계속 박아 가.}

10605 @ 예. {예.}

10605 # 그루고 또 바까티다가 또 데 비여다가 데:서 째며. 아네다가 멘드라는 노메다가 {그리고 또 밖에다가 또 데 베어다가 대서 잡아매. 안에다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10605 @ 예: {예.}

10605 # 고러코 후타리를 헤써. {그렇게 울타리를 했어.}

10605 @ 아. {아.}

10605 @ 솔라무 솔까지 비여다가 {소나무 솔가지 베어다가.}

10605 # 응 그리고 인자 단:장 마:넌 노른 지 검창 난노른 후파리 앙코 중가네는 밀:떼를 취여. 물쏘게다 당가따가. {응, 그리고 이제 담 많은것은 \*\* 난 것은 울타리 안 하고 중간에 는 밀대를 축여. 물 속에다 담갔다가.}

10605 # 고노무로 용마라를 트러. 용마람 트러서 골로도 이:고 {그것으로 용마름을 틀어. 용마름 틀어서 그것으로도 이고.}

10605 @ 예 그러치요. {예, 그러지요.}

10605 @ 이런 독:땀도 그 우게 마람 여끄 이:고 {이런 돌담도 그 위에 이영 엮어 이고}

10605 # 마:니 이:제. 마람 여껴서 그 서끌 고거또 서끌 거러 {많이 이제. 이영 엮어서 그 서까래 그것도 서까래 걸어.}

10605 # 다방다망 서끌 거러서 부녀떼꼬이 데:고 양쪼그로 요러코 헤:서 이:고 츠:메는 고 거또 마라프로 세:곱뽕 이:고 호구로만 누:를 조르르 받:는디 {드문드문('다방다망'은 '드문드 문'의 뜻) 서까래 걸어서 '부넛대'로 대고 양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고 처음에는 그것도 이 영으로 세 곱별 이고 흙으로만 \*를 줄줄이 놓았는데.}

10605 @ 예. {예.}

10605 # 인자 낭파네는 이:고도 또 용마람 트러서 쪽:: 덩꼬 그레써, 인자 거 중가네 {이제 나중에는('낭판'은 '나중'의 뜻) 이고도 또 용마름 틀어서 쪽 덮고 그랬어. 이제 그 중간에.}

10605 @ 고 웨: 저: 독:땀 우:게다가 그러케 저기를 해요? 마라를 여겨요? 보기 조우라고?  
 {그 왜 저 돌담 위에다가 그렇게 저기를 해요? 이영을 엮어요? 보기 좋으라고?}

10605 # 응 아:니여. {응, 아니야.}

10605 # 물 들면 단:장이 자빠져. 형게 그 이:머는 마람 여겨서 이:머는 뽕날 비와도 안 자빠져. {물 들면 담이 넘어져. 그러니까 그 이면은 이영 엮어서 이면은 뽕 날 비 와도 안 넘어져.}

10605 @ 아, 물 안드르라고 {아, 물 안 들도록.}

10605 # 응 물 안디리라고 허능 거시여. {응, 물 안 들도록 하는 거야.}

10605 @ 테:문도 지금 이러케 머 지그문 쇠로도 쇠문도 달:고 그레찌마는 엔:나레는 나:무로 달:고 안 그러면 그냥 머예요 나무까지로 해서 테:충 만들기도 하고? {대문도 지금 이렇게 뭐 지금은 쇠로도 쇠문도 달고 그랬지마는 옛날에는 나무로 달고 안 그러면 그냥 뭐예요 나뭇가지로 해서 대충 만들기도 하고?}

10605 # 엔:나레는 데나무 사르불 마:니 다라쎄. 사름:무니라고 헨디 그거뽕고 {옛날에는 대나무 사림을 많이 달았어. 사림문이라고 그것보고.}

10605 @ 사름무니라고 {사림문이라고}

10605 # 그거이 뽕든뽕든 나:무를 비여다가 문짱말로 거 썩, 니:모. 그러면 뽕:뽕허제 {그것이 반듯반듯 나무를 베어다가 문썩처럼 그 썩, 네모. 그러면 반듯하지.}

10605 # 거 중간중가네다가 여 가리짱을 너:가지고 데나무를 인자 썩놈 비여다가 요려고 떠. {그것 중간 중간에다가 이 가로장을 넣어가지고 대나무를 이제 썩 것 베어다가 이렇게 떠.}

10605 @ 오. {오.}

10605 # 요려고 마라자른 요러코 떠고 요러코 뜨고 고러케해서 그 사름무니 데사름무니 제:일 마:네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그렇게 해서 그 사림문이 대 사림문이 제일 많았어.}

10605 @ 에 데사름무니요? {예, 대사림문이에요?}

10605 # 응 제:일 마:네쎄. {응, 제일 많았어.}

10605 @ 그러쿠뇨 에 기영나네요, 데사름무니. {그렇군요. 예, 기억나네요, 대 사림문이.}

10605 # 응. {응.}

10608 @ 그 다른 어떤 지방에 가니까 사림문 사름문 고 거그를 가따 그 근처를 가따 세르파기라 한다등가 고린 마리 샅 머 그러케 불러썩니까?그 근:처::를? 세르파게 간다고. {그 다른 어떤 지방에 가니까 사림문 사림문 그 거기를 갖다 그 근처를 갖다 '세르팍'이라 한단가 그런 말이 샅 뭐 그렇게 불렀습니까? 그 근처를, '세르팍'에 간다고?}

10608 # 아 사람방. {아, 사랑방.}

10608 @ 사람방. {사랑방.}

10608 # 사람방 간다고 그러제 {사랑방 간다고 그러지.}

10608 @ 아 {아.}

10608 # 세르빠기 아니라 사람방 응 {'세르팍'이 아니라 사랑방. 응.}

10608 @ 사람방이라고 그럼니까? 사람방이 어:디 {사랑방이라고 그럼니까? 사랑방이 어디?}

10608 # 사람방이 부:제찌비 가:서 그 사람방이 이쎄. {사랑방이 부잣집에 가서 그 사랑방이 있어.}



10608 # 그먼 전:수 거가서 움:는 사람드리 엔:나레는 거 가서 자고 밥또 먹꼬 가고 그레  
써 그거뽕고 사람방. {그러면 전부 거기 가서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기 가서 자고 밥도  
먹고 가고 그랬어. 그것보고 사랑방.}

10608 @ 아 사람방이요? {아, 사랑방이요?}

10608 @ 그러치요. 그 다으메 인제 그 아까 데:문 제가 말씀 드런는데 그 인자 아까 그  
마당이 이꼬 마당에서 인자 쫘 올라오자나요 아까 그 돌 독 싸타 거따 신 머{그러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대문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이제 아까 그 마당이 있고 마당에서 이제  
쫘 올라오잖아요. 아까 그 돌 돌 쌓았다가 거기다가 신 뒀}

10608 # 심방뚝. {땃돌.}

10608 @ 심방뚝 싸:가지고 고거가지고 토방이 생깁니까? {땃돌 쌓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토방이 생깁니까?}

10608 1 암 토방이 {암. 토방이}

10608 @ 아 토방이 생기고요이~. 음. {아, 토방이 생기고요. 음.}

10608 @ 그먼 토방에다가 인자 그 사:람드리 그 신 신 버서 놀라고 독: 나:뚝 데도 그먼  
머:라고 힘:니까 {그러면 토방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신 신 벗어 놓으려고 돌 놔둔 데  
도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10608 # 심방뚝. {'신방돌'}

10608 @ 그거또 심방또기예요? {그것도 '신방돌'이에요?}

10608 # 응 그 심방또기 요 요마너 더 지:러 고거슨. {응, 그 '신방돌'이 이 이만하게 더  
길어, 그것은.}

10608 @ 예. {예.}

10608 # 진: 노드로다가 일판게 올라와서 거그다가 신 버서노코 드러가그든 {긴 것으로다  
가 일 단계 올라와서 거기다가 신 벗어 놓고 들어가거든.}

10608 @ 그러치요. {그러치요.}

10608 # 음 그거시 심방또기여 그거또. {음, 그것이 '신방돌'이야, 그것도.}

10608 @ 고거또 심방뚝고 머 쌀:때 형거또 심방또기고 {그것도 '신방돌'이고 뭐 쌓을 때  
하는 것도 '신방돌'이고}

10608 # 응 응 {응, 응.}

10608 @ 아 다 그럼 심방또기라고 허구마뇨. {아, 다 그럼 '신방돌'이라고 하는구먼요.}

10608 @ 정제:는 지그문 다 이리케 현:데시그로 지여전는데 엔:나레는 정제가 저 모양이  
다르잔습니까 불 때:서 쓰니까. {부엌은 지금은 다 이렇게 현대식으로 지어졌는데 옛날에는  
부엌이 저 모양이 다르잖습니까? 불 때:서 쓰니까.}

10608 # 전:수 저 불 때:제. {전부 저 불 땃지.}

10608 @ 예. {예.}

10608 @ 고 아:네가 나:무로 이리케 나 나:두능거 이습니까? {그 안에 나무로 이렇게 놔  
놔 두는 것 있습니까?}

10608 # 아:면 그어뽕고 정:게라 그러제. {암. 그것보고 '정계'라 그러지.}

10608 @ 예? {예?}

10608 # 부엌 정계 {부엌, '정계'.}

10608 @ 예. 정계라고 아. {예. '정계'라고, 아.}

10608 # 정계가 소판지가 여가 여가 거러저쓰머는 요: 사라미 여가 앙꼬 여가 제 나:무 쟁

이는 쟁인 이씨 {부엌이 술이 여기 여기에 여기에 걸어져 있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앉고 여기에 저 나무 쟁이는 쟁이는 있어.}

10608 @ 여그를 머:라 험니까? 나:무 쟁이는 곧뽕고.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무 쟁이는 곧뽕고.}

10608 # 나:무청 {나무청.}

10608 @ 아 나:무청이라 그럼니까? {아, 나무청이라 그럼니까?}

10608 # 거그다 인자 나:무 몽:땅 쟁에 노코 때:코 그리제. {거기다 이제 나무 몽땅 쟁여 놓고 때고 그러지.}

10608 @ 불 때:는 요 구녀:게는 머:라 그럼니까? 불 는: 구녀. {불 때는 이 구멍은 뭐라 그럼니까? 불 넣는 구멍?}

10608 # 부엌 부석작 {부엌. 아궁이.}

10608 @ 부석작 {아궁이}

10608 # 응 {응.}

10608 @ 부석짜기고 솔 건:디는 여페다가? {아궁이고 솔 거는 데는 옆에다가?}

10608 # 부수막 {'부수막.'}

10608 @ 아 부수마기라 그러구나. 아 {아, '부수막'이라 그러는구나. 아.}

10608 @ 부석짜게다 불 때:고 부수마게다가 아 걸구요. {아궁이에다 불 때고 부뚜막에다가 아 걸고요.}

10608 # 궁게 거가 버 여가 주춘 저 이메또기 이씨야데야.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 주춘 저 이맛돌이 있어야 돼.}

10608 # 솔판지를 걸라면 이메또게가 이씨야 그 이메뚝 인씨야 소판지 걸고 그 미테로 부를 땀:체. {솔을 걸려면 이맛돌이 거기에 있어야 그 이맛돌이 있어야 솔 걸고 그 밑으로 불을 땀지.}

10608 # 그거뽕고 이:메또기라 그래. {그것보고 이맛돌이라 그래.}

10608 @ 아 이메또기라 그래꾸요. 예. {아, 이맛돌이라 그랬군요. 예.}

10608 @ 아 참 이르미 가지가지네요 (웃음) {아, 참 이름이 가지가지네요.}

10608 # (웃음) 응 {(웃음) 응.}

10608 # 궁게 엔:나레는 나:무청에다가 미테다 구에로코 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청에다가 밑에 그 구멍을 꼭 파.}

10608 # 파고 거그다가 고:구마도 느코 밤:도 따다 느코 나:무를 드린단마리여. {파고 거그다가 고구마도 넣고 밤도 따다 넣고 나무를 들인단 말이야.}

10608 @ 예 {예.}

10608 # 그먼 바:몬 보메 까도 밤:송이차 능게. {그러면 밤은 봄에 까도 밤송이째 넣으니까.}

10608 @ 예: {예.}

10608 # 무더노머는 요 까:면 나 싱:싱해 이쨌. 고:구마도 시얀네 그거슨 정게서 가따가 찌떡꼬 그래쎄. {묻어 놓으면은 이 까면 싱싱해 있지요. 고구마도 겨울 내내 그것은 부엌에서 가져다 삶아 먹고 그랬어.}

10608 @ 아 그래요 안 써거요? {아, 그래요. 안 써어요?}

10608 # 아 그거뽕고 고:구마까니락 해. 거그다 고구마 안 써거 {아, 그것보고 '고구맛간'이라고 해. 거기다 고구마 안 써어.}

10608 @ 아 고:구마깁 {아, '고구맛깁'.}

10608 # 응 {응.}

10608 # 늘: 불 뎡코 어찌고 형게 그 거시기가 이썩게 따따형 기가 이썩게 안 썩거 {늘 불 때고 어찌고 하니까 그 거시기가 있으니까 따뜻한 기가 있으니까 안 썩어.}

10608 @ 그래요 아 {그래요. 아.}

10608 # 응 {응.}

10608 @ 그럼 또 그렇거또 다 보:과네 된네요이. {그럼 또 그런 것도 다 보관해 뒀네요?}

10608 # 과 엔:나레는 마:이 그레제. {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지.}

10608 # 정게에다가 응 {부엌에다가, 응.}

10608 # 그라너은 자근 방에다가 고:구마까나라게서 그 쭈:시떼로 여껴서 멘드라 여 거시기 독집말로. {그러지 않으면 작은방에다가 '고구맛깁'이라고 해서 그 수숫대로 엮어서 만들어. 이 거시기 '독집'처럼}

10608 @ 예 예.{예, 예.}

10608 # 거그다 고:구마 가따 쟁이기도 허고 {거기다가 고구마 가져다 쟁이기도 하고}

10608 @ 예 똥그라케 {예, 둥그렇게.}

10608 # 응 그 방 짜그만헌 디다가 {응, 그 방 자그마한 데다가.}

10608 @ 근데 보면 일부는 썩꼬 또 일부는 안 그러드마뇨 그거시. {그런데 보면 일부는 썩고 또 일부는 안 그렇더구먼요. 그것이.}

10608 # 응. {응.}

10608 # 근디 부를 떼::머는 안 썩거. 뵤:나두야 썩제. {그런데 불을 때면은 안 썩어. 베어 놔 뒀야 썩지.}

10608 @ 아 그래요. 아 불 떼:면 안썩거요? {아, 그래요. 아, 불 때면 안 썩어요?}

10608 # 응 안썩거. {응, 안 썩어.}

10605 @ 그 다으메:: 이제 방도:: 방이 머 떼게 된다 그러믄 이르미 다를꺼 아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도 방이 뭐 몇 개 된다고 그러면 이름이 다를 것 아납니까?}

10605 # 엔:나레는 읍똥 자근방 골:방 {옛날에는 윗방, 작은방, 골방.}

10605 # 골:방이랑:: 거슨 요런 방에 가서 썩:: 몸발로 저:리 우:게가 썩 썩오 줍쌍::허이 방이 한나 이썩. {골방이라는 것은 이런 방에 가서 저 문쪽으로 ('발'은 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저리 위에 자그마하게 방이 하나 있어.}

10605 # 그거뵤고 골:방이라고 엔:나레 지블 질떼 골:방을 마니 멘들고 지서썩. 엔:나레. {그것보고 골방이라고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골방을 많이 만들고 지었어, 옛날에.}

10605 @ 우똥은 어뜨게 만드려요? 읍똥. {윗방은 어떻게 만들어요? 윗방?}

10605 # 그냥 우똥이라고 헤썩. {그냥 윗방이라고 했어.}

10605 @ 무슨방이나고요? 우똥은 무슨방? 젤: {무슨 방이에요? 윗방은 무슨 방? 제일}

10605 # 큰방 자근방 {큰방, 작은방}

10605 @ 아 큰방 자근방 {아, 큰방, 작은방}

10605 # 응 고러코 헤썩 우리 아이드른. {응, 그렇게 했어, 우리 아이들은.}

10608 @ 그 다으메 아까 그 마루도 아페 큰 마루가 이꼬 또 여페 자근 마루 그레썩 안썩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마루도 앞에 큰 마루가 있고 또 옆에 작은 마루 그랬지 않습니까?}

10608 # 퇴. 저:그서 물 드론 큰마루 그거슨 퇴::마루제. {퇴, 저기서 문 들어오는 큰마루}

그것은 텃마루지.}

10608 @ 아 퇴:마루. {아, 텃마루.}

10608 @ 소 키우는 데, 소 키우는 데 그건 또 어떻게 생겨듭니까? {소 키우는 데, 소 키우는 데 그건 또 어떻게 생겨듭니까?}

10608 # 외양간이라고 그제, 그그뽕고. 소 키:는 데 외양간 엔:나레는 칼 {외양간이라 그러지, 그것보고. 소 기르는 데 외양간 옛날에는 칼}

10608 # 지그밍게 그란제 엔:나레는 가메소슬 요로 큰 소슬 소죽 썬:줄라고 소 여물가통건 인자 거 썬:줄라고 외양간을 멘드라. {지금이니까 그러지 않지. 옛날에는 가마솔을 이러 큰 솔을 그 쇠죽 썬 주려고 소 여물 같은 것은 이제 거 썬 주려고 외양간을 만들어.}

10608 # 외양간 엔:나레는 외양간 따로 지블 지서서 사:람 사는 방허고 한테다가 진능 거 시 아니여썬. {외양간. 옛날에는 외양간 따로 집을 지어서 사람 사는 방하고 한테다가 짓는 것이 아니었어.}

10608 @ 예: {예.}

10608 # 따로 지서. 외양간 소키:는 디를. 고러코 소를 키워. 엔:나레 {따로 지어. 외양간 소 키우는 데를. 그렇게 소를 키워, 옛날에.}

10608 @ 예. {예.}

10608 @ 소를 엔:나레는 키운지비 이꼬 안 키운 지비 이꼬 그러쵸? 소 키우면. {소를 옛날에는 기른 집이 있고 안 기른 집이 있고 그러지요? 소 기르면.}

10608 # 엔:나레:: 소 함마리에 나락 열:섬씩 줘야 사썬게 {옛날에 소 한 마리에 벼 열 섬씩 줘야 샀으니까.}

10608 @ 나락 열:섬미요. {벼 열 섬이요?}

10605 # 응 열:섬씩 줘야 사 지그밍게 {응, 열 섬씩 줘야 사, 지금이니까.}

10605 @ 지그믄 {지금은}

10605 # 지그믄 시무섬 줘:도 모싸. {지금은 스무 섬 줘도 못 사.}

10605 @ 그러지요. {그러지요.}

=1 #1 응. {응.}

=1 @1 소 한 한 서미면 한 서미 요세 한 십 멘마넌 십 {소 한 한 섬이면 한 섬이, 요새는 한 십 몇 만원 십}

=1 #1 십삼마넌 톤 조까 {십삼만 원 돈 조금.}

=1 @1 십싸마넌이면 열:서미면 백쌔십마넌 수무서믄 이백 한 {십사만 원이면 열 섬이면 백 삼십 만원 스무 섬은 이백 한}

=1 #1 소양치도 못싸. {송아지도 못 사.}

=1 @1 {웃음} {(웃음)}

=1 #1 네가 우리 두:썰를 서울 고려대학교 느:노코 그헤 소항치를 함마리 사썬. 칠십칠마넌 주고. {내가 우리 둘썰를 서울 고려대학교 넣어 놓고 그 해 송아지를 한 마리 샀어. 칠십칠만 원 주고.}

=1 #1 그레가꼬 그헤 잘: 메깁게 그헤 세끼가 드러서썬. {그레가지고 그 해 잘 먹이니까 그 해 새끼가 들어섰어.}

=1 @1 어허. {어허.}

=1 #1 일러네 소항치 사다가 {일 년에 송아지 사다가}

=1 @1 일러네 소항치가 {일 년에 송아지가}

=1 #1 응 그래가꼬 칠러네 일곱마리를 멘드라써 소를 {응, 그래가지고 칠 년에 일곱 마리를 만들었어, 소를.}

=1 @1 메:년 함 마리씩 {매년 한 마리씩.}

=1 #1 응 메:년 한 함 마리씩 냥:게. {응, 매년 한 한 마리씩 냥으니까.}

=1 #1 그래가꼬 고놈 조롭 탐성 읍:쎄 버래써. 조롭 딱 타드락 고놈 키에가꼬 읍:쎄쎄. 글로 학빠를 데:쎄. {그래가지고 그것 졸업 타면서 없애 버렸어. 졸업 딱 타도록 그것 키워가지고 없앴어. 그것으로 학비를 댔어.}

=1 @1 함마리 네다 팔고 또 {한 마리 내다 팔고 또.}

=1 #1 아::면. 네:서 차꼬 팔고 팔고 고놈 세끼 키여서 또또 세끼 네:고 {암. 내서 자꾸 팔고 팔고 그것 새끼 키워서 또 또 새끼 내고}

=1 @1 그러면 그때 소 함마리 팔:면 대학 등록금 어떻게 댔니까? {그러면 그 때 소 한마리 팔면 대학 등록금 어떻게 댔니까?}

=1 #1 그때 대학 등록금 팔십팔만 원 사오만 그랬어. 말하자면 그때. 저 옛날 말이야. 지금은 턱도 없지마는.('가남이 없다'는 아주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

=1 @1 으~. {응.}

=1 #1 그 소 키여서 주고 즈그 성이 서울써 목공::으로 이:레썬게 거그서 돈 잔씩 주고 고거슬 야:튼 무나니 갈쳐써. {그 소 길러서 주고 저희 형이 서울에서 목공으로 일했으니까 거기서 돈 조금씩 주고 그것을 하여튼 무난히 가르쳤어.}

=1 @1 소가 크게 저기 헨네요? {웃음} {소가 크게 저기 했네요?}

=1 #1 이 동네서 우리 두:쎄 아들만 고려대학교 나와쎄 멩산봉:국써 읍:쎄. {이 동네서 우리 둘쎄 아들만 고려대학교 나왔지 명산 봉국에서 없어.}

=1 @1 엍:쎄요? {없어요?}

=1 #1 거그 빼면 인자 연세대학 나온 사라문 그 뒤:로 드러가서 나오고 그래쎄 {거기 빼면 이제 연세대학 나온 사람은 그 뒤로 들어가서 나오고 그랬지.}

=1 @1 오 이 동네서 제:일 학빠리 존:네요? {오, 이 동네서 제일 학벌이 좋네요?}

=1 #1 영광쎄도 영광종고에서도 아라주제 지금도 {영광에서도 영광종고에서도 알아주지 지금도.}

=1 @1 고려대학 가따고 {고려대학 갔다고.}

=1 #1 종고 나와가꼬 {종고 나와가지고}

=1 @1 고려대학 가따고 {고려대학 갔다고.}

=1 #1 응. {응.}

=1 @1 고려대학이 지그문 더 드러가기 어렵습니다 더 드러가기 어려워요. {고려대학이 지금은 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더 들어가기 어려워요.}

=1 #1 아 근디 시골래미 여그서 학교 나와가지고 서울까서 시험봐:가꼬 드러 합격 헨:넌디도:는 읍:쎄 고로물 늘:라논디 학교는 드러가쎄게 보내야는 해야 쓰거꼬 {아, 그런데 시골놈이 여기서 학교 나와가지고 서울 가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 합격했는데 돈은 없지 그것을 넣으려는데 학교는 들어갔으니까 보내야는 해야 되겠고.}

=1 @1 그러묘. {그럼요.}

=1 #1 그래가꼬 그 때 술 담배를 암머거써. 다마 함푸니라도 보:텐다 헤가꼬. 그래가꼬 갈차서 지그문 고노미 지금 제:일 부:잔디 {그래가지고 그때 술 담배를 안 먹었어. 다만 한 폰

이라도 보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르쳐서 지금은 그 녀석이 지금 제일 부자인데.)

=1 @1 (웃음) {(웃음)}

10608 @ 그 다메 이러케 사:라미 사:는 여 방이 한체가 이찌마는 그 먼 연장가통거 놔:두고 요론 또 따른 \*\* 이써야 되지 안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사는 이 방이 한체가 있지마는. 그 무슨 연장 같은 것 놔 두고 이런 또 다른 \*\*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608 # 응 {응.}

10608 # 그거시 외양간 아까 네가 소 키:는 디 외양간이라고 이써써. 거 두:칸을 이러코 지:먼 식 삼:칸을 지어 그거또. {그것이 외양간 아까 내가 소 기르는 데 외양간이라고 있었어. 그 두 칸을 이렇게 지으면 식 삼 칸을 지어, 그것도.}

10608 @ 아. {아.}

10608 # 항 칸 지머는 항가운데는 외양간 소키는 외양간 {한 칸 지으면은 한가운데는 외양간 소 기르는 외양간.}

10608 # 또 여 소키는 이쪼그로는 제간. {또 여 소 기르는 이쪽으로는 젃간.}

10608 @ 제간. {젃간.}

10608 # 그때는 불때:먼 제다머다 분:는 제까니 이써. 그 항카는 허청 거그다가 인자 연장가통거 싹 길:제. {그때는 불 때면 재 담아다 붓는 젃간이 있어. 그 한 칸은 헛간('허청'은 '헛간'의 방언형) 거기다가 이제 농기구('연장'은 표준어의 연장 외에 농기구를 포함한다.) 같은 것 싹 길지.}

10608 @ 아 거러요 허청에다 {아, 걸어요, 헛간에다?}

10608 # 응 아:먼. {응, 아무렴.}

10608 # 그 삼카니여 그거또 {그 삼 칸이야, 그것도.}

10608 @ 아하 따로 항군데다 하구마뇨? {아하, 따로 한 군데다 하는구먼요.}

10608 # 응 항군데다 {응, 한 군데다.}

10608 @ 앙 응 {앙, 응.}

10606 @ 데씀니다 그다으메 아까 그 토담집 이야기를 허션는데 인제 흙 흙으로 지:니까 토담집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토담집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흙 흙으로 지으니까 토담집.}

10606 # 춘 흥 탄 미칸 호기로 {추 흥 \*\* \*\* 흙으로}

10606 @ 이러케 집 찢는 재료에 따라서 집 이르미 달라질 쑈 이씀니까 토담집 머 머 {이렇게 집 짓는 재료에 따라서 집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토담집 뭐 뭐}

10606 # 호게는 몬 찢:디 그거슨 할당쑈 엄:는 사람드리 지블 그코 지서서 부:제드리 호:적싸리 지블 쥐. 엄:는 사람드를. {흙은 못 짓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을 그렇게 지어서 부자들이 종('호적살이'는 종문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집을 쥐. 없는 사람들.}

10606 @ 호:적싸리 지비 뭐예요? {'호적살이' 집이 뭐예요?}

10606 # 마라자거몬 그 지블 지서주고 그 지비 사는 사라몬 그 집 일만 해야되야 마라자면 {말하자고 하면 그 집을 지어 주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집 일만 해야 돼. 말하자면.}

10606 @ 아아 {아아.}

10606 @ 아 {아.}

10606 # 궁게 토담찌비 만:튼 아네. {그러니까 토담집이 많지는 않아.}

10606 @ 아예 그먼 그 양바는 집또 업:는 사라문 그 지배서 지어줘꾸마뇨 토담짚. {아예 그러면 그 양반은 집도 없는 사람은 그 집에서 지어 줬구먼요, 토담집.}

10606 # 응 {응.}

10606 # 글고 그 집 이:를 시게 시겨 시그 마라자면 중:이나 가터. {그리고 그 집 일을 시켜 시켜 말하자면 중이나 같아.}

10606 @ 이:를 \*\*\* 말라고 {일을 \*\* 말라고}

10606 @ 아 토담짚 사는 사라문 음 {아, 토담집 사는 사람은 음.}

10606 # 으응 중:이나 가터. {으응, 중이나 같아.}

10606 @ 그러문 요 지브로 이은 집 이런 무슨 지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짚으로 인 집 이런 무슨 집이라고 해요?}

10606 # 엉? {엉?}

10606 @ 지브로 이로케 마람 이은 집 가튼건 무슨 집? {짚으로 이렇게 이엉 인 집 같은 것은 무슨 집?}

10606 마라를 이은 집 가꼬 하:녹찌비제. 엔나레 하:녹찌블 전:수 고러코 이어썩게 {이엥을 인 집 가지고 한옥집이지. 옛날에 한옥집을 전부 그렇게 이었으니까.}

10606 @ 아 {아.}

10606 # 거 지아지븐 지아집 지아로 이:썩게 지아지비락 허고 {그 기와집은 기와집 기와로 이었으니까 기와집이라고 하고.}

10606 @ 무슨 초지비라등가 머 요령거 {무슨 초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

10606 # 응 초지비라고 마:이 그레제. 예:기드리. {응, 초집이라고 많이 그랬지. 아이들이.}

10606 # 다:: نن나덱씨 이어썩게 초:메는 지아집 읍:꼬. 전:수 여 아:무리 부:자들또 지브로 이어썩. {다 너나 없이 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기와집 없고 전부 이 아무리 부자들도 짚을 이었어.}

10606 @ 그러지요 예예. {그러지요. 예, 예.}

10607 @ 흑씨 지블 질:폐게 연장들 다 여러가지 쓰는 연장들 이쓸텐데 {흑씨 집을 지을 때에 연장들 다 여러 가지 쓰는 연장들 있을 텐데}

10607 # 연장에 꼬리 이꼬 구멍 뚜르눈 꼬리 이꼬 {연장에 끌이 있고 구멍 뚫는 끌이 있고.}

10607 @ 꼬른 뭘 해요 어떤 이를? {끌은 뭘 해요? 어떤 일을?}

10607 # 꼬리 요러코 썩인거시 가서 여가 나:큼해. 그라고 여가 자리가 이려고 푹 여 드러 이썩 그먼 {끌이 이렇게 생긴 것이 가서 여기에 날카로워('나큼허다'는 '날카롭다'의 방언형). 그리고 여기에 자루가 이렇게 푹 이 들어있어. 그러면}

10607 # 망치로 그노무걸 또 뚜드러서 끌질 허머는 구머글 기레가꼬 염:필로 기레가꼬 파. 그거뽕고 꼬리라고 그르고. {망치로 그것을 또 두들겨서 끌질 하면은 구멍을 그려가지고 연 필로 그려가지고 파. 그것보고 끌이라고 그르고.}

10607 # 또 지그문 기계로 데:폐도 민:들제 엔:나레는 소느로 그 데:폐로. {또 지금은 기계로 대패도 만들지. 옛날에는 손으로 그 대패로.}

10607 # 데:폐가 한날베기 데:폐가 이꼬 양:날베기 데:폐가 이썩. {대패가 한날박이 대패가 있고 양날박이 대패가 있어.}

10607 @ 아하 {아하}

10607 # 그먼 양:날베기 데:폐는 두:니 밀:고 자부탱이먼 저 밀:폐게 미:러주고 자부탱일폐

미:러주고 허는 데:폐가 이써. {그러면 양날박이 대패는 두 사람이 밀고 잡아당기면 저 밀 때에 밀어 주고 잡아당길 때에 밀어 주고 하는 대패가 있어.}

10607 # 인자 그거시 그거슨 인자 예놈들 우리 향:국 그지기는 나리 한나뿌니 읍:씨썬 엔:나레 {이제 그것이 그것은 이제 왜놈들 우리 한국 거시기는 날이 하나밖에 없었어, 옛날에.}

10607 # 그리고 큰짜구 인자 여 지동 나무 다듬능 거슨 큰 짜구라사 다두마. {그리고 큰 자귀 이제 이 기동 나무 다듬는 것은 큰 자귀라야 다듬어.}

10607 # 요러코 자리 질::게 생에아꼬 나리 요러코 생에쓰먼 요러코 착착착 요러코 꺾:썬로 이 거시기다 딱 바거노코 지동나무 거그다 올라노코 큰짜구로 다듬제 {이렇게 자루 길게 생겨가지고 날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꺾쇠로 이 거시기에다 딱 박아놓고 기동 나무 거기에다 올려 놓고 큰 자귀로 다듬지.}

10607 # 먹썰 텅게 가꼬 먹썰보고 다두마. 그거뽕고 큰짜구락 허고 {먹썰 텅겨가지고 먹썰 보고 다듬어. 그것보고 큰 자귀라고 하고}

10607 # 큰짜구 또 일본놈 큰짜구는 잘루와. 이러코 딱 구버가꼬 잘파가꼬 요로코요로코 현 큰짜구가 이꼬. {큰 자귀 또 일본놈 큰 자귀는 짧아.('잘롭다'는 '짧다'의 방언형) 이렇게 딱 굽어가지고 짧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큰 자귀가 있고.}

10607 @ 예. {예.}

10607 # 내리미톱 텅:폐 그 솔라무 요런놈 가로 쓰러네리는 놈 {'내리미톱' 대패 그 소나무 이런 것 가로 쓸어 내리는 것.}

10607 @ 예 고 무슨 토비예요? {예, 그 무슨 톱이에요?}

10607 # 내리미톱 {'내리미톱'}

10607 @ 네리미 토비요? 아 요러케 써능 게 아니라 {'내리미톱'이요? 이 이렇게 써는 게 아니라}

10607 # 응 고거슨 요 네리기만 허는 토비 이써. {응, 그것은 이 내리기만 하는 톱이 있어.}

10607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607 # 긍게 사 엔:나레 사:람 주그먼 관 찰라만 그 토브로 써:러 네러제. 동:네서. {그러니까 사 옛날에 사람 죽으면 관 찰라면 그 톱으로 썰어 내렸어, 동네서.}

10607 # 그레썬. {그랬어.}

10607 @ 기리로 길:게 할라니까 아 네리미톱. {길이로 길게 하려니까 아 '내리미톱'.}

10607 # 응 {응.}

10607 @ 아까 마란 먹썰 이써꾸요. {아까 말한 먹썰 있었고요.}

10607 # 응 먹썰. {응, 먹썰.}

10607 @ 그다메 요령거 인제 버 보를라머는 흑 뽀를라머는 인제 {그 다음에 이런 것 이제 버 바르려면은 흙 바르려면은 이제}

10607 # 쇠손 {쇠손.}

10607 @ 예 {예.}

10607 # 흑썬 이꼬 쇠소니꼬 그러제. {흙손 있고 쇠손 있고 그러지.}

10607 @ 흑썬은 머예요? {흙손은 뭐예요?}

10607 # 흑썬은 나:무로 멘드라가꼬 여 초벽 혈떼게 보루능 거시 흑썬니고 {흙손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 초벽할 때에 바르는 것이 흙손이고}



10607 @ 예. {예.}

10607 # 인자 제:사 그거 헐때는 쇠소느로 제:사 그 아까 보리때 너서 헐::당걸 그 쇠소느로 볼라. 그래야 반질반질하게 보리지에. {이제 재사 그것 할 때는 쇠손으로 재사 그 아까 보릿대 넣어서 한다는 것 그 쇠손으로 발라. 그래야 반질반질하게 바르지.}

10607 @ 아 반질반질하게. {아, 반질반질하게.}

10607 @ 그럼 요 바치능 거슨 머:라그래요? {그럼 이 받치는 것은 뭐라 그래요?}

10607 # 흑쏸. {흠쏸.}

10607 # 흑쏸. 흐글 거:다 너:서 요러코 생잉거슨 자리가 달려가꼬 흑쏸. {흠쏸 흠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생긴 것은 자루가 달려가지고 흠쏸.}

10607 @ 고거또 흑쏸니라고 그래요? {그것도 흠쏸이라고 그래요?}

10607 # 응 흑쏸 {응, 흠쏸.}

10607 @ 초벌헐때 형 거또 흑쏸니고? {초벌할 때 하는 것도 흠쏸이고?}

10607 # 어 흑 그건 솜 쇠소니제. 거건 팽야 흑쏸니라고 쇠소니여. {어, 응. 그건 쇠손이지. 그것 결국(‘팽야’는 같은 상황을 강조하는 말로 ‘결국’의 뜻) 흠쏸이라도 쇠손이야.}

10607 # 그거슨 바침때 받 반능거시고 바더서 썸 쇠손 요로코 다머서 보루능 거시고 {그것은 받침때 받 받는 것이고 받아서 썸 쇠손 이렇게 담아서 바르는 것이고.}

10607 @ 그니깐 이게 발:로 바치능 거슨 흑쏸니고 여 보루능 거슨 쇠소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로 받치는 것은 흠쏸이고 이 바르는 것은 쇠손이에요?}

10607 # 제:사허능 거슨 쇠손. {재사하는 것은 쇠손.}

10607 @ 제:사 초벌할 초벌하능 거슨? {재사 초벌할 초벌하는 것은?}

10607 # 흑쏸니랑게. 흐그로 그 팽야 흑쏸 그 여기에 따라댕기는 거시여. 거기에. {흑쏸이라니까. 흠으로 그 결국 흠쏸.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야, 거기에.}

10607 @ 그먼 흑쏸 한나 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 흠쏸 하나 가지고 받치기도 하고]

10607 # 아니여 틀 따라댕에. 바찌갱이 요러꼬 니:모 뵤:뜨더이 요러코 이썸 {아니야 틀 따라다녀. \*\*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있어.}

10607 @ 예예 {예예.}

10607 # 요러코 이쓰머는 거가 거 궤:저가꼬 이썸 그 흑쏸니 그먼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 거 깨져가지고 있어 그 흠쏸이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거 궤어져가지고 있어, 그 흠쏸이. 그러면}

10607 # 버릴라머는 사:라미 한나 일:부로 흐글 읍:롬 거시기로 떠서 여그다 다머 주그든? {바르려면은 사람이 하나 일부러 흠을 이리로 거시기로 떠서 여기다 담아 주거든?}

10607 # 다머주면 여그서 흑쏸 요로코 볼라. 받는 흑쏸 니:꼬 보루는 흑쏸 니:썰. {담아주면 여기서 흠쏸 이렇게 발라. 받는 흠쏸 있고 바르는 흠쏸 있지.}

10607 # 그 흑쏸도 여러가지여 쇠손도. {그 흠쏸도 여러가지야, 쇠손도.}

10607 # 여 서끝썰에 보루는 천장토막 보루그든? 요로코 항:세 쇠소니 이썸. {이, 서까래 사이에 바르는 천장 토막 바르거든? 이렇게 곡팽이(‘항새팽이’는 흔히 ‘곡팽이’의 방언형으로 쓰인다.) 쇠손이 있어.}

10607 @ 황:세때 쇠손 {곡팽이 쇠손.}

10607 # 응 요러코 좁짱:: 여그 서서 요러코 해서 요로코해서 여 거 우그로 보루는 거디아:느로 보루자네 요러코 요러 보루는 거 세 틈세기 보루능 거시 이썸. {응, 이렇게 좁다란(‘좁장허다’는 ‘좁다랗다’의 뜻) 여기 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그 위로 바르는 것이

안으로 바르지 않고 이렇게 이러 바르는 그 사이 틈새 바르는 것이 있어.}

10607 @ 예 그걸 항:세 쇠손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걸 곡괭이 쇠손이라고 그러네요?}

10608 @ 지베 지비 그 지비 이쓰면 하 명 부분부분 명칭이 인네요? 아까 말쓰른 다 엔  
웬:만큼 하셔찌마는 지베 다 그 명칭 이르미 이써. 아까 머:: 집지슬 때 요리 쫘 가로는 요  
지나 큰 큰 통나무 데:능 거 {집에 집이 그 집이 있으면 하 명 부분부분 명칭이 있네요? 아  
까 말쓰른 다 웬만큼 하셔찌마는 집에 다 그 명칭 이름이 있어. 아까 뭐 집 지을 때 이리  
쫘 가로는 이 지나 큰 큰 통나무 대는 것}

10608 # 보:: {보.}

10608 @ 보도 이꼬 {보도 있고.}

10608 # 드들 데 데들뽀가 이꼬 들뽀가 이꼬 {드들 대 대들보가 있고 들보가 있고.}

10608 # 데들뽀라능 거슨 이 집 예:를 드러서 사:카니나 삼칸 질:떼게 그 서끄를 썩 바차  
주능 거시 데들뽀고 {대들보라는 것은 이 집 예를 들어서 사 칸이나 삼 칸 지을 때에 그 서  
까래를 받춰 주는 것이 대들보고}

10608 @ 예. {예.}

10608 # 들뽀는 인자 그그 이 중문말로 요로코 여그 걸쳐. 그걸 데들뽀에다가 요로코 연결  
시키능 건 그거뽀고 들뽀락 허제. {들보는 이제 그그 이 중문처럼 이렇게 여기 걸쳐. 그걸  
대들보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그것보고 들보라고 해.}

10608 @ 들뽀라구요? 예. {들보라고요? 예.}

10608 # 거 데들뽀를 요른 놈 비스데. 항시 조운놈 써야제. {그 대들보를 이런 것 비슷해.  
항상 좋은 것 써야지.}

10608 @ 예. {예.}

10608 @ 그다메 예 이르게 석끄래서 쫘 나온 데 석끌 끄트로에서 바까트로 나온데는 머:  
라고합니까? 고거슨? {그 다음에 이 이렇게 서까래에서 쫘 나온 데 서까래 끝에서 밖으로  
나온 데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10608 # 부녀 {'부녀'}

10608 @ 예? {예?}

10608 # 부녀. {'부녀'}

10608 @ 부녀. {'부녀'}

10608 # 추마 그 추머 {처마 그 처마}

10608 @ 추마라 그럼니까? {처마라 그럼니까?}

10608 # 응 추마라고도 허고 부녀라고도 허고 {응, 처마라고도 하고 '부녀'라고도 하고}

10608 # 추마에다가 부녀를 쟁기그든? 추마에다가 부녀를 거따 쟁게. 더 빨:라고 마라자면  
{처마에다가 '부녀'를 끼우거든? 처마에다가 '부녀'를 거기다 끼워. 더 빠려고 말하자면.}

10608 @ 응 {응.}

10608 @ 추마 끝 부녀라고 이씀니까? {처마 끝 '부녀'라고 있습니까?}

10608 # 응 부녀를 거그다 느체. {응, '부녀'를 거기에다 넣지.}

10608 @ 응 {응}

10608 # 서끌도 니:귀 귀떼기는 귀서끌 {서까래도 네 귀 귀통이에는 귀서까래}

10608 @ 여기는 귀서끌 귀서끄리라고 해요? {여기는 귀서까래 귀서까래라고 해요?}

10608 # 응 귀에 건:다고 더 굴:거. 더 큰노를 니:구떼기다 거러. {응, 귀에 건다고 더 굴  
어. 더 큰 것을 네 귀통이에다가 걸어.}

10608 @ 아 거러요? {아, 걸어요?}

10608 # 음. 그거뽕고 귀서끄리라고 그러고 {음, 그것보고 귀서까래라고 그러고}

10608 @ 귀서끄리라고 응. {귀서까래라고, 응.}

10608 @ 머 고 고 귀서끌 인는데가 싹 고부부늘 또 머:라고 합니까? 거 머 {뭐 고 고 귀서까래 있는 데 딱 그 부분을 또 뭐라고 합니까?}

10608 # 데:공 데:공 바치제 데:공이 이제. {대공 대공 받치지. 대공이 있지.}

10608 @ 아. {아.}

10608 # 데공::을 바쳐서 거그서 고거또 사:게네서 여 데들뽕에다가 영:꼬 그 데:공을 메께가 드러가 데:공이 {대공을 받쳐서 거기서 그것도 사개 내서 이 데들보에다가 얹고 그 대공을 몇 개가 들어가, 대공이.}

10608 @ 예. {예.}

10608 # 그 영거서 거그다가 사:게 넌 노메다 박제 또. {그 얹어서 거기다 사개 낸 것예다 박지, 또.}

10608 @ 데공으로 {대공을요?}

10608 # 아:면. 데:공은 메:께를 바친다고. {아무렴. 대공은 몇 개를 받친다고.}

10608 @ 응 {응.}

10608 @ 그 다메 머 무슨 머 춘세라등가 고령거 이씀니까 추녀라등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춘새'라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추녀라든가?}

10608 # 추녀가 이제. {추녀가 있지.}

10608 @ 추녀는 어디를 보고 추녀라감니까? {추녀는 어디를 보고 추녀라고 합니까?}

10608 # 추녀가 그거또 팽 지시라기락 해. 지시라 {추녀가 그것도 결국 기스라기라고 해. 기스라.}

10608 @ 아 지시라기라 {아, 기스라기라.}

10608 # 지시라. {기스라.}

10608 # 추녀가 부녀 다으메가 추녀제 {추녀가 '부녀' 다음이 추녀지.}

10608 @ 아 부녀 그 다으미 {아, '부녀' 그 다음이.}

10608 # 응 {응.}

10608 @ 고 다른 지시라허고 가통거예요? {그 다른 기스라하고 같은 거예요?}

10608 # 가:튼 종뉴여. {같은 종류야.}

10608 # 추녀가 머:시냐른 니:구석뽕이::만 이썸. 추녀가 {추녀가 뭐냐면 네 귀통이만 있어, 추녀가.}

10608 # 어제그냐면 니:우뽕이 지블 이:면 가기 요러고 제페저 니:구석뽕기가. 여 서끌 큰 놉 건:닥 안트라고? 니:구뽕기? {어제 그러냐면 네 귀통이 집을 이면 각이 이렇게 잡혀져. 네 구석이. 이 서까래 큰 것 걸어놓는다고 하지 않더라고? 네 귀통이.}

10608 # 여 거가 추녀여 이거시 추녀. {이 거기가 추녀야. 이것이 추녀.}

10608 @ 아까 귀서끌 {아까 귀서까래.}

10608 # 귀서끌 그거시 추녀라고도 허고 귀서끄리라고도 허고 그래 {귀서까래 그것이 추녀라고도 하고 귀서까래라고도 하고 그래.}

10608 @ 아 그래요? 음 {아, 그래요? 음.}

10608 @ 기서끌하고 추녀는 가튼 마:리라고 헐 쑈 이썸네요? {귀서까래하고 추녀는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네요?}

10608 # 인자 저 문짝 뒤에 여페다 문 거시기다 씨:능 거슨 문설쭈. {이제 저 문짝 뒤에 옆에다 문 거시기다 쓰는 것은 문설쭈}

10608 # 또 그 다투메다가 인자 베랑빱 보틸라고 멘등거이 중방 디린다고 그러제 중방 {또 그 다음에다가 이제 바람벽 바르려고 만든 것이 중방 들인다고 그러지. 중방.}

10608 @ 중방 중방 {중방, 중방.}

10608 # 중방 {중방.}

10608 @ 베랑빠게다 발 거친 중방 {바람벽에다 발 걸친 중방.}

10608 # 응 거 문중방이꼬 문 여 디니 {응, 그 문중방 있고 문 \*\*\*}

10608 @ 아래 {아래}

10608 # 여 아래는 문 중방이고 여 문설쭈고 거 문설쭈그딘? {이 아래는 문 중방이고 이 문설쭈고 그 문설쭈거든?}

10608 @ 예 {예.}

10608 # 거기 문중방이 우아레가 이끄든. {거기 문중방이 위 아래가 있거든.}

10608 @ 어 문중방이 우아레가 이썬요? {어, 문중방이 위 아래가 있어요?}

10608 # 응 거 설 문설쭈고 {응, 그 설 문설쭈고.}

10608 @ 응 {응.}

10608 # 그러면 인자 베랑빠게다 구멍 네:능거슨 봉창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바람벽에다가 구멍 낸 것은 봉창이라고 그러고.}

10608 # 봉창을 데. 요 지금가트면 저러코 기계가 헌디 엔:나레는 봉:창이락 해땅게 봉창. {봉창을 데. 이 지금 같으면 저렇게 기계가 하는데 옛날에는 봉창이라고 했다니까, 봉창.}

10608 @ 예 그래요? {예, 그래요?}

10608 @ 음 봉창. {음, 봉창}

10608 # 방마닥 이제 봉창이. {방마다 있지, 봉창이.}

10608 @ 그러지요? {그러지요?}

10609 @ 그 다:메 예 뵈썬니다. 그 다메 아까 조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터를 다질 때는 인제 상:냥할 때 머 고:사지낸다고 그래썬나요? 게 상:냥할때. {그 다음에 예 뵈썬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터를 다질 때는 이제 상량할 때 뭐 고사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량할 때}

10609 # 상:냥할때가 제일 크게 지네. {상량할 때가 제일 크게 지네.}

10609 @ 어터케 합니까? 상:냥할때 목쭈 나리라고 그래썬 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량할때 목수 날이라고 그랬지 안습니까?}

10609 # 응 {응.}

10609 # 상:냥할때 마라자면 상:냥에다가 멘년도 인자 거 {상량할 때 말하자면 상량에다가 몇 년도 이제 그}

10609 @ 올린나를? {올린 날을?}

10609 # 인자 주추는 그 지둥은 메친날 시:고 또 예 저 디들뽀 가통거 데들뽀 가통거슨 메친날 영꼬 {이제 주추는 그 기둥은 몇 일 세우고 또 예 저 대들보 같은 것 대들보 같은 거은 몇 일 었고}

10609 # 그거이 썩: 썩져, 거가. 상:냥에다가. {그것이 썩 썩져. 거기에 상량에다가}

10609 @ 아 {아.}

10609 # 그레가 상:냥 날짜를 인자 엔:나레는 그 쉯 노코 쉯녕 노코 나를 게레. {그레가지

고 상량 날짜를 이제 옛날에는 그 책 놓고 책력 놓고 날을 가려.}

10609 @ 예. {예.}

10609 # 계레가지고 날짜를 바다가지고 상:냥 허는디 되야지머리 사고 인자 당목 거 미영  
베 엔:나레 미영베 한 함 피리 시무자썰기거든? {가려가지고 날짜를 받아가지고 상량하는데  
돼지 머리 사고 당목 그 무명 옛날에 무명 한 한 필이 스무 자썰이거든?}

10609 @ 예 {예.}

10609 # 고놈 두필 마운자 걸:고 그 다 그 저 목쭈가 가지가능 거상게. {그것 두 필 마흔  
자 걸고 그 다 그 저 목수가 가져가는 것이니까.}

10609 @ 예. {예.}

10609 # 돈:도 그날 인자 시 떡 상에다 노코 시리헌 이따 인자 돈: 노먼 돈:도 가져가고.  
{돈도 그날 이제 시 떡 상에다 놓고 시루 한 이따 이제 돈 놓으면 돈도 가져가고.}

10609 # 어 그나른 목쭈가 일: 양코 수입허는 나리여. {어, 그날은 목수가 일 안 하고 수입  
하는 날이야.}

10609 @ 예. {예.}

10609 # 그뽕고 상:냥하는 나리여. {그것보고 상량하는 날이야.}

10609 @ 예. {예.}

10609 @ 그러믄 그날 거 잔치를 하고 머 놀:기도 하고 {그러면 그날 그 잔치를 하고 뭐  
놀기도 하고.}

10609 # 인자 그거슨 집 쫄때 잔치허고 집 다:: 진꼬 인자 드러가서 이:사터기라고 잔치허  
는 나리 이썰 또. {이제 그것은 집 지을 때 잔치하고 집 다 짓고 이제 들어가서 이사터기라  
고 잔치하는 날이 있어 또.}

10609 @ 예 예. {예, 예.}

10609 # 그때는 인자 동네 싸람드리 썩:: 오제. 집 썩 지서가꼬 드러갈때는. {그때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썩 오지. 집 썩 지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10609 @ 아 고 머라고 합니까? 그거슨? 먼 성:주혜따딩가? {아, 그 뭐라고 합니까? 그것  
은? 무슨 성주했다던가?}

10609 # 응 성:주라고 그래. {응, 성주라고 그래.}

10609 @ 성:주라고 그러조이~? {성주라고 그러지요?}

10609 # 성:주해서 잘 데야따고 {성주해서 잘 되었다고.}

10609 @ 응 {응.}

10609 # 성주라 그러제. {성주라 그러지.}

10609 @ 그런 지베 갈때는 빈 소느로 감니까? 아님 멀 가지고 감니까? {그런 집에 갈 때  
는 빈 손으로 감니까? 아니면 뭘 가지고 감니까?}

10609 # 비누 엔:나레는 잘 데라고 버름 이러난다게서 비누도 사가꼬 가고 {비누 옛날에는  
잘 되라고 거품('버름'은 '거품'의 방언형) 일어난다고 해서 비누도 사 가지고 가고}

10609 @ 어. {어.}

10609 # 또 화장지도 사가꼬 가고 사가꼬 가능 거시 만헤::썩. {또 화장지도 사가지고 가  
고 사가지고 가는 것이 많았어.}

10609 # 기름도 사 지르믄 미끄럽따고 망헌다고 지르믄 안사가꼬 가썩. {기름도 사. 기름  
은 미끄럽다고 망헌다고 기름은 안 사가지고 갔어.}

10609 @ (웃음) {(웃음)}

10609 # (웃음) {(웃음)}

## 1.6.2 가신과 조상 숭배 신앙

10611 @1 흑씨 엔:나레 그 계린다고 계린다고 또는 그 머 빌:고 시니 시니 이따고 막 빌:고 그런 분들 이찌 아나씀니까? {흑씨 옛날에 그 가린다고 가린다고 또는 그 뭐 빌고 신이 신이 있다고 막 빌고 그런 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10611 # 엔:나레::는 거스런 사람드른 우리도 우리 금방씨는 여 아레똥네도 사라씨. 당고리라고. {옛날에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우리 근방에서는 이 아랫동네도 살았어. 무당이라고.}

10611 @ 예. {예.}

10611 # 아 당고:리라고 이 인자 담뱃 반데기다 물 떠노코 쪼뽱 어퍼노코 쪼뽱무침 수꾸라 그로 요러 쪼뽱 뚜두리면 방 쏘리가 방방방방 소리나. {아, 무당이라고. 이 이제 듬뿍 소레 기에다가('반데기'는 '소레기'의 방언형) 물 떠 놓고 쪽박 얹어 놓고 쪽박 밑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쪽박 두드리면 박 소리가 방방방 소리나.}

10611 # 그레가꼬 소누로 빔:스로 거 당고리 텅임서 지기막 텅임서 해주고 {그레가지고 손으로 빌면서 그 무당이 다니면서 \*\*\* 다니면서 해주고}

10611 # 또 그 당골레를 쌍: 메겨 살려씨. 메겨살려. {또 그 무당을('당골레'는 '당골네'로서 흔히 여자 무당을 가리킨다.) 쌍 먹여 살렸어. 먹여 살려.}

10611 @ 오. {오.}

10611 # 궁계 그 사람드른 백쌀 머거도 해:라 바꼬 마라자거면 쌍노미여 마라자거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백쌀 먹어도 해라 받고 말하자면 상놈이야 말하자면.}

10611 @ 예. {예.}

10611 # 양:반찌베 가들 모:든 {양반집에 가지를 못하는}

10611 @ 여잠니까? 남잠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10611 # 여자고 남자고 거그서 테:난 총손까장도 다 상노미라니까. {여자건 남자건 거기서 태어난 후손까지도('총손'은 '후손'의 뜻) 다 상놈이라니까.}

1061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611 # 그거뽕고 당골레 세끼라고 그제. {그것보고 무당 새끼라고 그러지.}

10611 @ 당골레 세끼라 {무당 새끼라.}

10611 # 응 당골레 세끼라고 그레. {응, 무당 새끼라고 그레.}

10611 @ 아. {아.}

=1 # 그거또 우리동네 싸람 그사라미 그 당골 아드리 서울로 이사를 가씨. {그것도 우리동네 사람 그 사람이 그 무당 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갔어.}

=1 @ 네. {네.}

=1 # 근디 이:바를 잘헤씨. 서울까서 이:바를 허넌디 그 이르미 철쭈여. {그런데 이발을 잘했어. 서울 가서 이발을 하는데 그 이름이 철수야.}

=1 @ 네. {네.}

=1 # 근디 여그 싸람 서울가가고 그걸 보고 철쭈야 그레따가 혼:나씨. {그런데 여기 사람 서울 가가지고 그걸 보고 철수야 그랬다가 혼났어.}

=1 @ 서울까서 {서울 가서}

=1 # 느그가 나 메겨 살릴띠가 철수야 허제 지금 네가 버러먹꼬 산디 철쭈야 허면 안텐다 그마리여. {너희가 나 먹여 살릴 때가 철수야 하지 지금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철수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1 @ 양:: {양.}

=1 @ 만는마리네 (웃음) {맞는 말이네. (웃음)}

=1 # 응 {응.}

=1 # 그거뵈고 엔:나레는 게:만 자버멍는 게:쟁이가 이꼬, {그것보고 옛날에는 개만 잡아먹는 '개장이'가 있고}

=1 # 또 도아이라고 인자 소 잡는 도아이 {또 '도아이'라고 이제 소 잡는 '도아이'}

=1 @ 예 {예.}

=1 # 그 도살짱 거 도아이라고 게:쟁이 이꼬 도아이질 허는 놈 이꼬 당골레 이꼬. {그 도살장 그 '도아이'라고 '개장이' 있고 '도아이'질 하는 놈 있고 무당 있고.}

=1 @ 예. {예.}

=1 # 강 복짜베써. 엔:나레는 그렇거뜨른 사:라프로 아나라써. {그냥 복잡했어 옛날에는. 그런 것들은 사람으로 안 알았어.}

=1 @ 왜 글 돼야지 잡는 사람보다 머:라고 합니까? 그러면? {왜 글 돼지 잡는 사람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1 @ 게:쟁이는 게: 잡는 사라미고 {'개장이'는 개 잡는 사람이고}

=1 # 응 게:쟁이고 {응, '개장이'고}

=1 @ 도아지 잡는 사라믄 머:라게요? {돼지 잡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1 # 도아이 도아이 노미라고 그러제. {'도아이' '도아이' 놈이라고 그러지.}

=1 @ 도아지 노미라 그러지요? {돼지 놈이라 그러지요?}

=1 # 도아이 도아이놈. {'도아이' '도아이'놈}

=1 @ 도아이 놈 {'도아이'놈}

=1 # 응 {응.}

=1 @1 소느뇨? {소는요?}

=1 # 궁게 소:: 잡는 노미 돼야지 잡꼬 그러제. {그러니까 소 잡는 놈이 돼지 잡고 그러지.}

=1 @ 아. {아.}

=1 # 그 사람드른 아그들한테도 아:무 이응감도 아그들한테도 해:라 박꼬 그레. {그 사람들은 아이들한테도 아무리 영감도 아이들한테도 해라 받고 그랬어.}

=1 @ 그런데 그 당골드른 인제 농사지꺼나 그러지 양코 여기 이 산 {그런데 그 무당들은 이제 농사 짓거나 그러지 앓고 여기 이 산}

=1 # 음 암암암암 순: 그직꺼리만 하고 먹꼬 사라. {음. 암암암암. 순 그짓거리만 하고 먹고 살아.}

=1 @ 아 그러면 그 사람 언제 때가 되면 다 그지베서 뭇 줍니까? {아, 그러면 그 사람 언제 때가 되면 다 그 집에서 뭇 줍니까?}

=1 # 농사처리면 농사지:머는 다 줘. 머을꺼슬. {농사철이면 농사 지으면은 다 줘, 먹을 것 을}

=1 # 상냥도 주고 그저 보리떼 보리 주고 {식량도 주고 이제 보리 때 보리 주고}

=1 @ 으무저그로 줍니까? {의무적으로 줍니까?}

=1 # 아:무저그로 줘. {의무적으로 줘.}

=1 @ 아. {아.}

=1 # 궁게 아프고 예:드리라도 아프고 그먼 불루먼 와서 비:서너고 그 아까말로 물빵구 치고 {그러니까 아프고 애들이라도 아프고 그러면 부르면 와서 비손하고 그 아까처럼 물방구 (물에 담긴 쪽박을 마치 악기의 일종인 방구로 취급함.) 치고}

=1 @ 어 {어.}

=1 # 그거시 당고리여. {그것이 무당이야.}

=1 @ 그러게 일 시킬라니까? {그렇게 일 시키려니까?}

=1 # 응 메겨살려 {응. 먹여 살려.}

=1 @ 머겨 살리구만뇨? {먹여 살리는구먼요.}

=1 # 엔:나레는 상 양:반드리 상노를 메게 살레써. {옛날에는 상 양반들이 상놈을 먹여 살렸어.}

=1 @ 영 {영.}

10611 @ 근데 인제 꼭 그런 당고리 아니드라도 자기 지베 먼 정게가면 먼 머먼 시니 이딱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꼭 그런 무당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 무슨 부엌에 가면 무슨 무슨 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10611 # 아 궁게 그 드 응 그럼 {아, 그러니까 그 드 응 그럼}

10611 @ 가만이 ??? {가만히 \*\*}

10611 # 그 그거슨 보통 싸람드리 다 해. 동:정제비라고. {그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해. '동정잡이'라고}

10611 @ 예. {예.}

10611 # 동:정제비라고 썸 꼬:치하고 미영씨하고 인자 메운제하고 인자 불러코 짜:구로 도꾸너코 도꾸에다 뚜둑서 동:정제비라 그르제. {'동정잡이'라고 저 고추하고 목화씨하고 이제 매운 재하고 이제 불 넣고 자귀로 도끼 놓고 도끼에다 두드리면서 '동정잡이'라 그러지.}

10611 @ 꼬:치하고 미영:씨하고 메운제하고 {고추하고 목화씨하고 매운 재하고}

10611 # 응 고로코 인자 노코 불질러. 마라자면 {응, 그렇게 이제 놓고 불 질러, 말하자면.}

10611 @ 불질러요? {불 질러요?}

10611 # 그 잡씨늘 모라넨다 그마리여. 그거시. {그 잡신을 몰아낸다 그 말이야, 그것이.}

10611 @ 도꾸에다가 머:슬 너썸요 도꾸? {도끼에다가 뭘 넣었어요, 도끼?}

10611 # 짜:구. {자귀.}

10611 @ 짜:구에다가 {자귀에다가}

10611 # 짜:구로 도꾸 노코 도꾸에다 뚜드르면 쇠소리가 나제. {자귀로 도끼 놓고 도끼에다가 두드리면 쇠소리가 나지.}

10611 @ 짜:구에다 도꾸 너코 친다고요? {자귀에다 도끼 놓고 친다고요?}

10611 # 응 {응.}

10611 @ 도꾸를 짜:구로 친다고? {도끼를 자귀로 친다고?}

10611 # 그럼서 동:정제비를 히여. {그러면서 '동정잡이'를 해.}

10611 @ 아. {아.}

10611 @ 고건 요건 요구는 나메 나쁜 나쁜 귀:시니나 귀를 네쫓추능 거예요? {그건 이건 요구는 남의 나쁜 나쁜 귀신이나 귀를 내쫓는 거예요?}



10611 # 응 또. {응, 또.}

10611 # 무 무레바비라고 해:가꼬 쪼빠게다가 바버고 덴:장히고 거 다머서 무레다 타가꼬 {물 '무레밥'이라고 해가지고 쪽박에다가 밥하고 된장하고 그 담아서 물에다 타가지고}

10611 # 칼 데:칼로 또 물리능 거시 이써. 거 동:정제비허고 또 바까테 나가서 물리고 {칼 대칼로 또 물리는 것이 있어. 그 '동정잡이'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물리고}

10611 @ 물 머요? {물 뭐요?}

10611 # 물려. 칼로 마라자면 잡씨늘 쪼차 넌::다는 거시기로 해서. {물려. 칼로 말하자면 잡신을 쫓아 낸다는 거시기로 해서}

10611 # 응 결막끄 몸발루서 결마께다 데리고 나가서 아픈 사라물. {응, 대문간('결막'은 대문 밖의 공간을 가리킨다.) 그 문쪽으로 대문간에다가 데리고 나가서 아픈 사람을}

10611 # 거 칼로 요러코요러코코 험스러 그 머 그거뵈고 물레게지리라고 그르제. {그 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뭐 그것보고 '물레게질'이라고 그러지.}

10611 @ 네 무슨 지리요? {무슨 질이요?}

10611 # 물룽게질. {'물룽게질'.}

10611 @ 물려? {물려?}

10611 # 물렁게질. 어. {'물렁게질'. 어.}

10611 @ 물렁게질? {물렁게질?}

10611 # 응 그보고 물린다고 그레. 그거뵈고 물레게지리뵈고. {응, 그것보고 물린다고 그레. 그것보고 '물레게질'보고}

10611 @ 그먼 이건 병 병이 난 사라물 결막끄로 데레가가꼬 칼로 {그러면 이건 병 병이 난 사람을 대문간으로 데려가 가지고 칼로}

10611 # 칼로 요러코 머리우게서 요러코 요러코 험성 그, {칼로 이렇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10611 @ 칼로 머리를 막 때레요? {칼로 머리를 막 때려요?}

10611 # 아이 갱 요러코여러코 해. 험스러 그 시늬을 해. 당고리. 당고리 그직꺼릴 마니해.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하면서 그 시늬을 해. 당골이, 당골이 그 짓거리를 많이 해.}

10611 @ 아 요건 당골 이야기구마뇨. {아, 이건 당골 이야기구먼요.}

10611 # 당고리 허제 그거또. {당골이 하지, 그것도}

10611 @ 아까 무레바븐 그건 당고릅니까? {아까 '무레밥'은 그것은 무당입니까?}

10611 # 암. 그거또 당고리 허고 {암. 그것도 무당이 하고 }

10611 @ 당고리 하구요? {무당이 하구요.}

10611 # 음. {음.}

10611 @ 그 다:으메 아까 그 머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10611 # 또 되빠게다 싸를 다머서 {또 뒷박에다 쌀을 담아서}

10611 @ 예. {예.}

10611 # 잠밥 메기는 거시 이써 또. {잠밥 먹이는 것이 있어, 또.}

10611 # 여가 물파기 아프다 여가 아프다 그른 여그다 테고 잠바블 메기고, {여기에 무릎이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잠밥을 먹이고.}

10611 @ 잠바블 메긴단 말 무슨 마리에요? 어터케 한다는 말? {잠밥을 먹인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말?}

10611 # 싸를 되빠게다 이빠이 다마가꼬 책뵈로 뵈::뵈 꺾:: 꺾 잡꼬 요러코 아픈 디다 데:고

하나 둘 낱곱 썰:허고 잠밥 메기능 거시 이썸. {쌀을 뒷박에다 가득('이빠이'는 '가득'의 일본말) 담아가지고 책보로 딱딱 짝 잡고 이렇게 아픈 데에 대고 하나 둘 일곱 새 하고 잠밥 먹이는 것이 있어.}

10611 @ 아. {아.}

10611 @ 잠바블 메긴다고 {잠밥을 먹인다고}

10611 # 응 잠밥. 그먼 요리코 머그먼 인자 잠바블 머그먼 싸리 한쪼그 가서 인자 폭 드러간 디가 이썸. {응, 잠밥.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이제 잠밥을 먹으면 쌀이 한 쪽에 가서 이제 폭 들어간 데가 있어.}

10611 # 그먼 마이 머거따고 그리고 잡씨니 마이 머거썩게 인자 나:꺼따고 그러제. {그러면 많이 먹었다고 그리고 잡신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낫겠다고 그러지.}

10611 @ 아 그런 시그로? {아, 그런 식으로?}

10611 # {웃음} {(웃음)}

10611 @ {웃음} 제민네요? {(웃음) 재밌네요.}

10611 # 근디 지그든 그거이 다 읍:써지제. 병워네 가문 양 머그먼 사:는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지지. 병원에 가면 약 먹으면 사는데.}

10611 @ {웃음} {(웃음)}

10611 # {웃음} {(웃음)}

10611 @ 그러조. {그러지요}

10611 @ 근데 인제 아까 마란 그림 아까 그먼 정계 정계:에도 막 이러케 머 신 신주단지 가통거 모셔노코 그림 거시 이썸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그림 아까 그러면 부엌 부엌:에도 막 이렇게 뭐 신 신주단지 같은 것 모셔 놓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10611 # 당골찌비가 점쟁이 집까 이썸. {당골집에 점쟁이 집에 있지.}

10611 @ 아 보:통 지베는 읍 {아, 보통 집에는 없}

10611 # 읍:써 읍:써 그거슨. {없어. 없어. 그}

10611 @ 아앙. {아앙.}

10611 @ 머 먼 조왕신한테 비러따등가 그렇거슨? {뭐 뭐 조왕신한테 빌었다든가 그런 것은?}

10611 # 아 그거또 점쟁이가 데 텅임시로 헤:썰. {아, 그것도 점쟁이가 다 다니면서 했지.}

10611 @ 그러면 저네 보면 머 그 아까 외양간 요런 데다도 빌:거나 그러지 아나썸요? {그러면 전에 보면 뭐 그 아까 외양간 이런 데다가도 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10611 # 외양까네는 글 앙코. {외양간에는 그러지 았고.}

10611 @ 예. {예.}

10611 @ 아무래도 거 점쟁이한테 위타글 해꾸만뇨. {아무래도 그 점쟁이한테 위탁을 했구먼요.}

10611 @ 그림 조상들 모시는 신 그렇거슨 읍썸썸니까? 우리 요 조상들, 조상드를 모시는. {그림 조상들 모시는 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이 조상들, 조상들을 모시는.}

10611 # 엔:나레는 네가 그 지블 아래채 사랑채라고 인자 지블 지스머는 그거뽕고 이르미 머시라거냐? {옛날에는 내가 야 그 집을 아래채 사랑채라고 이제 집을 지으면은 그것보고 이름이 뭐라고 하나?}

10611 # 시늘 모시는 디가 이썸. 마라자면. {신을 모시는 데가 있어, 말하자면.}

10611 # 삼년 엔:나레는 삼년::날 머리 이발도 앙코 손뚝또 안짜리고. {삼 년 옛날에는 삼

년날 머리 이발도 하지 않고 손톱도 안 자르고.}

10611 @ 예. {예.}

10611 # 마라자면 그 굴:간 제복 허고 시 시:모 시:모. {말하자면 그 굴건 제복하고 시 시묘 시묘}

10611 @ 예. {예.}

10611 # 그 그 지케. 크나드리 그거뵈고 시:모사리여. {그 그 지켜. 큰 아들이. 그것보고 시묘살이야.}

10611 @ 시:모사리요. {시묘살이요.}

10611 # 응. {응.}

10611 @ 그러면 꼭 나갈때도 인사하고 나가 {그러면 꼭 나갈 때도 인사하고 나가.}

10611 # 아::면. 드려서도 인사하고 {암. 들어와서도 인사하고}

10611 @ 밥또 다 날마다 삼시세끼 {밥도 다 날마다 삼시 세 끼니.}

10611 # 응 아:면. 그 모덜니리여. 궁계. {응, 암. 그 못할 일이야. 그러니까.}

10611 # 삼년가늘 머리가 요러코 질:꼬 그레땅게. 엔:나레 시:모사리허면? {삼년 간을 머리가 이렇게 길고 그랬다니까. 옛날에 시묘살이하면.}

10611 @ 예. {예.}

=1 @ 그러면는 잠깐 쉬여따가 하실까요? 벌써 마:니 하셔쓰니까? 예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벌써 많이 하셨으니까. 예.}

10611 @ 예 아까 그 여러가지 예 당골 이야기들 해주션는데 {예, 아까 그 여러 가지 예 무당 이야기들 해 주셨는데}

10611 @ 당골드른 까 자기가 이러케 딱 구여기 이찌요? 마으리? {무당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구역이 있지요?}

10611 # 아:면. 마으리 여 웅게서 사란느디 여 명산 봉구 여 이너메까장도 한 구여글 딱 마떠. {암. 마을이 여기 웅게서('웅게'는 지명) 살았는데 여기 명산 봉국 여기 이 너머까지도 한 구역을 딱 말아.}

10611 @ 자기가요? {자기가요?}

10611 # 응. {응.}

10611 # 고 그어뜨른 정월초하룻날 세:배와도 지시알미테서 허고 문 내려노코, 방에 모:뜨러오고 {그리고 그 그것들은 정월 초하룻날 세배 와도 기스락 밑에서 하고 문 열어 놓고, 방에 못 들어오고}

10611 @ 그러면 그 당골드리 다:: 설랄 다 세:배하고 {그러면 그 무당들이 다 설날 다 세배하고}

10611 # 아:멘 {암.}

10611 # 그라너면 안 중게 머:꺼설. {그러지 않으면 안 주니까, 먹을 것을.}

10611 @ 아: {아.}

10611 # 생명을 갇 먹꼬사는 생명을 거다 메끼는 사:람드리여. {생명을 그냥 먹고 사는 생명을 거기다 맡기는 사람들이야.}

10611 @ 그면 당골: 자식뜰:도 그냥 데:를 이어서 당골하는 사람도 이꼬? {그러면 무당 자식들도 그냥 대를 이어서 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10611 # 아:너. 다 인자 그거또 인자 읍:써저쩌 지그믄. {아니야. 다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졌지, 지금은}

10611 @ 에, 지그믐 업:써저썌요. {예, 지금은 없어졌어요.}

10611 # 다 객끼로 나가부니 읍:썌. {다 객지로 나가 버리니 없어.}

10611 @ 예. {예.}

10611 @ 엔:날보믐 그런다 그레요. 당고리 자기가 그 이 구역글 또 판:다고 그레요 나무한테. {옛날에 보믐 그런다 그레요. 당골이 자기가 이 구역을 또 판다고 그레요, 남한테.}

10611 # 그레썌. {그랬어.}

10611 # 아:믐. 따른 기양 썌 연변사لامي 여그 와서 사서 헐쭈도 이꼬 고리코. {암. 다른 그냥 저기 연변 사람이 여기 와서 사서 할 수도 있고 그렇고.}

10611 @ 에, 자기들끼리? {예, 자기들끼리?}

10611 # 으응, 자기들끼리. 구가는 그라너믐 함부로 모:뜨러와. {응, 자기들끼리. 구역은 그러지 았으면 함부로 못 들어와.}

10611 @ 그니까요. 자기들끼리 딱 에 정해져가꼬이~.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딱 예 정해져가지고.}

10612 @ 그러믐 아까 거 신주판지 말썌하셔짜나요? 고 신주랑거슨 뭐 조상을 모실까요, 머? {그러면 아까 그 신주단지 말썌하셨잖ాయ, 그 신주라는 것은 뭐 조상을 모실까요, 뭐?}

10612 # 응 조상. {응, 조상.}

10613 @ 아: 그믐 어:디다가 나뒤요, 단:지틀? {아 그럼 어디다가 놓아 뒤요, 단지틀?}

10613 # 단:지가 아이라 요마:난 체기 이썌. {단지가 아니라 요만한 책이 있어.}

10613 @ 아, 체기예요? {아, 책이예요?}

10613 # 응 그거이. 거가 네레기 썌:: 쓰여썌. {응, 그것이. 거기가 내력이 썌 썌었어.}

10613 # 마라자믐 우리 동네서도 저 명산 아까 기:넙썌민 크치, 큰집 거가 그거슬 인 모:션는디 {말하자믐 우리 동네서도 저 명산 아까 그 \*\*\*\* 크치, 큰집 거기에 그것을 이제 모셨는데}

10613 # 거가 영광 형교 공:잔님 제:사 지넌 형교, 형교 거시기를 썌: 으:르니여썌 거가. {거기가 영광 향교 공자님 제사 지내는 향교, 향교 거시기를 제일 어른이었어, 거기가.}

10613 @ 아. {아.}

10613 # 궁게 군:수도 딸썌 모더고 영광 오믐는 그믐는 저 군:수고 서:장이고 딸썌 모데썌 행고장한테. {그러니까 군수도 썌썌(‘딸썌’은 조금썌 움직이는 모양. ‘썌썌’의 뜻) 못하고 영광 오믐는 그믐는 저 군수건 서장이건 썌썌 못했어, 향고장한테.}

10613 # 글고 행고장이라 허는디 그냥반::늘 그냥바니 그지끼리를 헤:파니까. {그리고 향고장이라 하는데 그 양반을 그 양반이 그 짓거리를 했다니까.}

10613 @ 아:{아.}

10613 @ 그러면 보니깐 아까 어:디따 체글 어:디다 너:파고 그레썌니까? {그러면 보니까 아까 어디에다 책을 어디에다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10613 # 썌 썌그마건 백썌 여페가서 썌그만:치 멘드라는 디가 이썌. {저 자그마한 벽 옆에 가서 자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10613 # 그르 껌::꼬시 썌에썌. 썌 그 그집만 들랑달랑하거게 멘드라는. {그 껌:이 생겼어. 썌 그 집만 들락날락하게 만들어 놓은.}

10613 @ 체글 모셔놔요? {책을 모셔놓아요?}

10613 # 어 책. 거가 사진까지 다 이썌 거가. {어 책. 거기에 사진까지 다 있지 거기에.}

10613 @ 사지니라, 먼: 산? 누구 사? {사진이라, 무슨 사진? 누구 사진?}

10613 # 그 도라가신 양반 사진. {그 돌아가신 양반 사진.}

10613 @ 사지나고 체가고 {사진하고 책하고}

10613 # 어 그 내려기 싹: 거가 이씨. {어 그 내력이 싹 거기에 있어.}

10613 @ 족보 가통 거실까요? {족보 같은 것일까요?}

10613 # 암:. 족보로, 근디 족보는 아:닌디 그거시 말 마라자면 족보는 거시기를 싹 형거시 족보고 인자 가싱 마 그 거시기만 당대 그으거 가싱이여 그거시. {암, 족보로, 그런데 족보는 아닌데 그것이 말하자면 족보는 거시기를 싹 하는 것이 족보고 이제 가승, 마 그 거시기만 당대 그것이 가승이야, 그것이.}

10613 @ 아 가싱. {아 가승.}

10613 # 응 그러케해서 형거시여. {응, 그렇게 해서 한 거야.}

10613 @ 그러면 고놈 놈:두고는 날마다 저레요? {그러면 그것 놈 두고는 날마다 절 해요?}

10613 # 밤:나 잠 자도 거그서 자땅게, 거 미테서. {밤낮 잠 자도 거기서 잤다니까, 그 밑에서.}

10613 @ 방에서 안자고 고미테서? {방에서 안 자고 그 밑에서?}

10613 # 방이여 방. 방 방 우게 가서 베랑빱 사이 가서 궁 벅짱말로 요로코 이땅게 거가 여폐가. {방이야 방. 방 방 위에 가서 바람벽 사이에다가 그 벽장처럼 이렇게 있다니까, 거기에, 옆에.}

10613 @ 그걸 먼: 모신다 그레요? 며:슬 모신다고? {그걸 무엇을 모신다 그레요? 무엇을 모신다고?}

10613 # 신주. {신주.}

10613 @ 아 신주. {아 신주.}

10613 # 응. {응.}

10613 @ 고건 집집마다 인능건 아니고 고 제일 종손 지바니나 고러케 {그것은 집집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제일 종손 집안이나 그렇게}

10613 # 그까 종소니여, 어 종소니여. {그러니까 종손이야, 어 종손이야.}

10613 @ 게 어느 지베서나 다 비스타게 그러케 해:쓸까요? 다른 지베서도? 다른 종손들 또? {그것이 어느 집에서나 다 비슷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집에서도, 다른 종손들도?}

10613 # 그 그런 사:라미 월레는 읍:째. {그 그런 사람이 원래는 없지.}

10613 # 썬 영광 독빼기 심:씨는 그 묘:슬 자우 집떼 데발 뒤에다 메:슬 즈그 엄마야. {저 영광 독배기 심씨는 그 묘를 자기 집쪽 대밭 뒤에다 묘를 저희 어머니 것.(‘야’는 ‘것’의 뜻. 옛말 ‘하’에서 온 말임.)}

10613 # 고아유 씨씨. {그래가지고 썼어.}

10613 @ 예. {예.}

10613 # 묘: 씌성 거그다가 작쌀, 아까 네가 마레뎌 작쌀 지블 지서씨. 그래가꼬 삼년가늘 그 시:묘사리를 해씨. {묘 쓰면서 거기다가 작대기 아까 내가 말했던 작대기 집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삼 년간을 그 시묘살이를 했어.}

10613 @ 아: {아.}

10613 # 그거시 어:롱거시여 시:묘사리 허기가. 그 바미면 초뿔 씨노코 묘:세다가, 삼년가늘. 궁게 지그른 아라주자나 지금? {그것이 어려운 거야, 시묘살이 하기가. 그 밤이면 촛불

켜 놓고 묘에다가 삼 년간을. 그러니까 지금은 알아 주잖아, 지금?}

10613 @ 효:자라고. {효자라고.}

10613 # 효:자시라고. {효자시라고.}

10613 # 근디 거그는 그레 그 정부에서 효:자 거글르 안치레줄쑤 읍:씨. {그런데 거기는 그레. 그 정부에서 효자 거기를 안 치러 줄 수 없어.}

10613 # 그리고 여그는 봉국 여: 영짜 석짜 영짜 영:식씨 거그는 효:자, 거그는 마라자면 부모::가 오집똥을 싹 바다네씨 멘넌가늘. {그리고 여기는 봉국 여기 영자 석자 영자 영식씨 거기는 효자, 거기는 말하자면 부모 오줌, 똥을 싹 받아 냈어 몇 년간을.}

10613 # 그래서 정부에서 지서 중거시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어 준 것이고.}

10613 @ 아, 효:자가글 {아, 효자각을?}

10613 # 아, 효:자각. {아, 효자각.}

10613 @ 언:제즈미나 그제 지서저썬까요? {언제쯤이나 그것이 지어졌을까요?}

10613 # 어: 한 베고심년, 어 베고심년. {어 한 백 오십년, 어 백 오십년.}

10613 @ 그럼너기 강:씨지바닝가요? {그럼 여기 강씨 집안인가요?}

10613 # 응 가매공파. {응, 가매공파.}

10613 @ 가매공파. {가매공파.}

10613 # 가매공파에서 가매공이 가매공에서 수원공파로 양:자를 가씨. {가매공파에서 가매공이 가매공에서 수원공파로 양자를 갔어.}

10613 # 수원선생이라고 일본까지 거 한:문 일본놈들 갈친 거 거뽏고 수원선생이라고 그러제 가냥농게 나와씨 그거시. {수원선생이라고 일본 가서 그 한문 일본놈들 가르친 것 그것 보고 수원선생이라고 그러지. 광양농고 나왔지, 그것이.}

10613 # 그손:드리여. {그 후손들이야.}

10613 @ 다른 지방에서 나와따 그러믄 책 가치 양코 무슨 단:지 조상판지 그러케 단:지를 그러케 저기를 모셔와따 그레 한 할 한다 그레요? {다른 지방에서 나왔다 그러면 책 같지 않고 무슨 단지, 조상단지 그렇게 단지를 그렇게 저기를 모셔 놓았다 한다고 그레요?}

10613 # 그런 그 지방마닥 틀려 그거시. {그건 그 지방마다 달라, 그것이.}

10613 # 인자 그 단:지 지방 그 조상판지:라고 해서 허는 사람도 이꼬. {이제 그 단지 지방 그 조상단지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10613 # 신주로 모시는 디는 신주로 모시고 음 그거시 다 틀려. {신주로 모시는 곳은 신주로 모시고 음, 그것이 다 달라. }

10613 @ 거 혹씨 그 일제시대때 기어기 나십니까? {그거 혹시 그 일제 시대 때 기억이 나십니까?}

10613 # 일제때는 우리가 어려서. {일제 때는 우리가 어려서.}

10613 @ 어려서 기어기 잘 만나시조.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10613 @ 그러믄는 그바께 다른? {그러면은 그밖에 다른?}

10613 # 일제때는 인자 우리가 생강나능거슨 그때는 미영 빠:문 다 빼사가고, 유기그른, 수제가통 거 다 빼사가고 그렇거슨 아라. {일제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그때는 목화 빼면 다 빼앗아가고, 유리그릇, 수저 같은 것 다 빼앗아가고 그런 것은 알아.}

10613 @ 메쌀때나 그레썬썬까요 그때? {몇 살때나 그랬었을까요 그때?}

10613 # 그때 여나무살 머거썬게. {그때 여남은 살 먹었으니까}

10613 @ 여나믄살 머거썬 때. {여남은 살 먹었을 때}

10613 # 아 주로 가맹이 마니 짜:서 가지가고. {아 주로 가마니 많이 짜서 가져가고.}

10613 @ 가지가고. {가져가고.}

10613 @ 쌀가통거 다 나랑 농사해:농거또 가지가고. {쌀 같은 것 다 벼농사 해 놓은 것도 다 가져가고.}

10613 # 또 게: 자버서 껌딱 베껴가고. {또 개 잡아서 껌질 벗겨 가고}

10613 @ 게: 껌따기요? {개 껌질이요?}

10613 # 아:머. 게 껌딱 다 버껴서 가지가쎄. {암. 개 껌질 다 벗겨서 가져갔지.}

10613 @ 어:따 쓴답니까? {어디에다 쓴답니까?}

10613 # 또 다:제나무, 미영나무 껌딱 비껴서 가지가고. {또 '다제나무', 목화나무 껌질 벗겨서 가져가고.}

10613 @ 나:무껌따기요? {나무 껌질이요?}

10613 # 아:면. {암.}

10613 @ 아: 어:따 쓰까요? {아, 어디에 쓸까요?}

10613 # 그누를 가져가쎄. 게:껌딱, 게 상:게 자버서 그때 게 한 저 종자 미칠뻔 해쎄. 큰 게는 다:: 껌딱 비껴가쎄. {그것을 가져갔어. 개 껌질, 개 산 개 잡아서 그때 개 한 저 종자 없어질 뻔 했어. 큰 개는 다 껌질 벗겨 갔어.}

10613 @ 가주그로 쓸라고. {가죽으로 쓰려고.}

10613 @ 그러믄 여기서도 일본싸람드리 여기 와이쎄썸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습니까?}

10613 # 아이 투 가머는 쎄 염산 봉:덕싸네 가머는 저 허리 다껴 산 거시기 중턱게가 화: 뜰 파논디가 일본놈드리 여그서 파쎄. {아이, 가면은 저 염산 봉덕산에 가면은 저 허리 닿을 정도로 산 거시기 중턱에 뽕 둘러서 파 놓은 곳이 일본놈들이 여기서 팠지.}

10613 @ 사늘 파쎄요? {산을 팠어요?}

10613 # 파쎄 거. {팠어, 거.}

10613 @ 머:더게요? {뭐 하려고요?}

10613 # 거 전:쟁 거시기 멘들라고 형거시여쎄. {그거 전쟁 거시기 만들려고 그런 거였어.}

10613 @ 방:공호 가통거 {방공호 같은 것.}

10613 # 응. 훨 도라가믄서 산 중턱을 호 마라자믄. {응. 뽕 돌아가면서 산 중턱을 호 말하자면.}

10613 # 그레가꼬 그 인공 유기오편 인공 탁칠뎌 인민군드리 그거 쎄:머거쎄. {그레가지고 그 인공 육이오 뎌 인공 탁칠 뎌 인민군들이 그것 쎄 먹었지.}

10613 @ 아: 네: 그러썸니다. {아, 네, 그렇썸니다.}

### 1.6.3 금기 생활

10616 @ 그다으메요, 우리가 살:다보믄 머 허지마:라 머 허지마 이렇게 이썸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살다 보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이런 게 있습니다.}

10616 @ 제:가 저도 며칠저네 드런는데 제 아:는부니 자기 아드를 여울라고 그레요. 자기 칭구도 또 아드를 여울라고 그레. 그러면 나를 바다놔끼 떼무네 고 칭구 결혼헌 디는 모:칸다. {제가 저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제 아는 분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레요. 자기 칭구도 또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레. 그러면 날을 받아났기 때문에 그 친구 결혼한 곳은

못 간다.}

10616 # 말:도 아네 말:도. 나는 그거시 인자 여러가지가 이써서 그런디 그사람 만나믄 말:도 안는 사람 이써. {말도 안 해, 말도. 나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말도 안 하는 사람 있어.}

10616 @ 서로 날 바든 사람들끼리는? {서로 날 받은 사람들끼리는?}

10616 # 응 응. 말:도 아네. 결혼할 또마근. {응, 응, 말도 안 해. 결혼할 동안은.}

10616 @ 아하. {아하.}

10616 @ 아이 그집 차자, 겨론싱날 가능거슨? {아니 그 집 찾아, 결혼식날 가는 것은?}

10616 # 아 아 암:마 거그슨 말:도 말:도 안텐당게는. 그 아:네 만나도 말:도 아네. 그런 디가 이써 마:니. {아무렴. 그것은 말도, 말도 안 된다니깐. 그 안에 만나도 말도 안 해. 그런데가 있어 많이.}

10616 @ 그러조이? {그렇지요?} # 응.

10616 @ 그니깐 그 호닌날 바다노코는 어디 나쁜데는 당여니 양가게쥬 {그러니깐 그 혼인날 받아 놓고는 어디 나쁜 곳은 당연히 안 가겠지요.}

10616 # 나쁜 디는 양가제. 양가고 초상쥬 양가고 하이튼 그 {나쁜 곳은 안 가지. 안 가고 초상쥬 안 가고 하여튼 그}

10616 @ 제사 가튼 데도 양가고? {제사 같은 데도 안 가고?}

10616 # 양가고. 산닐 현 디도 양가고. {안 가고. 산일하는 데도 안 가고.}

10616 @ 산닐튼 {산일은}

10616 # 응, 그렇게 양가. {응. 그러니까 안 가.}

10616 @ 날바다노코는{날 받아 놓고는.}

10616 # 또 집 성주허고 삼년 아:네는 조:문도 안텐에. {또 집 성주하고 삼 년 안에는 조문도 안 다녀.}

10616 @ 아, 삼년똥아는? {아, 삼 년 동안은?}

10616 # 응, 삼년똥아는. 일쥬 그 삼년너머야 조:문도 가고 그러제. {응, 삼 년 동안은. 일쥬 그 삼 년 넘어야 조문도 가고 그러지.}

10616 @ 그니깐 그 아까마란 날바다노코도 어디까지 안는다 성주헤어고도 삼년아:네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날 받아 놓고도 어디 가지 았는다, 성주하고도 삼 년 안에는}

10616 # 삼년나네 양가. {삼년 안에 안 가.}

10616 @ 조:문도 양가고. 머 제:사가통거또, 제:사는 갈까요? {조문도 안 가고. 뭐 제사 같은 것도, 제사는 갈까요?}

10616 # 하여튼 나쁜 디는 구진 디는 양가. {하여튼 나쁜 데는, 곳은 데는 안 가.}

10616 @ 구즌데는 양가요이~? {곳은 데는 안 가요?}

10616 # 응. {응.}

10616 # 처:그 친척쥬 쥬또 양가. {저기 친척쥬 쥬도 안 가.}

10616 @ 일반 그냥? {일반, 그냥?}

10616 # 바로 기양 친쥬근 아니지마는 지반니리드라 양간다고 {바로 그냥 친척은 아니지만 집안 일이라도 안 간다고.}

10616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616 # 응. {응.}

10616 @ 음 또 그바게 또 머 그렇거 업: 쟁강나시능거 업쥬요, 그먼 머 어쥬면 어쩐다고?



{음 또 그밖에 또 뭐 그런 거 없 생각하시는 거 없어요, 그 뭘 뭐 어찌면 어쩐다고?}

10616 # 알:기도 그거뿐니 업:째. {알기도 그것밖에 없지.}

10616 @ 그런 정도요이? {그런 정도요?}

10617 @ 그러면 또 초상이 나쎄 우리지베. 초상이 나면 또 멍멍머허면 안된다. 고양이관  
관 우:그로 지나가면 안된다라등가 또머 초상나머는 {그러면 또 초상이 났어. 우리 집에. 초  
상이 나면 또 뭐뭐 하면 안된다. 고양이가 관 위로 지나가면 안 된다라든지 또 뭐 초상나면  
은?}

10617 # 거 엔:날 마리제. 엔:나레 궁게 엔:나레 인자 운명을 하면 사라미 주그면 운명헤끄  
든? 글몬 처제 기:뚝뚝팅 막꼬 그레쎄. {그거 옛날 말이지.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운  
명을 하면 사람이 죽으면 운명했거든? 그러면 첫째 굴뚝부터 막고 그렸어.}

10617 @ 아 기:뚝글 마가요? {아, 굴뚝을 막아요?}

10617 # 응. {응.}

10617 # 글몬 그그 엔:날 어른들 허는 지시 그레따고. 기:뚝뚝팅 막꼬 그 볼 원님 군:수  
지금가트면 군:수 이름부르고 그 거시기 지봉 올라가서 속 등지게 영어나따가 가꼬가서 시:  
번 네드림서 거 보보 거 부리제 혼부리제. {그러면 그그 그것이 옛날 어른들 하는 짓이 그  
랬다고. 굴뚝부터 막고 그 고을 원님 군수 지금 같으면 군수 이름 부르고 그 거시기 지봉  
올라가서 속 등지게 엎어 놓았다가 가지고 가서 세 번 휘두르면서 거 '복복' 그 부르지, 혼  
부르지.}

10617 @ 호늘 불러요? 그 도라가신분 이르믄? {혼을 불러요? 그 돌아가신 분 이름을?}

10617 # 응, 아니. 으~ 군:수 이르믄 불러. {응, 아니. 군수 이름을 불러.}

10617 @ 군:수이르믄 왜불? {군수 이름을 왜 불?}

10617 # 그, 그 불러서 그거뽀고 흠뻑 부르능 거시여. 흠뻑이라고 그러는디. 부르고 인자  
오늘가꼬 네러와서 요마넌 상자에다가 색실 삼:색씨를 허고 그 오더고 해서 그 상자에다가  
다마. {그 그 불러서 그것보고 혼뻑 부르는 거야. 혼뻑이라고 그러는데. 부르고 이제 옷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만한 상자에다가 색실, 삼 색실을 하고 그 옷하고 해서 그 상자에다 담  
아.}

10617 # 다머가지고 멍인 머리 우게다 놔:두거든? 입관허기 저네. {담아가지고 망인 머리  
위에다 놓아 두거든? 입관하기 전에.}

10617 # 그리고 인자 그거시 하:간헐 때 드러가. 그 그거뜰 하:간헐때 간허고 가:치 무더주  
거든 그 흠뻑글.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관할 때 들어가. 그 그것들 하관할 때 관하고 같이  
묻어 주거든 그 혼뻑을.}

10617 # 그리고인자 입관 허고는 멍저너고 바짜. {그리고 이제 입관하고는 명정하고 바  
꿔.}

10617 @ 멍저너랑게 멍:니까? {명정이란 게 뭘니까?}

10617 그 글씨 빨건 그거시 그시 멍저니제. 그 도라가신 낭반 이름쓰고 그 성: 쓰고 글제.  
그 멍저너고 바꾸면 인자 요거슨 한쪼그로 인자 그거슬 인자 흠뻑 그거슬 아까 그 시 거시  
기 저 살리테끼 그 {그 글씨 빨간 그것이 그것이 명정이지. 그 돌아가신 양반 이름 쓰고 그  
성 쓰고 그러지. 그 명정하고 바꾸면 이제 이것은 한쪽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혼뻑 그것을  
아까 그 시 거시기 저 살리듯이 그}

10617 @ 시:묘사리 {시묘살이.}

10617 # 응 시 허는 사라미 이꼬. {응 시 하는 사람이 있고.}

10617 # 인자 그거시 멍저는 또 머:더고 바꾸냐마는 사네가서 팽토지 지넬떼게 지방 지방 써:서 지방허고 멍저너고 또바까. 멍저는 인자 그때 간따라서 멍인 신체허고 가:치 드러가니까 땅소그로. {이제 그것이 명정은 또 뭐하고 바꾸냐면 산에 가서 평토제를 지낼 때 지방 지방 써서 지방하고 명정하고 또 바꿔. 명정은 이제 그때 관 따라서 망인 시체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땅속으로.}

10617 # 그래서 그 사네서 지방을 써:서 엔:나레는 그레써. 지방을 사네서 써. 부더고 머거고 가꼬가서 지방을 써:서 팽토지를 지네고. {그래서 그 산에서 지방을 써서 옛날에는 그랬어. 지방을 산에서 써. 붓하고 먹하고 가지고 가서 지방을 써서 평토제를 지내고.}

10617 @ 네. {네.}

10617 # 인자 그 지방을 가꼬 지비와서 엔:나렌 삼년상을 지네니까 감:안제를 지네. 지비와서 인자. {이제 그 지방을 가지고 집에 와서 옛날엔 삼년상을 지내니까 강안제를 지내. 집에 와서 이제.}

10617 @ 언제요? {언제요?}

10617 # 가:난. {강안.}

10617 @ 과:난제? {과난제?}

10617 # 응. 과:난제라고 그거뽕고. 지비와서 과:난제를 제:사를 이러코 지네 진짜. {응. 과난제라고 그것보고. 집에 와서 과난제를 제사를 이렇게 지내 진짜.}

10617 # 제:사를 지네고 인자 보름 초하루 보름 그 상망을 지네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보름 초하루 보름 그 상망을 지내지.}

10617 @ 예. {예.}

10617 # 상망을 지네고 인자 삼년상을 지네. 삼년상 지네고나면 졸보기라고 이써. {상망을 지내고 이제 삼년상을 지내. 삼년상을 지내고 나면 졸복이라고 있어.}

10617 # 밤:사, 엔:나레 복잡해써. 밤:사:를 석:딸 여를마네 삼년상 떠난 석:딸 여를마네 밤:사를 지넬거시 밤:사는 무:시냐허머는 방으로 모시는 바까테가 게세쑹께 바까테는 모:시능거뽕고 담:사라고 그레. {'밤사', 옛날에 복잡했어. '밤사'를 석 달 열흘만에 삼년상 떠난 석달 열흘만에 '밤사'를 지내는 것이 '밤사'는 뭐냐면 방으로 모시는 밖에 계셨으니까 밖에는 모시는 것보고 '밤사'라고 그레.}

10617 @ 아 그걸 밤:사라고 그레요? {아, 그걸 '밤사'라고 그레요?}

10617 # 응. {응.}

10617 # 그러고 헤 복잡해써. {그렇게 복잡했어.}

10617 @ (웃음) 그레서써요? {(웃음) 그러셨어요?}

10617 # 궁게 그 중가네는 초상나면 먼: 동네가면 그오슬 지붕으다 거:러논 사라미 마:네 써 응?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초상 나면 무슨 동네 가면 그 옷을 지붕에다 걸어놓는 사람이 많았어. 응?}

10617 # 그먼 상놈드리 허는 지꺼리여 그거시 마라자면 모:렇게. {그러면 상놈들이 하는 짓거리야 그것이. 말하자면 모르니까.}

10617 # 그거시 흙베글 불러서 머:시 네레와야 허능 거슬 그거시{그것이 혼백을 불러서 뭐가 내려와야 하는 것을 그것이}

10617 @ 왜 거러논다? {왜 걸어놓는다?}

10617 # 응. {응.}

10617 # 그거시 궁게 거러논능거슨 아니여. {그것이 그러니까 걸어놓는 것은 아니야.}

10617 @ 네. {네.}

10617 # 그 예: 뻔뻔 그거슨 아니여. {그 옛법에 그것은 아니야.}

10617 @ 그니까 지붕위에 올라가서 흙베글 부르는 그렇게 이꾸마뇨?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흙베글 부르는 그런 것이 있구먼요?}

10617 # 응. {응.}

10615 @ 그다으메 또오 여자나 이런 사람드른 또 머 어찌면 안텐다 여자드른 어찌면 안텐다 이렇거또 이쉴수 이썰요? {그 다음에 또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또 뭐 어찌면 안 된다 여자들은 어찌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10615 # 궁게 엔:나레 우리 봉건주이 사해가 여자도 조강지처라사 문발로 스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봉건주의 사회가 여자도 조강지처라야 문쪽으로 서고.}

10615 # 인자 엔:나레 자근마누레도 기양 겨론식 양코 어더가꼬 사라서 새끼들 나:서 그거 뻔고 서:자라 그러제. {이제 옛날에 작은마누라도 그냥 결혼식 안 하고 얻어가지고 살아서 새끼들 낳아서 그것보고 서자라고 그러지.}

10615 # 그안시어썬. {그 안 쫘어.('세다'는 '치다'의 뜻)}

10615 # 지:사 지넬때도 그거뜰 모:도게 허고 인자 그거시 인자 서:자라고 그렌는디 또 제:주손도 안시어주는 사람 안 시어썬. {제사 지넬 때도 그것들 못 오게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서자라고 그렸는디 또 재취 손도 안 쳐 주는 사람 안 쫘어.}

10615 # 게 결혼식 해:서 난 아들도 제:추 쟁게가서 그거또 말썬이 이제. 중간까징도 이떠라고 지금가장도 그 여냥이 비쳐. 우리 동네가 이썬 그런 사라미. {그래 결혼식 해서 낳은 아들도 재취 장가가서 그것도 말썬이 있지. 중간까지도 있더라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비쳐. 우리 동네에 있어 그런 사람이.}

10615 @ 요세는 이호니 다반사로 이러나가지고 제:추랑거시 호나게 된는데. {요세는 이호가 다반사로 일어나가지고 재취라는 것이 흔하게 됐는데.}

10615 # 궁게 그거뜰 우리는 사:라므로 아나라. 부, 부모가 메껴쥬쓰면 해서 그 워냐글 해쓰면 꼬까지 사라야제 쪼까 조으면 피마꼬 쪼까 나쁘면 피마꼬 허면 그거시 사:라미 헐찌시 아니여. {그러니까 그것들 우리는 사람으로 알지 않아. 부, 부모가 맡겨 쫘으면 해서 그 언약을 했으면 끝까지 살아야지 조금 좋으면 내뻔고('피말다'는 '내뻔다'의 뜻) 조금 나쁘면 내뻔고 하면 그게 사람이 할 것이 아니야.}

10615 @ 요세는 그 비:일비제해요. {요세는 그것이 비일비재해요.}

10615 # 궁게 그거시 사람 사:라미 허능 지꺼리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고.}

10615 # 그거뜨른 사라민짜를 모:르능 거뜨리여. {그것들은 사람 인자를 모르는 것들이야.}

10615 @ 이혼, 이혼하능거요? {이혼, 이혼하는 거요?}

10615 # 사라민 사라민짜도 지:또 서로 여러고 지:떼고 인능거시 서로 지:테고 조:케 살자능 거시제. 그드른 야:무꺼또 아닝 거뜨리여. 사짜 뻔뻔생 \*\*\*\*\* 나는 우리 메느리덜 싣:뻔고 그려. 서울 가문. {사람 인, 사람 인자도 기대지도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이 서로 기대고 좋게 살자는 것이지.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이야. \*\*\*\* 나는 우리 며느리들 셋 보고 그려. 서울 가면.}

10615 # 느그드리 교:리를 밀건 아니라 부모를 미더라. 종교를 미더라 그마리여. 그거이 종교여. 그 며느리들 교:가 무:신질 몰라. {너희들이 교회를 믿을 것이 아니라 부모를 믿어라 종교를 믿어라 그 말이야. 그것이 종교야. 그 며느리들 종교가 무엇인지를 몰라.}

10615 # 친정어메를 친정부모를 미편지 시부모를 미편지 부모를 크게 아:능거시 사:라미제 부모도 모릉거시 하나니를 차지른 무:덜꺼시여? {친정어미를 친정부모를 믿든지 시부모를 믿든지 부모를 크게 아는 것이 사람이지 부모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면 뭐할 거야?}

@ (웃음)

10615 # 잘때로 우리 아그드른 그 교:는 암미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그 교회는 안 믿어.}

10615 @ 그리고 인제 그 그러초 여자들 그 아까마란 그렇거또 이썸는데 트키 엔:날 봉건 주이 사회에서 여자를 나취바가지고 정월 초하룻날부터 여자드리 어:디아 어디 텅기면 안조 타라등가 아치미른 여자드리 길다니면 어쩐다등가 {그리고 이제 그 그렇지요. 여자들 그 아까 말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특히 옛날 봉건주의 사회에서 여자를 낮취바가지고 정월 초하룻날부터 여자들이 어디냐 어디 다니면 안 좋다라든지 아침이면 여자들이 길 다니면 어쩐 다든지}

10615 # 여자드리 지금도 그러제 장사하는 지븐 양가. {여자들이 지금도 그러지. 장사하는 집은 안 가.}

10615 # 네가 장사를 허문 여자들 우리지브로 아바. {내가 장사를 하면 여자들 우리집으로 안 와.}

10615 @ 아치메요? {아침에요?}

10615 # 아치메. {아침에.}

10615 # 제수업파해가꼬 여자드른 제수업파해가꼬 그거시 이썸. {제수없다 해가지고 여자 들은 제수없다 해가지고 그것이 있어.}

10615 @ 장, 장사하는 지븐 운:수, 운:수보는 집뜨른 양가구마뇨. {장, 장사하는 집은 운 수, 운수 보는 집들은 안 가구먼요.}

10615 # 응 그 양가. {응, 그 안 가.}

10614 @ 그다으메 또 때에 따라서 음력 정월레는 머:슬 허지마라 머 언:제는 머:슬 허지마 라 이런말 그렇거뜰 또 흑씨 생강나시능거 이썸니까?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 음력 정월 에는 무엇을 하지 마라 뭐 언제는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말 그런 것들 또 흑씨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10614 # 우리가 알:기로는 설:파리 크무는 그해 농사가 잘데고 설:파리 저그문 안조코 농 사가 안텐닥 허고 인자. {우리가 알기로는 설달이 크면은 그 해 농사가 잘 되고 설달이 작 으면 안 좋고 농사가 안 된다 하고 이제.}

10614 # 보르메는 잡씨니 몰 달긴닥 해서 오:곡밥 해서 사:람 집썸에다 뿌리고 인자 그렇 거시제 판 거시기는 읍:씨. {보름에는 잡신을 달랜다고 해서 오곡밥 해서 사람 집 \*\*에다 뿌리고 이제 그런 것이지 판 거시기는 없어.}

## 1.7 질병과 민간요법

###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0701 @ 아 그러면 이제 고이야기를 조금 제가 더 드려야테거씀니다만 고저네 그렇거를 {아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더 드려야겠습니다만 그 전에 그런 것들}

10701 @ 엔:나레는 지그몬 약또 이꼬 병원도 이꼬 그러니까 딱 조치만 엔:나레는 병이 마: 나썬요 병이? 우선 피부뽕부터만 말쓰를 해볼까요 먼: 병드리 피부 예기들 어른들 예기드르 어떤 피부가 이썬썬니까? 피부뽕? {옛날에는 지금은 약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딱 좋지만 옛날에는 병이 많았어요 병이? 우선 피부병부터만 말쓰를 해 볼까요 무슨 병들이 피부 아이들 어른들 아이들은 어떤 피부가 있었습니까? 피부병?}

10701 # 인자 엔:나레 우리 어려썬 때는 그때는 병:원도 읍:꼬 헨디 뚜드러기 나. 뚜드러크 모메서. 뚜드러기 나:먼 으:런드리 허는 지시 무:시나 허머는 {이제 옛날에 우리들 어렸을 때는 그때는 병원도 없고 하는데 두드러기가 나. 두드러기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면 어른들 이 하는 짓이 뭐냐 하먼은}

10701 # 거 아까 거 메우제 그거 도건 냉갈라는 거슨 꼬실라가꼬 화장실로 간다고 그때는 화장실리 바까테가 다 이썬. 마라자몬 지그밍게 아:네가 이제. 가서 {그 아까 그 매운 재. 그것 독한 연기 나는 것은 태워가지고('꼬시르다'는 원래 '그을리다'의 뜻이나 여기서는 '불에 태우다'의 뜻) 화장실로 간다고. 그때는 화장실이 밖에 다 있어. 말하자면 지금이니까 안에 있지. 가서}

10701 @ 그때는 화장실도 아니여잰? {그때는 화장실도 아니었지요.}

# 으~. (응)

@ 머:라고? 그때는? {뭐라고 그때는?}

10701 # 그때는 뒀까나라고 뒀간. {그때는 뒀간이라고 뒀간.}

10701 @ 예 뒀간. {예, 뒀간.}

10701 # 그거슬 비짜루 가꼬는 썬러. {그것을 빗자루 가지고는 쓸어.}

10701 @ 아, 어디 뚜드러크 난 디를? {아, 어디 두드러기 난 곳을?}

10701 # 그 그건 그거시 냉갈나강거슬 생에가꼬는 썬:고 썬:고 엔:나레 으:런드르 고러케 인자 뚜드러크 나몬 그레따고 {그 그것 그것이 연기 나간 것을 생겨가지고는 쓸고 쓸고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이제 두드러기 나면 그랬다고.}

10701 # 그리고 또 그 시끼고 마라자몬 썬게. {그리고 또 그 썬끼고 말하자면 썬겨.}

10701 # 그리고 {그리고}

10701 @ 시킨다는 마:른 무슨 마리에요? {썬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701 # 마:순물로 썬게. 마라자몬 소도글 허나 다름업썬 인자 그거슬 허는디 그거슨 궁게 엔:나렌 마:니 주거썬. 엔:나레는 항:갑썬고 주근 사라미 읍:썬. {따뜻한 물로 썬겨. 말하자면 소독을 하는 것과 다름없이 이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옛날엔 많이 죽었지. 옛날에는 환갑 쇄고 죽은 사람이 없어.}

10701 # 전:수 시운메썬 머거서 주근 사라미 마:니 산사라미 시운메썬 머거서 주거썬. {전부 썬 몇 살 먹어서 죽은 사람이 많이 산 사람이 썬 몇 살 먹어서 죽었어.}

10701 # 우리 아버지도 마흔아홉베 도라가게썬. {우리 아버지도 마흔아홉에 돌아가셨어.}

10701 @ 아이 그러셔썬요? {아이, 그러셨어요?}

10701 # 근담 우리 아버지게다 테먼 시방 마니 사라썬. {그런다면 우리 아버지와 비교하면 지금 많이 살았어.}

10701 @ 무슨 특별란 병:이 이썬썬썬요? {무슨 특별한 병이 있으셨어요?}

10701 # 아니 병:도 업:꼬 경인너네 도라가겐는디 여가 그때는 이 백썬가 빨치산들 인공이 여썬. {아니, 병도 없고 경인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가 그때는 이 백썬가 빨치산들 소굴이었어.('인공'은 인민공화국의 약칭이지만 여기서는 '소굴'로 해석하였다.)}

10701 # 궁게 병:원도 업꼬 갈 떠도 업꼬 피:란 텡이다가 와따가따 아파서 글로 거시게써  
 {그러니까 병원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피난 다니다가 왔다갔다 아파서 그것으로 거식했어.}

10701 @ 그럼 엔:나레 그 인자 어리네들 보며는 인자 뚜드럭또 나고요이 또 이 머리에도  
 머:가 마:니 나요 엔:나레 예기들 보면. {그럼 옛날에 그 이제 어린애들 보면은 이제 두드러  
 기도 나고요 또 이 머리에도 뭐가 많이 나요, 옛날에 아이들 보면.}

10701 # 궁게 엔:나레 단도기라고 거 이 몸뚱이 가서 단도~이 나머는 고거이 핵: 도라서  
 다:먼 주거. {그러니까 옛날에 '단독'이라고 몸뚱이에 '단독'이 나면 그것이 뺑 돌아서 닿으  
 면 죽어.}

10701 # 단도기라능 거시 단동이 누네 베이면 그러코 안 베이고 몸뚱이에서 나면 그거이  
 이러코 도라. 도라서고 다:먼 주거. 그거 다 단독 걸린 사람 엔:나레 그래서 다 주거써. {'단  
 독'이라는 것이 '단독'이 눈에 보이면 그렇고 안 보이고 몸뚱이에서 나면 그것이 이렇게 돌  
 아. 돌아서고 닿으면 죽어. 그것 다 '단독' 걸린 사람 옛날에 그래서 다 죽었어.}

10701 @ 함바꿀 돈:다 이마리에요? {한 바퀴 돈다 이 말이에요?} # 아:먼 {아무렴.}

10701 @ 그러면 그 단도근 그 {그러면 그 '단독'은 그}

10701 # 지그른 기양 주사 노면 읍췌지는데 {지금은 그냥 주사 놓으면 없어지는데}

10701 @ 어떠케 쟁게췌니까 증상이? {어떻게 쟁겼습니까 증상이?}

10701 # 그이까 여그저 뚜두룩 거임 명물마양으로 쟁긴거이 나껴져. {그러니까 여기 저 두  
 드러기 그것이 먹물 모양으로 쟁긴 것이 \*\*\*.}

10701 # 그래가지고 거 우리 어레췌 때 그거이 어:른들 단독 걸리든 주궁게 단도근 조심해  
 라 쏘리. 마라자면 {그래가지고 그 우리 어렸을 때 그것이 어른들 '단독' 걸리면 죽으니까  
 '단독'은 조심해라 소리. 말하자면.}

10701 # 그러고 인자 이 등어리 나서 등창 궁게 단독또 이때 목 모기 여 머리 미테서 나  
 거든. 그거또 단도기라 허제 그거뽀고도. {그리고 이제 이 등에 나서 등창 그러니까 '단독'  
 도 이때 목 모기 여 머리 밑에서 나거든. 그것도 '단독'이라 하지 그것보고도.}

10701 # 강 강 기양 고름 나꼬 기양 요로코 기양 녹췌히가와 허머는 사네 가서 쟁키나무  
 까:시가 요러고 기양 요로코 쟁에췌. 고놈 따:다가 강 따:고 엔:날 지금가트면 주사기로 빠  
 라번지는데 엔:나렌 쟁키나무 그 까:시를 따:다 허고 꾸지뽕 까시 따:다가 또 따고 그러고  
 사라췌. {그냥 그냥 고름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 하면은 산에 가서 '쟁키나무' 가  
 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쟁겼어. 그것 따다가 그냥 따고 옛날 지금 같으면 주사기로 빨아  
 버리는데 옛날엔 '쟁키나무' 그 가시를 따다 하고 산뽕 가지 따다가 또 따고 그렇게 살았  
 어.}

10701 @ 그 탄따나게 골마가꼬 고름고놈 뽐라고. {그 단단하게 끓아가지고 고름 그것 빼  
 려고.}

10701 # 궁게 네:가 시물일곱췌 머거서 사:십치릴마네 바까슬 나가췌. 아파서. {그러니까  
 내가 스물일곱 살 먹어서 사십칠 일만에 밖으로 나갔어 아파서.}

10701 @ 먼 머:가 아프셔서? {뭐 뭐가 아프셔서?}

10701 # 먼: 병인지들 모르제. 몰라. 그런데 인자 기간지가 나뽐췌, 마라자면. {무슨 병인  
 줄을 모르지. 몰라. 그런데 이제 기관지가 나뽐어. 말하자면.}

10701 @ 아 기관지? {아 기관지?}

10701 # 응. {응.}

10701 # 기간지가 나뽐디 병:위네 그땐 이췌는데 공:이라고 서울싸라미 뽐췌와서 이췌는데

폐:뽕 알고 야글 쏜게 안드러. {기관지가 나쁜데 병원에 그때 있었는데 공의라고 서울 사람이 백수 와서 있었는데 폐병으로 알고 약을 썼는데 안 들어.}

10701 # 그레가꼬 도:늘 몽::땅 자번 느:썸. 느:코 또 안나승게. 그레가꼬 나락 방가메이 가꼬가서 영광 가서 테라마이싱 함병 마꼬 나사 번저썸. {그레가지고 돈을 몽땅 잡아넣었어. 넣고 안 나오니까. 그레가지고 벼 반 가마니 가지고 가서 영광 가서 테라마이싱 한 병 맞고 나아 버렸어.}

10701 # 그 테라마이싱 지금도 이런 인테가요 고름 막 여거 요런데 가서 요 요거시가 이거시여. 테라마이싱 마증게 여그서 부스름말로 나가꼬 고르미 기냥 누:런 고르미 요만씩 한 너미 나와. 요런 디서 몸뚱이서. 그리고 나 나사 버러썸. {그 테라마이싱 지금도 여기 이런 데요 고름 막 이런 데에 요 거시기가 이것이야. 테라마이싱 맞으니까 여기서 부스름처럼 나가꼬 고름이 그냥 누런 고름이 요만큼씩 한 것이 나와. 이런 데서 몸뚱이에서. 그렇게 나 나아 버렸어.}

10701 # 이거시 승게저서 안 아넵썸저. 여그 사:람디 몸뚱이가 팍차썸 요롱 거시. {이것이 흉터 저서 안 없어져. 여기 사방에 몸뚱이에 팍 찼어, 이런 것이.}

10701 @ 온: 모메도 그러케 고르미 생게따고요? {온 몸에도 그렇게 고름이 생겼다고요?}

10701 # 그 테라마이싱 마꼬 고로고 나와땅게. 몸뚱이에서. 그거시 썸 알로 빠져썸. {그 테라마이싱 맞고 그렇게 나왔다니까. 몸뚱이에서. 그것이 썸 아래로 빠졌어.}

10701 @ 그레도 굶니 이썸는 모양이네 항생제드만. {그레도 굶이 있었는 모양이네. 항생제더구먼.}

10701 # 궁게 그 테라마이싱 마즈 마즈머는 코로 냄세가 기양 조:케 향네가 난다고 거 두:데 마꼬 나사 버러썸. {그러니까 그 테라마이싱 맞으 맞으면은 코로 냄세가 그냥 좋게 향내가 난다고. 그거 두 대 맞고 나아 버렸어.}

10701 @ 그게 나락, 나락방가마니요? {그게 벼, 벼 반 가마니요?}

10701 # 나락 방가마니. {벼 반 가마니.}

10701 @ 나랑 방가마니. {벼 반 가마니.}

10701 @ 아 그레도 다행이시네요. 그게 {아, 그레도 다행이시네요. 그게.}

10701 # 그레가꼬 오래사라썸 지금까지. {그레가지고 오래 살았어 지금까지.}

10701 @ 그레요 그 피부 아까 말쓰마신게 그렇게 이꼬 이제 예:기 아까 뚜드럭 이야기를 마:니 하셔꺼든뇨. 그다으메 인자 예:기들 인자 이발소 가튼데 잘못까면 {그레요. 그 피부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게 있고 이제 얘기 아까 두드러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제 이발소 같은 데 잘못 가면}

10701 # 응 기계뚝. 기계뚝. {응, 기계충. 기계충.}

10701 @ 기계뚝. {기계충.}

10701 # 기계또기 오르머는 머리가 이려고 동고로니 썸빠지고 흐:거이 기양 투실투실허거등. 이려고 그테모기 게:떡마냥으로. {기계충이 오르면은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썸 빠지고 하얗게 그냥 도톨도톨하거든.('토실토실하다'는 '도톨도톨하다'의 방언형) 이렇게 그 부근이 개떡 모양으로.}

10701 # 그먼 그걸을 인자 무:슬 마니 발라야허냐거든 엔:나레 담:베떼 어:런들 템:베 담:베떼 담:베 피는 담:베떼가 이썸. {그러면 그것을 이제 무엇을 많이 발라야 하느냐면 옛날에 담뱃대 어른들 담배 담뱃대 담배 피우는 담뱃대가 있어.}

10701 # 그 인자 쉬에기로 그 구머글 쭈셔서 빼:머는 찌니 나와. {그 이제 새뺨기로 그 구

멍을 쭈셔서 빼면은 진이 나와.}

10701 @ 예. {예.}

10701 # 그찌늘 이리코 홀터서 불라주고 또 마느를 항가운데 탁 찔라가꼬 아파. 마늘 그 진자 그렇거시 야기여씨 엔:나레. {그 진을 이렇게 훑어서 발라 주고 또 마늘을 한가운데 탁 찔라가지고 아파. 마늘 그 진짜 그런 것이 약이었어 옛날에.}

10701 @ 기계또게다가? {기계충에다가?}

10701 # 응 기계뚝. {응, 기계충.}

10701 @ 그다으메 그저 영양이 안조으니까 하야케 예들 그케 얼구레가 머 찌자나요 하:양 거시 뚱그:라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 영양이 안 좋으니까 하얏게 아이들 그렇게 얼굴에 뭐 나잖아요 하얀 것이 둥그랗게 생기기도 하고.}

10701 # 흐:거니 그,그거이 으:레. 그거뽕고 으:레락 글제. {하얏게. 그, 그것이 '으레'. 그것 보고 '으레'라고 그러지.}

10701 # 으:레. 지금도 여 언:너메 가먼 노인 한 구십살까지 노이니 강 얼굴 한조기 강 흐:케. {'으레' 지금도 여기 넘어가면 노인 한 구십 살까지 노인이 그냥 얼굴 한쪽이 그냥 하얏.}

10701 # 그거시 안나스믄 안나서. {그것이 안 나으면 안 나아.}

1070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701 # 응, 으:레 으:레 약꾸 읍:씨. {응, '으레', '으레', 약도 없어.}

10701 @ 그럼 으:레라는 하얀병이네요? 결국 피부가 하야케 탕거조? {그럼 '으레'라는 하얀 병이네요? 결국 피부가 하얏게 되는 거죠?}

10701 # 그거시 누니 이씨. 으:레에 누니. 으:레가 난:능 거시 이꼬 {그것이 눈이 있어. '으레'에 눈이. '으레'가 낫는 것이 있고}

10701 # 으:레 누네다 치믈 노:머는 그레 사라미 서망구기라고 길룡리서 사란느디 으:레를 전문찌그로 치믈 마순 사:라미 이씨씨. {'으레' 눈에다 침을 놓으면 그레 사람이 서만국이라고 길룡리서 살았는데 '으레'를 전문적으로 침을 놓아 주는 사람이 있었어.}

10701 # 나도 으:레 올라가꼬 모래미 해수욕장 가가꼬 올라가꼬 거가서 침마꼬 나서씨. {나도 '으레' 읍아가지고 모래미 해수욕장('모래미'는 지명) 가가지고 읍아가지고 거기 가서 침 맞고 나왔어.}

10701 # 그 으:레 그 누네다가 침 놔:버리믄 으:레는 업씨져. 그거시 이씨. {그 '으레' 그 눈에다 침 놓아버리면 '으레'는 없어져. 그것이 있어.}

10701 @ 그다으메 인제 그 보짐 찼찌메 글뎌 보지미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짐. \*\*\*\* 그때 버짐이라고}

10701 # 거 보짐도 이거 마라자면 기계또기랑 또가통거시여 종뉴가. {그 버짐도 이것 말하자면 기계충이랑 똑같은 거야, 종류가.}

10701 @ 아 그래요? 기계뚝{아, 그래요? 기계충.}

10701 # 아:믄. {암.}

10701 # 궁께 보지믄 마라자면 얼구리라 엔:나레는 게넌 게너시 이리코 게양 뽕바. 이리코 쪽쪽 이리코 아파 피가 팔팔라. {그러니까 버짐은 말하자면 얼굴이라 옛날에는 갱엿 갱엿이 이렇게 그냥 뽕아. 이렇게 쪽쪽 이렇게 아파. 피가 펄펄 나.}

10701 # 그 인자 거 보지믄 뽕바네면 {그 이제 그 버짐을 뽕아 내면}

10701 @ 아 갱, 갱녀슬 부쳐가지고 뜨더버리는 {아 갱, 갱엿을 붙여가지고 뜯어버리는}



10701 # 응 차코 이려고 떠 허머는 그거시 뒤실뒤실 그거이 거시기가 이써. 비느리가통 거시 그거이뽀고 버지미라게. 고거를 싹 베껴네야 지금가트머는 그거슬 인자 소:지하는 포기여. 그거이 무지하게 고걸 표하고 나면 쫘 자 뽀게 그 오른디 그 버짐 오른디는. {응 자꾸 이렇게 떠 하면은 그것이 도톨도톨 그것이 거시기가 있어. 비늘 같은 것이 그것보고 버짐이라고 해. 그것을 싹 벗겨 내야 지금 같으면은 그것을 이제 소독하는 셈이야. 그것이 무지하게 그걸 \*\*하고 나면 좀 빨개. 그 오른 데가, 버짐 오른 데는.}

10701 # 거 켄너시로 뽀바버리몬. {그것 갱엇으로 뽀아 버리면.}

10701 @ 아 켄너시로 뽀뽀니까? {아, 갱엇으로 뽀습니까?}

10701 # 켄너시로 뽀바서 엔:나렌. 궁게 그렇거가꼬 뽀봉게. {갱엇으로 뽀았어, 옛날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뽀으니까.}

10701 @ 보짐도 짐:무리 난 보지미 이꼬 {버짐도 진물이 나는 버짐이 있고}

10701 # 아:면. 짐:무리 난 보지미 이꼬 또 짐:물 안나고 기양 뒤실뒤시런 보짐 이꼬 그레. {암. 진물이 나는 버짐이 있고 또 진물 안 나고 그냥 도톨도톨한 버짐 있고 그레.}

10701 @ 이르미 다르지 안썸니까?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10701 # 아:면. 이르몬 안 달라. 다 버지미여. 그거슨. {암. 이름은 안 달라. 다 버짐이야.}

10701 # 네가 알:기로는 고로코 아라 보지물.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 버짐을.}

10701 @ 그리고 보짐말고 머 부시럼가통거또 마:니 이써썸요? {그리고 버짐 말고 뭐 부스럼 같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10701 # 부시러미랑 등창 {부스럼이랑 등창.}

10701 @ 등창 {등창.}

10701 # 응 등창가통거 인자 그런 그렇거시제. {응 등창 같은 것 이제 그런 그런 것이지.}

10701 @ 아 등에 골마요? {아, 등에 굼아요?}

10701 # 응 골마. 골마가꼬 기양 고름 짜네고 기양 그때는 거그 거 함:방 침만는 디 가서 {응, 굼아. 굼아가지고 그냥 고름 짜내고 그냥 그때는 거기 한방 침 맞는 데 가서}

10701 @ 어떻게 골, 어터게 짜:넴니까? 그거슬 무어슬 야글 부칭가요? {어떻게 골, 어떻게 짜넴니까? 그것을 무엇을 약을 붙이는가요?}

10701 # 아니여. 엔:나레는 등창 잘못하면 요로코 부서서 곱:들거든. {아니야. 옛날에는 등창 잘못하면 이렇게 부어서 곱:들거든.('곱들다'는 '곱다'의 뜻)}

10701 # 그러면 요로코 납짜:간 요로코 납짜간 데:피치미 이써. 데:피치물 그냥 그 확 찢러가꼬 고노를 저서번저. 그레가꼬 기양 확: 짜 버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납작한 대침이 있어. 대침을 그냥 확 찢러가지고 그것을 저어 버려. 그레가지고 그냥 확 짜 버려.}

10701 @ 음 그게 인자 고:미 든다검니까? 거가? {음, 그게 이제 곱이 든다고 합니까, 거기 에?}

10701 # 거 인자 고름 안들지. 고놈 짜:네버리면 {그거 이제 고름 안 들지. 그것 짜 내 버리면.}

10701 @ 그 고:미든단 마를 썸니까? {그 곱이 든다는 말을 썸니까?}

10701 # 거그다 인자 덴:장가통거 기양 부치고 엔:나레는 {거기다 이제 된장 같은 것 그냥 붙이고 옛날에는.}

10701 @ 예 {예.}

10701 # 기양 그 간,간끼를 해:노머는 지금가트면 소동냐기나 가터 그거시. {그냥 그 간 간기를 해 놓으면 지금 같으면 소독약이나 같아, 그것이.}

10701 @ 그러조. {그렇지요.}

10701 # 그러거시로? {그런 것으로?}

10701 @ 그다으메 따미 마:니 나며는 열구레 또 머:가 그러케 생기조? 따미 땀 더올때 땀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면은 얼굴에 또 뭐가 그렇게 생기지요? 땀이 땀 더올 때 땀}

10701 @ 토실토실토실 말고 여름처레. {도톨도톨도톨 말고 여름철에.}

10701 # 그거슨 여:드름 이 비스허제. {그것은 여드름이 비슷하지}

10701 @ 여:드르문 {여드름은}

10701 # 여드름 비스더게 그 나는 사라문 나고 {여드름 비슷하게 나는 사람은 나고}

10701 @ 그 머락 험니까 땀 땀 나가지고 막 그 {그 뭐라 합니까 땀 땀 나가지고 막 그}

10701 @ 고 땀때기라고 허등가? {그 땀띠라고 하딘가?}

10701 # 아 여르메 땀때기? 땀때기는 여그가 나자제 여그만 나자네 전체가 다 나. {아, 여름에 땀띠? 땀띠는 여기에 나지 않고 여기만 나지 않고 전체가 다 나.}

10701 @ 아 움:모메 다 나? {아 온 몸에?}

10701 # 아:면. 땀때기 더올때는 전체가 다 나. {암. 땀띠 더올 때는 전체가 다 나.}

10701 @ 어 그럼 땀때기는 어떠케 나:습니까? {어, 그럼 땀띠는 어떻게 낫게 합니까?}

10701 # 땀때기 시언허면 나서저 움:쓰면. {땀띠 시원하면 나아져. 없으면.}

10701 @ 아이, 약 빠르고 그러면 {아이 약 바르고 그러면.}

10701 # 응 {응.}

10701 # 아이 야기 이써 약 사다 보르고 {아이, 약이 있어. 약 사다가 바르고}

10701 @ 음 그러습니까? {음, 그렇습니까?}

10701 @ 예. {예.}

10701 # 그거뽕고 땀때기라 그르제. {그것보고 땀띠라고 그러지.}

10701 @ 그러조이. {그렇지요.}

10701 @ 이제 피부뽕중에 하나가 또 문:둥이드리 피부뽕이 이써요. {이제 피부병 중에 하나가 또 문둥이들이 피부병이 있어요.}

10701 # 몰:라 삼년 아라 삼년 터:너 삼년 구녀니라서 안:다는거시여 그거뽕고. {몰라 삼년, 알아 삼년, 터서 삼년, 구년이라야 안다는 거야, 그것보고.}

10701 @ 그거시요? {그것이요?}

10701 # 터:저 삼년 몰:라 삼년 아라 삼년 구년::이야사 그 문:둥이더리 아라. {터져 삼 년, 몰라 삼 년, 알아 삼 년 구년 이라야 그 문둥이들이 알아.}

10701 @ 자기 병을료? {자기 병을요?}

10701 # 응{응.}

10701 # 그라너면 몰:라. 그래서 그거슬 문:나송거시여. 그거뽕고 침뽕이라고 그러제. {그러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그것을 못 낫는 거야. 그것보고 천병이라고 그러지.}

10701 @ 그러면 엔나레는 그 문:둥이드리 이러케 도라다니기도 헤쥌? {그러면 옛날에는 그 문둥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지요?}

10701 # 도라텡기고 구:장또게서 데갈썬라고 사:라를 자바머거써. 난:는다고. 사:람 머거블 까바 자버머그면 난는다고 {돌아다니고 구장터에 데갈수라고 사람을 잡아먹었어. 낳는다고. 사람 먹어 버릴까 봐 잡아먹으면 낳는다고.}

10701 @ 산: 사라미요? {산 사람이요?}

10701 # 산:사라를 자바머거써. {산 사람을 잡아먹었지.}

10701 # 저:: 군남면 가머는 문:둥이들 지비 이씨씨. 산쪼게가서. {저 군남면 가머는 문둥이들 집이 있었어, 산속에 가서.}

10701 # 또 들까운데 다리미테가서 논도 겁나게 벌고 그 문:둥이드리 닥또 키우고 테야지도 키우고 {또 들 가운데 다리 밑에 가서 논도 굉장히 벌고 그 문둥이들이 닭도 치고 돼지도 치고.}

10701 @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10701 # 응. {응.}

10701 # 근디 거 농사지여서 거시기는 문:두이 규니 건:네능거슨 읍:씨. {그런데 거 농사지어서 거시기는 문둥이 규이 읍는 것은 없어.}

10701 # 피 빼:서 바그먼 몰라도 그라너머년 규니 나오면 디:저뻔징게 앙 걸려. 그렇게 그 문:디~이들꺼 다 파라묵꼬 그래도 암:시랑앙코고 그레씨. {피 빼서 박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규이 나오면 뒤흔 버리니까 안 걸려. 그러니까 그 문둥이들 것 다 팔아 먹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랬어.}

10701 @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농사도 지:꼬?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농사도 짓고?}

10701 # 응, 그레가꼬 거시기 여자 한나가 거 거시기 문:딩이들 초네 가서 일:허다가 문:딩이라 해가꼬 주겨번저찌 그 여자. 문딩이라 해따 해가꼬. {응, 그레가지고 거시기 여자 하나가 거 거시기 문둥이들 촌에 가서 일하다가 문딩이라 해가지고 죽여 버렸지 그 여자. 문딩이라 했다 해가지고.}

10701 @ 여자 하나가 이,이 문:둥이 그 마으레 일하러 가따가 {여자 하나가 이, 이 문둥이 그 마을에 일하러 갔다가}

10701 # 일가씨. 문:둥이라고 해가꼬{일 갔어. 문둥이라고 해가지고}

10701 @ 여자가 그 문:둥이 문:둥이라 해:따고 {여자가 그 문둥이 문둥이라 했다고}

10701 # 고런 막뻔눔드리 문:둥이여. {그런 막된 놈들이 문둥이야.}

10701 @ 그러면 어떻게 경찰소에서 머:라함? {그러면 어떻게 경찰서에서 뭐라 합니까?}

10701 # 고거 저 그거뜨른 주그먼 죽 그거 기양 그거슬 바렌 놈드리랑께. {그것 저 그것들은 죽으면 죽 그거 그냥 그것을 바라는 놈들이라니까.}

10701 @ 근데 사:라를 자바머거따고 진짜로? {그런데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진짜로?}

10701 # 진짜 자바머거씨. 데갈쑤라고. 구:장터 데갈쑤를 자바머거씨. {진짜 잡아먹었어. 데갈쑤라고. 구장터 데갈쑤를 잡아먹었어.}

10701 @ 데갈쑤가 누구예요? {데갈쑤가 누구예요?}

10701 # 그레가꼬 {그레가지고}

10701 @ 사:람 이르미요? {사람 이름이예요?}

10701 # 사:람 이르미 지 그 자바머근 이르미 데갈쑤여. {사람 이름이 지 그 잡아먹은 이름이 데갈쑤야.}

10701 @ 데갈쑤요? {데갈쑤요?}

10701 # 모가지 데그뻑 이러고 마이 나썰게 데갈쑤라 해씨. {목 대가리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데갈쑤라 했어.}

10701 @ 아 문:둥이예요? {아, 문둥이예요?}

10701 # 그레가꼬 고놈 자바머금서 그여 군:남며니 문:둥이 읍:씨저씨. {그레가지고 그놈 잡아먹으면서 그 군남면이 문둥이 없어졌지.}

10701 # 다찬수 소:룩또로 보내버려쥬. 고응으로. 소:룩또로. 전:수 그런 그때부터 읍:써저 썩. 그레 그놈 자버머금서부터. {다 전부 소룩도로 보내버렸지. 고흥으로 소룩도로. 전부 그런 그때부터 없어졌어. 그레 그놈 잡아먹으면서부터.}

10701 # 그란 여가 마::네썩. 그사람드리. {그런 여기에 많았어, 그 사람들이.}

10701 @ 저 어려쥬때는 보먼 인제 동:냥허러 텅기기도 하고 그러, 그러 문:딩이드리 집째 마다 도라텅기면서. {저 어렸을때는 보먼 이제 동냥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 그러 문둥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10701 # 아:먼. 동:냥은 문:딩이뿌니간디? 문:딩이도 구과니 이썩. {암. 동냥은 문둥이뿐인가? 문둥이도 구역이 있어.}

10701 @ 아: {아.}

10701 # 즈그 인는 구과네는 판:노미 동:냥 와따는 그놈 주거. 절때 모더게해. {자기들 있는 구역에 다른 사람이 동냥 왔다가는 그놈 죽어. 절대 못하게 해.}

10701 @ 그러니까 그 사:람 자바멍는다고 마:른 이썩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 잡아먹는다고 말은 있었는데 진짜?}

10701 # 자버 진짜 자버머거땅게. 우리가 아:는 사:시리여 그거슨. {잡아 진짜 잡아먹었다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이야 그것은.}

10701 @ 아 그레요이~? {아 그레요?}

10701 @ 누구를, 누구를 자바머거땀니까? 어떤 사람틀? {누구를, 누구를 잡아먹었답니까? 어떤 사람틀?}

10701 # 데갈쑤라고 그 장:게도 모까고 그러고 텅이는 노미 이썩. 남잔디 고노를 자버머거부러땅게. {대갈수라고 그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다니던 놈이 있어. 남자인데 그 놈을 잡아먹어 버렸다니까.}

10701 @ 아 고노를 자바머거부러썩요? {아, 그 놈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10701 @ 아 어찌다 그러케 자퍼머금거 어 예. {아, 어찌다가 그렇게 잡혀 먹힌 것 아 예.}

10701 @ 그다으메 엔:나레는 누네 누네 또 병:이 생기는 수가 이썩요 누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눈에, 눈에 또 병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눈에.}

10701 # 눈뽕 그니까 눈 뽕:거니 진차니 뽕:거이 그양 그 검:나게 거시가쥬. {눈병 그러니까 눈 빨강게 \*\*\* 빨강게 그냥 그 아주 그랬지.}

10701 @ 뽕:거니 그 이르믈 머:락 험니까? {빨강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니까?}

10701 # 눈뽕 눈뽕이라 그레썩. 우리는. {눈병, 눈병이라 그랬어 우리는.}

10701 # 안:질, 안:질뽕이라고. {안질, 안질병이라고.}

10702 @ 그러면 어터케 그거 처:방을, 어터케 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 처방을, 어떻게 낫게 합니까?}

10702 # 시가니 날짜가 나서쥬:쥬. 엔:나레 야기 업:썩게. {시간이 날짜가 낫게 해 쥬지.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10702 # 날짜가, 딱::꼬 소금물로 썩꼬 머:더고 허다가 저허고 인자 난:능거시제. {날짜가, 닦고 그 소금물로 씻고 뭐 하고 \*\*\* 이제 낫는 거지.}

10702 # 엔:나레 인자 서 풀 시름꼐나무 꼐 그 요로코 생인 꼬피는 나무가 이썩. {옛날에 이제 풀 '시름꽃나무' 꽃 그 이렇게 생긴 꽃 피는 나무가 있어.}

10702 @ 실:꼐나무요? {실꽃나무요?}

10702 # 시름꼐나무. {시름꽃나무.}

10702 @ 네? {네?}

10702 # 시름꼐나무. {시름꽃나무.}

10702 @ 시름꼐. 시름꼐나무. {시름꽃. 시름꽃나무.}

10702 # 응. {응.}

10702 # 고거슬 뽀바서 뿌리차 기양 고와서 물로 시쳐네기도 하고 {그것을 뽀아서 뿌리채 그냥 고아서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

10702 @ 네. {네.}

10702 @ 그런 눈뽀이 이꼬, 또 이런 저 위에가 뽀그라:마게 머 생기기도 하자나요 누네 위아래로 요러케. {그런 눈뽀이 있고, 또 이런 저 위에 뽀그랴게 뽀 생기기도 하잖아요, 눈에 위아래로 이렇게?}

10702 # 다:랴, 다:랴. {다랴, 다랴.}

10702 @ 어. {어.}

10702 # 다:라슨 저 짜:버리먼 나서. {다랴은 그 짜 버리먼 나야.}

10702 @ 아 그냥 짜:버리먼 {아, 그냥 짜 버리먼.}

10702 # 응 짜버, 아니 뽀창 곱마가꼬 짜:버리먼 나서. 곱름만 짜:버리먼. 그거슨 야겍썩도 데야. {응, 짜서, 아니 완전히('뽀창'은 완전히 곱은 상태를 뜻한다. 아마도 '뽀창'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곱아가지고 짜 버리먼 나야. 곱름만 짜 버리먼. 그것은 약 없어도 돼.}

10702 # 응 그:또 다:라또 여러가지야. 민중다:라시 이썩. 밍:가른 그냥 요로코 양 부서. {응, 그것도 다랴도 여러 가지야. '민중다랴'이 있어. '민중다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부어.}

10702 @ 무슨 다라시요? {무슨 다랴이요?}

10702 # 민:중다랴. {'민중다랴'.}

10702 @ 민중다라시요? {'민중다랴'이요?}

10702 # 응 절부 부서. {응, 줌 무서워.}

10702 @ 큼니까? {큼니까?}

10702 # 커. {커.}

10702 # 글고 기냥 다:라슨 이리주리 가:세가 낭거시라 짜:먼 기양 곱름만 짜:버리먼 나서. 그 곱름 드러서 그거시 다:라시여. {그리고 그냥 다랴은 \*\*\*\* 가에 나는 것이라 짜면 그냥 곱름만 짜 버리먼 나야. 그 곱름 들어서 그것이 다랴이야.}

10702 @ 예 그러쿠노. {예, 그렇군요.}

10702 # 응 민중다라또 짜:버리먼 그런디 그거시 겼:나게 커, 민중다라슨. {응, '민중다랴'도 짜 버리먼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커, '민중다랴'은.}

10702 # 그리고 인자 구와썩 여르메 치뤄레 엔:나레는 더우머는 판:서징짜 멍석까라노코 자거든. {그리고 이제 구와. 여름에 칠월에 옛날에는 더우머는 \*\*\*\* 멍석 깔아 놓고 자거든.}

10702 @ 예. {예.}

10702 # 구아썰이 겼려. {구와가 겼려.}

10702 @ 구아썰이요? {구와요?}

10702 # 구아썰이 이코 헤: 틀린 병 그거뽀고 구아썰이라 허제. {구와가 이렇게 확 틀어진 병 그것보고 구와라고 하지.}

10702 # 그 지그른 치므로 얼른 난:는디 엔:나레는 그 동썩그로 뽀든 복썩나무 게:복썩나무라고 이썩. {그 지금은 침으로 얼른 낮는데 옛날에는 그 동썩으로 뽀든 복썩아나무 개복

송아나무라고 있어.}

10702 # 그거슬 이 가지에 이려고 달린노를 비여서 꼬타발 다라서 귀에다가 켜면서 이리코 이걸고 안도라가게. {그것을 이 가지에 이렇게 달린 것을 베어서 꼬나풀(‘꼬타발’은 ‘꼬나풀’의 방언형) 달아서 귀에다 잡아매서 이렇게 걸고 안 돌아가게.}

10702 # 고거시 야기여씨. 게:복송나무가. 고거시. {그것이 약이었어, 개복송아나무가. 그것이.}

10702 @ 아 게:복송나무? 요 머 가 가쟁이? {아, 개복송아나무? 이 뭐 가 가지?}

10702 # 가쟁이 요려고 저 글게 달린놈. {가지 이렇게 저 굽어진 것 달린 것.}

10702 @ 네. \*\*\*\*\* 귀에다 거러요? {네. \*\*\*\*\* 귀에다가 걸어요?}

10702 # 그 구분 노를 그레가꼬 거러. 거러서 요리코 자부텅잉게. 쉼게. 이빨 여그다 느:서. {그 굽은 것을 그레가지고 걸어. 걸어서 이렇게 잡아댕기니까. 쉼게. 이빨 여기다 넣어서.}

10702 # 모:또라가게 그거시 그거시 야기여땅게. 구아쟁이. {못 돌아가게. 그것이 그것이 약이었다니까, 구와가.}

10702 @ 예: {예.}

10702 @ 아하 그런데요. {아하, 그러네요.}

10702 @ 그러면 요세는 이제 감:기가통거 마:니 걸리고 그러는데 엔:나레도 감:기는 이썸 즐겨 아닌? {그러면 요세는 이제 감기 같은 것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감기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10702 # 아:면 이썸. {암. 있지요.}

10702 @ 감기라 아나고 뭐:라고 해:씀니까? 이르미 달란? {감기라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달라?}

10702 # 고뿔차리라고 해:썸 고뿔차리. {'고뿔차리'라 했지, '고뿔차리'.}

10702 @ 고뿔차리. {'고뿔차리'.}

10702 # 고뿔차리 엔:나레 고뿔차리락 해썸. 그런디 지그몬 감:기제. {'고뿔차리' 옛날에 '고뿔차리'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감기지.}

10702 @ 아. {아.}

10702 @ 아 고뿔차리요? 그럼 고건 어떠케해서 치료를 해썸니까? {아, '고뿔차리'요? 그럼 고건 어떻게 해서 치료를 했습니까?}

10702 # 치료가 머 이간디? 따썸게 자고 이불덮꼬 바람 안썸고. {치료가 뭐 있나? 따뜻하게 자고 이불 덮고 바람 안 쐬고.}

10702 # 그거시 우세여씨 엔:나른. {그것이 \*\*였어 옛날에는.}

10702 @ 음 따로 민간뇨뻔비 머 이께다 {음, 따로 민간요법이 뭐 있겠다.}

10702 # 아:면. 병원::은 업쓰니 병워네 갈 엄두도 몬네고 인는 부자드리나 그때 병원 이썸 떼나 가썸. {암. 병원은 없으니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부자들이나 그때 병원 있을 때나 갔지.}

10702 # 아이, 엄:는 사람드른 기양 천:당이말로 사라썸 엔:나레. {아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천덕꾸러기처럼(‘천당이’는 ‘천덕꾸러기’의 방언형) 살았어, 옛날에.}

10702 @ 음. {음.}

10702 # 천:당이말로. {천덕꾸러기처럼.}

10702 @ 그니까 모드로 버:터야 되젠데요 모드로. {그러니까 몸으로 버터야 되겠네요, 몸

으로.}

10702 # 마:니 그리고 사라제. {많이 그렇게 살았지.}

10703 @ 그다음에 이제 음:시글 잘못 머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10703 # 식중독. {식중독.}

10703 @ 막 그리고 이게 또 먼: 너무 과:식해가지고 꼭 이게 머:가 이썸니까? {막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너무 과:식해가지고 꼭 이게 뭐가 있습니까?}

10703 # 체. {체.}

10703 @ 예 체:가 이썸쫌. {예, 체가 있었지요.}

10703 # 체 인는다 그거슨 그지꺼리를 네:가 마:니 체를 네:로서 네가 가반는다 사:라물 꼭 델꼬 텅에썸. {체 있는데 그것은 그 짓거리를 내가 많이 체를 내려서 내가 가 봤는데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녔어.}

10703 @ 예. {예.}

10703 # 허체여 마라자면. 어 송꾸락 드러갈때 네러가 이미 손 체내는 사:람 송꾸락 드러갈때 체가 내려간다니까 궁게 체는 나와따고 그러는디 {헛체야 말하자면. 어 손가락 들어갈 때 내려가 이미 손 체내는 사람 손가락 들어갈 때 체가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체는 나왔다고 그러는데}

10703 #네가 예:를 드러서 게:고기를 저 데:지고기를 먹꼬 체헤쓰머는 체느로 가른 데:지고기가 나와야 할거인디 데:지고기가 아니고 딴 생거시 나와. {내가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저 돼지고기를 먹고 체했으면 체내러 가면 돼지고기가 나와야 할 것인데 돼지고기가 아니고 딴 생것이 나와.}

10703 @ 아. {아.}

10703 # 궁게 그 전:수 그게 가:짜고 (웃음) 체 우리는 궁게 체 안네로텅에 지그믐. {그러니까 그 전부 그게 가짜고 (웃음) 체 우리는 그러니까 체 안 내려 다녀, 지금은.}

10703 # 전: 난 사라물 데꼬 텅에땅게. 체 네:로느건 파닐 헐라고 네가 고기를 머꼬가머는 금방 머근노믐 그냥 나와. {전부 나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다니까. 체 내려 가는 것은 알아 내려고('파닐허다'는 '알아내다'의 뜻). 내가 고기를 먹고 가면은 금방 먹은 것은 그냥 나와.}

10703 # 근디 소니 드러갈때 꾸르르르 소리가 나. 그 올먼 효:까를 봉거시여. 그 체를 네:서만 그러자네. 그거뿐고 체내린다고 그르제. {그런데 손이 들어갈 때 꾸르르르 소리가 나. 그러면 효과를 본 거야. 그 체를 내야만 그러지 않고. 그것보고 체낸다고 그러지.}

10703 @ 체내린다고 {체낸다고.}

10703 # 또 어 거시기 올버들나무를 요러코 가는 노를 여그 제:서 여그 제:서 팔데다 제. 제:가지고 체내릴라고. 그보 칙찜지리라게. 칙찜질. {또 어 거시기 올버드나무를 이렇게 가는 것을 여기 재어서 여기 재어서 팔 대고 재어. 재어가지고 체내려고. 그것보고 '칙찜질'이라고 해. '칙찜질'.}

10703 @ 칙찜지리요? {'칙찜질'이요?}

10703 # 응. 칙찜질. 거:다 참지를 모차서 소케를 여그다가 딱 썸메. 그 나무 꼬터리다가. {응. '칙찜질'. 거기에다 참기를 문혀서 숨을 여기에 잡아매. 그 나무 끝에다가.}

10703 # 그레가 고거시 여거시 여으여으 제:머는 요 오무까심 다. {그레가지고 그것이 이것이 여기여기 재면은 이 '오목가심'(위가 있는 가슴 부위) 닿아.}

10703 # 그 막테이가. 그 여너를 너그다 님벌리고 고놈 모라너. 그 숨:통에다 그 칙 그 칙

쩍지리여 그거시. {그 막대기가. 그 이것을 여기다 입 벌리고 그것 몰아넣어. 그 솥통에다. 그 칩 그 '칙집질'이야, 그것이.}

10703 # 거 칩집질 잘:하는 사람 주거부러꾸만. 우리동네 그 미테따란 운게서 사란느디. 그 거 칩집지리여. {그 '칙집질' 잘하는 사람 죽어 버렸구먼. 우리 동네 그 밑에 \*\* 운게서 살았는데. 그것 '칙집질'이야.}

10703 # 엔:나레는 체를 네리능 거시 칩집질하는 사라미 이써땅게. {옛날에는 체를 내는 것이 '칙집질'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10703 @ 그니까 그거는 체를 네틸라고 음식 미트로 쭈서너꾸만요. {그러니까 그것은 체를 내려고 음식 밑으로 쭈서 넣었구먼요.}

10703 #모란 는 모라 내려부리제. {몰아 몰아 내려 버리지.}

10703 @ 모라네리능거, 아. {몰아 내려 버리는 것. 아.}

10703 # 응, 그거 칩집지리여. {응, 그것이 '칙집질'이야.}

10703 @ 울버들나무 꼬테다. {울버드나무 끝에.}

10703 # 응 거 물부레나무 조:케 껌딱 베게서 하::케 그거시. 그레가꼬 잘:: 말라. 단단하게. {응, 그거 물부레나무 좋게 껌질 벗겨서 하얗게 그것이. 그레가지고 잘 말려. 단단하게.}

10703 # 그리고 빨:: 찬지를 불라서 기양 벤질벤질벤질하게 그레야 자:니 드라마야 안상히 제. 고러꼬 시:밀히게 맨드라가꼬 해. {그리고 빨 참기를 발라서 그냥 반질반질하게 그레야 \*\* \*\*\*\* 안 상하지.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해.}

10703 @ 요세가트면 위: 네:시경이네요. {요즘 같으면 위 내시경이네요.}

10703 # 응 네:시경이라 하. {웃음} {응, 내시경이라. {웃음}}

10703 @ 글고 또 인제 체:는 그러는데 어떻거슨 막 음식 잘못 머거가꼬 막 설사하고 막 배가 뒤테지게 막 아프고 그레요 밤:세? {그리고 또 이제 체는 그러는데 어떤 것은 막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막 설사하고 막 배가 뒤테지게 막 아프고 그레요 밤새?}

10703 # 그건 우리 식꾸가 먼: 이:를 간느디 인자 정:때 참:빠블 머꼬 나서 인자 아파 중는다 헌단 마리어. {그것은 우리 아내가 무슨 일을 갔는데 이제 점심때 결두리를 먹고 나서 이제 아파서 죽는다 한단 말이야.}

10703 # 그 병:위네가서 식쫑독 그거인줄 알고 식쫑독 야글 사다머어도 안드러. {그 병원에 가서 식중독 그것인 줄 알고 식중독 약을 사다 먹어도 안 들어.}

10703 # 그 병:위늘 기양 기독교병위느로 강게 멍:장이 터져버려써. {그 병원을 그냥 기독교 병원으로 가니까 멍장이 터져 버렸어.}

10703 # 그레 봉망너미 되야써. 그레가꼬 수술해가꼬 사라써. {그래서 복막염이 되었어. 그레가지고 수술하고 살았어.}

10703 # 궁게 몰:라써도 머 지금다 궁게 순식까네 그레버리드라. {그러니까 몰랐어도 뭐 지금 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레 버리더라.}

10703 @ 그러네요 응. {그러네요 응.}

10704 @ 음:시글 먹, 머글때 생기능거뜨리 인는데 요 음:식먹따가 머시 인자 잘못머거가지고 이 인 밤머궁거시 기양 코로 폭 나와버링 거시 이쪼? {음식을 먹, 먹을 때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 음식 먹다가 뭐가 이제 잘못 먹어가지고 이 있 밥 먹은 것이 그냥 코로 폭 나와 버리는 것도 있지요?}

10704 # 제치기. {재채기.}

10704 @ 응? {응?}



10704 # 제치기. {재채기.}

10704 @ 제치기 하는데 제치기 그 머 들려따고 그러잔까? {재채기 하는데 재채기 그 뭐 들렸다고 그러잖습니까?}

10704 # 사례들려따고 그레. {사례 들렸다고 그레.}

10704 @ 사례들려따고 {사례 들렸다고.}

10704 # 사례 뜨른 거시나 제치기나 사:춘가니여. {사례 들린 것이나 재채기나 사춘간이야.}

10704 @ 사례들리능건 어쩔때 사례들립니까? {사례 들리는 건 어쩔 때 사례 들립니까?}

10704 # 그 잘못 먹따가 잘 머꼬선 그냥 제치기가 저:깐나가. 강 확 강 나가 텅겨나가. {그 잘못 먹다가 잘 먹고서는 그냥 재채기가 여간 나와. 그냥 확 그냥 나가 텅겨 나가.}

10704 @ 그러지요. {그러지요.}

10704 # 밤먹따가 기양 넘 거시기 벼락 주는 차암도 이써. {밥 먹다가 그냥 남 거시기 벼락 주는 사람도 있어.}

10705 @ 그다으메 혹시 이렇거 이써씀니까? 막 열구리 열근병이 이짜나요 엔:나레?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것 있었습니까? 막 얼굴이 엷는 병이 있잖아요 옛날에?}

10705 # 그거뽀고 손니미라고 그러제. {그것보고 손님이라고 그러지.}

10705 @ 손님. {손님.}

10705 # 흥진 엔나레 흥지는 흥진보단 더 되:게 허능거뽀고 손니미라고 그레. {흥진 옛날에 흥진은 흥진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보고 손님이라고 그레.}

10705 @ 손님. {손님.}

10705 # 그거시 엔:나레는 야기 업썩게 열:명 걸리면 아오븐 주거써. {그것이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열 명 걸리면 아홉은 죽었어.}

10705 # 그 손니미 {그 손님이}

10705 @ 여리 남니까? {열이 남니까?}

10705 # 응 여리나고 기양 기양 그건 허고 산: 사라든 멀 뽀빠기 업:빠기가 전그때 나이 머근 사람 억:빠기가 그때 손님 저긴 사라미여. {응, 열이 나고 그냥 그냥 그것 하고 사는 사람은 뭇 '뽀빠기' 업:빠기가 전 그때 나이 먹은 사람 업:빠기가 그때 손님 겪은 사람이야.}

10705 @ 억:빠기가요. {업:빠기가요.}

10705 # 그 손님헌 사:람드리. {그 손님한 사람들이.}

10705 @ 그다으메 인제 손님말고 또 이거시 이꼬 {그 다음에 이제 손님말고 또 이것이 있고}

10705 # 우리 동네는 앙 걸런는디 호열짜라고 {우리 동네는 안 걸렸는데 호열자라고}

10705 # 호열짜라고 요 건네 학산 일너네 한 이:뽀명씩 주거써 호열짜 병:이 드화서. {호열자라고 이 건너 학산 일 년에 한 이백 명씩 죽었어, 호열자 병이 들어와서.}

10705 # 그때는 여그 저 잔등에다가 줄치고 요아페다가 줄치고 지를 다 줄치고 그 사람들 여그 모:도게해써. {그때는 여기 저 고개에다가('잔등'은 작은 고개) 줄 치고 이 앞에다가 줄치고 줄을 다 줄 치고 그 사람들 여기 못 오게 했어.}

10705 @ 언:제 그레씀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10705 # 오래테야 술차 {오래 돼, 상당히.}

10705 @ 아 호:열짜 {아, 호열자}

10705 @ 고건 전:넙뽀이조? {그건 전염병이지요?}

10705 # 아:면. 절:럼뽕 궁게 모:도게 헤제. {암. 전염병 그러니까 못 오게 했지.}

10705 @ 또 엔:나레 이런 병도 이써썩썩요? {또 옛날에 이런 병도 있었어요?}

10705 # 그때는 그 호열자 병이 도라가고 도깨비드리 지베다 고러코 부를 질러. {그때는 그 호열자 병이 돌아가지고 도깨비들이 집에다 그렇게 불을 질러.}

10705 # 도깨비드리. 그 집 여러채 타저썩 기양 학산 또 상:데. {도깨비들이. 그 집 여러채 불탔어. 그냥 학산 또 상대.('학산'과 '상대'는 지명)}

10705 @ 도깨비드리요? {도깨비들이요?}

10705 # 암 도깨비드리 불질러. {암. 도깨비들이 불질러.}

10705 @ 허허 오오. 저절로 부리나요? {허허 오오. 저절로 불이 나요?}

10705 # 도깨비드리 지베다 불지르든 그저네 지아두 초지빙게 근디 그 도깨비드리 사실상 도깨비들 노:는디 가보며는 아무꺼또아닌 막대기가통거신디, 도깨비가. {도깨비들이 집에다 불지르면 그전에 기와도 초가집이니까 그런데 그 도깨비들이 사실상 도깨비들 노는 데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것인데, 도깨비가.}

10705 # 우리 백뿌니이 덕뻑 저 어:디 가따오다가 도그 도 도깨비떼를 만나썩. {우리 백부님이 덕뻑 저 어디 갔다 오다가 도그 도 도깨비떼를 만났어.}

10705 # 그레가꼬 도깨비를 시양썩 들꼬 기양 허리도 끌라고 무꺼가꼬 가꼬완는디 비찌랑 몽텅이여. 인자 나:제 봐서 저 봉게 바메 인자 거 그런 장:군지 사라만테는 그거시 도깨비드리 딸썩 모:데. {그레가지고 도깨비를 \*\*\*\*\* 그냥 허리도 끌려고 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빗자루, 몽둥이야. 이제 낮에 봐서 저 보니까 밤에 이제 거 그런 \*\*\* 사람한테는 도깨비들이 꿈썩 못해.}

10705 @ 아 {아.}

10705 # 보:단디 그러고 손 올리가꼬 그레따고 {\*\*\* 그렇게 손 올려가지고 그랬다고}

10705 @ 불도 지르구마뇨이~, 도깨비드리 {불도 지르구먼요, 도깨비들이}

10705 # 울 처나른 조:무늘 향구그로 조:무늘 간는디 그때가 한 삼십썩 한 서른며썩 머글 때구만. {우리 처남은 조문을 한국으로 조문을 갔는데 그때가 한 삼십 살 한 서른 몇 살 먹을 때구먼.}

10705 # 아이 요 너메 그 지름집 거 거 들판디까양 지영네 끼꺼텅여 독빼기 강 그 도깨비한테. {아이, 이 너머 그 기름집 거거 들판 데까지 저녁 내내 끌려('끼끼다'는 '끌리다'의 뜻) 다녀. 그냥 도깨비한테.}

10705 # 아 근디 그똥날 주거썩. {아 그런데 그 똥날 죽었어.}

10705 # 그 지정네 빼:꼬고 텅이고 낭게 지베와가꼬 여 학산 친처기 인는디 학싼 사라미 텍:썩 불려서 지브로 보네썩:는디 그 질로 누어서 몬:나코 주거썩. {그 저녁 내내 끌려 다니고 나니까 집에 와가지고 이 학산 친척이 있는데 학산 사람이 택시 불려서 집으로 보내 줬는데 그 길로 누워서 못 낮고 죽었어.}

10705 @ 술잡썩싱거 아니에요 흑썩? {술 드신 거 아니에요 흑시?}

10705 # 술머거제. 조:문가썩게. 음. 술머거제. {술 먹었지. 조문 갔으니까. 음, 술 먹었지.}

10705 # 궁게 바미면 고기 양가꾼디 돼:지고기도 양가꼬 텅기고 잡썩니 따라텅에 돼:지 고기 가통겉 가꼬텅이면. {그러니까 밤이면 고기 안 가지고 오는데. 돼지고기도 안 가지고 다니고. 잡신이 따라다녀, 돼지고기 같은 것 가지고 다니면.}

10705 @ 바미면 그런 고기 갠 양가꼬 텅인다고요? {밤이면 그런 고기 안 가지고 다닌다고요?}

10705 # 응 응 {응, 응.}

10705 @ 그래요이. {그래요.}

10705 @ 또 이런 병:이 이썬요? 하루 막 달달달 춤따가 또 날 다더따가 또 다음날 다다달 춤:꼬 막 {또 이런 병이 있어요? 하루 막 덜덜덜 춤다가 또 낮 나왔다가 또 다음날 덜덜덜 춤고 막}

10705 # 하레거리리라고. 초하기라게 그거뽕고. {하루거리라고 초학이라고 해, 그것보고.}

10705 @ 아 초하기라 그래요? {아, 초학이라 그래요?}

10705 # 응 {응.}

10705 # 그게 엔:날 어:른드리 야글 먼:야글 쓰냐면 바까테 하장실 뒤:까네가서 서빠다그로 그 소망갈 할트라게 그거시 야기여. {그게 옛날 어른들이 약을 무슨 약을 쓰느냐면 밖에 화장실 뒷간에 가서 헛바닥으로 그 오줌똥항아리('소망'은 '소매항아리'의 준말로 오줌항아리를 가리킨다.) 가장자리를 훑으라고 해 그것이 약이야.}

10705 @ 머:스로? {무엇으로?}

10705 # 헛빠다그로 소망까슬 할트라헌당게. {헛바닥으로 오줌똥 항아리 가장자리를 훑으라고 한다니까.}

10705 # 벤소간 똥: 싸는디 {변소 똥 싸는 데}

10705 @ 쏘망칸 할트라고? {오줌똥 항아리를 훑으라고.}

10705 # 응. 그거뽕고 그러면 떠러진다고 그거뽕고 초하기라 그러는디. {응, 그것보고 그러면 떨어진다고 그것보고 초학이라 그러는데.}

10705 # 인자 그거슨 나:중에는 야기 중:거 나와버링게 그거슨 그렇 거슨 현:사람 별로 읍썬. {이제 그것은 나중에는 약이 좋은 것 나와 버리니까 그것은 그런 것은 하는 사람 별로 읍어.}

10705 # 그 염:병이 이썬. 또 염:병. 염병 머리빠지는 염:병. {그 염병이 있었어 또 염병. 염병 머리 빠지는 염병.}

10705 @ 네 고건 어떠썬니까 고거슨? {네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10705 # 고거시 무선 붕이제 고거시. 어 네:가 그 염:병을 걸려가꼬 나썬는디 {그것이 무슨 병이지 그것이. 어 내가 그 염병을 걸려가지고 나왔는데}

10705 # 치뤄린디 웨:장시가 와썬. 웨:장시가. 그래서 싱냥을 퍼주고 웨:를 한 데여서께를 사서 머거썬 {칠월인데 참외 장수가 왔어, 참외 장수가. 그래서 식량을 퍼주고 참외를 한 대여섯 개를 사서 먹었어.}

10705 # 고놈 머그먼서보툼 제:독해가가지고 석:딸가늘 그 염:병을 해:자천는디 지그른 머리가 마:니 나썬. 썬 빠저썬. 벌 썬썬 머리도. {그것 먹으면서부터 재독해가지고 석 달간을 그 염병을 해 났는데 지금은 머리가 많이 났어. 썬 빠졌어, \*\* 머리도.}

10705 @ 아 {아.}

10705 # 궁게 염:병은 읍:식 잘 몸:머그머는 제:독해 나서가꼬도. {그러니까 염병은 음식 잘못 먹으면 재독해 나아가지고도.}

10705 @ 또나 나서따 또 또 생긴다고? {또나 나왔다가 또 또 생긴다고?}

10705 # 응 글 읍:식 잘 모:머그먼 그런다 그마리여. {응, 음식 잘못 먹으면 그런다 그 말이야.}

10705 @ 그 염:병하면 여리 춤, 춤썬요? 여리나 {그 염병하면 열이 춤, 춤지요? 열이나}

10705 # 아:문. 그거또 그거슨 초하기나 비스헿거시여. {암. 그것도 그것은 초학이나 비스

한 거야.}

10705 # 초학또 기양 여리 기양 막 이러나거든. {초학도 그냥 열이 그냥 막 일어나거든.}

10705 # 무선 뱅이여 초학또. {무서운 병이야, 초학또.}

10705 @ 초학, 초학 걸리면 체민네요. 서빠다그로 소망간 할트라고. {초학, 초학 걸리면 재밌네요. 헛바닥으로 오줌통향아리 훅으라고.}

10705 # 엔나레 그레땅게 야기라고 그거뵈고. (웃음) {옛날에 그랬다니까, 약이라고 그것보고. (웃음) }

10705 @ 근데 엄:병은 머 그렇거 업:씀니까 머:하라고? {그런데 엄병은 뭐 그런 것 없습니까 뭐 하라고?}

10705 # 업:씨 그거슨. 저 엔:나레 이불로 싸능거뿌니 따습게. {없어, 그것은. 저 옛날에 이불로 싸는 것밖에. 따뜻하게}

10705 @ 따습게? {따뜻하게?}

10705 # 응 {응.}

10705 # 그거시 야기여씨 엔:나레는. {그것이 약이었어, 옛날엔.}

10705 @ 그거 인제 설사 주르르하고 그러잔습니까? {그거 이제 설사 주르르하고 그러잖습니까?}

10705 @ 그다으메 인자 그때는 어려쉴 이게 이러게 딱 이비 이러게 올라간 사람도 마:나 썩요 요러케.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딱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렇게.}

10705 # 올라간 사람도 이꼬 켜:보도 이꼬 인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언청이도(‘켜보’는 ‘언청이’의 방언형) 있고 이제}

10705 @ 켜:보라고 {'켜보'라고}

10706 @ 근데 아까 당고리나 이런 사람들도 병도 나수 나수라고 험니까? 거 머 구더고 그레썸니까 엔:나레? {그런데 아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병도 낫게 합니까? 그 뭐 곱하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10706 # 그거시 그때시절 그 거시기제. {그것이 그때 시절 그 거시기지.}

10706 # 아 양머거야 나제. 우리는 응 또 순 비:손허고 잠밥메기고 동:정제기허고 기양 물리고 막 칼로 물리고 그레꺼든. {아, 약 먹어야 낫지. 우리는 응 또 순 비손하고 잠밥 먹이고 '동정제기'하고 그냥 물리고 막 칼로 물리고 그랬거든.}

10706 # 그 당골드리. 근디 지금 생각허면 그사람드리 허고가면 또 게안허닥 현다고. 정시니 게안허다고 거이 그 그레따고 마라자면 드러보면 아픈 사람드리. {그 무당들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 가면 개운하다고 한다고. 정신이 개운하다고 그것이 그랬다고. 말하자면 들어보면 아픈 사람들이.}

10706 # 주장메기허고 또 {'주장매기'하고 또}

10706 @ 머요? {뭐요?}

10706 # 주장매기. {'주장매기'.}

10706 @ 주장매기가 머예요? {'주장매기'가 뭐예요?}

10706 # 지블 외약쌀로 꼬아서 일곱칸데 지약쌀 꼬와서 일고개를 멘들고 명서글 여꺼서 거그다가 마당에다 방에서 마라자면 사:람주거서 거 주장매기고 나가드끼 {짚을 왼쪽으로 꼬아서 일곱 군데 왼새끼 꼬아서 일곱 개를 만들고 명석을 엮어서 거기다가 마당에다 방에서 말하자면 사람 죽어서 그 주장 먹이고 나가듯이}

10706 # 그 주장매기 해:서 바카트로 나가서 소시랑으로 묻는 시용 허고 그거뽕고 주장매기라고 그레. {그 '주장매기' 해서 밖으로 나가서 소스랑으로 묻는 시능 하고 그것보고 '주장매기'라고 그레.}

10706 @ 그까 사:라미 아픈 환자를 주근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 환자를 죽은 사람처럼}

10706 # 응 그 문넨 시용 그를 헐당개 헐당개. 주장 그거뽕고 주장매이라고 그레. {응, 그 묻는 시능 그것을 한다니까. 주장 그것보고 '주장매기'라고 그레.}

10706 @ 아 그러며는 병:이 난는다고 그전? {아,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고 그전?}

10706 # 궁게 그러고도 도로 기양 거시가 메:뽕 헐고도 중는 사라몬 죽꼬 {그러니까 그러고도 도로 그냥 그러니까 몇 번 하고도 죽는 사람은 죽고}

10706 # 또 용:케 산:사라몬 살:고 그거시 엔:나레 그레썸. {또 용케 산 사람은 살고 그것이 옛날에 그랬어.}

10706 @ 네 고거또 당골드리 주로 하는 겁니까 주장매기도? {네, 그것도 무당들이 주로 하는 겁니까 '주장매기'도?}

10706 # 당골 주장매기는 인자 동:네사람드리 모아서 허는디 당고리 시기는 데로 시게 주장매기해라. {무당 '주장매기'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아서 하는데 무당이 시키는 대로 시켜 '주장매기' 해라.}

10706 @ 음 근데 먼: 병이든지 다 그러케 합니까? {음, 그런데 무슨 병이든지 다 그렇게 합니까?}

10706 # 그러제. {그러지.}

10706 @ 특별란 머 특별란 어떤 병:에는 예를드러서 좀 정시니 좀 이상하다 쪼끔 {특별한 뭐 특별한 어떤 병에는 예를 들어서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조금}

10706 # 궁게 세:성바지 가진 지베가서 쌀 어더다가 바베서 허라든지. {그러니까 세 성받이 집에 가서 쌀 얻어다가 밥 해서 하라든지}

10706 # 세: 성바지 인는 지비 메느리성 달코 엄마성 달코 아버지성 달코 달타고 그먼 그런 지비만 싸를 어더다가 거 비:서늘 허고 오는 데가 이썸. {세 성받이 있는 집이 며느리성 다르고 엄마 성 다르고 아버지 성 다르고 그러면 그런 집에만 쌀 얻어다가 그 비손을 하고 오는 데가 있어.}

10706 @ 아 그러면 머 병이 난:는다고 그레요? {아, 그러면 뭐 병이 낫는다고 그레요?}

10706 # 아 궁게 난:네 안낭가는 모리고, (웃음) 등\*\*고 {아, 그러니까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르고, (웃음) \*\*}

10706 @ 당고리 그러케 시켜요? {무당이 그렇게 시켜요?}

10706 # 암. 당고리 그러고 시켜제. {암. 무당이 그렇게 시켰지.}

10706 # 지금도 지금도 점쟁이들 그러고 시케. {지금도 지금도 점쟁이들 그렇게 시켜.}

10706 @ 그러니깐 야기 업:썸썸때는 여러가지 방버브로 치료를 허구마뇨이~? {그러니까 약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구먼요?}

10706 # 그러제. {그러지.}

10706 @ 예. {예.}

10706 # 거 엔:나레 그 무:슬뿌리가통거 켜서. {그 옛날에 '무슬' 뿌리 같은 것을 켜서.}

10706 @ 머 뿌리요? {뭐 뿌리요?}

10706 # 무:슬뿌리. {'무슬' 뿌리.}

10706 @ 무:슬뿌리? {'무슬' 뿌리?}

10706 # 우:슬뿌리 그 캐다 {'우슬' 뿌리 그 캐다}

10706 @ 우슬뿌리요? {'우슬' 뿌리요?}

10706 # 응. 데려머꼬 별지꺼리 다헤썸. {응, 다려 먹고 별짓을 다 했어.}

10706 @ 그거는 허리 아픈데 난능거 아니에요? {그건 허리 아픈 데 낫는 것 아니에요?}

10706 # 응 {응.}

10706 # 그런 허리 아픈 디는 수리나 당가서 머꼬 그거슬. {그런 허리 아픈 데는 술이나 담가서 먹고 그것을}

10706 # 데레서 머꼬 그레썸. 지금도 그거슬 마:니 먹썸. {다려서 먹고 그랬어. 지금도 그 것을 많이 먹지.}

10706 @ 그레요이. {그레요.}

10706 @ 고 이야기는 다오메 드려야게썸니다. 시가니, 아유 수고하셔썸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어야썸니다. 시간이, 아유 수고하썸니다.}

## 제2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0101	벼	나라기라
20102	이삭	모게라고도
20103	볍씨	종자
20103	볍씨	썬나락 두어따고
20104	못자리	모짜리를
20105	모판	모파~이락해써
20105	모판	모파닌디
20106	쟁기	쟁기
20107	보습	보시비다니까
20108	벧	벧
20108	벧	베슨
20108-0-1	-이	베시
20109	극쟁이	*
20110	씨레	씨우레
20111	번지	*
20112	모내기	모 찌서
20112	모내기	모 쥘다고
20113	흙덩어리	흑땡이가
20114	고무래	당그레고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곡썩 전:는 당그레
20114-2	고무래(재 용도)	당그레여(재)
20114-3	고무래(흙 용도)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당그레(+미는 것)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당그레(+당기는 것)
20115	쇠스랑	소시랑
20115	쇠스랑	소시랑이구만
20116	곡괭이	한:세괭이~이
20117	괭이	괭이~이
20117	괭이	괭이구만
20118	삽	사비로
20119	호미	호메~이
20119	호미	호메~이라고
20119	호미	호무라고
20120	농기구	연장이제
20121	검	푸리라고

20121	김	지시미라고
20122	김매다	폴 멘다 그러고
20122	김매다	밤멘다거고
20122	김매다	놈멘다거고
20122	김매다	지심멘다
20123	애별 매다	초불멘다고
20123-1	두별 매다	두:별멘다거고
20123-2	마지막(세별) 김매기	만드리라고
20124	논두둑	논뚜럭
20124	논두둑	논뚜룩
20124	논두둑	둑뿌친다고
20125	밭둑	바뚜루기고
20126	밭두둑	두루글
20126	밭두둑	두룩 처낭그가바요
20126	밭두둑	두루게다가
20127	밭고랑	고랑을
20127	밭고랑	고:랑을
20127	밭고랑	꼴
20127	밭고랑	꼬:랑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고:랑을 탄다고
20128-2	이랑밧기	보리밥 봄:능 거시여
20128-2	이랑밧기	보리밥 봄:는다고
20129	보리	보리제
20129-1	가을보리	가을에 뿌린 보리
20129-2	봄보리	*
20130	보리쌀	보리싸리라게
20131	가을갈이	논 간:다 그제
20132	감부기	감:북
20133	두엄	뒤여를 뿌려서
20134	거름	거르미
20134	거름	전소메(+ 거름용 오줌)
20134	거름	똥:소메(+ 똥으로 만든 거름)
20134	거름	제라 허고

## 2.1.2 타작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0201	추수하다	가을헌다고(+ 소)
20201	추수하다	가실헌다(+ 다)
20202	벧단	나랑무시락 허제
20202-1	벧단(한 줌정도)	*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
20202-3	벧단(한 아름정도)	나랑 문 그레
20203	가리(積)	베누리라게
20203	가리(積)	베늘



20203	가리(積)	콩똥 친다(+ 콩을 단으로 묶어 썰다)
20203	가리(積)	장작 베눌 누린다고
20204	가리다(積)	누린다고
20205	벗가리	지 빼누리라고
20205	벗가리	지 빼너런
20205	벗가리	나락 빼느른
20206	난가리	나락 빼늘
20206	난가리	베늘
20206	난가리	나락 빼늘
20207	타작	홀타씨
20207	타작	홀꼬
20207	타작	홀른디
20207	타작	홀트먼
20207	타작	홀른다고
20207	타작	홀릉거슨
20207	타작	홀짜고
20207	타작	홀튼다고
20207	타작	홀따가
20208	벼훅이	가락홀테라고
20208-1	그네	나락 호른 홀테
20208-1	그네	홀테
20209	개상	*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질	*
20210	도리깨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도리깨자리
20210-2	도리깨열	도리깨열:
20210-3	도리깨꼭지	비네락 헤씨
20210-3	도리깨꼭지	도리깨비네
20211	벗짚	짐만
20211	벗짚	집 까존나 그러제
20211-0-1	-을	지븐
20211-0-1	-을	지비제
20211-0-2	-에	지베다
20212	새 패기	집회:기
20212	새 패기	집회:기
20212	새 패기	지베기
20213	쭈정이	찌게~이
20213	쭈정이	나락 찌게~이
20214	티	문지여
20215	까끄라기	보리꺼럭
20215	까끄라기	보리꺼시라기
20216	풍구	풍구
20217	원두막	외:마기여
20218	허수아비	허세비
20219	흥년	송년 드러따고
20220	머슴	모심 사룽거 보고
20220	머슴	일:꾸니다고
20221	놉	너버더서
20221	놉	너번는다

20221-0-1	-을	너벌 언는데
20221-1	(눔을) 사다/얻다/부리다	너벌 언는데
20222	품앗이	푸마시헌 사람
20222	품앗이	푸마시여
20223	품삿	품쌈
20223-0-1	-으로	품싸글

### 2.1.3 방아 찧기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0301	방아	방에
20302	디딜방아	방에라고
20302	디딜방아	드들뺑어라고
20303	방앗공이	방에꼬
20304	방아확	방에하기 이씨
20304	방아확	방에학
20305	물레방아	물방에고
20306	연자방아	연자방아넌
20307	절구	도:구통
20308	절구통	도:구통
20309	절굿공이	도:구떼 (+ 자리가 없음)
20310	절구질	도:구질한다고
20311	겨	제락 헐다니까
20312	보릿겨	보리째라고
20313	왕겨	메제
20314	등겨	누까여
20315	검불	검부런(+ 벼를 타작할 때 이삭과 함께 나오는 지푸라기를 가리킴)
20315	검불	검불
20315	검불	메징게
20316	껍질	껍딱

### 2.1.4 곡물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0401	곡식	곡씨근
20402	참쌀	참싸리제
20403	멥쌀	모:싸리고
20403	멥쌀	모:싸리라고
20404	쌀보리	쌀보리라고
20405	조	수:송 모게 가트
20405	조	수:수기요 수:숙
20406	차조	차수숙 이꼬
20407	메조	모:수숙

20408	좁쌀	수:숙쌀
20409	작다	자라
20409	작다	잘고
20410	조이삭	수:송모계
20411	수수	쭈:시구만
20411	수수	쭈시드런
20411-1	붉은색 수수	*
20411-2	장목수수	*
20411-3	찰수수	찰쭈시 이꼬
20411-4	메수수	모:쭈시도
20412	수수깡	쭈시떼라고
20413	옥수수	깡네~이
20413-1	찰옥수수	찰깡네~이
20413-2	메옥수수	모:깡네~이
20413-2	메옥수수	모:깡네이도
20414	귀리	*
20415	메밀	메:물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깍파기라고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다라메
20419	매달다	다라메농게
20420	떠우다	떠운다
20420	떠우다	떠워야
20421	곰팡이	곰:헝이 실:난다고
20421	곰팡이	곰헝이
20421	곰팡이	곰헝이가
20421	곰팡이	실:난다고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콩지름
20424	깨	웨로만 짜무거째
20424-1	참깨	참깨
20424-2	들깨	들깨
20424-2	들깨	들깨라고
20425	고소하다	꼬수와
20425	고소하다	꼬습째

## 2.1.5 채소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0501	채소	채소년
20502	나물	너물 이르미
20502	나물	너물 뜨드로 간다
20502-1	"나물(발 재료)"	반너무리랑
20502-2	"나물(발 반찬)"	너무를
20502-3	"나물(들 재료)"	드레너무른
20502-4	"나물(들 반찬)"	너무리고
20502-5	"나물(산 재료)"	산너무른

20502-6	"나물(산 반찬)"	너물로
20503	푸성귀	푸정가리넨
20504	다듬다	다듬꼬
20504	다듬다	다듬넨다고
20505	반찬	반차니제
20505	반찬	경계(+ 장, 된장 같은 짬 반찬)
20506	무	무시
20507	썰다	씨러
20507	썰다	썰제
20508	무청	무시입씩
20509	시래기	씨레기로
20510	무말랭이	무시 말린 거시라고
20511	장다리무	짱다리
20511	장다리무	짱다리라고
20512	배추	베:추
20513	고갱이	베:추속:
20514	오이	외:구만
20514	오이	무뢰
20514	오이	무례라고
20515	오이지	장아찌제
20515	오이지	예:장아찌
20516	오이소박이	예:속:빻찌락
20517	가지(茄子)	까:지
20518	호박	호:바기고
20519	고구마	고:구마(+ 신)
20519	고구마	감제라 했지(+ 구)
20520	감자	부깼자락 헤씨(+ 구)
20520	감자	하:지감자라고(+ 신)
20520-1	잘다	잘다
20521	우영	우왕이여
20522	파	팡게
20523	고추	고추(+ 신)
20523	고추	꼬:추(+ 신)
20523	고추	꼬:치(+ 구)
20524	시금치	시금초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6	부추	소:리구만
20527	상추	상추구만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나송게여
20530	냉이	나송게는
20531	달래	달룽게
20532	도라지	도란
20532	도라지	도라시여
20533	더덕	더덕
20533	더덕	더더기구만
20533	더덕	도더근
20601	쌀밥	쌀바비락 허제
20602	찬밥	시근바비라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0602-1	더운밥	따순밤 머거따
20602-1	더운밥	따순밤 머금서는
20603	조밥	수:숙밥
20604	누룽지	깜:바비고
20605	눌은밥	누룬바비여
20606	승냥	승님
20606	승냥	승님물
20607	뜨물	뜨물
20607	뜨물	뜸물
20607	뜨물	뚜물
20607	뜨물	속:뚜무리락 해
20608	김(蒸氣)	짐:
20609	갱죽(羹粥)	김치주기고
20610	싱겁다	싱겁따고
20611	국수	국씨도
20612	칼국수	칼국씨라고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국씨라고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국쭈라고도
20613	건더기	국건덕찌
20613	건더기	건더기여
20613	건더기	건덕찌라고
20613-1	국물	궁무리제(+ 신)
20613-1	국물	궁물구기라고(+ 구)
20614	고명	양니미다고
20614	고명	양님 올린다고
20615	꾸미	*
20616	미역	미:꾸기제
20616	미역	미:꾸기라고
20616	미역	밍:느면
20616	미역	며:기제
20616	미역	미여기라고
20616	미역	믹:까지
20617	김(海苔)	짐:
20618	수제비	수제비고
20618	수제비	수제비
20619	끼니	시:꼬니 머꼬
20619	끼니	꼬넉
20620	미음	빔:
20620	미음	미:미라고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쑤:다고 그러제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쑤:니까
20621	옛기름	여찌름
20622	식혜(食醪)	감주

20623	식해(食?)	*
20624	달다(甘)	달다고
20625	가루	떡까리
20625	가루	가리 되머년
20625-0-1	-에	가리다 부째
20625-0-2	-을	가리 몬칭게
20625-0-3	-도	가리 업따
20626	밀가루	밀까리 업따
20627	밀기울	지울
20627	밀기울	밀찌울로
20628	미숫가루	미수까루(+ 신)
20628	미숫가루	미수까리(+ 구)

## 2.2.2 반찬과 별식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0701	간장	장:으로
20701	간장	조손간장으로
20701	간장	웨간장 치고
20702	된장	웁:장
20703	고춧가루	고추까루(+ 신)
20703	고춧가루	꼬:치까리(+ 구)
20704	고추장	고추장(+ 신)
20704	고추장	꼬:추장이고(+ 구)
20705	소금	소그메다
20706	김치	짐치제
20706	김치	베:추짐치
20707	김장	짐장이라고
20708	깍두기	깍뚜기지라고
20709	나박김치	나박찌라게
20709	나박김치	나박짐치
20710	담그다	담:는다고
20710-0-1	-고	당:꼬 이따고
20710-0-2	-어라	다머라
20711	양념	양니미고
20712	버무리다	속:뽕는다고
20712	버무리다	버물른다
20712	버무리다	비빈다고
20713	버섯	버션
20713-0-1	-이	버서싱만
20713-0-1	-이	버서시 잘 크다
20714	콩나물(재료)	콩노물
20714-1	콩나물(반찬)	콩노물
20714-2	숙주(나물)	녹뚜너무리여
20715	두부	뚜부요
20715	두부	뚜부
20716	비지	비제라게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
20717	달갈	당가리여
20718	가래떡	기리떠기제
20719	시루떡	시리떠기고
20720	송편	생편
20720	송편	성페넌
20720	송편	모신님 생펜
20721	빻다	생편 멘든다고
20722	흰떡	힌떠기제
20723	고물	고물 떠러진다
20724	팔죽	세알주기라고
20724	팔죽	동지주글
20725	새알심	세아리라고
20726	백설기	백씨리
20727	튀밥	튀밥
20728	술	수리제
20729	막걸리	마걸리
20730	소주	쇠주고
20731	부침개	전:

### 2.2.3 부엌과 그릇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0801	부뚜막	부수막
20802	가마솥	꺼명소시라고
20802	가마솥	꺼명손
20802	가마솥	가메소시라(+ 큰 솥)
20802-0-1	-을	소시고
20802-0-1	-을	솥 따끈다고
20802-0-1	-을	소시 크다
20802-0-2	-에	소테다
20803	아궁이	부어게다
20803	아궁이	부엌짜기여
20803	아궁이	부석짜기라니까
20803-0-1	-이	부석짜기 크다
20804	그을음	검장
20804	그을음	검장
20804	그을음	끄시럼(+ 천장의 그을음)
20804	그을음	철메라고(+ 천장의 그을음)
20804	그을음	차:납
20805	불쏘시개	쏘시개
20806	연기	영기제
20806-1	내(煙氣)	냉갈낭게
20807	그을리다	끄시러가꼬
20807	그을리다	끄신다고
20807	그을리다	끄실다고

20807	그을리다	끄시러따고
20808	부지깽이	비:땅
20809	부삽	*
20810	넙다	네옴따고
20811	넙비	넙비고
20812	그룻	박끄러기제
20812	그룻	그르기나
20812-0-1	-을	박끄러기
20813	뚜껑	뚜껑
20814	주발 뚜껑	게
20815	사발 뚜껑	게:제
20815	사발 뚜껑	게를
20816	솔뚜껑	소당이
20816	솔뚜껑	소드랑뚜껑이
20816	솔뚜껑	소두랑이라고
20816	솔뚜껑	소두랑뚜껑이라
20817	밥주걱	주걱
20818	숟가락	수꾸라기고
20819	젓가락	저그미고
20820	종지	깍제~이
20820	종지	장:종제기가
20821	보시기	보삭찌
20821	보시기	보삭찌다
20822	뚝배기	옹:구뚝쑈바리구만
20822	뚝배기	뚝싸발
20822	뚝배기	뚝싸부리여
20822	뚝배기	옹:구소시구만
20823	접시	접씨
20824	조리	조:루
20825	이남박	나무쫌빠기제
20825	이남박	나무쫌빱
20826	바가지	박쫌빠기고
20827	행주	행기뽀
20827	행주	행기뽀가
20828	행구다	흔든다고
20828	행구다	행준다
20828	행구다	행긴다고
20829	설거지	기영친닥 헤써
20830	개숫물	기영무리고
20831	찌꺼기	찌꺼린디
20832	화로	화:로
20832	화로	하:리라고
20832	화로	하:루라고도
20833	화롯불	하:리뿔
20834	부젓가락	불찌그미구만
20834-0-1	-이	불찌그므로는
20834-1	불숟가락	불쭈거기고
20834-1	불숟가락	불쏘니고
20834-1	불숟가락	불쭈거기당개
20834-1	불숟가락	부사비라



20835	다리쇠	불찌그민디
20836	석쇠	적싸라고
20836	석쇠	적썰라고도
20837	도시락	꼼빠꾸리라고
20837	도시락	꼼빠소꾸리라고
20838	바구니	구덕(+ 산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나물   켈   때   사용함)
20839	뒤주	뒤지고
20840	찬합	차:납
20841	강판	강파니라니까
20842	개다리소반	도리상이구만
20842	개다리소반	도리빵이라고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0901	안방	큰방
20902	벽	베랑빡
20903	다락	다라기락    허고
20904	벽장	백짱이여
20905	감추다	숨켜   부린다고
20905	감추다	숨케부린다고
20905	감추다	감차부린다고
20905	감추다	숨킨다고도
20905	감추다	감차따고도
20906	흙	기스나따고
20907	돌쩌귀	돌:쪼구
20907-1	암짱	암똥쪼구
20907-2	수짱	수똥쪼구
20908	미닫이	밀:창이제
20909	여닫이	외창무니
20909	여닫이	쌍창문
20910	덧문	던문
20911	열다	열:고    그러제
20912	문고리	뭉 꼬리고
20913	자물쇠	쇠통
20914	간히다	가쳐부러쪼
20915	열쇠	쇠떼구만(+ 구)
20915	열쇠	열:쇠구만(+ 신)
20915	열쇠	쇠떼여(+ 구)
20916	잠그다	장구제
20916	잠그다	장구고
20917	구멍	구녁    땀코

20917-1	취구멍	취구녀기라
20918	찢다	찌전냐
20919	구들	방뚝
20920	흙받기	흑빠게고
20921	흙손	쇠소니고
20922	흙칼	쇠소니고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쇠소니제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쇠소니제
20923	바르다	부친다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종우로
20926	도배	데벽헌다고
20926	도배	데보기라
20926	도배	데베기제
20927	구석	꾸석찌
20928	굽도리	굽뜨리
20929	깨끗하다	깨:끄더니
20929	깨끗하다	깨:끄테
20930	문지방	문떡
20930	문지방	문터글
20930-0-1	-에	문터게
20931	틈	트메기
20932	가장자리	방 가:시고
20933	가운데	방 가운데
20933	가운데	방까운데
20934	시렁	시렁까래
20935	살강	살강
20936	선반	선바니고
20937	서랍	빼:까니라
20938	경대	경데
20939	거울	거우리제
20939	거울	밍:경
20940	걸다	거러논 놉
20940	걸다	베게다 걸:지
20941	호롱	호:롱

## 2.3.2 건물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에 올라간다
21002	기와	지아
21003	기와집	지아집
21004	수키와	*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상:냥이고
21006	대들보	데들뽀

21007	서까래	서끌
21008	추녀	추네여
21009	처마	초메
21010	오두막	오두막째
21011	초가집	초가집
21012	이영	마라미여
21012-0-1	-에서	마라메서
21013	용마름	용마람
21014	기스락	지시라기라고
21015	낙숫물	지시랑물
21015-1	기스락물	지시랑무리제
21016	사닥다리	사드리
21017	용마루	용모리제
21018	토방	토방이여
21018	토방	흑토방이여
21019	땃돌	심방뚝
21019-1	섬돌	심방또기여
21020	마루	말캉(+ 구)
21020	마루	토:지라고 (+ 신)
21020	마루	아:상(+ 대로 엮은 마루)
21020-0-1	-에	말캉에
21021	뿔마루	말캉이라고
21021	뿔마루	실:터말캉이라고
21022	기둥	지둥
21023	주춧돌	지치뚝
21023-0-1	-을	지치또글
21024	굴뚝	기:뚝

### 2.3.3 마당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1101	뜰	하단바시라고
21102	마당	마당이라고
21103	넓다	넬롭꼬
21103-0-1	-어서	넬룽게
21103-0-1	-어서	넬루와서
21104	넓히다	넬리먼
21105	곳간	창고제(+ 신)
21105	곳간	고까나라고 (+ 구)
21106	외양간	에양간
21107	마구간	*
21108	광	테:청에다(+ 신)
21108	광	광:이라고(+ 구)
21109	헛간	허까네다가
21110	쓰레기	처징겨 나온다
21110	쓰레기	처징거시
21111	장독대	장:땡

21112	장독 뚜껑	장:항뚜경이라고
21113	변소	소망
21113-1	똥장군	장군
21114	울타리	우타리
21115	담	다미여 담
21115	담	단:장이라고
21115-0-1	-에	다메 올라가지 마라
21115-0-2	-도	담도 어그러저따
21116	사립문	사르비라고
21117	뒤결	뒤야니라
21117-0-1	-에	뒤야네서
21118	바깥	베까시고
21118-0-1	-에	베까테가
21119	모퉁이	곰베~이
21119	모퉁이	모퉁이
21120	모서리	모소리

## 2.3.4 마을과 가게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1201	마을	동:네
21201	마을	마으리라고
21202	윗마을	*
21203	이웃	윤:찌비라고
21203	이웃	유:제로 놀로간다
21203-0-1	-이	유:시 조아야
21203-0-1	-이	짐 윤:또 조아야 허고
21203-0-2	-에	유:제 간다고
21204	마을가다	마으레 간다고
21204	마을가다	모시레 간다거도
21205	우물	독:쌔미자나요(+ 외곽을 돌로 짚 우물)
21205	우물	쫓빻쌔미라고(+ 알게 파서 바가 지로 물을 뜰 수 있는 우물)
21205	우물	세:미라고
21206	두레박	두룸박
21207	샘(泉)	세:미라고
21208	가(邊)	샘: 가:시제
21208-0-1	-을	샘:까시
21208-0-2	-에	샘: 가:세서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점:빵이라고
21211	싸다	싸다고
21212	비싸다	비싸다고
21213	흥정	흥정허지
21214	중매인(거간꾼)	거간쟁이
21215	잔돈	각편

21216	에누리	깡능거시고
21216	에누리	까꺼도라고
21217	거스름돈	거시럼또니제(+ 신)
21217	거스름돈	돈 꼬터리 나문 눔(+ 구)
21218	거스르다	꼬터리 나문 눔 주씨요 그러제
21218	거스르다	네:쥐야제
21219	꾸다(借)	꿔:다 쓰제
21219	꾸다(借)	꾸:로 간다고
21219-0-1	-어야	꿔:야 쓰거따
21220	구두쇠	꼬꼼쟁이라고
21221	말기다	메께따고
21222	나머지	나문눔
21223	덤	운:수
21224	몫	목씨가 주러진다
21224-0-1	-을	네 목씨를
21225	빗	비시 만:체
21225-0-1	-을	비슬 가퍼따
21225-0-2	-에	비시 쪼달리제
21226	이자(利子)	이자가
21226	이자(利子)	이자 업꼬
21227	심부름	심:바라미고
21228	두름	한 두름
21228	두름	두루미라고
21228-1	촉	한 추기라
21228-2	꽤	한 케라
21228-3	접	가:먼 한 접
21228-4	쌈	한 쌈
21228-5	두름	*
21228-6	단/몫(작은 묶음)	나무따부런
21228-6	단/몫(작은 묶음)	다부리고
21228-6	단/몫(작은 묶음)	한 무시라고
21228-7	단/몫(서너 개 묶음)	*
21228-8	툇	한 툇
21228-8	툇	한 토시라고
21228-9	모숨	*
21229	컬레	항 커리라고
21230	마지기	연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00평
21231	꾸러미	한 줄
21232	그루	한 나무
21233	포기	한 폭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차두
21235	자루(包袋)	차데기다
21235-0-1	-을	차두 가존나 그러제
21235-0-1	-을	차두를
21235-0-2	-에	차데기다
21235-0-2	-에	차두에다
21236	하나	한나
21236-1	한-개	항 게

21236-2	한-되	한 데
21236-3	한-말	함 말
21237	둘	둘:
21237-1	두-개	두: 게
21237-2	두-되	두: 데
21237-3	두-말	두: 말
21238	셋	센:
21238	셋	센:
21238-1	세-개	세: 게
21238-2	세-되	서: 데
21238-3	세-말	서: 말
21239	넷	넌:
21239-1	네-개	네: 게
21239-2	네-되	너: 데
21239-3	네-말	너: 말
21240	다섯	다섯
21240-1	다섯-개	다섯 께
21240-2	다섯-되	단 떼
21240-3	다섯-말	담 말
21241	여섯	여섯
21241-1	여섯-개	여섯 께
21241-2	여섯-되	연: 떼
21241-3	여섯-말	염 말
21242	일곱	일곱
21242-1	일곱-개	일곱 께
21242-2	일곱-되	일곱 떼
21242-3	일곱-말	일곱 말
21243	여덟	여덟
21243-1	여덟-개	여덟 께
21243-2	여덟-되	야달 떼
21243-3	여덟-말	야달 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홉 께
21244-2	아홉-되	아홉 떼
21244-3	아홉-말	아홉 말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 께
21245-2	열-되	열: 떼
21245-3	열-말	열: 말
21246	스물	스물
21246-1	스무-개	스무 게
21246-2	스무-되	스무 데
21246-3	스무-말	스무 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른 게
21247-2	서른-되	서른 데
21247-3	서른-말	서른 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개	마흔 게
21248-2	마흔-되	마흔 데

21248-3	마흔-말	마흔 말
21249	췌	쉬흔
21249-1	췌-개	시웅 게
21249-2	췌-되	시운 데
21249-3	췌-말	시운 말
21250	예순	여순
21250-1	예순-개	여승 게
21250-2	예순-되	여순 데
21250-3	예순-말	여순 말
21251	일흔	이른
21251-1	일흔-개	이릉 게
21251-2	일흔-되	이른 데
21251-3	일흔-말	이른 말
21252	여든	야든
21252-1	여든-개	야등 게
21252-2	여든-되	야든 데
21252-3	여든-말	야든 말
21253	아흔	아흔
21253-1	아흔-개	아은 게
21253-2	아흔-되	아흔 데
21253-3	아흔-말	아흔 말
21254	백	베기제
21254-1	백-개	백께
21254-2	백-되	백 떼
21254-3	백-말	뱅 말
21255	이백	이:베기제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21256-2	한두-되	한두 데
21256-3	한두-말	*
21257	두셋	
21257-1	두세-개	
21257-2	두세-되	두서너 데
21257-3	두세-말	두서너 말
21258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21258-3	두서너-말	
21259	서넛	
21259-1	서너-개	
21259-2	서너-되	서너너데 떼
21259-2	서너-되	서너너던 떼
21259-3	서너-말	서넌 말
21259-3	서너-말	서너너던 말
21260	네댓	
21260-1	네댓-개	
21260-2	네댓-되	데:떼
21260-2	네댓-되	너던 떼
21260-3	네댓-말	너뎡말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21261-2	대여섯-되	데여서 떼
21261-3	대여섯-말	데여섬 말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개	
21262-2	예닐곱-되	예일곱 떼
21262-3	예닐곱-말	예일곱 말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
21263-3	일여덟-말	*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2	여덟아홉-되	*
21264-3	여덟아홉-말	*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여나무 데
21265-2	여남은-되	함말이나 되거쑈
21265-3	여남은-말	여나무 말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1301	치마	치메
21302	길이	지럭씨가
21303	저고리	저구리고
21304	색동저고리	깐:치동
21304	색동저고리	까:치동이여
21304	색동저고리	칸치저고리
21305	두렁이	*
21306	무늬	무유이라고도
21306	무늬	모요 나저따
21307	고쟁이	고쟁이가꾸만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메기고
21309	두루마기	후루메기당게
21310	의복	이:보기라
21310	의복	오시라 해따
21311	구겨지다	꾸게진다고
21312	옷고름	오꾸름
21313	단추	단초라고
21314	동정	동저니고
21315	겉	겹딱
21315-0-1	-에	겹따게가



21315-0-1	-에	껍따기
21315-0-2	-을	
21316	홀웃	호꺼시라고
21317	겹웃	적꺼시고
21318	잠방이	등잔베~이
21318	잠방이	등지잠베~이
21319	누더기	누더기
21320	거지	동:냥치드런
21321	구걸	동:냥허로 텅인다고
21322	조끼	저께 이꼬
21323	내의	네:복
21324	껴입다	포게임는다고
21325	소매	소메
21326	주머니	주메~이라
21327	호주머니	오메이 달고
21327	호주머니	오메~이고
21328	허리띠	각뚜(+ 가죽으로 만듦)
21328	허리띠	허르끄니고(+ 베로 만듦)
21329	댕기	댕기라
21330	도포	도:포는
21331	삿갓	사까시여
21331-0-1	-에	사까세
21332	고깔	꼬:깔
21333	사모	사:모관테라고
21334	유건	건
21335	대님	텐님
21336	감발	*
21337	짚신	집쌔기
21337	짚신	집씨니여
21338	미투리	가:집씨니여(+ 삼, 왕골로 삼은 신)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 /결다	신 사문다고
21339	나막신	나마께
21340	설피	*

## 2.4.2 바느질과 세탁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1401	명주	멩기베
21401-1	명주실	멩기실
21402	목화	미영이라
21402-1	목화다래	다:레
21402-1	목화다래	다레가
21403	무명	미영베
21403-1	무명실	미영멩이라고(+ 숨을 타서 만 든 실 덩어리)

21403-1	무명실	미영실
21404	씨아	썰아시
21404	씨아	씨아시
21405	자새	연:짜세라고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베라고
21408	길쌈	질쌈헌다고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질고리	바느질쌍자라고
21411	가위	가세
21411-0-1	-을	가세 가꾼나
21411-0-2	-에	가세에다
21412	마르다(裁)	마라
21412	마르다(裁)	말기가
21412	마르다(裁)	온 만다 쏘리제
21412	마르다(裁)	마라 주면
21412-0-1	-고	온 말고 이따
21412-0-2	-어라	온 쫘 마라 주라고
21413	형꼬	형:거비라고
21413	형꼬	형:겹떼기
21413-0-1	-을	
21413-0-2	-에	형:거브로
21414	바늘	바늘
21415	꿰다	시를 끼여
21415-0-1	-고	바늘 끼:고 이따
21415-0-2	-어라	끼여두라게
21416	바느질	바느질
21417	재봉틀	자방침
21417	재봉틀	손자방침
21417	재봉틀	발자방침
21418	끈	끈타발
21419	노끈	노꾸니
21420	참바	동빠
21420	참바	동빠라고
21421	매듭	메다비 생기제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메다블 딱 지어야
21422	보자기	보라고
21422	보자기	쪽뽀라고 (+ 쪽물 들인 것)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솜:(+ 신)
21424	솜	소케락 헤(+ 구)
21425	포근하다	폭싹허다고
21426	홀이불	혼니부린디
21427	겹이불	점니부리제
21427-1	솜이불	솜:니불
21428	누비이불	뉘비이부리제
21429	베개	비:게
21430	베갯잇	비:게호창이고
21430	베갯잇	비:겐니
21430-0-1	-에	비:겐니에

21431	목침	몽:치미여
21432	퇴침	테:치미라
21433	방석	자부둥
21434	담요	구닌덜 담:뇨
21435	빨래하다	빨래헌다
21436	빨랫방망이	방메~이가
21436	빨랫방망이	빨:레 빵마~이
21437	빨래터	빨레또기라
21438	빨랫줄	빨레쫄
21439	다리미	데리미
21439-1	다림질	데리미질
21440	인두	인:두
21440	인두	인두여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듬 빵메~이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드메 빵메~이
21442	다듬잇돌	다듬뚝
21443	다듬이질	다듬질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1501	설날	초하렌나라라고
21501	설날	설:나라라고
21502	설	설: 쉰다
21503	설날 그믐날	금:날
21504	목은세배	*
21505	올해	오레로 허고
21505	올해	오레락 허고
21505-0-1	-는	오레는
21505-1	작년	장녀나라고
21505-2	재작년	그럭계
21505-3	내년	네:녀나라고
21505-4	후년	네후녀나라고
21505-5	내후년	*
21506	작은설	*
21507	웃	윤: 놀고
21507	웃	유:시라고
21507-0-1	-을	
21507-0-2	-에	유:세다
21507-1	웃놀이	윤:논다고
21508	웃가락	유까라기락
21508	웃가락	한 짝
21508-1	도	도
21508-2	개	게
21508-3	걸	걸

21508-4	웃	수
21508-4	웃	수가 나오면
21508-5	모	모
21509	단동	말 씨는 거슬 쓰제
21509-1	외동무니	
21509-2	두동무니	말 둘로 간다고
21509-3	석동무니	세:게 포게가꼬 가제
21509-4	넉동무니	
21509-5	막동	
21509-6	단동무니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
21511	추석	파월
21511	추석	보름날
21511	추석	파월 원다고
21512	망월	모닥뿌를
21513	쥐불놀이	*
21514	자치기	땡:공
21514	자치기	땡공이여
21514-1	작은막대	*
21514-2	긴막대	*
21515	수수께끼	춘치세끼는
21515	수수께끼	춘치세끼여
21516	호미씻이	백쫑나릴 꺼여
21516	호미씻이	만:드리
21516	호미씻이	만:드리 허고
21517	팽과리	깡메기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세:꺼리
21519	결두리	참:명는다고
21519	결두리	참:꺼리 머근다고
21520	무당	당골
21520	무당	당골레라고
21520	무당	당골레
21520-1	박수	당고리라게
21520-1	박수	당골레
21521	고수레	고시레
21521-1	고수레!	퇴고시레
21522	점쟁이	점제~이
21523	상여(喪輿)	생에
21524	굴건	굴간제보기라고
21525	제사	지:사
21526	제기	지:기
21527	귀신	구:신 들러따고
21528	도깨비	도깨비고

## 2.5.2 농경용품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1601	고빼	쉐베
21602	굴레	동드레
21603	멍에	멍에여
21603	멍에	멍에를
21604	길마	구:라시라고
21605	부리망	망: 씌다고
21606	구유	구시
21607	작두	작:두
21608	꼴	소꼴
21609	여물	여물
21609	여물	여무리라고
21609	여물	여무리제
21610	쇠죽	쇠주기제
21611	쇠죽바가지	나무쪼빱
21612	수레	구루마라게씨
21613	끝다	끈는다고
21613	끝다	끄서따고
21613-0-1	-고	끄:꼬가먼
21614	바퀴	바꾸
21615	새끼(繩)	세네키
21615-1	새끼(짐승의)	세끼난다고
21616	망태기	우케(+ 대로 걸어서 만들고 등에 지고 다니면서 꼴을 넣음)
21616	망태기	구덕
21617	떡등구미	망태기
21618	거적	꺼적때기 치고
21619	가마니	가맹이
21619-1	가마니틀	가맹이틀
21620	돛자리	자리
21621	자리틀	자리트리라고
21621-1	(자리를) 짜다/치다/만들다 /결다	자리 짠:다고
21622	왕골	앙:골
21623	삼태기	제수쿠리
21623-1	짚 삼태기	
21623-2	싸리 삼태기	*
21624	명석	덕씩
21625	어레미	테얼메~이(+ 타작한 벼를 고를 때 사용. 구멍이 큼)
21625	어레미	얼메~이고(+ 깨 따위를 고를 때 사용)
21625-1	고운체	체(+ 엇기름이나 묵 같은 것을 거를 때 사용)
21625-1	고운체	벤:체넌(+ 빨래에 먹이기 위한 풀을 거를 때 사용)
21625-2	굵은체	얼멍체넌(+ 떡가루 같은 것을 거 를 때 사용)
21626	대장장이	성:냥헌 사라미라
21627	대장간	성:냥깐

21628	폴무	불무
21629	모루	
21630	모루채	세명치로
21631	갈퀴	갈쿠제
21632	집게	연탄찍겐디
21633	장도리	장:도리
21633-1	노루발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베다
21635	도끼	도꾸
21636	자루(柄)	자리
21636-0-1	-을	자리를
21636-0-2	-에	자리에
21637	갈고리	갈구쟁이
21638	썰기	쇠악
21639	송곳	송:고시라게
21639	송곳	송구시라
21639-0-1	-에	송:고시로
21639-0-1	-에	송:고세다
21640	뽕족하다	날카명게
21640	뽕족하다	날카머다
21640	뽕족하다	빼쪽허니
21641	숫돌	시똥
21641-0-1	-에	시똥레다
21642	맷돌	메또기여
21642	맷돌	지비 메 이쏘
21642-1	수쇠	중쇠
21642-1	수쇠	중췌
21642-1	수쇠	미테치가 수췌
21642-2	암쇠	중쇠
21642-2	암쇠	중췌
21642-2	암쇠	암췌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발:
21645	지게 작대기	작떼기
21646	막대기	막까지
21647	몽둥이	작떼기가꼬(+가늘고 긴 것)
21647	몽둥이	몽텅이라 허제(+굵고 짧은 것)

### 2.5.3 생활용품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1701	빗자루	비짜루(+신)
21701	빗자루	비찌락(+구)
21702	광주리	깡:지리고
21703	소쿠리	소쿠리도(+도레바구리와는 모양이 약간 다름)

21703	소쿠리	도레바구리고
21704	함지	떡버텅이여(+ 떡을 넣고 치는 용 기)
21705	폴비	폴뻘
21705-1	귀알	*
21706	독	오가리(+ 작은 것)
21706	독	항아리(+ 큰 것)
21706	독	술또기라
21706	독	쇠주또기라
21706-0-1	-에	술항아리다
21707	물독	항아리노코
21708	항아리	항아리다
21709	단지	단:제기여
21710	물동이	동:우
21710	물동이	물뚥우
21711	짜리	또가리
21712	웅기	웅:구여
21712	웅기	웅:구그러기여
21713	표주박	쥬구레기
21713	표주박	쥬구레미
21714	키(箕)	치
21715	떡살	떡싸리라고
21716	다식판	다식판
21717	시루	시리
21717-0-1	-을	시리 가꼬라
21717-0-2	-에	시리에다
21718	시룻밀	시리 미테 까는 거시라
21718	시룻밀	시린밀
21718	시룻밀	시린미슨
21718-0-1	-에	시린미세가
21718-0-1	-에	시리미세가
21719	시룻번	시리뻘
21720	부싯돌	산:도기여
21720-0-1	-을	산:도게다
21721	부시	부시 치다
21722	부싯깃	부시찌비락
21723	담배	담:베
21724	담뱃대	데통 물고만 사라
21724	담뱃대	담베데
21725	담배설대	데통짜리
21726	담배통	데통이여
21727	물부리	뻘:찌여
21728	담배쌈지	쌈지여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라
21731	벼루	먹파네다가
21731	벼루	베루라
21732	가락지	반지제(+ 신)
21732	가락지	까락찌(+ 구)
21733	비녀	비네제

21734	참빔	참빔
21734-0-1	-을	참비설
21734-0-2	-에	비세
21735	얼레빔	어리빔 이꼬
21735	얼레빔	어리비슨
21736	세숫대야	세:수떼
21737	비누	비누
21737	비누	세:스뿌누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
21739	활대	끄실쿠
21740	잉앗대	잉:에펜디
21741	부티	호랑게
21742	도롱이	둥구지여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1801	이마	이메라고도
21802	이마빠기	이마빠글
21803	눈자위	눈 가:시락 허제
21804	검은자위	눈 망:자
21804	검은자위	꺼멍창이라
21805	흰자위	흰창
21806	눈꺼풀	눈뚜경
21807	거적눈	꺼정누는
21808	눈썹	눈씨비고
21808-0-1	-이	눈씨비
21809	속눈썹	송:눈씨비
21809-0-1	-이	송:눈씨비
21810	눈두덩	눈뚜경이
21810	눈두덩	눈테~이
21811	안경	앙:경이라
21812	안경집	앙:경지비제
21813	돋보기	도빠기고
21814	주름살	주름
21814-0-1	-이	주루미
21815	엷되다	나이 안먹께 뵈인다고
21815	엷되다	절머보인다
21816	수염	쉬염
21817	구레나룻	귀알썩여미여
21817-0-1	-을	귀알쉬염 까꺼부따
21818	코	코락 허제
21818-0-1	-이	코가
21819	콧수염	코씨염
21820	코딱지	코딱찌



21821	콧구멍	코꾸녀기라고
21821-0-1	-을	코꾸녀글
21821-0-2	-에	코꾸녀게서
21822	콧물	멜강코
21822	콧물	말강코
21823	입술	입썰
21823-0-1	-에	입쏘래
21824	다물다	오무라따
21825	어금니	아금니
21825	어금니	송:곤니
21826	덧니	덤니
21826	덧니	빠드렁니라고도
21827	휘파람	시파람
21827	휘파람	히파람
21828	침	춤 도:는 거슨
21829	삼키다	춤 생킨다고
21830	가래(痰)	가:레가
21831	빨다	바트제
21831	빨다	바꼬
21831	빨다	바터
21831	빨다	바찌 말라고
21832	혀	서빠닥
21832	혀	서라고
21833	혓바늘	서빠늘 이러따고
21834	귓볼	귀뺨
21835	귀고리	귀고리
21835-1	귀걸이	귀마개
21836	귀지	귀빠비
21837	귀이개	귀지개로
21838	소리	말:쏘리가
21839	엮듣다	여:뜯는다고
21839	엮듣다	여:슬 든냐
21840	귀칭	귀창 떠러징게
21841	귀밑	귀뒤에
21841	귀밑	귀미테
21841-0-1	-을	귀미테가
21842	관자놀이	야:과니 아푸다
21843	기미	지메 찢다고
21844	주근깨	주경깨 찢다고
21844	주근깨	주경깨
21845	턱	턱
21846	턱수염	시여미여
21847	뺨	볼테기
21847	뺨	빠마테기닥 허고 (+ 때릴 경우)
21847	뺨	뺨 때려따고(+ 때릴 경우)
21847	뺨	보리제
21847-1	볼	볼테기
21848	가름하다	자라죽허다고
21848	가름하다	질쭈:허다
21849	보조개	보:제기

21850	머리카락	멀크락 떠러진다
21850	머리카락	머끄데~이
21851	비듬	
21852	기계총	기계톡
21853	정수리	봉닥찐디
21853	정수리	취구덕(+ 갓난아기의 경우)
21854	대머리	이메가 할딱 버서저따고
21854	대머리	할딱빠우(+ 비)
21855	고수머리	꼬시랑머리
21856	가르마	가그메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가르메 탄다고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타
21857	가마	가:메
21857-1	가마(鼎)	가메쏜
21857-2	가마(轎)	가:메
21857-3	가마(질그릇)	가:메라고
21857-4	가마(가마니)	가멩이
21858	뒤통수	뒤꼭찌
21859	뒷덜미	뒤에모가지
21860	목	모가지 자버따허고
21861	먹살	멕쌀 자버따

## 2.6.2 상체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1901	어깨	어깨쪽찌
21902	밀치다	민:다고
21902	밀치다	밀:먼
21902	밀치다	미크러부르지 아나요
21903	겨드랑	저탈민
21903	겨드랑	저탈미테가
21903	겨드랑	저탈미시
21904	등	등거리
21905	가슴	가심
21906	결리다	절린다고
21907	갈비뼈	갈비빼고
21908	허파	페:가
21908	허파	허페다
21909	슬개	씨레여
21910	콩팔	콩포시
21910-0-1	-에	콩포세
21910-0-2	-을	콩포슬
21911	팔	폴뚝
21912	팔꿈치	폴꿈베~이
21913	팔짱끼다	팔짱찌고
21913	팔짱끼다	동무짜고
21913	팔짱끼다	폴짱찐는다

21914	손툇	손투비고
21915	오른손	오른손
21916	왼손	외약손
21917	다르다	틀리게
21917-0-1	-아서	틀렁게
21917-1	틀리다	틀려따고
21918	왼손잡이	외약손제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꾸락
21920	집게손가락	집송꾸락
21921	가운뎃손가락	가운데송꾸락
21922	약손가락	이름 엄는 송꾸락
21923	새끼손가락	깨:깨송꾸락
21923	새끼손가락	깨:끼
21924	생인손	송꾸라기 예레따고
21925	사마귀	사:막
21926	손아귀	아금지락 헤
21927	손목	폴모기고
21928	뺨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주:렁이라고
21930	지팡이	주평 짐는다고
21931	옆구리	역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째
21933	간지럼	간지럼 탄다고
21934	잔허리	*
21935	근육	*
21936	배꼽	배꾸락
21937	목물	등물 해준다

### 2.6.3 하체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2001	복사뼈	복송씨
22002	발가락	발꾸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툇	발툇
22005	넙새	넙세도
22005	넙새	넙세난 사라믄
22006	고린내	고랑네 난다
22007	굳은살	모시 베게따
22008	정강이	헤모긴디
22008	정강이	헤무기라고
22009	종아리	장:딴지
22010	장딴지	장:딴지
22011	회초리	헤:처리
22012	무릎	물팍
22012-0-1	-을	물파글

22012-0-2	-에	물과게서
22013	오금	오금쟁이
22014	엉덩이	엉:치라고
22014	엉덩이	넙떡찌라고
22014	엉덩이	엉:등이가
22014	엉덩이	넙떡찌가
22015	궁둥이	넙떡찌락 해따
22015	궁둥이	궁:뎡이락 해따
22016	볼기	넙떡지
22017	멍	멍드러따고
22017	멍	칭기나따
22018	멍울	몽얼
22019	가랑이	가리쟁이
22020	사이	이빨 세:에가
22021	살	사테~이라고
22021	살	사시라고
22021	살	사탕이
22021-0-1	-이	사시 부서따
22021-0-1	-이	사탕이가
22021-0-2	-을	사테~이를
22022	사타구니	사테~이다가
22023	가래뿔	테오기여
22023	가래뿔	테웅나따
22023	가래뿔	가래떼 선능가
22023-0-1	-을	가래떼를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
22024	허벅다리	허벅찌여
22025	넓적다리	허벅찌고
22026	가부좌(跏趺坐)	행:감쳐따고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 트다/꼬다/하다	행:감쳐따고

## 2.6.4 질병과 생리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2101	감기	고뿌리라고도
22101	감기	강:긴디
22101	감기	계:전머리 와따고
22102	기침	지치먼다고
22103	재채기	제치기
22103	재채기	제침허먼
22104	사레	사:레 들러따고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사:레 들러따고
22105	딸꾹질	따꾹찢허먼
22105	딸꾹질	포깅찌리라 허제
22106	트림	트르미고
22107	곰보	곰:보

22108	천연두	손니미여
22109	여드름	이:두름
22110	학질	추하기라고
22110-1	하루거리	하래거리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호녁
22111	홍역	홍진
22112	볼거리	*
22113	땀띠	땀:띠기
22113	땀띠	땀:떼기
22114	두드러기	뚜두럭
22115	버짐	보짐
22115-1	마른버짐	모린보짐
22115-2	진버짐	돈:보짐
22115-3	도장 버짐	돈:보지미여
22116	문둥이	문:둥이라고
22116-1	문둥병	문:둥이뽕이여
22117	부스럼	부으러미제
22117	부스럼	부시러미제
22117-1	종기	고닌네
22117-1	종기	찌꺼리
22117-1	종기	고님네
22118	고름	고르미 나오제
22119	곰기다	자리잠는다
22120	난쟁이	땀:또라고
22121	사팔뜨기	건네산보레기라고
22122	언청이	췌:보고
22123	소경	봉:사
22123-1	당달봉사	당갈봉사라고
22124	애꾸	에:꼬
22125	눈곱	농꼽
22126	다래끼	다:란
22126	다래끼	다라시
22126-1	다래끼(눈 위쪽)	다:라슨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다:라또
22127	절름발이	짤룩짤룩한다고
22127	절름발이	짤룩빼기다
22128	곱사등이	곱싸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제
22130	말더듬이	서잘룬소리고
22131	병어리	버머리
22132	잠꾸러기	잠충이라고
22133	줄리다	줄린다제 (+ 신)
22133	줄리다	자올자올 자오린다고 (+ 구)
22133	줄리다	자오리먼 (+ 구)
22134	하품	하품(+ 신)
22134	하품	아:염(+ 구)
22134	하품	아:염 현다고
22135	줄음	자문다고

22135	줄음	자미 쏘다진다고
22135-0-1	-을	
22135-0-2	-에	
22136	잠꼬대	잠뜨시라고

## 2.7 육아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2201	입덧	입떠시라고
22201-0-1	-을	입떠슬
22202	갓난아이	깐나이
22203	어린아이	예:기가
22203	어린아이	예:기라고
22204	경기(驚氣)하다	점풍난다고
22205	눅히다	넛:다고
22206	계집아이	기지베라(+ 신)
22206	계집아이	가시네보고는(+ 구)
22207	예쁘다	이:뿌닥 허제
22208	사내아이	모시메
22209	아우	아시탄다고
22209	아우	아시탕게
22209-1	아우보다	터 파라따
22209-1	아우보다	터파라서 동생봐따고
22209-2	아우 타다	
22210	야위다	야우다고
22210	야위다	빼빼 모른다고
22211	쌍둥이	쌍두~이
22212	오줌	오지물
22212	오줌	소:메라고
22213	똥	똥:싼다고
22214	기저귀	지지구
22215	뉘다(排便)	췌이제
22216	방귀	똥:깁다고
22216-1	뀌다	똥:끼면
22217	구렁내	구렁네라고
22218	구리다	구렁네도 징허게 난다고
22219	포대기	보단 이꼬
22220	기지개	지지기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	썸다고
	/퍼다	
22221	거짓말	그:닌말
22221	거짓말	그:닌말 험다고
22222	남부끄럽다	넙부끄럽따고
22223	겉쟁이	거비 만:타고
22224	불쌍하다	짤:허다고
22225	죄암죄암	쥐암쥐암
22226	곤지곤지	지게지게고

22227	따로따로	서따
22228	도리도리	도레도레
22229	짜짜꿍	판테판테
22230	부라부라	방에야 방에야 (+ 좌우로)
22230	부라부라	달:꿍달:꿍 (+ 앞뒤로)
22231	걸음마	거름마 거름마고
22232	아장아장	딸막:딸막
22233	넘어지다	자빠진다고
22234	곤두박질	네레저따고
22235	안기다	달라부꼬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혜:떼기
22238	숨바꼭질	봉:사사리라고도
22239	소꿉놀이	빠꿍세기
22240	사금파리	세금팔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
22241-2	가오리연	홍에연
22242	걸리다	걸려따
22243	고누	꼰 된다고
22244	땅뺏기	통구마끼
22245	팽이	팽이
22246	딱지치기	양:지
22246	딱지치기	양:지친다고
22247	구슬	다마
22247	구슬	다마친다
22248	그네	그:네고(+ 신)
22248	그네	둥구탄다고 (+ 구)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그:네타고 그레썸
22249	밀신개	*
22250	굴렁쇠	공:테 굴글린다고
22251	굴리다	공:테 굴글린다고
22251-0-1	-고	공:테 굴글리고 이따고
22251-0-2	-어야	굴글려 가제
22252	자전거	자전차고
22253	목말	몽물
22253	목말	몽물 테고 뎡인다고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담바꿀 잘 한다
22255	달음박질	담바뀌를 잘 한다
22256	썰매	어:름탄다고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어:름탄다고
22256-2	송곳	
22257	엄살	엄살 낸다 허제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살 낸다고 그러제
22258	부아	성:질 네딱 허제
22258	부아	부에나따고도

## 2.8 친족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2301	아버지	아부니미라고
22301	아버지	바더르신 (+ 양반)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22302	어머니	어메(상민)
22302	어머니	엄마라고 (+ 양반 어린 아이)
22302	어머니	어머니미라고 (+ 양반)
22302	어머니	아너러시니라고 (+ 양반)
22302-1	어머니(호칭)	엄마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님
22303	할아버지	하나씨제 (+ 상민)
22303	할아버지	하나부지 (+ 양반)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나부지 (+ 양반)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나씨 (+ 상민)
22304	할머니	할머니 (+ 양반)
22304	할머니	할메 (+ 상민)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 (+ 양반)
22304-1	할머니(호칭)	할메 (+ 상민)
22305	남편	지가
22305	남편	누구아빠
22305	남편	저라고
22305-1	남편(호칭)	경수니아부지
22306	아내	집싸라미라고
22306-1	아내(호칭)	어이어이
22306-1	아내(호칭)	아무게엄마
22307	형	성이제
22307-1	형(호칭)	형 형 그러제(+ 신)
22307-1	형(호칭)	성 성 그러고(+ 구)
22308	아우	동상
22308-1	아우(호칭)	동상 이르물 (부른다)
22308-1	아우(호칭)	아무게쏘나(+ 결혼한 아우를 부를 때. 아우의 처가 동네에 접미사 "-손"을 붙임)
22308-1	아우(호칭)	남창쏘니고
22309	누나	누니미제
22309-1	누나(호칭)	누님
22309-1	누나(호칭)	아무게누님(+ 시댁 동네 이름을 따서)
22310	누이	외동상이제
22310	누이	동상
22310-1	누이(호칭)	이르물 부르제
22310-1	누이(호칭)	메랑(시댁 동네) 동상
22311	자식	자녀간드리
22311	자식	자순드리
22311	자식	자시글 잘 뒤편
22312	만아들	크나덜



22313	만딸	큰딸
22314	막내	막똥~이
22315	오빠	오빠
22315-1	오빠(호칭)	오빠 오빠 그레
22316	언니	언니(+ 신)
22316	언니	성이여 성(+ 구)
22316-1	언니(호칭)	성 성 그레 (+ 구)
22316-1	언니(호칭)	언니 언니 헌디(+ 신)
22317	아비	이름 불르고 허고
22317	아비	예:기 이르믄 허드만
22317	아비	아무게 예비가
22317-1	아비(호칭)	이름 부르고
22317-1	아비(호칭)	아무게예비야
22318	어미	지:가 (+ 아이를 낳기 전)
22318	어미	예미가(+ 아이를 낳은 후)
22318-1	어미(호칭)	야야
22318-1	어미(호칭)	예미야
22319	손자	손자제
22320	손녀	솔레
22321	사위	사우
22321-1	사위(호칭)	이름 불러(+ 장인)
22321-1	사위(호칭)	김서방이라고 (+ 장모)
22322	외손자	외손자
22323	외손녀	외솔레
22324	꾸짖다	머락허제
22324	꾸짖다	혼넨다고
22324-0-1	-고	
22324-1	나무라다	혼넨다고 그러고
22325	총각	노:총각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노:처녀라고
22326	처녀	처:녀로
22327	혼인	게로니라고
22327	혼인	게론시킨다
22327	혼인	호년 호년 이룬다
22327-1	혼인식	시골린다
22328	혼인 잔치	게론 잔치헌다
22329	장가가다	장:게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집간다
22330	혼숫감	치혼
22330	혼숫감	치호늘 잘 바다따고
22331	함	함:
22332	겹사돈	겹싸둔
22333	새색시	세텍
22333-1	새색시(호칭)	세텍
22334	시아버지	시아바~이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부님
22335	시어머니	시어마이라 허고
22335-1	시어머니(호칭)	어머님
22336	비위	뜨슬 잘 마쳐야

22336	비위	비우 마춘다
22336	비위	뜬마춘
22337	아주버니	시승님
22337	아주버니	서방니미라게(+ 양반. 조항간)
22337	아주버니	아무게서방님
22337	아주버니	시아제
22337	아주버니	아제(상민)
22337-1	아주버니(호칭)	시승님
22338	서방님	서방니미로
22338-1	서방님(호칭)	아무게서방님
22338-1	서방님(호칭)	아무게씨방님
22339	도련님	되른니미라고
22339	도련님	시아제
22339	도련님	되른님
22339-1	도련님(호칭)	시아제
22339-1	도련님(호칭)	되른님 어찌고
22340	형님	동서제
22340	형님	큰동서
22340-1	형님(호칭)	형님
22341	시누이	시누
22341	시누이	큰시누제
22341	시누이	아무게시누(+ 결혼한 남편의 누나)
22341-1	시누이(호칭)	아무게 형님
22341-1	시누이(호칭)	암:디 형님
22341-2	아가씨	아가씨
22341-3	아가씨(호칭)	아가씨
22342	올케	동상아덕
22342-1	올케(호칭)	동상아덕
22343	매형	메양
22343-1	매형(호칭)	메양
22344	매제	메부라고
22344-1	매제(호칭)	메부
22345	큰아버지	크나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뽕뽕님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중부님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중부니미여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아무게 중부님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아무게 크나부지
22346	큰어머니	크너메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아무게크너머니(+ 친정 지명)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아무게크너머니(+ 친정 지명)
22347	큰집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자근아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근아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근어머니라고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근어머니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당:수기라고
22351	아저씨	아제락 허드랑게라(+ 상민)
22351-1	아저씨(호칭)	당:숙
22352	아주머니	당:송모
22352	아주머니	아지미라고 막 허더만(+ 상민)
22352-1	아주머니(호칭)	당:송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짐 (+ 상민)
22353	조카	조카
22354	조카딸	질레
22355	고모	고모제
22355-1	고모(호칭)	고모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 고모부
22357	고종	네:사추닐거시여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
22360	이종	이:종간
22361	외삼촌	에삼추니제
22361-1	외삼촌(호칭)	외숙
22362	외숙모	에송모
22362-1	외숙모(호칭)	에송모
22363	외종	웨사춘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나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22365	외할머니	외할무니고
22365-1	외할머니(호칭)	할머니
22366	장인	장:이니제
22366-1	장인(호칭)	장:이니라고
22366-1	장인(호칭)	장:이너르니라고 허제
22367	장모	장:모
22367-1	장모(호칭)	장:모니미라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나미라 (+ 손아래)
22368-1	처남(호칭)	형니미라 허고 (+ 손위)
22369	처남댁	처남무더기제
22369-1	처남댁(호칭)	처남무더기라고
22370	홀아버	호레비
22371	홀어미	호롬씨
22372	계모	이부더메라고
22372-1	계부	이부다버지
22373	아저씨	아무게 냥반
22373-1	아저씨(호칭)	아무게 냥반
22374	아주머니	아무게떡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무게떠기라게
22375	사나이	청녀니제
22376	영감	영:가미라고

22376-1	할망구	할마구텡이가
22377	나이	나 명는다고
22377	나이	나이를
22377-0-1	-를	나이를
22378	환갑	항:갑
22378-1	환갑 잔치	항:갑자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2401	물고기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민물고기여
22403	피라미	홍갈떼는
22403	피라미	홍갈떼락 헤땅게
22404	지느러미	날게라 형가비여
22405	아가미	귀떼기
22406	창자	창시
22406	창자	창사
22406	창자	창세기를
22407	송사리	송:사리
22407	송사리	송:사리고
22408	헤엄	쉬엄치고 텡인다고 허고
22409	메기	미:기
22410	자라	자:레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꼬라지
22412	미꾸라지	미꼬라지당께
22413	개구리	께구라지
22414	올챙이	올체~이가
22415	두꺼비	뚜께비락허고
22415	두꺼비	복뚜께비락헤써
22416	거머리	그:마리
22417	다슬기	물꼬동
22418	우렁이	우렁이구마뇨
22418	우렁이	우:렁
22418	우렁이	우:렁 짹차써
22419	고둥	고둥 이꼬
22419	고둥	게빠닥고둥도
22420	달팽이	달페~이
22420	달팽이	집달페~이고
22420	달팽이	지범는달페~이
22421	새우	세빈디
22421-1	새우(민물 대)	짱거미
22421-2	새우(민물 소)	세비는
22421-3	새우(바다 대)	물거리락헤
22421-4	새우(바다 소)	세비여

22422	새우젓	베케절(+ 색깔이 하얀 새우젓)
22422	새우젓	세비저시제
22422-0-1	-이	
22423	가재	가:제여
22424	갈치	갈칭감만
22425	고등어	고등에
22426	가오리	홍에고 (+ 大)
22426	가오리	간:제비(+ 小)
22427	가자미	강:어
22428	멸치	멜칭감만
22429	멍태	멩테
22429-1	동태	동:테락 허제 (+ 신)
22429-1	동태	멩테라고 (+ 구)
22429-2	황태	향테 이꼬
22429-3	노가리	*
22429-4	복어	그거또 멩테
22429-5	생태	생테라고(+ 신)
22430	조기	조궁감만
22431	도미	돔:도 이꼬
22432	뱀장어	짱에
22433	낙시	낙쑤
22434	미끼	미빠비라고
22435	낙싯대	낙쑤떼
22436	얼레	연:짜세
22437	조개	조겐디
22438	소라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2501	벌레	버리지제
22502	날벌레	*
22503	파리	포리
22503-1	쉬파리	시포리
22503-1	쉬파리	쉬포리
22504	쉬슬다	쉬시리따고 그레
22505	가시	된:장빠러지
22506	진딧물	뜸무리 이쓰먼
22506	진딧물	뜸무른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 /생기다	뜸물 찌머는
22507	잠자리	잠:자리고(+ 신)
22507	잠자리	자:마리(+ 구)
22507	잠자리	꼬:추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땅게비
22508-1	암컷	*
22508-2	수컷	*

22509	메뚜기	메뚜기
22510	여치	연:치
22511	사마귀	거마제비
22512	벌	벌:
22512	벌	조선뺨 이꼬
22512	벌	양버리고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벌: 킨:다고
22513	땅벌	오 빠시가
22513	땅벌	오 빠시
22514	나비	나:비고
22515	하루살이	하레사리라고
22516	풍뎅이	풍뎅~이
22517	모기	모:구제
22517	모기	모:궁가 모르거쑈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뜯:레미라고도 허고
22520	개똥벌레	개:똥불
22521	반딧불	개:똥부리라고 그레
22522	거미	거:무
22523	굼벵이	굼:베~이 가치
22524	구더기	구더리여
22525	노래기	사니기
22526	그리마	거메구만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가치
22529	바구미	바:게미
22530	진드기	진두게
22531	벼룩	벼룩또 이꼬
22532	이	이:허고
22532-1	서캐	써까래
22532-2	빈대	빈데
22533	송충이	송챙이락헌디
22534	귀뚜라미	귀뜨라미도 이꼬
22534	귀뚜라미	그뜨라미
22535	누에	뉘웨
22536	고치	꼬:치
22537	번데기	뺨더기
22537	번데기	뺨데기
22538	지렁이	그:시랑을
22538	지렁이	그:시랑 가꾸마
22539	회충(蛔蟲)	헤충
22540	소금쟁이	소금제~이제
22541	방개	물 뺱구

### 2.9.3 가축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2601	가축	짐성이제
22602	암소	암소락 허고
22603	송아지	세양치라고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네:미 네:미
22605	황소	수쏘락 허고
22605	황소	뿌사리야
22606	길들이다	질디린다고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차차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22607	쇠고기	소고기
22608	고기(肉)	고기라고는 현데
22609	둘치	이리돈
22609	둘치	이리도시락 헤
22610	꼬리	꼬랑지
22611	망아지	말세끼제
22612	당나귀	
22613	갈기	*
22614	돼지	되야진디
22614-1	멧돼지	메뛰야지제
22615	주둥이	주테~이
22616	돼지 머리	테그빡 사서
22617	돼지우리	되야지굴:
22617-1	오래오래	도레도레도레 그려써
22618	개(犬)	게:
22618-1	수캐	수캐라고
22618-2	암캐	양캐라 그러고
22619	강아지	게 세끼라고 그러고
22619	강아지	쟁아지
22620	염소	멤세~이
22621	고양이	고양이
22621-1	수고양이	수노미라고 그러제
22621-2	암고양이	
22622	토끼	토끼구마
22623	거위(鵞)	떼까운디
22624	암탉	암타기구마
22625	병아리	빠아리
22626	모으다	모툰다고 그러제
22627	수탉	장닥
22627-0-1	-이	
22628	벼슬(鷄冠)	베시리
22629	부리	주테~이고
22630	모이	모시
22630-0-1	-을	모시를
22630-1	모이다	모투제
22631	닭털	닥터럭
22632	닭똥	닥똥
22632	닭똥	달구똥이라고도 허고

22633	어리	닥까레
22634	닭장	닥찌비제
22635	둥우리	통어리
22636	날개	당날개
22637	깃	닥터리기여
22637-0-1	-을	

## 2.9.4 들짐승과 날짐승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2701	호랑이	호:랭이
22702	살쥬이	쌀가지가
22703	여우	여:시
22704	원숭이	원:생이
22705	사슴	사스민디
22706	노루	노리더라
22706-0-1	-이	노리가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고둔도시
22708	두더지	뒤지기
22709	족제비	족제비
22710	뱀	베얌
22711	도마뱀	동에 베얌
22712	구렁이	구레~이고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세양쥐
22715	박쥐	뽕:찌
22716	거꾸로	데롱구타먼
22717	다람쥐	다름쥐
22718	새(鳥)	문:센고
22719	꿩	꼬랑지고
22720	솔개	솔갱잉게
22720	솔개	솔개~이
22721	독수리	*
22722	제비(燕)	지:비
22723	두루미	향:세
22724	소쩍새	소짜썰
22725	꿩	꿩:
22726	장끼	장닥꿩
22727	까투리	인자 암탁꿩
22727-1	꺼병이	꿩:세끼라그러제
22728	종달새	종질새
22729	빼꾸기	빼꼭썰라허제
22730	기러기	기러기고
22731	뜸부기	뜸북썰구만
22732	올빼미	오빼미가치
22733	까치	칸: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세가치 생에따
22735	덧	세:치 논다고 그러제
22735	덧	도시라고
22735-0-1	-을	
22736	올가미	치제 멘드능거슨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2801	진달래꽃	진달래라거제
22802	철쭉꽃	게:꼬시고
22803	민들레	모심들레는
22803	민들레	모숨들레구만
22804	맨드라미	넌드라미
22805	봉선화	봉:송아꼐
22806	파리	떼아른 아라
22806	파리	떼알도
22806	파리	지빈는 톨 떼알 이꼬
22806	파리	목떼까른
22806	파리	떼:갈
22807	해바라기	해바레기
22808	꽃봉오리	꼐모무리 생긴다고
22808	꽃봉오리	봉아리 생긴다고
22809	시들다	시들제
22810	질경이	뽕:쨌~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뽕뽕쟁이는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뽕:쟁이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뽕뽕쟁이제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뽕쨌~이구기라
22811	뽕기	뽕:비는
22812	비름	비린넉
22813	쇠비름	쇠비린니비라고 그레
22814	썩바귀	싸랑불레도
22814	썩바귀	싸랑부리
22814	썩바귀	싸랑부리구만
22815	고들빼기	꼬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꼬들빼기가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꼬들빼기짐치 다마머거
22816	고사리	꼬싸리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쨌:데기
22819	도꼬마리	우실뿌리
22819	도꼬마리	지게계비
22820	억새	갈떼고

22820	억새	웁:쌀나무
22821	갈대	갈떼푸리구만
22821	갈대	칼:떼
22822	이끼	바우오시여
22823	아주까리	피마주나무구만
22824	담쟁이	다몬
22824	담쟁이	다모시라고
22825	수세미	수세미
22826	덩굴	넝쿨
22827	덤불	넝구리 마:니 우거저서
22827	덤불	덤부리
22827-1	가시덤불	넝:감넝쿨도 이꼬
22828	잔디	뽕

## 2.10.2 나무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2901	소나무	솔라무 아니여
22902	솔방울	솔빵울
22903	관솔	간:솔
22904	솔가리	갈कु나무
22905	그러모으다	갈कु로 글거
22905	그러모으다	글거서모툰다고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두게
22908	도토리	도토리가꾸만
22909	떡갈나무	가:랑나무
22910	상수리	상:소리구만
22911	옷	오도르고
22911	옷	오슨
22911	옷	온나무가꼬
22911	옷	온칠
22911-0-1	-으로	오시 타난 사라미
22912	버드나무	버들라무가꾸만
22913	느티나무	당산나무
22914	그림자	그늘이다니까
22914	그림자	거름자
22914-1	그늘	그늘
22915	숲	인자 수비 우거저따
22915	숲	수비 다 몰라농게
22915	숲	수비 지터저따
22915-0-1	-을	수블
22915-0-2	-에	수베
22916	시원하다	시언허고
22917	찔레	찔롱나무가
22918	취	취
22918-0-1	-에	칭나무에 너머저따 그러제.

22918-0-1	-에	치글
22919	가지(枝)	나무 가:지락허제
22920	끝	끄터리
22920-0-1	-이	끄터리가
22920-0-2	-에	나무끄터리에가
22920-0-3	-을	
22921	삭정이	자장계비라게써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자장계비 꺼꺼 온다
22922	나무	나무로
22922-0-1	-을	나:무를
22922-0-2	-에	나무에가
22923	나무하다	나:무해온다고 허제
22924	그루터기	끌텅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끌텅이락 그러제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뿌리라고도 허고
22925	등걸	끌텅이제
22926	장작	장작
22927	패다	페서
22927	패다	페먼
22928	부스러기	나무 뿌시레기
22929	숯	순땡이
22929	숯	수시여
22929-0-1	-이	수시
22929-0-1	-이	수시 꺾닥허제
22929-0-1	-이	참수시
22929-0-2	-을	수시로 쓰제
22929-0-2	-을	수설
22929-0-3	-에	수세다가
22929-0-3	-에	수세다
22930	불잉걸	
22931	쌈	쌈난다고
22931	쌈	쌈기 난다고
22932	잇	입쌈 되제
22932	잇	폴립쌈기나
22932	잇	솔립 따오락 허제
22932	잇	솔립쌈 따가꼬
22932-0-1	-을	입쌈기
22932-1	잇사귀	입쌈기
22933	가랑잇	나:무입쌈기제
22934	뿌리	뿌리
22934	뿌리	뿌레~이

### 2.10.3 과일과 열매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3001

능금

사과나몽가비요

23002

돌배

아:그배

23003	복숭아	복숭아
23004	곶감	꼬:감
23005	홍시	홍:수
23006	고욤	
23007	살구	쌀구꼬시
23008	앵두	앵두나무
23009	자두	자:두가꾸마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노
23012	모과	모:게
23013	과일	과:이리제
23014	꼭지	꼭떼기
23015	밤	바:미꼬
23015-1	밤송이	밤 송어리
23015-2	팻밤	푸팻
23015-3	알밤	그거슨 바:미라고
23015-4	쌍둥밤	
23016	보늬	밤:비늘
23017	호두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머:루
23021	다래	다:레
23022	청미래덩굴	멩:가민디
23022	청미래덩굴	멩:감나무
23023	으름	어:름
23024	참외	차메
23025	딸기	딸:기구마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2	"딸기(밭 야생)"	목떼칼라무라고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4	"딸기(들 야생)"	모:딸
23025-4	"딸기(들 야생)"	수리딸 이꼬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6	"딸기(산 야생)"	산딸기는
23026	뱀딸기	배암딸
23027	마름(菱)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항목 번호]

23101

[질문 항목(표준어)]

산꼭대기

[방언형]

봉아리제

23102	기슭	산찌스리라고 그레
23102-0-1	-에	산찌스레가
23103	골짜기	산 고:랑
23104	메아리	올려서
23105	고함	고암친다고 그러제라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고암친다고
23106	묘	웁:
23106	묘	웁:시락 허제
23107	뿔자리	메:짜리
23107-1	광중	강:장 판다고
23108	구덩이	구텡이락 허제
23109	비탈	갈크막 올라온다고
23110	가파르다	각찌다고
23111	언덕	영띠기락 허고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진다고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진
23113	들(野)	드:리 널롭딱 허제
23113-0-1	-에	드:레가먼
23114	벌	들:파니라고는
23115	갈림길	상가레찐
23116	헤어지다	갈려서 가제
23117	바위	바우
23117-0-1	-을	바우를
23117-0-2	-에	바우에가 찐제
23118	돌(石)	도:기고
23118-0-1	-을	도:글
23118-0-2	-에	도:게
23119	자갈	자갈 서꺼야 헤
23120	모래	모레
23120-0-1	-를	모레를 안 너먼
23121	진흙	진혹
23121-1	찰흙	지느기여

## 2.11.2 강과 바다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3201	물	물 마신다고
23202	거품	버끔
23203	개운하다	게우너다고
23204	도랑	또:랑
23204-1	봇도랑	방주기제
23204-1	봇도랑	수투꾸먹
23204-1	봇도랑	수통잉감만
23205	둑	뚜기고
23206	잠기다	물 찌따거제
23206	잠기다	물 찌서
23207	개울	또:랑이고

23207	개울	큰 돌:
23208	내(川)	네:까리 업써
23209	미역 감다	메 까문다고
23210	발가숭이	계보꼬 텡인다고
23210	발가숭이	계북쟁잉계
23211	목욕하다	모욕헌다고
23212	수채	또:랑
23212	수채	수채꾸넉
23213	개골창	또:랑인디
23214	시궁창	시금창
23215	웅덩이	구텡이보고
23216	수렁	수랑이 엄는 노는
23217	늪	
23217-0-1	-에	
23218	배(船)	배구마
23219	나루터	
23220	돛	도떼고
23220-0-1	-에	
23221	돛대	
23222	돌배	풍서니제
23223	돛 줄	
23224	돛 줄	
23225	거루	
23226	상앗대	
23227	개(펼)	빨바탕
23227	개(펼)	빨
23228	물	
23228-0-1	-으로	
23229	밀물	무리 둔 드론다 그러고
23229	밀물	물든다고
23230	썰물	물 쓴다고 그러고
23231	가라앉다	까랑거따고 그러제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해:녀고

### 2.11.3 시후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3301	새벽	세보게
23302	새벽밥	세복빔
23303	아침	아치메는
23304	아침밥	아침빔
23305	점심	나빠비고
23306	저녁	저넉
23306	저녁	저녀빠비고
23306	저녁	지영떼
23307	설빔하다	설푸시 너머간다 그러제

23308	노을	북썩뜬다고
23308	노을	북썩헨다고
23308-0-1	-을	북썩를
23309	불그레하다	불그스름험서
23310	해거름	해오름차미라고 헨디
23311	땅거미	땅끄미 저따고도 헨고
23312	봄	봄처리제
23312	봄	봄
23313	여름	여름철
23314	더위	더우가
23315	추위	추가
23316	가을	가시리라고 그러고
23316	가을	가을처리라
23316-0-1	-에	가시레
23317	겨울	시아니라 헨고
23317	겨울	겨으리라고도 헨고
23317-0-1	-에	을 시야네
23317-0-1	-에	을 겨으레도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닐
23320	내일	네일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그페
23323	그글피	그그페
23324	어제	어저께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락
23327	훗날	후:차메
23328	하룻날	초하레
23328	하룻날	초하로
23328	하룻날	초하렌나리라고
23328	하룻날	초하레
23329	이튿날	초이틀
23330	사흘날	초사을
23331	나흘날	초나을
23332	닷셋날	초단썰
23333	엿셋날	초여썰
23334	이렛날	초이레
23335	여드렛날	초야드레
23336	아흐렛날	초아으레
23337	열흘날	초여릴
23338	하루	하레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을
23341	나흘	나을
23342	닷새	단썰
23343	엿새	여썰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야드레
23346	아흐레	아으레

23347	열흘	여덟
23348	한나절	한나잘네
23348-1	반나절	반:나잘
23349	그믐	금:날
23349-1	그믐께	그믐정께
23349-1	그믐께	금:정께
23350	지금	시방
23350	지금	지금
23351	아직	아직
23352	이제	인자
23353	이미	이:무
23354	요즈음	요세
23355	금방	망금

#### 2.11.4 날씨와 방향

[항목 번호]	[질문 항목(표준어)]	[방언형]
23401	별	헤뻐세
23401	별	벤날떼
23401	별	베테가
23401	별	베테가서
23401-0-1	-이	베시
23401-0-2	-을	베슬
23402	따스하다	따습따
23403	아지랑이	짐 날:쭈도
23404	응달	그느리라고
23404	응달	그늘쩌따
23404	응달	그늘저따
23404	응달	응지
23405	양달	양지쪽
23406	비(雨)	비온다고
23407	가랑비	가랑비라고
23408	이슬비	이슬비라고
23408	이슬비	이실비라고도
23409	안개	으네 찌따고(+ 구)
23409	안개	양:게(+ 신)
23410	눈개	털비말로
23411	무지개	무지게
23412	소나기	쏘낙빠
23413	갑자기	갑짜기
23414	홍수	물쩌따
23414	홍수	홍수나따고
23414	홍수	뚝나가따고
23415	번개	병게치고
23416	천둥	천둥이고
23417	벼락	베락
23418	무섭다	무섭제



23419	함박눈	함방누니
23420	싸락눈	싸레기누니라고
23421	발자국	발테독 나제
23422	진눈깨비	진녕깨비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거드름
23424	고드름	고드르미라고
23425	햇무리	헨모릴 꺼시요
23425	햇무리	헨모리헤따고
23426	달무리	달모리고
23427	둥글다	똥그르르허니
23427	둥글다	똥그려제
23427	둥글다	똥글 안 허요
23428	은하수	*
23429	금성	세:벼리라고
23430	가뭄	가뭄 드러따고
23431	마르다	모리제
23431-0-1	-어서	잘 몰라서
23432	위	우에서
23432	위	우게 또 올라가서
23432	위	상 우에가 이따고
23433	아래	미테서
23433	아래	상 미테가 이따고
23434	왼쪽	외약쪽
23435	오른쪽	오른쪽
23436	결	여폐로
23436	결	저테라고도
23436-0-1	-에	저테
23437	회오리바람	소소리바람
23438	북풍	한:네바람
23438	북풍	하네바람
23439	남풍	마파람
23439	남풍	마파람
23440	동풍	썰빠람
23441	서풍	하네바람
23441	서풍	느빠람
23441	서풍	늪마

## < 질문지에 없는 어휘들 >

- =2           끄렁불(장작을 때서 이글이글하게 만든 불. 이 불을 식혀서 숯을 만든다)
- =2           가고(일본말. 장바구니)
- =2           가느롬헌노미(가늘다)
- =2           가라웁꼬(가렵다)
- =2           가레치다(벼를 베는 족족 묶어서 논두렁에다 줄줄이 늘어 놓고 말리는 일)
- =2           가심에피(가슴앓이)
- =2           간:달메(밭에서 나는 나물의 하나)
- =2           간살간살 (사다리의 밟고 올라가는 살마다)
- =2           갈쿠나무(가리)
- =2           거간헌(거간하다)
- =2           거메나무(옷나무처럼 생겼으나 다름. 옷나무처럼 피부에 닿으면 피부병을 유발함. "거메오르다"라고 표현함.)
- =2           거시춤(거위춤)
- =2           건덕찌 건더무근다고(건더기 건져 먹다)
- =2           걸막(대문 밖의 동네 안길)
- =2           검:낙씩(아주 많이. ‘겁나다’에서 온 말.)
- =2           검불(검부라기)
- =2           계:뚝(땀돌)
- =2           계:쟁이(고기 파는 사람.)
- =2           계북꼬(가볍다)
- =2           계빠닥고기(바닷고기)
- =2           계양(그냥)
- =2           고게 수게따고(이삭이 여물다)
- =2           고랭이(고라니)
- =2           골:데 (반찬이 걸다)
- =2           곰방머레(밭에서 나는 나물의 하나)
- =2           곰베(팔꿈치)
- =2           괴:뚝(아궁이를 만들기 위해 옆에 세로로 세워 놓은 돌)
- =2           괴:머리 (물레의 부품)
- =2           구:신불(도깨비불)
- =2           구녀글 떨어(뚛다)
- =2           굴관지복(굴건제복)
- =2           굿물(농악놀이할 때 사용되는 악기나 물건)
- =2           굿치다(농악놀이를 하다)
- =2           괘:뚝(아궁이를 만들기 위해 옆에 세로로 세워 놓은 돌)
- =2           귀:뚜기라(굴뚝)
- =2           그락쩌락(그럭저럭)
- =2           기영통이라(개수통)

=2 김시리라고도 허고(사위 성이 김씨인 딸을 부를 때)  
 =2 까살네다(가탈을 잡다)  
 =2 각째기(종지)  
 =2 각쟁이웃(종지에 넣고 노는 작은 옷)  
 =2 깔:꿈(가꿈?)  
 =2 깔담사리(소의 꼴을 베는 등 자잘구레한 일을 하는 나이 어린 머슴)  
 =2 깔:빠선(버섯의 한 종류)  
 =2 깜박뿌레다  
 =2 깡깡해지제(단단하다)  
 =2 깡낫 징았다(닭지 았다)  
 =2 꺼룽(대문 밖의 동네 안길)  
 =2 꺼뽀리(타작할 때 알이 잘 안 빠지는 것)  
 =2 꺄막(대문 밖의 동네 안길)  
 =2 꺄딱꼭써그로(소작인이 주인에게 탈곡하지 않은 곡식으로 주는 소작료)  
 =2 꺄:꺄(보리이삭이 몽글게 된 것. 재사할 때 흙에 넣음)  
 =2 꺄에(에꺄)(예: 꺄꺄에 메여써(해에 달렸어))  
 =2 꺄메기(꺄과리)  
 =2 꺄꺄버다(인색하다)  
 =2 꺄사리 꺄꺄로 간다(고사리 꺄다)  
 =2 꺄사리너물(고사리 나물)  
 =2 꺄작꺄작(담배를 담배통에 꺄꺄 넣는 모양)  
 =2 꾸정모구(모기의 일종)  
 =2 꾸정물(설거지하고 난 뒤의 더러워진 물)  
 =2 꺄끼먼(꺄리다)  
 =2 꺄시러(그을리다)  
 =2 꺄꺄이 좋다고 그러제(허우대가 크다)  
 =2 나막꺄꺄(나무꺄. 나막신처럼 생겼음)  
 =2 나박나박(납작납작하꺄)  
 =2 남포뽄(램프)  
 =2 납딱헌눔(넙적하다)  
 =2 너물꾸기꺄(나물꺄)  
 =2 너블 어드먼(놉을 얻으면)  
 =2 넙떡꺄방아(엷꺄방아)  
 =2 네:꺄(넋가)  
 =2 네:뚝(징꺄다리)  
 =2 노랑창(노른자위)  
 =2 논꺄꺄에 메여써(논에 달렸어)  
 =2 누룩꺄지(누룩을 담아 두는 자루. 마포로 만들. )  
 =2 다레~이(다랑이)  
 =2 단쭈시(사탕수수)  
 =2 담박꺄(달음꺄)

=2 당박(바로, 곧장)  
 =2 더두꼬(더디다)  
 =2 더두와(더디다)  
 =2 텅구다(불이 붙다)  
 =2 데:고(함부로)  
 =2 데벽찌(도배지)  
 =2 데시는 (다시는)  
 =2 텐드랑이벌(벌의 한 가지)  
 =2 텅글뎡글뎡그레(기름을 먹은 장판이 미끈하고 매끈한 모양)  
 =2 도틀(도투마리)  
 =2 독 좇다(다듬이질할 때 잘못하여 다듬이방망이로 다듬잇돌을 때리다)  
 =2 돈:너물도(돌나물)  
 =2 돌려가따고(흠치다)  
 =2 동 서다(무가 씨를 받을 정도로 크게 자라다)  
 =2 동구간(동기간)  
 =2 동구리(이바지를 해 두거나 하는 석 짝)  
 =2 동그러니(동그렇다)  
 =2 되췌따(아기를 눕히다)  
 =2 둥구지(우장)  
 =2 뒤꼭지 네물다(뒤통수가 튀어나오다)  
 =2 뒤쓰다(뒤집다)  
 =2 들뚝(들돌)  
 =2 등(유리로 네모로 만들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기 위해 쓰는 것)  
 =2 디리다(타작할 때 벼와 더불어 나오는 검부라기를 바람에 날려 없애다)  
 =2 따닥따닥 쥐 이버따(누덕누덕 기운 모양)  
 =2 따둑따둑허다(다둑이다)  
 =2 딱판초(버튼식 단추)  
 =2 딸감나무 이르미(나무 이름)  
 =2 떠부서가꼬(떠서 붓다)  
 =2 떼떼장구니라  
 =2 툇똥똥(뭇똥뭇똥)  
 =2 뚜각꼬(두껍다)  
 =2 뚜꺼름 탄다고도 (눈이 쌓인 산에서 미끄럼을 타다)  
 =2 뚜렷뚜렷허다(뭇똥뭇똥하다)  
 =2 뛰(떠)  
 =2 뜨드로 간다(산나물은 뜯으러 간다)  
 =2 뜨뜨그드그네(뜨끈뜨근하다)  
 =2 막빠기(돋보기가 아닌 보통 안경)  
 =2 말캉(마루)  
 =2 말캉허니(말랑하다)  
 =2 메고~이 (떡을 치는 메. 자루가 있음)

=2 메빵석(둥근 멍석)  
 =2 메징게(이삭이 붙은 검부라기)  
 =2 메제불(왕겨를 피운 불)  
 =2 멍사나야(부모가 ‘명산’으로 시집 간 딸을 부를 때)  
 =2 모가리떡(멥쌀로 만든 시루떡)  
 =2 모까(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하다)  
 =2 모다(모두)  
 =2 모두게(모질다)  
 =2 모두락뿔(모닥불)  
 =2 모심둘레(민들레)  
 =2 몽땅몽땅허니(조금씩 몽쳐서 눈이 오는 모양)  
 =2 몽똥몽똥험서 (눈몽치를 둥글게 만드는 모양)  
 =2 몽쿨몽쿨헤가꼬 (마른 쭉이 몽쳐 있는 모양)  
 =2 무다니(공연히)  
 =2 무더니(무지하게)  
 =2 무딘무딘 (무더기 무더기 )  
 =2 무어지다(다듬이질을 잘못하여 베에 구멍이 나거나 훼손되다)  
 =2 무장무장(점점)  
 =2 물신(장화)  
 =2 물항(물독)  
 =2 미차(미처)  
 =2 민물짬에(민물장어)  
 =2 바늘꾸녁(바늘구멍)  
 =2 바시르르르니 (물기가 거의 없는 마른 상태)  
 =2 바실바실헤서(물기가 거의 없는 마른 상태)  
 =2 반:거질러서(반말로)  
 =2 발:가래 치다(벼의 줄기를 말리기 위해 이삭은 한데 모아 묶고 줄기는 사방으로 펼쳐 말리는 일. 열 못씩 묶는다.)  
 =2 발네(밭에서 나는 냄새)  
 =2 밤썰이(밤송이)  
 =2 방 논다고(구들을 놓다)  
 =2 방:다리(매의 일종)  
 =2 방:푼(지붕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것)  
 =2 방구 (논의 크기를 세는 말. 너말 가웃지기)  
 =2 방구(논의 크기를 세는 단위)  
 =2 방글게 썰면(칼국수 만들 때 국수를 썬 모양)  
 =2 방달귀(매의 일종)  
 =2 방뻘썩락(방뿔자루)  
 =2 벌:불리먼(번지다)  
 =2 병울병울(목화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는 모양)  
 =2 베뻘(벧밥)

=2 백빠비(쟁기의 벼에 의해 갈아 넘어가는 흙덩이)  
 =2 보끔자(복분자)  
 =2 보리나 아니나(보리나 마나)  
 =2 보리누름  
 =2 보리뽕이라고(들나물의 하나)  
 =2 부담(대로 만들어서 옷을 담아 놓는 그릇)  
 =2 뽕미나리고(뽕미나리. 들나물의 하나)  
 =2 비 오드니 날이 떠들어서 좋다(날이 개다)  
 =2 비러서(비비다)  
 =2 빈지럭것(것의 일종)  
 =2 뱀:썰(뱀새)  
 =2 빠글빠글빠글(바글바글)  
 =2 빠승거뽕고(뽕다)  
 =2 뽕닥중우(은박지)  
 =2 뽕구먼(뽕다)  
 =2 뽕지(버선 등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는 본)  
 =2 뽕:짜(바짝)  
 =2 뿌랭이(뿌리)  
 =2 뽕꾸(불꾸)  
 =2 뽕여(뿌리다)  
 =2 사:성(사주단자)  
 =2 사그(사기(그릇))  
 =2 사금들다(진딧물 때문에 채소의 잎이 다 망가지다)  
 =2 사꾸더기라게썰(새끼로 만들고 등에 일하러 사서 나물 따위를 담기 위한 용기)  
 =2 상:일꾼(소로 밭이나 논을 가는 등 큰 농사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2 선닐(소로 밭이나 논을 가는 일. 큰 농사 일)  
 =2 선닐꾼(소로 밭이나 논을 가는 등 큰 농사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2 세:막(논에 새가 오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머물도록 만들어 놓은 원 두막 같은 구조물)  
 =2 세곰허니(새콤하다)  
 =2 세구지름(석유)  
 =2 세네키(새끼)  
 =2 생기다 (뭍은 벼 못을 풀어서 타작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갈라 나누다)  
 =2 소:메꼭(미역만 넣어 끓인 국)  
 =2 소드랑(술뚜껑)  
 =2 소망(똥, 오줌 등을 받는 항아리)  
 =2 속:뽕지라고(오이소배기)  
 =2 속:뽕러지(채소에 기생하는 하얀 벌레)  
 =2 술깨비(술잎)  
 =2 술버선(버섯의 한 종류)

=2 송아(송이)  
 =2 송알송알 열다(송이송이 열다)  
 =2 송에버섯(송이버섯)  
 =2 쇠주 네린다고(소주 고다)  
 =2 수나다(숫컷이 발정하다)  
 =2 수부쳐서(동물의 새끼를 얻기 위해 교미시키다)  
 =2 수저가리 가통 거(반찬?)  
 =2 스러나따가 (사리다)  
 =2 시끄고(씻다)  
 =2 시너데(해장죽)  
 =2 시렁까레(시렁)  
 =2 시름쟁이(등잔)  
 =2 실끈(베틀신)  
 =2 싸:게 온다(세차다)  
 =2 싸룩싸룩(비가 조금씩 오는 모양)  
 =2 싹쭈름허다(싹쓰레하다)  
 =2 쌍가메(가마가 둘 있는 사람)  
 =2 써거서 올라와서(호롱 심지에 석유가 스며들어 올라와서)  
 =2 써까레(서캐)  
 =2 써들다(물기 따위가 스며들다)  
 =2 쏘락빠(소나기)  
 =2 쓰르미(오징어의 일본말)  
 =2 씨레기국(시래기국)  
 =2 찢나락 오쟁이는 비:고 죽는다고(죽어도 곡식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뜻)  
 =2 아:만(아무렵)  
 =2 아까침(아까)  
 =2 아람(아름)  
 =2 아랭이(아랑)  
 =2 아웅(아웁)  
 =2 아지께참(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곁두리. 또는 그 곁두리를 먹는 때)  
 =2 알꼭써그로(소작인이 주인에게 탈곡한 곡식으로 주는 소작료)  
 =2 암:치꾸라도(아무렇게나)  
 =2 암노미 수를 놔면 수놈이 다 그러코 모튼다게써  
 =2 암마해도(아무래도)  
 =2 암시랑안해(아무렇게나)  
 =2 양땀때기(왕땀띠)  
 =2 양진베기저울(얕은뱅이저울)  
 =2 양질게(길쌈할 때 얕는 자리)  
 =2 양치다(녹두나무를 기르기 위해 시루에 녹두를 었다)  
 =2 어둥컴컴허닥 허도(어두컴컴하다)  
 =2 어디가(부정을 강조하는 말)

=2 어룽더룽하다고(알록달록하다)  
 =2 어버가고 간다고(옷놀이에서 말이 한꺼번에 여럿 포개져 있는 경우)  
 =2 어쩔랍띠껴?(어찌겠어요?)  
 =2 얼지(겉절이)  
 =2 앵:벤(제사상에 올리는 부꾸미)  
 =2 여나무살(여남은살)  
 =2 여우다(결혼시키다)  
 =2 역썰로(일부러)  
 =2 예일곱쌀(예닐곱살)  
 =2 오부록허이(오릇하다. 전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2 읍:썸(없어)  
 =2 웅:구(웅기)  
 =2 웅:구데미라고(웅기로 만든 자그마한 그릇)  
 =2 웅:기데미라고(웅기로 만든 자그마한 그릇)  
 =2 웅삭혈 때(웅색하다)  
 =2 요지가지(갓가지)  
 =2 우리까지는 말허고(우리끼리는 말하고)  
 =2 우뺏(윗방)  
 =2 응득허먼(응등거리다)  
 =2 이메뚝(아궁이 위를 가로질러 놓은 돌)  
 =2 임:질(머리에 물건을 이는 일)  
 =2 입떼리(사기로 만든 밥그릇으로서 주둥이가 나팔 모양으로 벌어졌다)  
 =2 잉글잉글허제(이글이글하다)  
 =2 자락치메(말이 있음)  
 =2 자상지(종이로 만들며 삼합으로 된 것으로 옷 따위를 담음. 결혼할 때 신부가 해서 가지고 감.)  
 =2 자울량(자운영)  
 =2 작쌀(빨랫줄 받치는 나무)  
 =2 잔채(무채)  
 =2 잘쭈허니(길쭈하다)  
 =2 잠(아가미 안에 들어 있는 것)  
 =2 잡밥(딴 목화에 포함된 검불 따위의 잡것)  
 =2 장:뚝(장광)  
 =2 장덕썸(네모진 명석)  
 =2 장삼(보리 껍질)  
 =2 장장늬(옷가락이 큰 옷. 장작옷)  
 =2 장장웃(커다란 웃을 장작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2 절로(저것으로)  
 =2 제간(재를 모아 두는 곳. 변소를 겸하기도 한다.)  
 =2 제소쿠리(아궁이에서 재를 퍼서 담는 삼태기)  
 =2 조데를 받다(어른 밑에서 교양이나 예절을 배우다)



=2 조르러니(줄줄이)  
 =2 준지묵(겹질을 벗긴 메밀로 만든 묵)  
 =2 준지쌀 (메밀 겹질을 벗긴 것으로서 묵을 만들 때 쓴다. )  
 =2 줄 데룬다(줄다리기할 때 줄을 잡아당기다)  
 =2 중부쟁이라허제(중매장이)  
 =2 중우(중의)  
 =2 지:웁(제사상에 올리는 부꾸미)  
 =2 지금말로(지금처럼)  
 =2 지드러니(길다랗게)  
 =2 지드런허니(기다랗다)  
 =2 지드런헤(길다랗다)  
 =2 지르러니(질게)  
 =2 지성스럭께 (열심히, 꼼꼼히)  
 =2 지장(기장)  
 =2 짐광(뒤안 한쪽에 만든 광)  
 =2 짐성(짐승)  
 =2 짐보당(‘보다’)  
 =2 집이로 줄을 튼다("짚으로 줄을 튼다"-줄다리기용 줄을 꼬다)  
 =2 징허게(대단히)  
 =2 짹(한 께짝에 담아 놓은 양의 단위)  
 =2 짹딸비 (장대비)  
 =2 짹뚜셈(뽕프)  
 =2 짹클매(여물용으로 쓰는 풀의 줄기)  
 =2 짹:지(무채)  
 =2 짹다리 뽕부면 바미 더 지러진다 (시집살이 하는 딸을 위로하는 말로서, 장다리무 뽕을 무렵이면 밤이 길어지니까 일도 덜하고 잠도 더 잘 수 있을 것이라는 뜻)  
 =2 짹:뽕헌 놈(뽕족하다)  
 =2 짹간씩짹간씩하게(조그맣다)  
 =2 짹들짹들허거든(있던 물기가 없어져서 약간 졸깃한 상태를 이르는 말. 단 무지 만드는 무를 말릴 때의 상황)  
 =2 짹짹이 올라와 (식물의 줄기 따위가 위로 쭉쭉 올라와 있는 모양)  
 =2 쭉꾸미(주꾸미)  
 =2 쭉시밥(수수밥)  
 =2 쭉쟁이(쭉꺼기)  
 =2 차데(물건을 넣어 두는 자루)  
 =2 차시리떡(찰시루떡)  
 =2 찬지름(참기름)  
 =2 참:꺼리(결두리)  
 =2 철메 썬다고 (천장의 그을음을 쓰는 일)  
 =2 채양(차양)  
 =2 축(쌈)

=2	취여지다(축축해지다)
=2	케로 간다(발나물은 캐러 간다)
=2	코뜨레(코뚜레)
=2	콩 계투 머거따(벌레 먹은 콩을 가리켜 하는 말)
=2	콩깨비(콩이 여는 나무)
=2	터빠시라고(틔밭)
=2	통치메(말이 없고 허리만 있음)
=2	투실투실허게(도톨도톨하다)
=2	통벌(벌의 일종)
=2	헥야("결국". 뒤에 '같다'나 '마찬가지' 등이 온다.)
=2	포레(파래)
=2	포름허다(푸르스름하다)
=2	푸데쫑우(자루를 만드는 종이)
=2	푸빠러지(배추에 기생하는 새파란 벌레)
=2	폰놈(푼것)
=2	폰넙쌉(푼잎)
=2	폼들로 가다(남의 집에 폼삿을 받고 일하러 가다)
=2	피묵(겉질을 벗기지 않은 메밀로 만든 묵)
=2	하꺼시고 (햇옷)
=2	하백이여(맞벽)
=2	한자 간나고(혼자)
=2	한푸 짹(한쪽)
=2	한피 짹(한쪽)
=2	할(숨 타는 활)
=2	함:벙이라고(결혼할 때 함을 지고 가는 사람)
=2	함:쟁이(결혼할 때 함을 지고 가는사람)
=2	함박(큰 바가지)
=2	항(항아리)
=2	헨 것이 헨다고 허지(솔직히 말한다면)
=2	헤하등 (램프)
=2	호:꾸(hook)
=2	호론헤야(물기를 머금어서 축축하다)
=2	홀쳐야(고리를 만들어 묶다)
=2	회:나먼(화나다)
=2	훤씩(훤씬)
=2	흑땀벙이(쟁기의 벼에 의해 갈아 넘어가는 흙덩이)
=2	흠:벗다(헐벗다)
=2	히꾸르무리 (회끄무레하다)
=2	히꾸스름(회끄므레하다)
=2	힌창(흰자위)

# 제3편 음운

## 3.1 음운 목록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텐디
31001-0-2	테(輪)-보다	
31002-0-1	태(胎)-이/가	테가 나와따
31002-0-2	태(胎)-보다	
31003-0-1	떼(群)-이/가	세:떼
31003-0-2	떼(群)-보다	
31004-0-1	때(時)-이/가	밥 멍는 떼
31004-0-2	때(時)-보다	
31005-0-1	틀(機)-이/가	틀
31005-0-2	틀(機)-보다	
31006-0-1	털(毛)-이/가	터러기고
31006-0-2	털(毛)-보다	
31007-0-1	글(文)-이/가	글 잉는다고
31007-0-2	글(文)-보다	
31008-0-1	걸(옷)-이/가	거리고
31008-0-2	걸(옷)-보다	
31009-0-1	기(旗)-이/가	기라게
31009-0-1	기(旗)-이/가	기
31009-0-2	기(旗)-보다	
31010-0-1	귀(耳)-이/가	귀떼기락 허고
31010-0-1	귀(耳)-이/가	귀
31010-0-1	귀(耳)-이/가	쫓빻꾸라고
31010-0-2	귀(耳)-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시라고
31011-0-2	시(生時)-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쉬
31012-0-2	쉬(蠅卵)-보다	
31013-0-1	쇠(鐵)-이/가	쇠로
31013-0-2	쇠(鐵)-보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에:국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에눔덜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6-0-1	쉬:다(休)-더라	원:다고는
31016-0-2	쉬:다(休)-어서	
31017-0-1	쇠:다(설을~)-더라	세:젠냐고
31017-0-1	쇠:다(설을~)-더라	잘 세:쏘

31017-0-2	쇠:다(설을~)-어서	
31018-0-1	베(布)-이/가	베
31018-0-2	베(布)-보다	
31019-0-1	배(船)-이/가	배여
31019-0-2	배(船)-보다	
31020-0-1	배(腹)-이/가	배고
31020-0-2	배(腹)-보다	
31021-0-1	(떡)메-이/가	메고~이
31021-0-2	(떡)메-보다	
31022-0-1	매(鞭)-이/가	매 만는다고
31022-0-2	매(鞭)-보다	
31023-0-1	메:다(擔)-이/가	드러메고 간다고
31023-0-2	메:다(擔)-보다	
31024-0-1	매:다(繫)-이/가	소 매:놔따
31024-0-2	매:다(繫)-보다	
31025-0-1	떼:다(分離)-이/가	띤:다
31025-0-2	떼:다(分離)-보다	
31026-0-1	때:다(炊)-이/가	불뎡:다 그러제.
31026-0-2	때:다(炊)-보다	
31027-0-1	베:다(切斷)-이/가	비여따고 그러고
31027-0-2	베:다(切斷)-보다	
31028-0-1	배:다(孕胎)-이/가	베:따고
31028-0-2	배:다(孕胎)-보다	
31029-0-1	세:다(算)-다가	신:다 그러제
31029-0-2	세:다(算)-어서	
31030-0-1	새:다(漏泄)-다가	센다고 그러제
31030-0-2	새:다(漏泄)-어서	
31031-0-1	뒤(後)-이/가	뒤에
31031-0-2	뒤(後)-보다	
31032-0-1	되(升)-이/가	데
31032-0-2	되(升)-보다	
31033-0-1	게:(蟹)-이/가	기:
31033-0-2	게:(蟹)-보다	
31034-0-1	개:(犬)-이/가	게
31034-0-2	개:(犬)-보다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6-0-1	물결(波)-이/가	물꺼리 막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게오글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9-0-1	규칙(規則)-이/가	기축찌그로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40-0-1	휴일(休日)-이/가	휴이리라고는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게통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웬니리나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4-0-1	궤:(짝)(櫃)-이/가	궤:짜근
31044-0-1	궤:(짝)(櫃)-이/가	게:짝또
31044-0-1	궤:(짝)(櫃)-이/가	쌀게짜기라고
31044-0-2	궤:(짝)(櫃)-보다	
31044-0-3	궤:(짝)(櫃)-을/를	
31045-0-1	왜란(倭亂)-이/가	에간장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6-0-1	헛대(鷄架)-이/가	헛때
31046-0-1	헛대(鷄架)-이/가	헤때라고
31046-0-1	헛대(鷄架)-이/가	힐때고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망한다고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8-0-1	권:투(拳鬪)-이/가	곤:토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으:는한다고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50-0-1	무늬(紋)-이/가	뽀무누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1-0-1	왕(王)-이/가	왕: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2-0-1	과자(菓子)-이/가	가자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일
31053-0-2	일(一)-보다	
31054-0-1	일:(事)-이/가	이:리 만타
31054-0-2	일:(事)-보다	
31055-0-1	매(鞭)-이/가	메 떼린다고
31055-0-2	매(鞭)-보다	
31056-0-1	매:(驚)-이/가	메
31056-0-2	매:(驚)-보다	
31057-0-1	밤(夜)-이/가	밤
31057-0-2	밤(夜)-보다	
31058-0-1	밤:(栗)-이/가	밤:
31058-0-2	밤:(栗)-보다	
31059-0-1	눈(眼)-이/가	눈
31059-0-2	눈(眼)-보다	
31060-0-1	눈:(雪)-이/가	눈:
31060-0-2	눈:(雪)-보다	
31061-0-1	말(馬)-이/가	말 타고온다
31061-0-2	말(馬)-보다	
31062-0-1	말(斗)-이/가	말
31062-0-2	말(斗)-보다	
31063-0-1	말:(言)-이/가	마:를
31063-0-2	말:(言)-보다	
31064-0-1	손(客)-이/가	손니미라고
31064-0-2	손(客)-보다	
31065-0-1	손(手)-이/가	소니라고
31065-0-2	손(手)-보다	
31066-0-1	손:(孫)-이/가	소:니
31066-0-2	손:(孫)-보다	
31067-0-1	배(梨)-이/가	배
31067-0-2	배(梨)-보다	
31068-0-1	배:(倍)-이/가	배:가
31068-0-2	배:(倍)-보다	
31069-0-1	벌(罰)-이/가	천불
31069-0-1	벌(罰)-이/가	벌 받는다 험디
31069-0-2	벌(罰)-보다	
31070-0-1	벌:(蜂)-이/가	벌:
31070-0-2	벌:(蜂)-보다	
31071-0-1	솔(松)-이/가	소리
31071-0-2	솔(松)-보다	
31072-0-1	솔:(刷)-이/가	소:리락
31072-0-2	솔:(刷)-보다	
31073-0-1	줄(鉉)-이/가	주를
31073-0-2	줄(鉉)-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줄:
31074-0-2	줄:(연장)-보다	
31075-0-1	돌:(石)-이/가	돌:

31075-0-1	돌:(石)-이/가	도:기라고도
31075-0-2	돌:(石)-보다	
31076-0-1	담:(牆)-이/가	담
31076-0-2	담:(牆)-보다	
31077-0-1	담:(膽)-이/가	담: 절린다
31077-0-2	담:(膽)-보다	
31078-0-1	들:(野)-이/가	드:리 널롭따고
31078-0-2	들:(野)-보다	
31079-0-1	달-(懸)-고	단다고
31079-0-2	달-(懸)-고	다라라
31080-0-1	달-(甘)-고	달제
31081-0-1	달:-(熱)-고	단:네라고
31081-0-1	달:-(熱)-더라	달:면
31081-0-2	달:-(熱)-왔다	불 다라따고
31082-0-1	갈-(換)-고	가라뀌야제
31082-0-1	갈-(換)-고	갈:드라
31082-0-1	갈-(換)-고	간:다고
31083-0-1	갈-(磨)-고	간:다고
31083-0-1	갈-(磨)-고	갈:고 이따
31084-0-1	갈:-(耕)-고	갈:고 이따
31085-0-1	걷-(收)-고	거꼬
31086-0-1	걸:-(步)-고	잘 걸른다고
31086-0-1	걸:-(步)-고	잘 걸뜨라
31087-0-1	적-(書)-고	적뜨라
31088-0-1	적:-(小)-고	적:뜨라고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 1) 기초항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마라
32001-0-2	막-(防)[ㄱ]-고	막꼬 이따
32001-0-3	막-(防)[ㄱ]-더라	막뜨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궁게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거씨
32002-0-1	흐르-(流)[ㅡ]-지	흘르지 마라
32002-0-2	흐르-(流)[ㅡ]-고	흐리고 인네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리드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흐렁게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흘러따고
32003-0-1	오-(來)[ㅇ]-지	오지 마라
32003-0-2	오-(來)[ㅇ]-고	오고 이따
32003-0-3	오-(來)[ㅇ]-더라	마:니 오드라
32003-0-4	오-(來)[ㅇ]-으니까	비가 용게
32003-0-5	오-(來)[ㅇ]-아/어(왔/었다)	비가 와따
32004-0-1	듣-(聞)[ㄷ변]-지	드찌 마러라

32004-0-2	듣-(聞)[ㄷ 변]-고	드꼬 이따
32004-0-3	듣-(聞)[ㄷ 변]-더라	드뜨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드릉게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드러따
32005-0-1	많:-(多)[ㄴᄇ]-지	만:체
32005-0-2	많:-(多)[ㄴᄇ]-고	망:코
32005-0-3	많:-(多)[ㄴᄇ]-더라	만:트라
32005-0-4	많:-(多)[ㄴᄇ]-으니까	마:능게
32005-0-5	많:-(多)[ㄴᄇ]-아/어(왔/었다)	만:네제
32006-0-1	말-(任)[ㅍ]-지	마뜨지 말라고
32006-0-2	말-(任)[ㅍ]-고	마꼬 이따고
32006-0-3	말-(任)[ㅍ]-더라	마뜨라
32006-0-4	말-(任)[ㅍ]-으니까	마똥게
32006-0-5	말-(任)[ㅍ]-아/어(왔/었다)	마떠따
32007-0-1	알:-(知)[ㄹ]-지	잘 알:제
32007-0-2	알:-(知)[ㄹ]-고	잘 알:고 이따
32007-0-3	알:-(知)[ㄹ]-더라	알:드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마니 양: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잘 아라따
32008-0-1	감:-(閉眼)[ㄱ]-지	감찌 마라
32008-0-2	감:-(閉眼)[ㄱ]-고	강:꼬
32008-0-3	감:-(閉眼)[ㄱ]-더라	감:뜨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가뭇게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가머따
32009-0-1	벗-(脫)[ㅅ]-지	버찌 마라
32009-0-2	벗-(脫)[ㅅ]-고	버꼬 인네
32009-0-3	벗-(脫)[ㅅ]-더라	버뜨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버승게
32009-0-5	벗-(脫)[ㅅ]-아/어(왔/었다)	버서따
32010-0-1	옴-(可)[ㅍ]-지	올첸
32010-0-2	옴-(可)[ㅍ]-고	올코
32010-0-3	옴-(可)[ㅍ]-더라	마리 올트라
32010-0-4	옴-(可)[ㅍ]-으니까	오릉게
32010-0-5	옴-(可)[ㅍ]-아/어(왔/었다)	올라서
32011-0-1	입-(着衣)[ㅍ]-지	입찌 마라
32011-0-2	입-(着衣)[ㅍ]-고	입꼬 이따
32011-0-3	입-(着衣)[ㅍ]-더라	입뜨라
32011-0-4	입-(着衣)[ㅍ]-으니까	이봉게
32011-0-5	입-(着衣)[ㅍ]-아/어(왔/었다)	이버따
32012-0-1	바꾸-(換)[ㅍ]-지	바꾸지 마라
32012-0-2	바꾸-(換)[ㅍ]-고	바꾸고 이따
32012-0-3	바꾸-(換)[ㅍ]-더라	바꾸드라
32012-0-4	바꾸-(換)[ㅍ]-으니까	바꿈게
32012-0-5	바꾸-(換)[ㅍ]-아/어(왔/었다)	바까따
32013-0-1	덮-(覆)[ㅍ]-지	덱찌 마라
32013-0-2	덮-(覆)[ㅍ]-고	덱꼬 인네
32013-0-3	덮-(覆)[ㅍ]-더라	덱뜨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풍게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더퍼따
32014-0-1	묻:-(問)[ㄷ 변]-지	물:찌 마라



32014-0-2	물:-(問)[ㄷ 변]-고	물:꼬 이따
32014-0-3	물:-(問)[ㄷ 변]-더라	물뜨라
32014-0-4	물:-(問)[ㄷ 변]-으니까	지를 무릉계
32014-0-5	물:-(問)[ㄷ 변]-아/어(왔/었다)	무려따
32015-0-1	낮:-(癒)[ㅅ 변]-지	나:찌 말라고
32015-0-2	낮:-(癒)[ㅅ 변]-고	나:꼬 이따
32015-0-3	낮:-(癒)[ㅅ 변]-더라	금방 나:뜨라
32015-0-4	낮:-(癒)[ㅅ 변]-으니까	나승계
32015-0-5	낮:-(癒)[ㅅ 변]-아/어(왔/었다)	나서따 그러제
32016-0-1	닫-(閉)[ㄷ]-지	다찌 마라
32016-0-2	닫-(閉)[ㄷ]-고	다꼬 인네
32016-0-3	닫-(閉)[ㄷ]-더라	닫뜨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칭계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쳐따
32017-0-1	쫓-(追)[ㅈ]-지	쫓찌 마라
32017-0-2	쫓-(追)[ㅈ]-고	쫓꼬 이따
32017-0-3	쫓-(追)[ㅈ]-더라	게를 쫓뜨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칭계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차따
32018-0-1	베:-(枕)[ㄱ]-지	비지 말라
32018-0-2	베:-(枕)[ㄱ]-고	비고 이따
32018-0-3	베:-(枕)[ㄱ]-더라	비드라
32018-0-4	베:-(枕)[ㄱ]-으니까	빙계
32018-0-5	베:-(枕)[ㄱ]-아/어(왔/었다)	비여따
32019-0-1	깨:-(破)[ㅂ]-지	깨:지 말라
32019-0-2	깨:-(破)[ㅂ]-고	깨:고 이따
32019-0-3	깨:-(破)[ㅂ]-더라	깨:드라
32019-0-4	깨:-(破)[ㅂ]-으니까	깡:계
32019-0-5	깨:-(破)[ㅂ]-아/어(왔/었다)	깡:따
32020-0-1	펴-(伸)[ㅍ]-지	폐지 마라
32020-0-2	펴-(伸)[ㅍ]-고	폐고 이따
32020-0-3	펴-(伸)[ㅍ]-더라	폐드라
32020-0-4	펴-(伸)[ㅍ]-으니까	펑계
32020-0-5	펴-(伸)[ㅍ]-아/어(왔/었다)	폐따
32021-0-1	밝-(明)[ㅂ]-지	박제
32021-0-2	밝-(明)[ㅂ]-고	박꼬
32021-0-3	밝-(明)[ㅂ]-더라	박뜨라
32021-0-4	밝-(明)[ㅂ]-으니까	발금계
32021-0-5	밝-(明)[ㅂ]-아/어(왔/었다)	발거따
32022-0-1	삶:-(烹)[ㅅ]-지	쌈:찌 마라
32022-0-2	삶:-(烹)[ㅅ]-고	쌈:꼬 이따
32022-0-3	삶:-(烹)[ㅅ]-더라	쌈:뜨라
32022-0-4	삶:-(烹)[ㅅ]-으니까	쌀몽계
32022-0-5	삶:-(烹)[ㅅ]-아/어(왔/었다)	쌀마따
32023-0-1	윙-(吟)[ㅇ]-지	*
32023-0-2	윙-(吟)[ㅇ]-고	*
32023-0-3	윙-(吟)[ㅇ]-더라	*
32023-0-4	윙-(吟)[ㅇ]-으니까	*
32023-0-5	윙-(吟)[ㅇ]-아/어(왔/었다)	*
32024-0-1	밟:-(踏)[ㅈ]-지	뽕:찌 마라

32024-0-2	밟:- (踏) [ ? ] -고	보:꼬 이따
32024-0-3	밟:- (踏) [ ? ] -더라	봔:뜨라
32024-0-4	밟:- (踏) [ ? ] -으니까	블붕게
32024-0-5	밟:- (踏) [ ? ] -아/어(았/었다)	블바따
32025-0-1	하-(爲) [ ㅏ 변 ] -지	허지 마라
32025-0-2	하-(爲) [ ㅏ 변 ] -고	허고 이따
32025-0-3	하-(爲) [ ㅏ 변 ] -더라	허드라
32025-0-4	하-(爲) [ ㅏ 변 ] -으니까	형께
32025-0-5	하-(爲) [ ㅏ 변 ] -아/어(았/었다)	헤:따
32026-0-1	맺-(結) [ ㅈ ] -지	멤찌 마라
32026-0-2	맺-(結) [ ㅈ ] -고	메꼬 이따
32026-0-3	맺-(結) [ ㅈ ] -더라	메뜨라
32026-0-4	맺-(結) [ ㅈ ] -으니까	메징게
32026-0-5	맺-(結) [ ㅈ ] -아/어(았/었다)	메저따
32027-0-1	없:- (無) [ ? ] -지	읍:쎄
32027-0-2	없:- (無) [ ? ] -고	읍:꼬
32027-0-3	없:- (無) [ ? ] -더라	읍:뜨라
32027-0-4	없:- (無) [ ? ] -으니까	읍:쎅게
32027-0-5	없:- (無) [ ? ] -아/어(았/었다)	엇:쎄따
32028-0-1	앉-(坐) [ ㅅ ] -지	앙찌 마라
32028-0-2	앉-(坐) [ ㅅ ] -고	앙꼬 이따
32028-0-3	앉-(坐) [ ㅅ ] -더라	앙뜨라
32028-0-4	앉-(坐) [ ㅅ ] -으니까	앙금게
32028-0-5	앉-(坐) [ ㅅ ] -아/어(았/었다)	앙거따
32029-0-1	비비-(刮) [ ㅣ ] -지	비비지 말라
32029-0-2	비비-(刮) [ ㅣ ] -고	비비고 이따
32029-0-3	비비-(刮) [ ㅣ ] -더라	비비드라
32029-0-4	비비-(刮) [ ㅣ ] -으니까	비빙게
32029-0-5	비비-(刮) [ ㅣ ] -아/어(았/었다)	비베따
32030-0-1	끄-(消) [ ㅡ ] -지	끄지 마라
32030-0-2	끄-(消) [ ㅡ ] -고	끄:고 이따
32030-0-3	끄-(消) [ ㅡ ] -더라	끄:드라
32030-0-4	끄-(消) [ ㅡ ] -으니까	క్క게
32030-0-5	끄-(消) [ ㅡ ] -아/어(았/었다)	껴:따
32031-0-1	꺾-(折) [ ㄱ ] -지	꺾찌 마라
32031-0-2	꺾-(折) [ ㄱ ] -고	꺾꼬 이따
32031-0-3	꺾-(折) [ ㄱ ] -더라	꺾뜨라
32031-0-4	꺾-(折) [ ㄱ ] -으니까	껴깁게
32031-0-5	꺾-(折) [ ㄱ ] -아/어(았/었다)	껴꺼따
32032-0-1	신:- (履) [ ㄴ ] -지	신찌 마라
32032-0-2	신:- (履) [ ㄴ ] -고	싱:꼬 이따
32032-0-3	신:- (履) [ ㄴ ] -더라	신:뜨라
32032-0-4	신:- (履) [ ㄴ ] -으니까	시능게
32032-0-5	신:- (履) [ ㄴ ] -아/어(았/었다)	시너따
32033-0-1	보-(視) [ ㅅ ] -지	보지 마라
32033-0-2	보-(視) [ ㅅ ] -고	보고 이따
32033-0-3	보-(視) [ ㅅ ] -더라	보드라
32033-0-4	보-(視) [ ㅅ ] -으니까	붕께
32033-0-5	보-(視) [ ㅅ ] -아/어(았/었다)	바:따
32034-0-1	추-(舞) [ ㅈ ] -지	치지 마라

32034-0-2	추-(舞)[ㅈ]-고	치고 이따
32034-0-3	추-(舞)[ㅈ]-더라	치드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잘 칭게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잘 처따
32035-0-1	피우-(吸煙)[ㅍ]-지	피지 마라
32035-0-2	피우-(吸煙)[ㅍ]-고	피고 이따
32035-0-3	피우-(吸煙)[ㅍ]-더라	피드라
32035-0-4	피우-(吸煙)[ㅍ]-으니까	핑게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왔/었다)	피여따
32036-0-1	서-(立)[ㅅ]-지	스지 마라
32036-0-2	서-(立)[ㅅ]-고	스고 이따
32036-0-3	서-(立)[ㅅ]-더라	스드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승게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장 서따고
32037-0-1	기-(匍腹)[ㄱ]-지	기지 마라
32037-0-2	기-(匍腹)[ㄱ]-고	기고 인네
32037-0-3	기-(匍腹)[ㄱ]-더라	기드라
32037-0-4	기-(匍腹)[ㄱ]-으니까	강게
32037-0-5	기-(匍腹)[ㄱ]-아/어(왔/었다)	기여따
32038-0-1	이-(戴)[ㅇ]-지	이지 마라
32038-0-2	이-(戴)[ㅇ]-고	이고 이따
32038-0-3	이-(戴)[ㅇ]-더라	이드라
32038-0-4	이-(戴)[ㅇ]-으니까	잉:게
32038-0-5	이-(戴)[ㅇ]-아/어(왔/었다)	여따
32039-0-1	아니-(否)[ㅇ]-지	콩이 아:니제
32039-0-2	아니-(否)[ㅇ]-고	콩이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ㅇ]-더라	여자가 아이드라
32039-0-4	아니-(否)[ㅇ]-으니까	콩이 아:닝게
32039-0-5	아니-(否)[ㅇ]-아/어(왔/었다)	아:니여따
32040-0-1	되-(升)[ㄷ]-지	되지 마라
32040-0-2	되-(升)[ㄷ]-고	되고 이따고
32040-0-3	되-(升)[ㄷ]-더라	되드라
32040-0-4	되-(升)[ㄷ]-으니까	탱게
32040-0-5	되-(升)[ㄷ]-아/어(왔/었다)	되야따
32041-0-1	있-(有)[ㅇ]-지	돈:도 이제
32041-0-2	있-(有)[ㅇ]-고	돈:도 이꼬
32041-0-3	있-(有)[ㅇ]-더라	이뜨라
32041-0-4	있-(有)[ㅇ]-으니까	이썩게
32041-0-5	있-(有)[ㅇ]-아/어(왔/었다)	이썩따
32042-0-1	놓-(放)[ㅎ]-지	노치 마라
32042-0-2	놓-(放)[ㅎ]-고	노코 이따
32042-0-3	놓-(放)[ㅎ]-더라	노트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농:게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놉:따
32043-0-1	훑-(扱)[ㅅ]-지	훑찌 마라
32043-0-2	훑-(扱)[ㅅ]-고	훑꼬 이따
32043-0-3	훑-(扱)[ㅅ]-더라	훑뜨라
32043-0-4	훑-(扱)[ㅅ]-으니까	훑통게
32043-0-5	훑-(扱)[ㅅ]-아/어(왔/었다)	훑타따
32044-0-1	굽:-(麗)[ㄱ]-지	굽:제

32044-0-2	굽:-(麗)[ㄱ 변]-고	고:꼬
32044-0-3	굽:-(麗)[ㄱ 변]-더라	굽:뜨라
32044-0-4	굽:-(麗)[ㄱ 변]-으니까	공:게
32044-0-5	굽:-(麗)[ㄱ 변]-아/어(왔/었다)	고와따
32045-0-1	쥐:-(握)[ㄱ]-지	집:찌 마라
32045-0-2	쥐:-(握)[ㄱ]-고	집:꼬 이따
32045-0-3	쥐:-(握)[ㄱ]-더라	쥐드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청:게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쥐여따
32046-0-1	가-(去)[ㅏ]-지	가지 마라
32046-0-2	가-(去)[ㅏ]-고	가고 이따
32046-0-3	가-(去)[ㅏ]-더라	가드라
32046-0-4	가-(去)[ㅏ]-으니까	강게
32046-0-5	가-(去)[ㅏ]-아/어(왔/었다)	가따

##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먹찌 마라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따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뜨찌 마라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따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똑: 가:째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터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얕뜨라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리 알버따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허뜨라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쳐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드라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드라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러따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잘 일:드라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드라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러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뜨라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따고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뜨라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따고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쉽:뜨라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여따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눅:찌 마라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어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줍뜨라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워따
32061-0-1	"밋-(憎)-지 -고 -더라"	미웁뜨라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여도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넙뜨라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퍼도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질:뜨라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뜨라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분:뜨라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운:뜨라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따
32066-0-1	"짓:-(呖)-지 -고 -더라"	질:뜨라
32066-0-2	"짓:-(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따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꼬지드라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자따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나트라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낱:따
32069-0-1	"땅:-(?) -지 -고 -더라"	파트라
32069-0-1	"땅:-(?) -지 -고 -더라"	따:코
32069-0-2	"땅:-(?)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따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끄네드라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끈:트라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네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겐찬허드라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겐찬해:따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크게 익뜨라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따
32073-0-1	"뺨:-(澁)-지 -고 -더라"	뜨:릅뜨라
32073-0-2	"뺨:-(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렁게
32073-0-2	"뺨:-(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런노든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오시 오리드라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온 올라따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땔트라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러따
32076-0-1	"끓:-(?) -지 -고 -더라"	꼴드라
32076-0-1	"끓:-(?) -지 -고 -더라"	꼴:고 안자따
32076-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러따
32077-0-1	"닿:-(?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다라지드라
32077-0-2	"닿:-(?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저따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달고 이따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드라고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따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몰드라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라따고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드라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따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올라가드라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가따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쁘드라고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따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푸드라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파따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잘 쏘:드라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쏘: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꾸드라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여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다듬뜨라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드마따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데드라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데따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말드라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라따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찌드라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드라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셔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시:드라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쎄:따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게드라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게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들드라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두리따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쓰드라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따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썰고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따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쇠드라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쇠아따
32099-0-1	"쉬:-(?) -지 -고 -더라"	쉬:드라
32099-0-2	"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여따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흐커드라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케따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보꾸드라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까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보둠뜨라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두마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무뜨라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드라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드라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라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뜨라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거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잘 걸뜨라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러따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드라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물라따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자울드라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올라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썰:드라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씨러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뜨라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머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뜨라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더드마따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굽:뜨라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귀: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뜨라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거와따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인:뜨라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서따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비뜨라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서따고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검:뜨라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꺼머따고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느트라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곱:뜨라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와따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영뜨라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영거따
32121-0-1	"귀찮-(?) -지 -고 -더라"	귀찬허드라
32121-0-2	"귀찮-(?)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귀찬해:따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보르드라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볼라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막뜨라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말가따
32124-0-1	"굵:-(膿)-지 -고 -더라"	곰:뜨라
32124-0-2	"굵:-(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골마따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굽:뜨라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굴:거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참 얹뜨라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알버따
32127-0-1	"쫄:-(?) -지 -고 -더라"	잘 실트라
32127-0-2	"쫄:-(?)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러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이러버리드라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러버리따
32129-0-1	"짧:-(?) -지 -고 -더라"	할트라
32129-0-2	"짧:-(?)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할터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잘롭뜨라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루와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리드라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놀:려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드라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더드라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모:데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리드라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푸드라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퍼따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드라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꼬:드라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따고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씨요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잘 쭈:드라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씨: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잘 마치드라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쳐따
32140-0-1	"데우-(?)-지 -고 -더라"	디:지 마라
32140-0-2	"데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디여따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잘 이:드라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이여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드라 허제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게따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지다리드라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달라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시:드라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시여따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드라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따
32146-0-1	"켜-(툼을)-지 -고 -더라"	쓸:드라
32146-0-2	"켜-(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따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데:드라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되야서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쉬:드라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여따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하치드라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쳐따
32150-0-1	"눌:-(?)-지 -고 -더라"	눌:뜨라
32150-0-2	"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러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달트라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인자 깨다라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메롭뜨라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라서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끄럽뜨라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꾸워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깝뜨라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까도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집뜨라 그러제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퍼도



32156-0-1	"긔:-(劃)-지 -고 -더라"	잘 끄뜨라
32156-0-2	"긔:-(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끄서따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잘 씨뜨라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쳐따
32158-0-1	"짚-(搗)-지 -고 -더라"	잘 찌:트라
32158-0-2	"짚-(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찌여따
32159-0-1	"掻-(搔)-지 -고 -더라"	갈기드라
32159-0-2	"掻-(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겨서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굴머따고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뜨라
32161-0-1	"닳:-(似)-지 -고 -더라"	담:뜨라
32161-0-2	"닳:-(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마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트라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따
32163-0-1	"끓-(?) -지 -고 -더라"	골드라
32163-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따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분:뜨라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따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드라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따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잘 마르드라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말라따고 허제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드라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도 머글란다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푸드라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퍼따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뿌드라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빠따
32170-0-1	"쏘-(? 별이)-지 -고 -더라"	쏘:드라
32170-0-2	"쏘-(? 별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아따고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드라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줘:따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드라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여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드라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다따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뿌수드라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서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난:뜨라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나따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둘러먹제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둘러머거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찌드라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튀드라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튀여따
32179-0-1	"괴:-(滯)-지 -고 -더라"	곱:뜨라
32179-0-2	"괴:-(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와따
32180-0-1	"여위-(?) -지 -고 -더라"	야우드라
32180-0-2	"여위-(?)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뻔 야와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메웁트라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무리 메와도
32182-0-1	"뀌:-(?)-지 -고 -더라"	뀌:드라
32182-0-2	"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뀌여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잘 고치드라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차따
32184-0-1	"신:-(載)-지 -고 -더라"	실치 마라
32184-0-2	"신:-(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따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얻:뜨라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따
32186-0-1	"뽕-(粉碎)-지 -고 -더라"	잘 뽕수드라
32186-0-1	"뽕-(粉碎)-지 -고 -더라"	뽕수지 마라
32186-0-2	"뽕-(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빠사따
32186-0-2	"뽕-(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수먼
32187-0-1	"과랑-(碧)-지 -고 -더라"	시푸러드라
32187-0-2	"과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폴헤:따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틀리드라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틀려따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드라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싸:드라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따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럽뜨라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와도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걸:뜨라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뒤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트라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러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드라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게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부시드라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셔따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드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저따고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이러나치드라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나쳐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줄 자버텅이드라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줄 자버텅에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드라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려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드라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쳐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드라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따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잘 외우드라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외워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잘 사귀드라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사겨따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잘 썩뜨라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거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드라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러따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불드라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불라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드라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물러따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줄드라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송구드라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송거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씨다듬뜨라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다드마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저 게는 싸:납뜨라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나도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게불뜨라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바도
32213-0-1	"젓:-(?) -지 -고 -더라"	젖:뜨라
32213-0-2	"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서따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뚜껍뜨라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파도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리드라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러따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뿐질드라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뿐지러따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잘 배우드라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와따
32218-0-1	"다리-(?) -지 -고 -더라"	테루드라
32218-0-2	"다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데레따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파드라
32219-0-2	"후비-(?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따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에리드라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레따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기리드라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레따
32222-0-1	"저리-(癲)-지 -고 -더라"	제리드라
32222-0-2	"저리-(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레따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불리드라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려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따습뜨라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수와도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끼리드라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레따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뉘비드라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뉘베따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구게지드라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게저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텅텅 비:드라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여뜨라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쿠드라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커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메:드라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췌:미드라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메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드라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여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뜨라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머따
32234-0-1	"가렴-(?)-지 -고 -더라"	가라웁뜨라
32234-0-2	"가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라와도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떼리드라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떼레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뜨라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두와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뜨라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버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드라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지러드라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지레따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리드라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딸:드라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따
32242-0-1	"쪼:-(啄)-지 -고 -더라"	죤:뜨라
32242-0-2	"쪼:-(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사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나:두드라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뒤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기드라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게따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제리드라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레따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던지드라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멍기드라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던저따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멍게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트드라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타따
32248-0-1	"만지-(?)-지 -고 -더라"	몬치드라
32248-0-2	"만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몬차따
32249-0-1	"췌:-(?)-지 -고 -더라"	췌:드라
32249-0-2	"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따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틀드라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러따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돕:뜨라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와파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씹뜨라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씹버파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뜨라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다트라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파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누리드라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파
32256-0-1	"주무르-(-?) -지 -고 -더라"	주물드라
32256-0-2	"주무르-(-?)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러파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꾸드라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꺼파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꼬숩뜨라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수와도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비가 네리드라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네레파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궁글드라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궁그러파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멘들드라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멘드라파
32262-0-1	"늑-(-老)-지 -고 -더라"	늑뜨라
32262-0-2	"늑-(-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늘거파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트라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라파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잘 따르드라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따라파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드라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파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드라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네파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여파고도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져파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지드라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드라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쳐파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르드라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려서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치드라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쳐파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죄이드라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죄여파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드라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파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뜨라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바파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드라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여파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드라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쳐파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절구드라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간혀드라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절귀파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간혜파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드라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여파 그리고
32278-0-1	"줍:- (拾)-지 -고 -더라"	줍:뜨라
32278-0-2	"줍:- (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서파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뜨라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서파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지울드라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울러파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뜨라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도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뜨라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망가와도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드라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파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놀:허드라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해도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시폴허드라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폴해도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들드라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드러파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이리 서:톨드라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투러도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우리드라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올러파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습뜨라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수와파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뜨라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추와파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뜨라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무리 뜨거아도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근혀드라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근혜:파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드라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파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부럽뜨라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워파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워도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미웁뜨라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여파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슷혀드라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슷해:따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럽뜨라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라도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탈시럽뜨라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무리 까탈시러도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예:롭뜨라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무리 예로아도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쉽뜨라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무리 아쉬와도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깡강허드라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깡강해도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뜨라고는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따
32304-0-1	"남:- (餘)-지 -고 -더라"	남:뜨라
32304-0-2	"남:- (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머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넝기드라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넝게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자빨치드라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빨처따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찌글치드라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글처따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외우드라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와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질드라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지러따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갈치드라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처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갈치드라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처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고누드라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나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저루드라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뤄따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리드라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려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뿐 보드라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뿐바:따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질드라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지러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다름질허드라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름질해:따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위기드라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위게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두렁두렁허드라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렁두렁헤:따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지꺼루드라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꺼러따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학표 텡이드라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학표 텡에따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네레치드라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네레처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드라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드라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여따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무리 서도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소수드라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따고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트라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타게도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트라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무리 조아도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허드라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레도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끄뜨라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서따
32330-0-1	"얹:-(薄)-지 -고 -더라"	닐롭뜨라
32330-0-2	"얹:-(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닐화도
32331-0-1	"하얹-(白)-지 -고 -더라"	흐:거드라
32331-0-2	"하얹-(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게도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마시따
32332-0-2	국(羹)-을/를	구글 끼레라
32332-0-3	국(羹)-에(서)	구게서
32332-0-4	국(羹)-으로	
32332-0-5	국(羹)-도	국또 마시따
32333-0-1	논(沍)-이/가	노니 크다
32333-0-2	논(沍)-을/를	노를 사따
32333-0-3	논(沍)-에(서)	노네서 난다
32333-0-4	논(沍)-으로	노네로 가제
32333-0-5	논(沍)-도	논도 사고
32334-0-1	쌀(米)-이/가	싸리 만타
32334-0-2	쌀(米)-을/를	싸를 파라따
32334-0-3	쌀(米)-에(서)	싸레서 냄세 난다고
32334-0-4	쌀(米)-으로	쌀로
32334-0-5	쌀(米)-도	쌀도 사고
32335-0-1	봄(春)-이/가	보미 와따



32335-0-2	봄(春)-을/를	보물 마지하여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32335-0-5	봄(春)-도	봄도
32336-0-1	집(家)-이/가	지비 크다
32336-0-2	집(家)-을/를	지블 사파
32336-0-3	집(家)-에(서)	지베 가서
32336-0-4	집(家)-으로	지비로 가요
32336-0-5	집(家)-도	집또 크고
32337-0-1	옷(衣)-이/가	오시 조:타고
32337-0-2	옷(衣)-을/를	오슬 사파고
32337-0-3	옷(衣)-에(서)	오세서
32337-0-4	옷(衣)-으로	오시로
32337-0-5	옷(衣)-도	오또 사파
32338-0-1	방(房)-이/가	방이 크다
32338-0-2	방(房)-을/를	방을 씨러라
32338-0-3	방(房)-에(서)	방에서 념세 난다
32338-0-4	방(房)-으로	방으로 드러가자
32338-0-5	방(房)-도	방도 널룸네
32339-0-1	낮(晝)-이/가	나시 잘룸따 허고
32339-0-2	낮(晝)-을/를	
32339-0-3	낮(晝)-에(서)	나제 일허제
32339-0-4	낮(晝)-으로	나스로
32339-0-5	낮(晝)-도	나또 조타
32340-0-1	낮(顔)-이/가	나시
32340-0-2	낮(顔)-을/를	나슬
32340-0-3	낮(顔)-에(서)	나세가
32340-0-4	낮(顔)-으로	
32340-0-5	낮(顔)-도	나또
32341-0-1	부엌(廚)-이/가	부어기 크다
32341-0-2	부엌(廚)-을/를	부어글
32341-0-3	부엌(廚)-에(서)	부어게서도 사라
32341-0-4	부엌(廚)-으로	부어게로
32341-0-5	부엌(廚)-도	부엌또 크다
32342-0-1	밭(田)-이/가	마시 만:타
32342-0-2	밭(田)-을/를	마슬 사파
32342-0-3	밭(田)-에(서)	마테 가요
32342-0-4	밭(田)-으로	마테로 가요
32342-0-5	밭(田)-도	마또 만:타
32343-0-1	앞(前)-이/가	아비 널룸따고
32343-0-2	앞(前)-을/를	아블
32343-0-3	앞(前)-에(서)	지비 아페가 꼬시 피어따고
32343-0-4	앞(前)-으로	아페로 가라고
32343-0-5	앞(前)-도	압또 널룸따
32344-0-1	넋(魂)-이/가	너기 빠쩌따
32344-0-2	넋(魂)-을/를	너글 놔따
32344-0-3	넋(魂)-에(서)	
32344-0-4	넋(魂)-으로	
32344-0-5	넋(魂)-도	넉또
32345-0-1	흙(土)-이/가	호기

32345-0-2	흙(土)-을/를	흐글 파라
32345-0-3	흙(土)-에(서)	흐게서 냄세 난다
32345-0-4	흙(土)-으로	흐게로
32345-0-5	흙(土)-도	혹또 만타
32346-0-1	여덟(八)-이/가	야다리다
32346-0-2	여덟(八)-을/를	야다를 보테라
32346-0-3	여덟(八)-에(서)	야다레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야달또
32347-0-1	돌(遇歲)-이/가	돌씨가 데야따
32347-0-2	돌(遇歲)-을/를	돌씨를
32347-0-3	돌(遇歲)-에(서)	돌씨에
32347-0-4	돌(遇歲)-으로	
32347-0-5	돌(遇歲)-도	돌씨도
32348-0-1	값(價)-이/가	가비 올라따
32348-0-2	값(價)-을/를	거름까블 모쥬거따
32348-0-3	값(價)-에(서)	거름까베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5	값(價)-도	거름깁또
32349-0-1	속:(內)-이/가	소:기 널롭따고
32349-0-2	속:(內)-을/를	소:글 체레라
32349-0-3	속:(內)-에(서)	소:게서는
32349-0-4	속:(內)-으로	소:게로 그런다
32349-0-5	속:(內)-도	속:또
32350-0-1	돈:(錢)-이/가	도:니 만타
32350-0-2	돈:(錢)-을/를	도:늘
32350-0-3	돈:(錢)-에(서)	도:네서 냄세가 나네
32350-0-4	돈:(錢)-으로	도:느로
32350-0-5	돈:(錢)-도	돈:도 만네
32351-0-1	발(足)-이/가	바리 크다
32351-0-2	발(足)-을/를	바를 시처라
32351-0-3	발(足)-에(서)	바레서 냄세가 나네
32351-0-4	발(足)-으로	발로 공을 차따
32351-0-5	발(足)-도	발도 크다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만타
32352-0-2	짐(荷物)-을/를	지물 췌게라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서
32352-0-4	짐(荷物)-으로	지미로 가라고
32352-0-5	짐(荷物)-도	짐도 만타
32353-0-1	입(口)-이/가	이비 크다
32353-0-2	입(口)-을/를	이블 다무러라
32353-0-3	입(口)-에(서)	이베서
32353-0-4	입(口)-으로	이비로
32353-0-5	입(口)-도	입또 크다
32354-0-1	낫(鎌)-이/가	나시 잘 든다
32354-0-2	낫(鎌)-을/를	나슬 가라따
32354-0-3	낫(鎌)-에(서)	나세다
32354-0-4	낫(鎌)-으로	나시로 비여따
32354-0-5	낫(鎌)-도	나또 사따
32355-0-1	강(江)-이/가	강이 크다

32355-0-2	강(江)-을/를	강을 건네따
32355-0-3	강(江)-에(서)	강에 빠져
32355-0-4	강(江)-으로	강으로
32355-0-5	강(江)-도	강도 널롭네
32356-0-1	젓(乳)-이/가	저시 만타
32356-0-2	젓(乳)-을/를	저슬 째다
32356-0-3	젓(乳)-에(서)	저세서
32356-0-4	젓(乳)-으로	
32356-0-5	젓(乳)-도	저또 크다
32357-0-1	꽃(花)-이/가	꼬시 이뿌다
32357-0-2	꽃(花)-을/를	꼬슬
32357-0-3	꽃(花)-에(서)	꼬세서
32357-0-4	꽃(花)-으로	꼬세로 가자
32357-0-5	꽃(花)-도	꼬또 만타
32358-0-1	팥(赤豆)-이/가	포시 만타
32358-0-2	팥(赤豆)-을/를	포슬 쌀마따
32358-0-3	팥(赤豆)-에(서)	포세서 념세 나네
32358-0-4	팥(赤豆)-으로	포시로 바까따
32358-0-5	팥(赤豆)-도	포또 만네
32359-0-1	옆(側)-이/가	여비 널롭따
32359-0-2	옆(側)-을/를	여블 시체라
32359-0-3	옆(側)-에(서)	여베서 념세 나네
32359-0-4	옆(側)-으로	여페로 가라
32359-0-5	옆(側)-도	엽또 널롭따
32360-0-1	쌈(賃金)-이/가	품싸기 만네
32360-0-2	쌈(賃金)-을/를	품싸글 주어따
32360-0-3	쌈(賃金)-에(서)	품싸게서
32360-0-4	쌈(賃金)-으로	품싸그로
32360-0-5	쌈(賃金)-도	품싸또 만타
32361-0-1	닭(鷄)-이/가	다기 만타
32361-0-2	닭(鷄)-을/를	다글 자버따
32361-0-3	닭(鷄)-에(서)	다게서
32361-0-4	닭(鷄)-으로	다그로
32361-0-5	닭(鷄)-도	닥또
32362-0-1	밖(外)-이/가	바께가 널롭따
32362-0-2	밖(外)-을/를	바께를 치워라
32362-0-3	밖(外)-에(서)	바께에 나가서 노라라
32362-0-4	밖(外)-으로	바께로 가자
32362-0-5	밖(外)-도	바깥또 널롭꼬

## 제4편 문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라고
40101-0-1	내-가	네:가
40101-0-2	내	네 물겨니다고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나한테 주어따고
40101-0-5	나-와	나허고 간다
40101-0-6	나-는	나는 안:다고
40101-0-7	나-도	나도 알고
40102	저/제-가	저라고 그러제
40102-0-1	저-가	지:가
40102-0-2	저-의	제 물겨니다
40102-0-3	저-을/를	저를
40102-0-4	저-에게	저를 주어따고
40102-0-4	저-에게	저한테
40102-0-5	저-와/과	저어고만
40102-0-6	저-는	저는
40102-0-7	저-도	저도 암:니다
40103	우리	우리
40104	저희	지:친정아부지
40105	너	너
40105-0-1	-가	니:가 무거따
40105-0-2	-의	니 물겨니다
40105-0-3	-을/를	너를
40105-0-4	-에게	너한테
40105-0-5	-와/과	너어고 간다
40105-0-6	-는	너는 아냐
40105-0-7	-도	너도 알고
40106	자네	자네가 어찌고
40107	당신	당시니라고도 허고
40108	너희	느그 아부지
40109	개	그아라고도
40109-1	애	이아는
40109-2	재	저아라고
40110	자기	지말만
40111	당신	당시니라고도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나구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누구꺼시냐
40112-0-3	누구-를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누구를 줄라고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 줄라고
40112-0-5	누구-와	누구허고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무:시냐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시요?
40113-0-1	무엇-이	머:시 드런냐?
40113-0-2	무슨	문:닐 허냐
40113-0-3	무엇-을	무:설 허냐
40113-0-4	무엇-과	

###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디 가냐고
40115	언제	언:제 완냐
40116	어느	지비 어:디치가
40116	어느	어떤 지비 더
40116	어느	어느때라고도
40117	왜	아가 어째서 우냐
40118	얼마나	시가니 얼마나
40119	어떻게	어트게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놈 주라고
40120	이것	요놈 주시요
40121	그것	그놈도 켜찬허고
40122	저것	쩌:그치 저놈 도라고
40123	여기	여그라고
40124	거기	거그 파락허도 허고
40125	저기	쳐:그라고
40125	저기	쩌:그 파라고
40126	이리	이리가라고
40127	그리	그:리 가라고도 현디
40128	저리	저:리 가라고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	가겨기 비싸다고
40202	-이/가	코가 크다고 그러제

40203	-을/를	귀를
40204	-을/를	무를 주재
40205	-에 게/게	아:무겐냥반 준다고 그러고
40205	-에 게/게	아무게떡 준다고 그러고
40205	-에 게/게	누구한테
40206	-보고/더러	누구한테다
40207	-보고/더러	지비한테 안헤쏘
40208	-에	지비간다고
40209	-에	뒤에 또 만나작 허던지
40209	-에	난:중에 만나던지
40209	-에	다으메 또 만나자
40210	-에서	우리지비서
40211	-에서	서울씨 산다고제
40211	-에서	서울씨 만나자고?
40212	-에서	여기서 가가꼬 서울씨 만나자고?
40213	-으로	쌀로
40214	-으로	지비로
40215	-으로	세네키로 무끄제
40216	-으로	어:디로 간냐
40217	-와/과	외:허고 수:박허고
40218	-와/과	나랑 가:치 가자
40218	-와/과	나허고 가:치 가자
40219	-보다	성보당 더 크다고
40220	-처럼	되야지가치
40221	-만큼	저 사람만치만 커도 쓰거따
40222	-만큼	너 머글 만치만 가지 가라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봉나미
40225	-아/야	영수야
40226	-아/야	누나 누나
40226	-아/야	누님 누님 그러고
40226-1	-예	*
40227	-아/야	하나버지
40227-1	-요	*
40228	-이랑	수리랑 고기랑 오늘 잘
40229	-커녕	마:넛케이는

####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른 머거도 담:베는 안 핀다고
40231	-만	딸만
40232	-도	키도 크고
40232	-도	얼굴도 잘 생게따고
40233	-마다	날마당
40234	-부터	이 시간보툼 담:베
40235	-까지	메씨까지
40236	-조차	머글 물조차
40236-1	-할라	비한차 오는디
40236-1	-할라	비할라 오는디

40237	-이야/야	도:니사
40238	-을랑	그런 소리랑은
40239	-이라도	부자라도
40240	-밖에	아무계베끼 업따
40241	-가지고	싸:가꼬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이:리 오라고
40243	알았어-요	아라씨요
40243	알았어-요	아라씨라우
40244	했지-요?	이거슬 누가 께쏘?
40244	했지-요?	헤:찌라우?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아가 이:리 앙거라
40302	-게	자네 이:리 앙쏘
40303	-으오	형님 이:리 앙그씨요
40304	-으십시오	이:리 앙그시씨요
40305	-세요	앙그씨요

### 4.3.2 청유법

40306	-자	가자!
40307	-세	가세!
40308	-으오	가:치 가입씨다
40309	-십시오	가:치 가입씨다
40310	-세요	가입씨다

### 4.3.3 의문법

40311	-니	비 오냐?
40312	-나	비 오능가?
40313	-오	비 오요?
40314	-습니까	비 오요?
40315	-나요	비 오요?
40316	-니	너 어:디 가냐?
40317	-나	자네 어:디 가능가?
40318	-시오	형님, 어:디 가시요?
40319	-십니까	어:디 가시요?
40320	-세요	어:디 가시요?

#### 4.3.4 서술법

40321	-는다	잘 멍는다
40322	-네	밥 잘 멍네
40323	-오	잘 먹쏘
40324	-습니다	참 잘 머거요
40325	-네요	잘 머거요
40326	-다	작:따
40327	-네	정:네
40328	-소	적:쏘
40329	-으십니다	적:쏘
40330	-으세요	적:쏘

#### 4.3.5 반말

40331	-아	어디 아퍼?
40332	-지	갈티제?

#### 4.3.6 -이다

40333	-이다	니 생어리다.
40334	-이니	생어리냐?
40335	-이네	생어리네.
40336	-인가	생어랑가?
40337	-이오	생어리요.
40338	-이오	생어리요?
40339	-입니다.	생어리요.
40340	-입니까	생어리요?
40341	-이시지요	
40342	-이시지요	생어리제라우?
40343	-이냐?	뭐이냐?
40344	-인가?	무:싱가?
40345	-이오?	뭐:시요?
40346	-입니까?	머:시요?
40347	-인가요?	뭐:시요?
40348	-이야?	무:싱가?
40349	-이어요?	뭐:시요?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만:혜요
40351	-습디다	만:헛띠다
40352	-는구나/구나	잘 머꾸나
40352	-는구나/구나	잘 멍는다
40353	-는구먼/구먼	잘 머꾸만



40353	-는구먼/구먼	잘 멩네요
40354	-일세	오 렌마니세
40355	-으마	꼭 가꾸마
40356	-음세	가품세
40357	-을라	자빠질라 조심헤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밤 머꼬 본다고
40402	-으면서	밤 머금서 보제
40403	-어/-어서	추와서 아 놈따
40404	-으니 /-으니까	따수니까
40404	-으니 /-으니까	따승게 졸린다
40405	-관테	먼:닐 라까니
40406	-다가	옴서 비 마저따고
40406	-다가	오다가 마저따고
40407	-거든	그 사람 만나그든
40408	-더라도	예:기가 떼써도
40408	-더라도	떼쓰드라도
40409	-으려고	나나 무글라고
40410	-도록	빼가 녹뜨락 이:럴 헤:따고
40410	-도록	날 세드락
40411	-을수록	그럴 쭈락에
40412	-듯이	돈얼 물 쓰드끼 현다 그레
40413	-지	나는 연속궁만 보제

#### 4.5 주체 존대

40501	-서	이: 드와게
40501	-서	얼릉 드와게요
40502	-셨소	짐장 헤게쏘?

#### 4.6 시제

40601	웃는다	자룬는다고 그러제
40602	기여간다	잘 기여간다
40603	크다	예:기 누니 참 크다
40604	생일이다	네이리 네 생어리다
40605	오고 있다	비가 오고 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밤 머건냐고 무러보는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어른보고는 진잡싸겐냐고 그
40607	왔었다	러고
40608	먹더라	가씨따
40609	먹더냐	잘 먹뜨라
		잘 먹띠야?

40610	만나는 친구	날마나 만난 친구는
40611	만난 친구	어저께 만난 친구
40612	만났던 친구	옴:나레 만난 사라미라고
40612	만났던 친구	어저께 헤:뜬 마를
40613	만날 친구	만날 싸라미
40614	큰 아이	키가 큰 놈
40615	크던 아이	크는 예기라고 그러제
40615	크던 아이	크든 예기라고 그레
40616	켰던 아이	
40617	마시지 않겠다	안 머글란다
40617	마시지 않겠다	안 머글라우
40618	비가 오겠다	오거따고도 현디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암 머거따고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날췌가 안 조타고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계:끝 안타고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아지근 장:게 양 가따고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아직 암 만나바따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또 안타고 잠만 잔다고
40706-1	먹도 않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술 몸: 명:는다고
40708	맞잖소?/안 맞소?	네마리 안 만냐?
40708	맞잖소?/안 맞소?	네마리 안 마쫘?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려따고
40802	늘리다	늘려따고 그러제
40803	말리다1	물린다고
40804	말리다2	말긴다고
40805	얼리다	얼린다고
40806	녹이다	노킨다고
40807	신기다	싱긴다
40808	보이다	선 보인다고
40809	알리다	알린다고도
40810	입히다	이핀다고
40811	얹히다	양친다고
40812	벗기다	베긴다고
40813	웃기다	샤:람 우긴다
40814	썩히다	썩킬라면
40815	숨기다	숨긴다고도 허고

40816	끓기다	궁겨따고 히고
40817	깨우다	깬:다고
40818	돋우다	킨:다고

#### 4.8.2 피동

40819	잡히다	제폐따
40820	깎이다	깨깨따
40821	끼이다	짱긴단 말도 히고
40822	떼이다	띠여따고 그러제
40823	채이다	체여따고
40824	닫히다	다쳐따고는 험데
40825	들리다	잘 들린다고
40826	업히다	등에가 에폐따고
40827	바뀌다	베깨따고
40828	씻히다	씨핀다고도 히고
40829	엎히다	영쳐따고
40830	찍히다	찌케따고
40831	눌리다	눌린다고제
40832	실리다	실려따고
40833	끊기다	끈쳐따고도
40834	글히다	글케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보고 자꾸요
40902	싶다	도:늘 버능거 시푸더니
40903	보다	이버보시라고
40904	버리다	다 머거부런냐고
40905	대다	우리싼다고 그러제
40905	대다	우리싸:코 이따
40906	-나/는가 보다	비가 올랑가비다고도
40907	-나/는가 보다	자능가비다
40908	-나/는가 보다	검나게 충:가비다고

#### 4.10 부사

41001	실컷	실:퀸 먹편지
41002	많이	마:니 명는
41003	너무	너무나
41004	조금	쫘:끔만
41005	자주	자조 간다고 그러제
41006	빨리	빨리 완네
41007	얼른	얼룽 머거버러라
41008	기어코	길:코

41009	가끔	깍:끔 머근다고
41010	먼저	몬자
41011	나중에	나:중에
41012	가득	물 한:나 까:득헤니 체:따고
41013	몽땅	쌈 까존나
41014	모조리	쌈 비여부러따고
41015	혼자	한자만
41016	항상	항시
41017	똑똑히	찬차니 바:라고
41017	똑똑히	똑또기
41018	겨우	포도시
41019	늘	늘:
41020	저절로	지절로 나오제
41021	자꾸	차꼬
41022	설마	설마
41023	하마터면	함바트라먼
41024	함께	항꾸네
41025	걸핏하면	건뜨더먼
41026	공연히	무단씨
41027	그냥	기냥 온다고
41028	매우	히미 겁나게 썰다고
41029	곧장	핑 텅게알따고
41030	벌써	폴:썰 다 끈네따고 그러제
41031	가장	젤: 조타고 그러제
41032	가만히	가만 이씨라
41033	미리	미리 단소글
41034	이따금	깍끔 함번

## 4.11 관용적 표현

### 4.11.1 관용구

41101	여보	호칭 없음
41101	여보	아무게 아빠
41101	여보	아무게 아버지
41101	여보	아무게 엄마
41102	여보세요	아저씨
41102	여보세요	아짐마 아짐마
41103	들어가세요	나 저나 끈는다이~
41103	들어가세요	전화 노세요!
41104	수고하세요	수고하시라고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	자네 오레가네마네 만난네
	의 인사말	이~도 허고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	진잡싸게씨요
	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	
41107	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뵈옵씨다	
	말	

41108	여기 있습니다	돈 바드씨요
41109	예	예
41110	아니	아:니요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암:시랑 안타고 그러제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암:시랑 안헤요
41112	내버려 뒀	네:비두락 헤야제
41112	내버려 뒀	뽽뽽부라고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 를 몰고 다닌다"	쥐나 게나 막 서두네 인자

####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항:강에 독 들치기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도게 물 부끼라고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에레서 현 버르장머리 커서도 헌다고 그러제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부란 뎌 기:뚜게 영기가 나야?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 원 장 이 기 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 영 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 무 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 봉 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 정 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 경 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 강 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 영 목 (충 남 대 학 교)
- ◆ 자문위원 최 명 옥 (서 울 대 학 교)
- ◆ 자문위원 홍 윤 표 (연 세 대 학 교)

